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Ⅲ

Encyclopedia of Turkic Humanities Ⅲ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
Institute for Eurasian Turkic Studies
동덕여자대학교 Dongduk Women's University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Ⅲ

Encyclopedia of Turkic Humanities Ⅲ

오은경, 강덕수, 강인욱, 김근식, 김재윤, 김홍중, 박현도, 송경근, 양민지, 우덕찬, 이수정, 이양희,
이영희, 이은정, 이주연, 장주영, 조성금, 최선아, 추영민, 황영삼, Guzal Mihrayeva 공저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
Institute for Eurasian Turkic Studies
동덕여자대학교 Dongduk Women's University

■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인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2018.7.1~ 2023.6.30, NRF-과제번호 2018SIA5B4060291)의 결과물이며, 그 연구비로 제작되었습니다.

투르크학의 새 지평을 열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은 투르크학(Turkology) 이해에 필요한 인문 분야 전 영역의 주요 개념들을 정리하고 집대성한 것이다. 투르크학은 유라시아 대륙을 발상지이자 근거지로 삼고 있는 투르크 민족들의 언어, 역사, 문화, 사회, 정치, 종교 등 인문·사회과학을 망라한 전 영역에 걸친 분야를 연구하는 종합적인 학문 분야이다. 투르크학의 지역적 범위는 러시아에서 중국, 중앙아시아를 지나 동서양이 만나는 튀르키예까지 하나의 벨트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른바 ‘투르크 벨트’라 불리기도 한다. 튀르키예를 비롯하여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 연방 내 알타이·투바·하카스·사하·바시키르·타타르스탄 공화국 그리고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포함한다.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튀르키예로 이어지는 이 광대한 투르크 언어·문화권은 과거 유라시아 초원 유목문화와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지역으로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방대한 에너지 및 농업 자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으며, 국제 정치와 경제 질서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투르크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는 것은 이런 정치·경제적 영향력의 확대 때문만은 아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형성된 유라시아 투르크 벨트 국가들의 인문학적 유산은 ‘다국적 문화유산’이라는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국경 및 초민족적’ 정체성 형성의 근거가 되는 문화적이며, 철학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투르크 벨트 국가들과 언어 문화적 좌표상에서 그 어떤 민족 집단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이른바 친연성(親緣性)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유라시아 투르크 국가들과의 문화적 상호연관성과 언어·문화적 친연성을 규명하여 상호이해의 공감대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인문학 연구의 확대 강화는 필수적이다. 한국문화의 원류와 실크로드 유라시아 투르크 국가들과의 문화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이를 정치·경제적 교류의 기반으로 활용한다면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 될 것이다.

‘투르크 벨트’ 국가들이 지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르크 인문학 연구는 아직 빈약한 상황이어서 투르크 문화에 관한 진일보된 연구는 물론, 일반인들은 기본 지식 습득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르크학 및 관련 인문 분야에 접근 가능한 ‘투르크학’ 인문사전이 필요하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은 동덕여대 유라시아투르크 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5년간(2018년 8월~2023년 6월) 추진한 토대연구지원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필자가 연구책임자인 이 프로젝트는 ‘투르크인문 백과사전 DB 구축’이었다. 이 연구 프로젝트에는 국내 투르크학 연구자들을 총동원했고, 외국 연구진의 도움을 받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DB를 구축했다. 이 과정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투르크 인문학에 대한 정보와 연구 공백이 적지 않았고, 투르크학 연구자들이 넘어야 할 편견과 인식 부족의 장벽도 높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과 많은 분들의 협력 속에 DB 구축이 이루어졌기에 DB 차원에만 머물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예산을 아꼈고 DB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으로 만들어보려고 결심했다.

DB를 사전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원석을 보석으로 다듬는 연금술이었다.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했다. 고통스러웠지만 사전을 만드는 인고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 준 것은, 이 사전이 미약하나마 국내 투르크학의 정보 공백을 메우고, 우리 사회와 투르크 국가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 때문이었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은 투르크학 연구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연구자들과 기업 관계자, 시민들에게 투르크학 관련 주요 인문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 서비스는 향후 유라시아 투르크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관계 발전 그리고 한국인들의 시야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이 대사전에서 다룬 투르크 인문학의 영역은 언어, 문학, 역사, 예술, 지리, 민속,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종이책과 pdf 전자책으로 출판되고 보급되는 이 대사전은 2,020개의 표제어로 총 8권, 4,000여 페이지의 분량으로 구성된 방대한 자료이다. 또한 이 대사전의 모든 내용은 〈NAVER 지식백과〉에서 정보 제공되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기에 여러 어려움들도 감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실수와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필자와 연구진의 몫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한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사전 작업을 수행하면서 커다란 은혜를 입었고, 마음의 빗을 지게

된 분들이 너무도 많다. 사전작업에 참여한 집필진은 물론 번역, 멀티미디어 자료수집, 감수에 이르기까지 국내는 물론 외국의 자문위원과 연구자 등 참으로 많은 분들이 기꺼이 도움을 주셨다. 누구보다도 'DB에 머물지 않고 사전을 발간하겠다'는 필자의 고집스러운 추진력에 두려움에 떨며 눈물을 흘렸던 최선아 박사, 장주영 박사, 구잘 미흐라예비는 포기하지 않고 작업을 함께 수행해주었다.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함께 해준 그들의 노력과 헌신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특히, 이 사전이 종이와 디지털로 그야말로 '사전'의 모습을 갖추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편집과 교정, 교열, 디자인 영역에서 창의적인 제안은 물론 헌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류수 박사님이야말로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의 숨은 주역이다. 이 사전은 이렇듯 투르크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존중해준 많은 이들의 고통과 인내의 결실이다. 사전이 발간될 수 있는 감격과 감동을 선물해준 모든 분들께 '소외 학문' 투르크학 연구자로서 오직 감사할 뿐이다.

이 대사전은 '한국 최초'이지만, 사실 '세계 최초'이기도 하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투르크학 인문 사전'은 아직 발간된 바가 없다. 앞서 대한민국의 투르크학 연구가 빈약하다고 했지만 그런 한국에서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이 발간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인문학의 저력이기도 하다. 이 대사전이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투르크 국가들이 함께 펼쳐갈 미래를 밝혀줄 작은 등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필자는 사전 발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대신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한다.

2023년 12월

모든 연구진과 집필진을 대표해서

연구책임자 **오은경** 씀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집필진 및 자문위원

대표 집필자 & 편집위원장

오은경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소장

집필자

강덕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 명예교수

강인욱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근식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명예교수

김재윤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홍중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연구교수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대우교수

송경근 전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교수

양민지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교수

우덕찬 부산외국어대학교 터키·중앙아시아학과 교수

이수정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특임강의교수

이영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특임강의교수

이은정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이주연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장주영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

조성금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최선아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

추영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 HK연구교수

황영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Guzal Mihrayeva(구잘 미흐라예바)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문학과 박사수료

집필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배드리한 애흐메들리) Baku Slavic University 교수

Əli Şamil(엘리 샤밀) Azerbaijan National Academy of Science 교수

Nükhət Okutan Davletov(누크헤트 오쿠탄 다블레토브) Cappadocia University 교수

Metin Turan(메틴 투란) KIBATEK(Cyprus, Balkans, Eurasia Turkish Literatures Organization) 회장

Vaqif Sultanlı(와기프 술탄르) Baku National University 교수

집필 · 멀티 미디어 · 표기법 자문위원

손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어과 교수

연구석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 · 아제르바이잔어과 명예교수

윤시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 연구소 초빙연구원

Aziza Bekmatova(아지자 벡마토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 전임교수

Jabbor Eshonqulov(잡보르 에손쿨로프) Literature Museum named after Alisher Navoiy 관장

Кайрат Жадьра(카이라트 자디라) L. N. Gumilyov Eurasian National University 교수

자료 번역

최정안 Erciyes University 박사수료

Leyla Masimli(레이라 마심리) 인하대학교 교육학 박사

일러두기

1. 한국어 표제어 및 인명, 지명, 용어 표기 원칙 및 예외

한국어 표제어 항목과 내용 안의 인명, 지명, 용어는 일반적으로 국립국어원 표기 원칙과 사전표기법위원회가 정한 외국어 표기법(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카자흐어)에 준하여 표기하되 다음 사항을 예외로 한다.

1.1. 인명, 왕명, 지명은 소속 국가, 출신 국가, 해당 국가의 원어에 맞추어 최대한 국립국어원의 원칙에 따라 표기하되, 국내에 이미 널리 퍼져있거나 외교부에서 공인되어 사용될 경우 여기에 맞춘다.

- 〈예〉 앙카라(Ankara)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안카라'가 맞으나 '앙카라'로 표기
- 부하라(Buxoro) : 우즈베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부허리'가 맞으나 '부하라'로 표기
- 시바스(Sivas)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시와스'가 맞으나 '시바스'로 표기
- 튀르키예(Türkiye)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튀르키이에'가 맞으나 '튀르키예'로 표기
- 카라바흐(Qarabağ) : 아제르바이잔어 표기법에 따르면 '가라바그'가 맞으나 '카라바흐'로 표기

1.2. 왕조, 과거 국명, 조직이나 기타 용어는 최대한 원어 발음에 맞추거나 국립국어원의 원칙에 따라 표기하되,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표기법이 없고 국내 학계에 이미 널리 사용되는 용어는 그에 맞춘다.

- 〈예〉 셀주크 조(Selçuklular)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셀츠크루라르' 혹은 '셀츠크 조'가 맞으나 '셀주크 조'로 표기
- 예니체리(Yeniçeri)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이에니체리'가 맞으나 '예니체리'로 표기
- 샤이바니 조(Şayboniylar) : 우즈베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샤이버니 왕조'가 맞으나 '샤이바니 조'로 표기
- 압바스 조(Abbasi) : 국립국어원 원칙으로는 '아바스 조'이나 '압바스 조'로 표기
- 칸국(汗國) : 국립국어원 원칙으로는 '한국'이나 '칸국'으로 표기
- 괭(gök)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괴크'가 맞으나 '괭'으로 표기

1.3. 우즈베크어로 된 인명의 한국어 표기의 경우, 사전표기법위원회가 정한 표기법에 따르면 Mahmud/Mahmut은 '마흐무트', Muhammad/muhammat는 '무함마트'로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 '마흐무드/마흐무트' '무함마드/무함마트'로 표기했다.

1.4. 인명 무함마드(Muhammad)는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무함마드', 아제르바이잔어 표기법에 따르면 '무함마트', 우즈베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무함마트', 카자흐어 표기법에 따르면 '무함마트'이지만 모두 '무함마드'로 통일했다. 고유명사에 압드-(Abd-)가 들어갈 경우 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아브드-', 카자흐어 표기법에 따르면 '압드-'이나 모두 '압드-'로 통일했다. 예를 들면 'Abdulla'는 압둘라로, 'Abdülhamid'는 '압뿔하미드'로 어느 나라 말인지에 관계없이 표기했다.

1.5. 우즈베크인 인명 중 러시아어에서 차용된 인명은 그 어미가 -ov로 끝나는 경우 실제 발음은 '-오프'에 가까우나 원칙에 맞춰 '-어브'로 표기하였다.

* 여러 표기법으로 혼동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에서 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게 했다.

2. 라틴 문자 표기

- 2.1. 라틴 문자 표기는 해당 표제어의 라틴 문자 표기를 말한다. 라틴 문자의 경우 최대한 원어 표기에 맞춘다.
- 2.2. 원어가 키릴 문자나 아랍 문자의 경우 라틴 문자 전사법에 맞추어 표기한다.
- 2.3. 표제어가 학술이나 이론, 개념, 이미 널리 알려진 용어 등의 경우 영어로 표기한다.
〈예〉 신붓값: Bride Price. 각종 투르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kalın, qalın 등으로 표기되어야 하나 영어로 표기
- 2.4. 여러 투르크 사회가 공유되는 개념이 각 투르크어로 달리 표기되는 경우 집필자가 하나로 정하여 사용하되, 어느 나라 언어인지 내용에서 밝힌다.
- 2.5. 모스크, 마드라사, 미너렛 등과 같은 용어가 복합적으로 들어간 표제어의 경우 검색의 용이함을 위해 고유명사는 해당 언어로, 그 외 부분은 영어로 표기한다.
〈예〉 Süleymaniye mosque: 원어는 Süleymaniye camii이지만 검색과 이해의 용이함을 위해 Süleymaniye mosque로 표기

* 사용자가 라틴 문자 이외에 다른 문자로 검색해도 찾을 수 있도록 '다국어 표기'를 통해 검색의 용이성을 높였다.

3. 시대 구분

- 3.1. 기본적인 시대 구분은 다음과 같이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B.C. ~ A.D. 1000년
A.D. 1000년 ~ A.D. 1500년
A.D. 1500년 ~ A.D. 1800년
A.D. 1800년 ~ 현대
기타
- 3.2. 시기 구분은 이슬람 역사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대 구분법을 차용한 것으로 현대 투르크 인구 다수가 이슬람교를 믿는 것에 기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 3.3. 시대 구간이 위의 시기 구분 여러 개에 걸쳐 있을 경우 통합하여 표기했다.
〈예〉 A.D. 1000년 ~ A.D. 1500년, A.D. 1500년 ~ A.D. 1800년
=> A.D. 1000년 ~ A.D. 1800년
- 3.4. 기타는 해당 표제어를 포함하는 시기가 불분명하거나, 시기가 필요 없는 이론, 여러 시기를 걸쳐 공유될 경우에 사용된다.

4. 지역 구분

4.1. 지역은 다음 다섯 지역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 북아시아
- 동아시아
- 서아시아
- 중앙아시아
- 기타

4.2. '기타'는 해당 표제어를 포함하는 지역이 불분명하거나, 지역 구분이 의미가 없을 경우, 유럽이나 아프리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 제시된 지역 외의 지역을 구분할 때 사용한다. 캅카스는 서아시아에 포함했다.

5. 국가

국가는 해당 표제어의 내용이 존재하거나 사건이 발생한 대표 국가를 의미한다. 이 국가는 현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표제어를 대표하는 국가를 표기함으로써 검색의 편의성을 위하여 표기한 것이지 절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오스만 제국'과 관련한 표제어의 경우 현대 기준으로 튀르키예를 비롯하여 발칸 반도의 일부 국가, 북아프리카 일부 국가, 아랍 일부 국가를 포함할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튀르키예만 표기하였다.

6. 유형

6.1. 유형은 언어, 문학, 역사, 예술, 지리, 민속, 종교 7개 항목으로 분류한다.

6.2. 유형이 중복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했다. 유형 분류는 집필자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에 기반하여 정해졌다.

〈예〉 쉴레이마니이에 모스크의 경우 '종교' 유형과 '예술' 유형이 가능한데 '예술'로 분류했다.

6.3. 유형 소분류 1, 2는 유형의 하위 분류이다. 유형 소분류 1은 대체로 유형 소분류 2의 상위 항목이나, 아닌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 소분류 2가 작성되지 않았다.

7. 집필자

집필자는 해당 표제어를 작성한 저자이며, 이 집필자가 2명 이상인 것은 공동집필한 것이다. 집필자 이름 옆에 표기된 '자문위원'은 해당 표제어를 작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해외의 학자들이다.

8. 멀티미디어 링크

멀티미디어 링크는 표제어와 관련된 멀티미디어 자료 링크이다. 다만, 이 링크는 인터넷상의 자료로 집필진이 작성한 자료는 아니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자료의 저작 및 관리 책임은 해당 자료의 소유주에게 있으며, 소유주가 자료를 삭제한 경우 링크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9. 다국어 표기

다국어 표기는 해당 표제어의 외국어 표기를 말한다. 이 표기는 주로 투르크어(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카자흐어 등)를 위주로 표기했으나 해당 투르크어가 확인되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는 기타 다른 외국어로 표기했다. 다른 외국어는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등 표제어와 관련이 깊은 언어를 주로 제시했다.

10.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표제어를 집필하는데 사용된 참고문헌으로 표기 방식은 저자의 의사를 따랐다. 인용하는 문헌들의 출판 국가가 다양하고, 참고문헌 표기법도 상이하여 통일된 표기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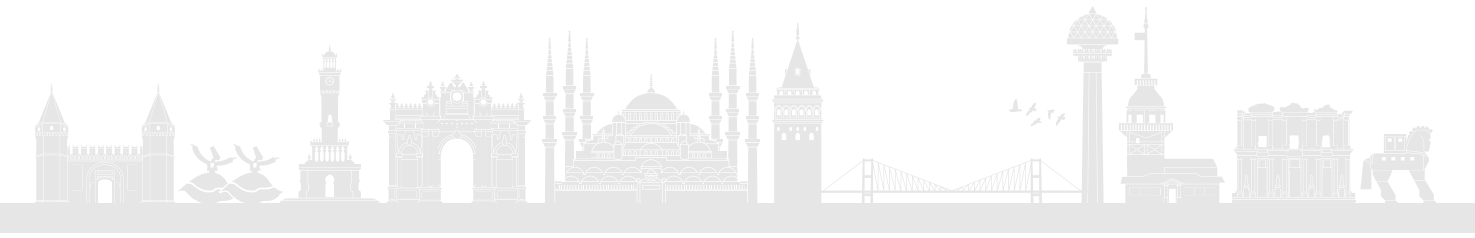
온라인 참고문헌의 경우, 표제어를 집필하는데 사용된 온라인 문서로 경우에 따라 해당 링크에 연결된 문서가 소멸될 수 있음을 밝힌다.

11. 링크(link)의 연결

멀티미디어, 참고문헌(온라인) 등에서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PDF 전자책에서 누르면 해당 자료로 이동한다. 단, 소유주가 자료를 삭제한 경우 링크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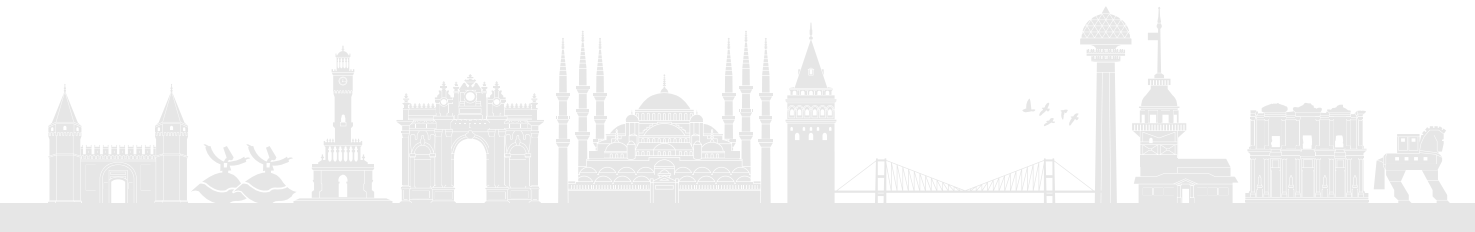
12. 사진 Source

Source를 별도로 밝히지 않은 사진은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나 연구진이 보유하고 있거나, 집필자 및 자문위원이 기증한 사진, RF123, Shutterstock 등에서 구입한 사진이다. Source를 밝힌 사진들은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UNESCO 등 공적 기구, 대학교, 연구기관, wikimedia 등 비영리단체, amazon 등 온라인 커머스 회사 자료들이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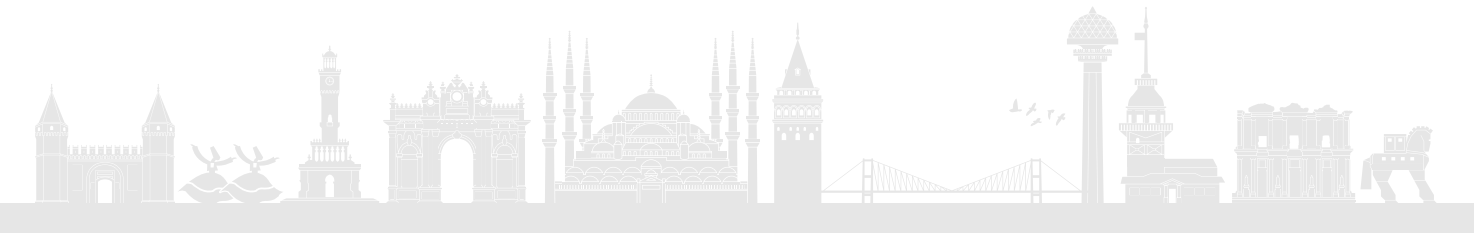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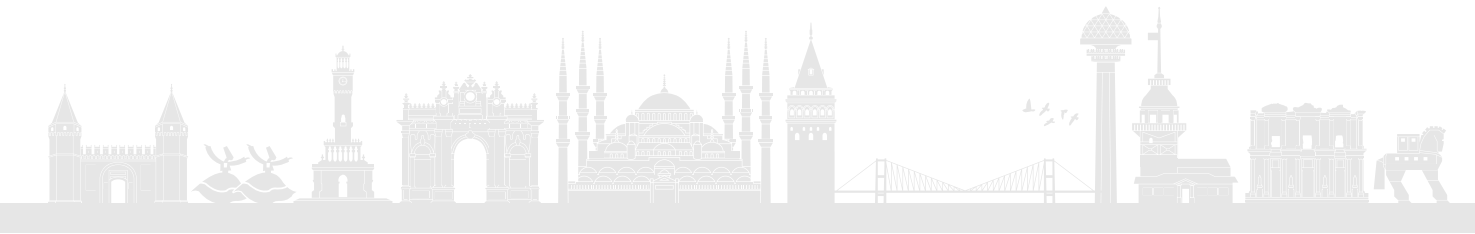
| | | | |
|--------------------------------|-----|--------------------------------|-----|
| 서문 | 003 | I C021 바시쿠르트..... | 058 |
|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집필진 및 자문위원 | 006 | I C022 바시키르공화국(바시코르토스탄)..... | 061 |
| 일러두기 | 008 | I C023 바시키르어..... | 063 |
| | | I C024 바야트..... | 064 |
| I C001 바그르의 검..... | 019 | I C025 바얀 운데르 유적..... | 066 |
| I C002 바다호선..... | 020 | I C026 바얀추르(시네 우수 비문) | 068 |
| I C003 바두트 마흐무드..... | 022 | I C027 바양 불락..... | 069 |
| I C004 바라카..... | 024 | I C028 바우으르삭..... | 071 |
| I C005 바라크 아타..... | 025 | I C029 바을라마..... | 072 |
| I C006 바라흐샤 궁전 | 027 | I C030 바이드백-아타 | 074 |
| I C007 바르나 전투..... | 029 | I C031 바이바르스..... | 075 |
| I C008 바르라스..... | 031 | I C032 바이바르스 모스크..... | 078 |
| I C009 바르바로스 하이렛딘 파샤..... | 033 | I C033 바이에지드 1세 | 081 |
| I C010 바르부르가즈..... | 035 | I C034 바이에지드 2세 | 083 |
| I C011 바르스바이 | 037 | I C035 바일로..... | 085 |
| I C012 바르스백 카간..... | 039 | I C036 바쿠..... | 087 |
| I C013 바바이운동..... | 041 | I C037 바쿠 금요 모스크 | 089 |
| I C014 바반 가문..... | 042 | I C038 바트르 약잔..... | 091 |
| I C015 바밧지 하툰 영묘 | 044 | I C039 바하엠티딘 외겔..... | 092 |
| I C016 바백..... | 046 | I C040 바흐쉬..... | 094 |
| I C017 바부르..... | 050 | I C041 박트리아..... | 098 |
| I C018 바브 으 알리..... | 052 | I C042 발라사군 | 101 |
| I C019 바브사크와 쿠세크..... | 054 | I C043 발라쉬 아재르오글루 | 103 |
| I C020 바스마치운동..... | 055 | I C044 발르악-소오크..... | 1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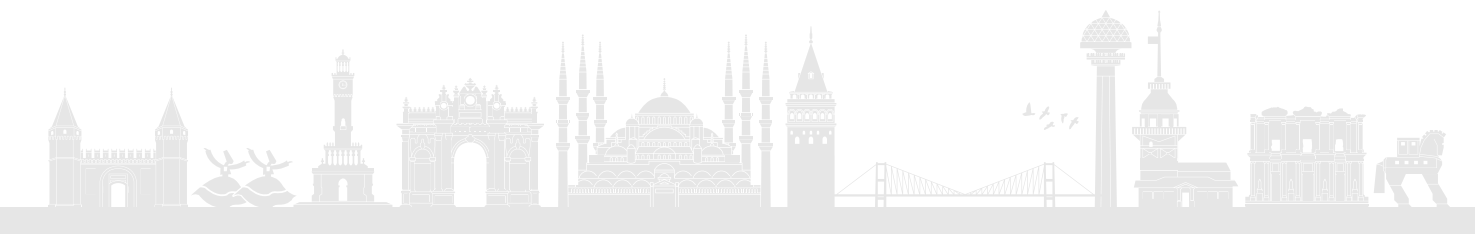
| | | | |
|-----------------------------|-----|--------------------------------|-----|
| I C045 발발..... | 106 | I C069 베다올 루가트..... | 150 |
| I C046 발카르인..... | 108 | I C070 베데스텐..... | 151 |
| I C047 발카리아..... | 109 | I C071 베르가마..... | 154 |
| I C048 발타 리마느 조약..... | 112 | I C072 베르흐-우이몬..... | 155 |
| I C049 발흐..... | 113 | I C073 베른스탐..... | 156 |
| I C050 밤과 낮..... | 115 | I C074 베를린 조약..... | 158 |
| I C051 밤스 베이레크..... | 118 | I C075 베벌드 스타일..... | 159 |
| I C052 배디르한 애흐매들리..... | 120 | I C076 베쉴 터이..... | 160 |
| I C053 바이릭..... | 122 | I C077 베스바르막..... | 162 |
| I C054 배이바시오 의식..... | 124 | I C078 베쉬다쉬..... | 164 |
| I C055 배키르 내비예브..... | 126 | I C079 베심 아탈라이..... | 165 |
| I C056 배키르 초반자대..... | 128 | I C080 베이코즈 유리..... | 167 |
| I C057 배흐티야르 와함자대..... | 130 | I C081 베이뿔말..... | 169 |
| I C058 백등산 전투..... | 133 | I C082 베제클리크 38굴 마니교 벽화..... | 170 |
| I C059 백색과 관련된 민속 신앙..... | 134 | I C083 베제클리크 석굴 형태와 벽화..... | 173 |
| I C060 버러 유적..... | 136 | I C084 베클라르베크..... | 175 |
| I C061 버버 데흐켄..... | 138 | I C085 베흐제뿔 하다이르크..... | 177 |
| I C062 버스피이..... | 139 | I C086 베흐체트 네자타길..... | 178 |
| I C063 버제흐..... | 141 | I C087 벡-볼라트..... | 182 |
| I C064 버키 무함마드 칸..... | 142 | I C088 벡타시 종단..... | 183 |
| I C065 버투..... | 143 | I C089 벨티르..... | 185 |
| I C066 범이슬람주의..... | 144 | I C090 베숙..... | 186 |
| I C067 범투란주의..... | 147 | I C091 베이..... | 187 |
| I C068 베그..... | 149 | I C092 베타샤르..... | 188 |



| | | | |
|-------------------------------|-----|-----------------------|-----|
| C093 보동구 유적..... | 190 | C121 부하라..... | 234 |
| C094 보드룸..... | 191 | C122 부하라 칸국..... | 236 |
| C095 보로보예..... | 193 | C123 북위..... | 238 |
| C096 보로탈 1 유적..... | 195 | C124 북정 서대사..... | 239 |
| C099 보르한 툴고이..... | 198 | C125 불라의크..... | 241 |
| C100 보마 유적..... | 199 | C126 불란 토이름..... | 242 |
| C101 버버 데흐콘..... | 200 | C127 불란코바 문화..... | 243 |
| C102 보브린스키 물통..... | 201 | C128 불 신앙..... | 244 |
| C103 보브켄트 미너렛..... | 203 | C129 불의 며느리..... | 247 |
| C104 보스포러스 해협..... | 205 | C130 뷔렌트 예제비트..... | 248 |
| C105 보자..... | 207 | C131 브랑코비치 가문..... | 249 |
| C106 보즈네센스크 성당(젠코프 성당)..... | 208 | C132 비나야약사변상도..... | 251 |
| C107 복합단지..... | 210 | C133 비루니..... | 253 |
| C108 볼보고르 비문..... | 212 | C134 비마리스탄..... | 255 |
| C109 뵈겐바이 바트르..... | 214 | C135 비비-무시킬쿠쇼..... | 258 |
| C110 부구트 비문..... | 215 | C136 비비 주드무러트..... | 259 |
| C111 부라나 탑..... | 217 | C137 비비 허눔 모스크..... | 260 |
| C112 부르사..... | 219 | C138 비비헤이벳 모스크..... | 263 |
| C113 부르사 대 모스크..... | 222 | C139 비수라..... | 265 |
| C114 부르칸..... | 225 | C140 비슈케크..... | 266 |
| C115 부르크트 아타..... | 226 | C141 비시렐틴 암 유적..... | 268 |
| C116 부르크트-살루..... | 228 | C142 비즈리 무덤..... | 269 |
| C119 부타시..... | 232 | C143 비직티그 카야..... | 270 |
| C120 부파르..... | 233 | C144 비추란..... | 271 |



| | |
|-----------------------------------|-----|
| I C145 비케..... | 273 |
| I C146 빅토르 쇼그자포비치 콧-올 | 274 |
| I C147 빌게 카간 비문 | 275 |
| I C148 빌리 방..... | 277 |
| I C149 빌헬름 루드위그 피터 통슨 | 279 |
| I C150 빌헬름 피터 그뢴베크 | 281 |
| | |
|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연구용역 개요 | 283 |
|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집필진 및 자문위원 소개 | 286 |



제1권 A001 13세기 이전 투르크어원 사전 ~ A284 리파이 중단

제2권 B001 마고키 아타리 모스크 ~ B284 밀레트

제3권 C001 바기르의 검 ~

C150 빌헬름 피터 그윈베크

제4권 D001 사가이 ~ D215 심판의 날

제5권 E001 아가 ~ E256 얼림 칸

제6권 F001 에게해 분쟁 ~ F270 잉판 유적

제7권 G001 자디드운동 ~ G348 킵차크어파

제8권 H001 타가르 문화 ~ H310 히스랏

I C001 | 바기르의 검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물 ● 유형 소분류2 유적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The Sword of Bagyr

지금의 투바 공화국 국경 주변의 에일리그-헴 지역에서 1960년대부터 발굴 사업이 진행된 울루그-호름 고분들 중 2번 고분에서, 그 표면에 쿠팅 서체로 코란 구절이 적혀 있는 강철검이 발견되었다. 발굴 작업이 수행된 고분에서는 비문도 발견되었는데, 이 비문은 카라 불II(Kara Bul II) 혹은 바기르(Bagır) 비문이라 명명되었다.

비문에는 ‘내 이름은 바기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바기르의 검’이라고도 알려진 이 검에 대하여 역사학자 바르톨드는 예니세이 키르기스인들이 국경의 확장으로 인해 이슬람 세계와 대면했을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 검이 키르기스 칸국 시대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후 대대로 이어 내려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르톨드에 의하면 이 검은 일종의 전리품으로 볼 수 있으며, 예니세이 키르기스인들도 유럽 훈족들과 같이 부장품으로 무기 등을 함께 묻는 풍습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 지역 고분들에서는 바기르의 검 이외에 철로 만들어진 또 다른 검들이 발견되었다. 후드야코프(Hudyakov)는 “모든 무기와 마구들을 장례식 장작더미에서 화장한 뒤 이후에 무덤에 안치되어 매장된 고인의 옆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샤머니즘의 전통에 따라 가운데 부분이 휘어진 상태인데, 부서지거나 구부러진 바기르 검은 상징적으로 그 물건의 주인인 바기르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기르 검
- 다국어 표기 Меч Багыра(러시아어), Bagır'ın Kılıcı(튀르키예어), The Sword of Bagyr(영어)
- 연관 검색어 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tuva.asia/uploads/posts/2016-01/1452620034_1452113018_mech-bagyra1.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Okutan Davletov N., *Hakas Türklerinde Şamanizm ve Ölüm*. İstanbul: Ötüken Neşriyat, 2021.

I C002 | 바다흐션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Badaxshon

바다흐션(우즈베크어, Badaxshon; 영어, Badakhshan)은 아무다리야강의 상류에 위치한 지역으로, 현재 그 북쪽은 타지키스탄에, 남쪽은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걸쳐 있다. 지형이 산과 산기슭으로 작은 언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덕으로 이루어진 땅이라는 뜻으로 ‘쿠히스탄(Kuhistan)’이라고도 불린다.

이 지역은 수 세기 동안 작은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다흐션의 왕들이 통치해 왔다. 중앙아시아에 있던 거대한 왕국들에 충성을 맹세하고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들은 아미르 티무르 및 티무르 왕조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했지만, 기회만 있으면 독립을 시도했다. 이 때문에 술탄 아부사이드(Abusa'id)는 바다흐션의 왕인 술탄 무함마드(Muhammad)와 그의 아들을 살해하고 왕조를 종식시켰다.

당시 바다흐션의 행정 중심지는 ‘키심(Kishim)’이라는 도시였다. 『바부르나메(우즈베크어: 버부르너마, Boburnoma)』에서는 중앙아시아의 정치적 상황과 바다흐션이 갖고 있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술탄 압두사이드(Abdusa'id) 통치시기 및 그 후까지도 이 지방은 그의 아들 술탄 마흐무드 미르저(Mahmud Mirzo)의 지배 하에 있었다. 예를 들면, 몽골의 칸 유누스현(Yunusxon, 재위: 1468년~1487년)이 바다흐션의 왕 술탄 무함마드의 딸 셔흐베김(Shoxbegim)과 결혼했다는 것만 보아도, 이 지역이 15세기에는 행정적으로 티무르의 왕국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과 술탄 마흐무드 미르저(Mahmud Mirzo)의 통치 하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05년에는 바부르의 동생 너시르 미르저(Nosir Mirzo)가 바다흐션의 권위자로 부상했다. 그는 샤이반 왕조의 공세로부터 바다흐션을 강력하게 방어해냈다. 그러나 권력자들과의 분쟁으로 카불로 떠나야 했다.

1507년에는 바다흐션은 미르저현(Mirzoxon)의 통치 하에 넘어가는데 얼마 후, 미르저현은 바부르 왕조를 인정하고 1521년까지 시장의 자격으로 지역을 통치한다. 미르저현이 죽자 이 지



바다흐션

역은 후머윤(Humoyun)이 통치하게 된다. 1524년~1525년 바부르와 후머윤은 인도 원정을 함께 떠나게 되고, 인도 정벌 후 후머윤(Humoyun)은 바다흐션으로 돌아간다.

바부르는 이 지역에 미르저현(Mirzoxon)의 아들인 술레이먼 미르저(Sulaymon Mirzo)를 주지사로 임명하여 술탄 사이드현(Sa'idxon)을 견제한다. 1530년~1575년대에는 바다흐션을 술라이먼셔흐(Sulaymonshox)와 그의 후손들이 다스렸다. 이 지역은 1584년에는 샤이반 왕조 압둘라현(Abdullaxon) 2세에 의해 정복되었다. 그의 죽음 이후 남부 바다흐션은 분리되어 나갔다. 후에 북부 바다흐션은 부하라 칸국의 일부가 되었으며, 남부는 아프가니스탄의 일부가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다흐산, 바다크산, 쿠히스탄
- 다국어 표기 БАДАХШОН(러시아어), Badaxshon(우즈베크어), Badakhshan(영어)

● 연관 검색어 아미르 티무르, 바부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gdb.voanews.com/596E2468-C17C-4F79-80C8-FB7AAC2503F6_w650_r1_s.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Абдураззоц Самарцандий. Матлаи саъдайн ва мажмаи бахрайн. Т., «Узбекистон», 2008.
Мухаммад Гайдар Мирзо. Тарихи Рашидий. Т., «Шарх», 2010; Хон- дамир. Хабибус-сияр. Т., «Узбекистон», 2013.

I C003 | 바두트 마흐무드

● 시기 A.D.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비평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Vadud Mahmud



바두트 마흐무드
Source: <https://img-fotki.yandex.ru>

바두트 마흐무드(Vadud Mahmud)는 1898년에 사마르칸트에서 태어났다. 사마르칸트에서 학업을 시작한 후 1917년~1918년 우파(Ufa)의 마드라사에서 공부했고, 1929년~1926년에는 모스크바 발레리 브류소프 고등 문학대학교에서 수학했다. 이후, 타슈켄트 국립 중앙아시아 대학교 경제학부를 다녔다. 동시에 1919년부터 1925년까지 교사로 근무했다. 1926년부터 1927년까지 잡지 <교육과 교사(Maorif va o'qitg'uvchi)>의 보조 편집자로 일했으며 1926년부터 1929년까지 타지크 국립 출판사에서 번역과 교과서 편집 일을 했다. 또한, 타지키스탄 공화국 과학아카데미의 루다키 언어 및 문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타지크어 사전(Farhangi zaboni tojiki)』 편찬에 참여했고, 고전시를 연구했다.

바두트 마흐무드는 1920년대를 전후하여 당시 사마르칸트의 문인이었던 허지 무인(Hoji Muin), 압두라우프 피트랏((Abdurauf Fitrat), 바스리이(Vasliy), 마흐무트호자 베흐부다이

(Mahmudxo'ja Behbudiy) 등의 영향을 받아 문단에 데뷔했다. 초기에는 주로 문학 비평과 칼럼을 썼다.

그는 문학 비평, 저널리즘 기사를 <가난한 자들의 소리 (Kambag'allar tovush)>, <자라프션(Zarafshon)>, <투르키스탄(Turkiston) >, <혁명(Inqilob) >, <교육과 교사(Maorif va o'qitg'uvchi) > 등의 잡지와 신문에 필명을 여러 개로 바꿔가며 정기적으로 기고했다. 특히 고전문학 작가들과 당대 문학비평에 대한 귀중한 글을 남겼다. 대표적으로 「인도 번역자들(Hind ixtilolchilari, 1923)」, 「투르크의 시인 아즈지이(Turk shoiri Ajziy, 1924)」, 「알리셰르 나버이이(Alisher Navoiy, 1925)」, 「푸주리의 바그도다이(Fuzuliy Bag'dodiy, 1925)」 등을 꼽을 수 있다.



『바두트 마흐무드 선집』 표지
Source: <https://kitobxon.com/>

1917년 이후 바두트 마흐무드는 사마르칸트 지역 교육부장 직책을 맡아 일하게 된다. 그는 이 시기에 「어린이 교육(Bolalar tarbiyasi)」, 「교육의 임무(Maorif ishlari)」, 「학교 실태(Maktablardagi ahvol)」, 「우리의 교육(Maorifimiz)」, 「의무교육(Majburiy oqish)」 등 교육 관련 글을 집필했다.

그의 문학관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세계관은 소련 정부의 이데올로기와 일치하지 않았다. 때문에 그는 처참한 감옥생활을 하게 된다. 1930년 소련 정권을 위협하는 반(反)정부 선동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그는 1931년 10월에 카자흐스탄에 있는 노동 수용소에 수감된다. 이후 3년형이 추가되어 타슈켄트 수용소를 거쳐 알마티로 유배된다. 그는 1936년 말~1937년 초에 간신히 수용소에서 돌아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1937년 8월 ‘국민 연합(Milliy ittihad)’의 회원이었다는 것과 과거에 민족주의 선전에 가담했고, 당시 유명한 민족주의자 이스머일 사드리(Ismoil Sadriy)와 관련이 있었다는 혐의로 다시 10년 형을 선고받는다. 그리고 아르한겔스키의 카르고폴 감옥으로 유배된다. 1944년에는 이 감옥에서 수감자들 사이에서 바하교(bahoizm)를 전파한 혐의로 추가로 10년 형을 더 선고받는다. 그는 1959년에야 석방되어 사마르칸트로 돌아간다.

바두트 마흐무드는 1960년에 결백함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1976년에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두트 마흐무트, 와두드 마흐무드
- 다국어 표기 Vadud Mahmud(우즈베크어), Вадуд Махмуд(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피트랏, 베흐부디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img-fotki.yandex.ru/get/894110/395936343.52/0_162dac_7c7f54ac_orig.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Mahmud Vadud, *Tanlangan asarlar*, Toshkent: Man'aviyat, 2017.
Nazarov B. va boshqalar, *O'zbek adabiy tanqidchiligi tarixi*, Toshkent: Cho'lpon nomidagi nashriyot-matbaa ijodiy uyi, 2012.

I C004 | 바라카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정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Baraka



Baraka를 뜻하는 아랍어

바라카(Baraka)는 ‘축복’, ‘풍요’ 등의 의미를 지닌 용어인데, 예배와 의식을 통해 축복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이슬람교에서는 알라의 힘이 그가 선택한 대상에 깃들어 지속되는 축복을 의미한다.

코란에서는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세 번 정도 언급된다. 자비와 평화와 함께 언급되고, 다른 장에서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축복의 물이 문을 열 것이라

고 표현되어 있다. 노아의 홍수를 설명하며 노아와 그 동반자들이 홍수가 끝난 후 배에서 내리며 알라의 축복을 받았다고 설명할 때 사용되었다. 단수형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늙어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축복이 깃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이 표현을 썼다. 이 축복은 단지 인간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어서 감람나무, 코란, 카바 등이 알라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수피즘에서도 바라카가 강조된다. 수피즘에서는 밀교적 지식과 마음을 통한 신과의 영적 합일을 강조하는데, 바라카는 이 과정에서 신의 선택을 받은 자에게 깃들게 된 힘이다. 신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신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따른 자들로서, 그들을 축복함으로써 신성과 세속을 연결시킨다. 이 바라카는 그것이 깃든 인물에 머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흐르는 힘으로써, 각종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 이런 연유로 대중들이 수피 성자의 영묘 방문을 통해 바라카를 받을 수 있다고 믿기도 한다.

수피 수행 과정 중 일정 단계에 올라가는 이들에게 흐르카(또는 키르카)라는 망토 형식의 겹옷을 입히는 의식이 있는데, 이를 통하여 바라카가 전달된다고 믿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라카, 베레켓, 바타, 배래켓

● 다국어 표기 bereket(튀르키예어), Bərəkət(아제르바이잔어), Gara(카자흐어), Baraka(우즈베크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Meri, Josef W. "Aspects Of Baraka (Blessings) And Ritual Devotion Among Medieval Muslims And Jews in "Medieval encounters"" *Medieval Encounters* · December 1999, Brill Leiden pp.47~69.
Tümer, Günay. "BEREKET", TDV *İslâm Ansiklopedisi*cilt 5, Istanbul: TDV, 1992, pp.487~489.

I C005 | 바라크 아타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몽골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화 ● 유형 소분류2 생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Barak Ata

머리는 개, 몸은 사람인 투르크 신화 속 존재인 바라크(barak)는 개의 일종으로 잘 달리고 털이 많은 품종이라고 한다.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Dîvânu Lugâti't-Türk)』에는 바라크를 '털이 매우 많은 개'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케르케스 새(Kerkes 또는 투룰 Turul, 전설 속의 새)는 나이가 들면 알을 두 개 낳아 품는데 케르케스가 낳은 알 하나에서는 무엇이 태어나는지

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다른 알에서 바라크가 탄생한다고 쓰고 있다. 바라크는 개들 중 가장 빨리 달리며 가장 사냥 실력이 뛰어나다. 다른 구전에 의하면 바라크는 주로 검은색이며, 혀가 없으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다고 한다. 지푸라기 위에서 살며 수명은 170년~200년이다.

타타르 투르크의 샤먼들은 바라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다. 노가이 투르크에게 바라크는 늑대를 대신한다. 부라트인들은 스스로를 바라크의 후손이라고 여기기도 했다. 이런 바라크의 머리를 가진 이들을 바라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라크 아타(Barak Ata) 또는 바라크 바바(Barak Baba)라고 불렀다. 이오룩(Yoruk) 투르크 샤먼들은 바라크 바바는 곰처럼 움직이고 원숭이처럼 말하며 물소처럼 커다란 존재라고 설명한다. 오구즈 칸의 전설에는 바라크 부족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온다. 이 전설에서는 바라크 부족의 등장으로 인류가 살던 시대가 끝나고 괴상한 짐승의 시대가 되었다고 묘사한다. 뵈기 카간(Bögü Han, 또는 모우가한(牟羽可汗), 재위: 759년~780년)이 이동하면서 너무 앞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손과 발이 짐승과 비슷한 사람을 만났다고 기술하기도 했다. 또한, 바라크(혹은 바라크 부족인)들은 불가강 근처 어둠의 나라에서 살고 있었고, 바라크를 통치하는 것은 킵차크인이라고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개는 투르크인에게 늑대보다 약한 존재로 취급되었고, 이슬람 이후에도 좋은 이미지를 가진 동물은 아니다. 그럼에도 바라크와 바라크 아타는 투르크 민속 신앙에서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락, 바라크 아타, 바라크 바바
- 다국어 표기 Barak Ata(튀르키예어), Barak Ata(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온라인) Kalafat, Yaşar. “Barak Baba ve Hayvan Ata miti”, <http://kulturevreni.com/16-51.pdf>, (20.01.2020)
- 참고문헌(오프라인) Ögel, Bahaeddin. *Türk Mitolojisi* cilt 1, 5.baksı, Ankara: Türk Tarih Kurumu Yayınları, 2010. Çoruhlu, Yaşarç. *Türk mitolojisinin ana hatları*, İstanbul : Kabalıcı Yayınevi, 2010.

I C006 | 바라흐샤 궁전

● 시기 B.C.~A.D. 10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궁전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Varaxsha saroyi

바라흐샤(또는 바라크샤)는 부하라에서 30km 북서 방향에 위치한 도시인데 1937년 고고학자들에 의해 궁전이 발굴되었다. 이 궁전은 기원후 5세기경에 건설된 것으로 보이며, 발굴된 유적은 아랍인들의 침략이 있었던 7세기~13세기 이전 작품으로 보인다. 궁전 주변에서는 몇 채의 건물이 더 발굴되기도 했다. 궁전의 마지막 주인은 부카르 쿠다스(Bukhar Khudahs) 왕조로 보이며, 일부 학자들은 서돌궐에 의해 건설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바하라샤 궁전 유적지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바라흐샤 궁전 벽은 트란스옥시아나와 호라즘 지역의 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양각 형태로 조성되어 있다. 붉은 방, 동편 방, 서편 방, 큰 동편 방 등으로 불리는 방들이 발굴되었으며, 벽화가 특히 유명하다. 7.92m² 크기의 붉은 방은 전체적으로 붉은색 바탕이다. 벽화는 바닥에서부터 1.8m~2.1m 높이까지 그려져 있다. 붉은 방에는 날개 달린 사자나 낙타와 같은 상상의 동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코끼리 위에 앉은 기사가 사자와 호랑이와 싸우는 그림도 발굴되었다. 전체적으로 신화적인 주제가 주를 이룬다.

이에 반하여 서편 방 벽화는 전쟁 장면을 담고 있다. 이 전쟁 장면에서 뒤를 향하여 활을 날리는 자세는 투르크 그림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것이어서 이 궁전과 투르크와의 관계에 대한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큰 동편 방도 현실적인 주제의 벽화를 담고 있다. 훼손이 심하여 정



바라흐사 궁전 벽화

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영접이나 예식 등을 그린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이 방이 행사나 알현 등에 이용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벽화 이외에는 스투코 등으로 장식되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와락샤 궁전, 바락샤 궁전
- 다국어 표기 Varaxsha saroyi(우즈베크어), Varahşa sarayı(튀르키예어), Varakhsha Palace(영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sogdians.si.edu/wp-content/uploads/2018/10/N2-17VarakhshaCombined.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Cezar, Mustafa. *Anadolu öncesi: Türklerde şehir ve mimarlık*, İstanbul : Türkiye İş Bankası, 1977. Gözde Sazak, “Varahşa Sarayı Duvar Resimleri;”, *Tarih Dergisi*, Sayı 57 (2013 / 1), İstanbul 2013, pp.1~23.

I C007 | 바르나 전투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기타 ● 나라 튀르키예, 헝가리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전투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Battle of Varna

바르나 전투는 1444년 11월 10일 불가리아 동부 바르나에서 오스만 술탄 무라드 2세의 오스만군이 폴란드의 국왕이자 헝가리의 국왕인 브와드스프 3세(Władysław III: 재위 1440년~1444년)와 후녀디 야노시가 지휘한 폴란드-헝가리 연합군을 격파한 사건이다.

바르나는 오랜 역사를 가진 지역이다. 기원전 6세기 밀레토스-오데소스로 불려졌는데, 이후 발칸반도에 슬라브족들이 남하하면서 오데소스는 바르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10세기 후반 바르나는 비잔티움과 불가리아가 통치하게 되면서 비잔틴 제국의 일부가 되었으며, 1340년대부터 불가리아 왕국에서 분리된 도브루자(Dobrudja)의 소유가 되었다.

1442년부터 1443년까지 벌어진 후녀디 야노시의 원정 실패로 술탄 무라드 2세는 헝가리와 10년간 평화조약을 맺었다. 하지만 평화 조약은 체사리니 추기경과 비잔틴 황제의 개입으로 인해 무효가 되어버렸으며, 교황은 오스만 제국으로 십자군을 편성하고 1444년 8월 4일 전쟁을 선포한다. 기독교 연합군은 크게 폴란드군과 헝가리군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왈라키아, 리투아니아, 세르비아, 루테니아의 군대가 참여하여 구성되었지만, 수적으로는 오스만 제국에 열등했다.

한편 평화조약을 맺은 이후 1444년 돌연 은퇴를 선언한 무라드 2세는 12살이 된 그의 아들 메흐메드에게 술탄 직위를 물려준다. 하지만 기독교 연합군의 전쟁선포 소식에 그는 당시 재상으로 유임하던 할릴 파샤의 권유로 다시 술탄으로 복위하여 새롭게 군대를 편성하고, 1444년 11월 9일 무렵 오스만군을 이끌고 바르나로 향했다.

헝가리군과 오스만군은 당시 비잔티움의 영토였던 바르나에서 1444년 11월 10일 전투를 시작했다. 당시 헝가리군 병력은 약 15,000명이었고, 오스만군이 보유한 병력은 약 40,000명이었다. 헝가리 군대는 이전 전쟁 경험을 토대로 전투용 마차에 화포를 싣고 오스만 병사를 공격했는데, 만일 공격에 실패할 경우 전투용 마차는 철수하며, 대포와 소총만으로 오스만 병사들에 맞설 계획이었다. 수레와 포병은 군의 후방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왕은 500여 명의 군사들



바르나 전투, 안 마테이코 작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과 함께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다. 가장 강력한 병사들은 습지대에서 바르나까지 이어지는 위험한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다.

흑해와 바르나 호수, 그리고 숲으로 우거진 고원 산비탈 곳곳에 잠복해 있던 오스만 군사들은 적을 완전히 포위했으며, 기독교 연합군은 산발적으로 도망쳤지만, 대부분 무참히 살해당했다. 브와디스와프와 후녀디는 두 개의 기병 부대를 배치하여 오스만군에 대항했고, 일시적으로 유럽의 군대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 이에 술탄은 군대를 철수하여 돌아가고 있었는데, 브와디스와프는 후녀디의 조언을 무시하고 철수하는 오스만군을 500명의 폴란드 기병대를 이끌고 공격했다. 하지만, 결국 예니체리 근위부대에 포위되어 브와디스와프는 목이 잘린 채 오스만 궁정으로 보내졌고, 사기가 떨어진 폴란드 기병대는 오스만군에게 격멸당한다.

오스만 제국이 전투에서 승리하긴 했으나 적지 않은 사상자로 인하여 중부 유럽으로 진격하는 것을 포기하고 퇴각한다. 당시 전투에서 잡힌 포로들은 대부분 살해되거나 노예로 팔리게 되었다.

바르나 전투는 오스만 제국이 발칸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서구 열강의 기독교 세력은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비극적인 상황을 맞아야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르나, 와르나전투
- 다국어 표기 Varna Muharebesi(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6/6f/Battle_of_Varna_1444.PN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varna-muharebesi>
- 참고문헌(오프라인) 도널드 퀴터트 저, 이은정 번역, 『오스만 제국사』, 사계절,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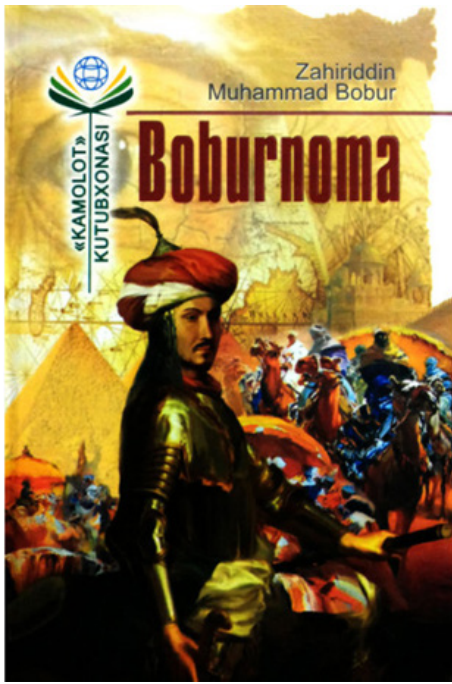
Ⅰ C008 Ⅰ 바르라스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Barlas

바르라스(Barlas)는 투르크 민족 중의 하나인데, 주로 우즈베크계로 분류된다. 바르라스의 기원에 대해서는 바르톨드(V.V. Bartold)와 같이 바르라스가 투르크화된 몽골 부족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야쿠보스키(A. Yu. Yakubovskiy)와 같이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바부르(Bobur)를 포함한 티무르 왕조들이 바르라스(barlas) 부족에 속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런데 정작 바부르(Bobur) 자신은 저서 『바부르나메(우즈베크어: 버부르너마, Boburnoma)』에서 자신이 투르크 족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적은 있어도, 바르라스 부족에 속한다고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중세 트란스옥시아나에 살았던 바르라스인들은 싸움을 잘하는 부족으로 유명했다. 14세기 이래로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중앙아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당시 바르라스인들을 이끄는 지도자 아미르(Amir)는 허지 바르로스(Amir Xoji Barlos)였다. 그런데 몽골의 칸(khan) 투르룩 테무르헌(Tugluk Temurxon)이 트란스옥시아나를 정복하려고 공격



『바부르노마(Boburnoma)』 표지

했을 때 허지 바르로스(Xoji Barlos)는 전쟁을 피하고 자 자신의 부족을 이끌고 아무다리야강 맞은편으로 이동했다. 아미르 티무르는 그의 이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바르라스인들의 리더는 아미르 티무르가 맡게 된다. 바르라스인들은 아미르 티무르가 권력을 장악하고 국력을 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아미르 티무르가 통치하는 티무르 왕조 시대에는 바르라스인들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당시 군사령관, 주지사 등 주요 고위급 관료 상당수가 바르라스인이었다. 바르라스인들을 행정직으로도 대거 임명한 사람은 아미르 티무르였다. 터가이비고 바르라스(Togaybigo Barlas)는 부하라를, 더드말릭 바르라스(Dodmalik Barlas)는 히서리 셔드먼(Hisori Shodmon)을 통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르라스인들은 왕이나 아미르(Amir) 등과 혼인으로 친인척 관계를 맺으면서 권력을 확장했다. 예를 들면 바다흐션(Badakhshan, 파미르 고원과 아무다리야강에 이르는 지역)의 왕이었던 셔흐술탄 무함마드(Shohsulton Muhammad)는 딸 여섯명 중 두 명을 바르라스인과 결혼시킬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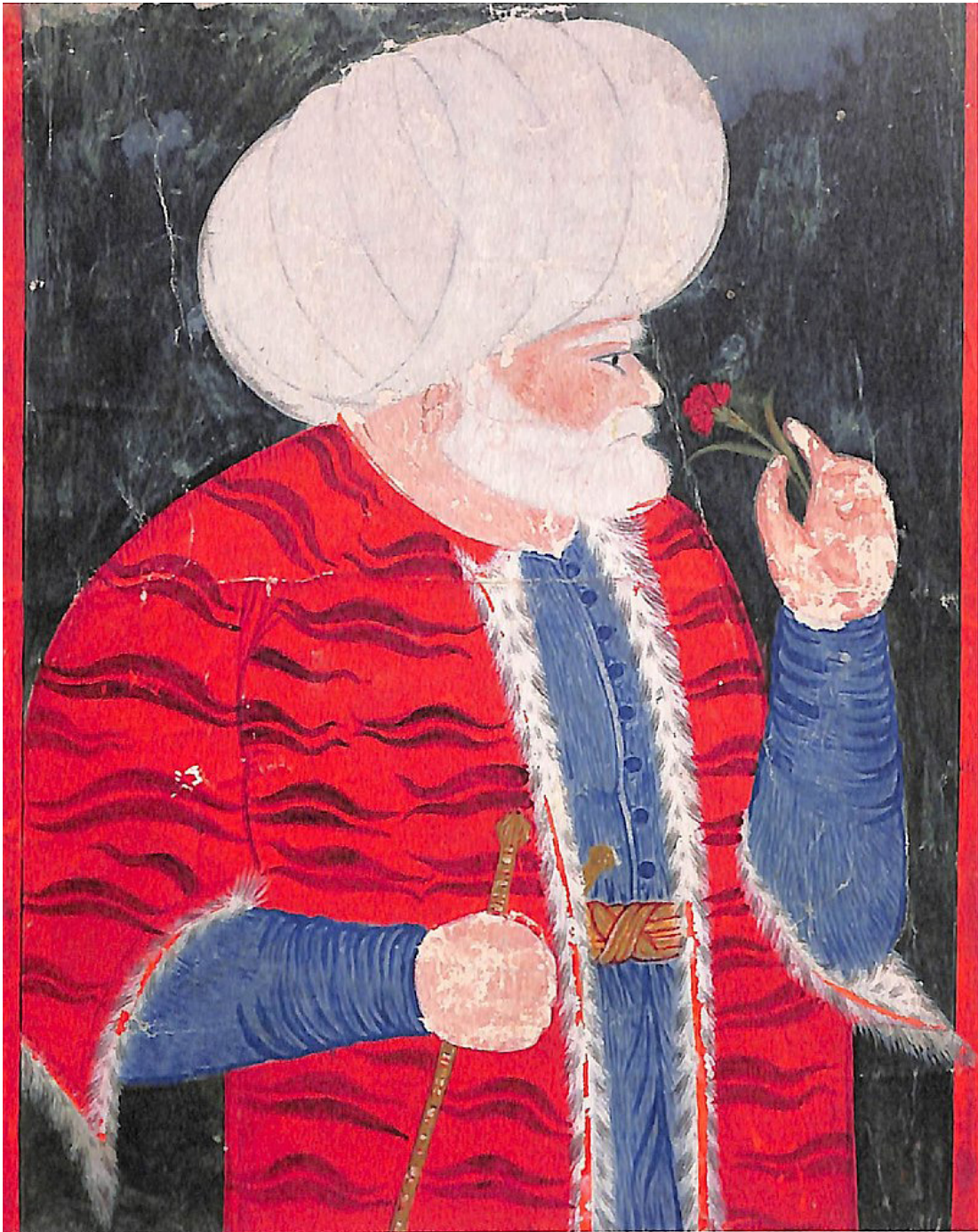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를라스
- 다국어 표기 Barlas(영어), БАРЛОСЛАР(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아미르 티무르, 울루그베그, 바부르
- 참고문헌(오프라인) Абдураззоц Самарцандий, Матлаи саъдайн ва мажмаи бахрайн. Т., «Ўзбекистон», 2008.
 Мухаммад Гайдар Мирзо, Тарихи Рашидий Т., «Шарх», 2010.
 Хон- дамир, Хабибус-сияр. Т., «Ўзбекистон», 2013.

I C009 | 바르바로스 하이렛딘 파샤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인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Barbaros Hayreddin Paşa

바르바로스 하이렛딘 파샤(Barbaros Hayreddin Paşa)는 16세기 초 오스만 제국의 해군 사령관이다. 그리스어로 ‘바르바로스’는 붉은 수염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원래 유럽인들이 그의 형 오루취에게 붙인 별명인데 동생인 하이렛딘까지 바르바로스라고 불리게 되었다. (하이렛딘의 본명은 흐즈르였다고 한다.) 바르바로스 하이렛딘 형제는 미디에(레스보스 혹은 미틸레네) 섬 출신의 그리스계 개종자들이었고, 그리스인의 항해 기술과 지식이 개종을 통해 오스만 제국으로 흡수된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TDV İslam Ansiklopedisi에 의하면 이들 형제는 미디에 섬이 정복된 후 거기에 정착한 마케도니아의 야니차 출신의 시파히 야쿱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많은 그리스계 사람들이 오스만 해군에 복무했는데, 바르바로사 형제가 가장 높은 관직까지 올라갔고 오스만의 영토 확장에 기여했다.

바르바로사는 1500년경 오스만 제국에 대한 봉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코르크우드 왕자(바이에지드 2세의 아들)의 후원하에 서남 아나톨리아의 해안에서 해적으로 활동했다. 셸림 1세가 즉위한 후 1513년 코르크우드 왕자가 처형되자 이들은 동지중해에서 도주해 북아프리카로 진출했다. 이들에게 서지중해가 좋은 입지였던 이유는 이베리아반도에서 무슬림 세력을 완전히 몰아낸(1492년) 스페인이 북아프리카의 군소 왕국들을 위협하고 있었고 수천의 무슬림 난민들이 오스만 제국의 원조를 요청하는 등 많은 분쟁이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오스만 술탄은 처음에는 이베리아 난민들의 원조 요청에 본격적으로 응하려 하지 않았고, 바르바로사 형제 같은 해적들이 탁월한 해상 전투력을 발휘해 주도적으로 스페인의 북아프리카 정벌 계획을 막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아프리카 군소 군주들과의 관계가 역전되어 바르바로사 세력은 1516년 알제리를 점령하고 지배하게 되었다. 바르바로사의 역량만으로는 북아프리카에서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지배를 해 나가기 어려웠고, 오스만 제국은 북아프리카에 영토 확장에 의지를 갖게 되어 양자 사이에 곧 제휴 관계가 시작되었다. 오스만 제국은 오루취를 곧 알제리 총독으로 임명했고, 군사 원조를 안정적으로 지속했다. 그가 1518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사망하자 동생인 하



바르바로스 하이렛딘 파샤 초상화, 니가리 作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이렛딘이 북아프리카 방어에서 형의 지위를 이어갔다. 1531년 튀니지를 점령한 하이렛딘은 오스만 제국 지중해 총독(Cezâyir-i Bahr-i Sefid beylerbeyliği) 겸 해군 총사령관(kapudan-ı derya)으로 임명되었다(1534년). 그는 말은 역할과 지위에 충실했으며, 1538년 스페인 해군을 아드리아해에 면한 북부 그리스 에피루스의 프레베자(Preveza)에서 크게 격파하는 등 더 많은 전과를 올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르바로스 하이레틴 파샤, 발바로스 하이렛딘 파샤
- 다국어 표기 Barbaros Hayreddin Paşa(튀르키예어), Hayreddin Barbarossa(영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3/39/Barbaros_minyat%C3%BCr.jpg/800px-Barbaros_minyat%C3%BCr.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Molly Greene “Barbarossa Brothers,”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77~78.
Şerafettin Turan, “Barbaros Hayreddin Paşa,” *TDV İslam Ansiklopedisi* Vol. 5, 1992, pp.65~67.

I C010 | 바르부르가즈

- 시기 B.C.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Barburgazy

바르부르가즈(Barburgazy) 유적은 알타이 공화국 코시 아르치 지구의 이름없는 강 유역에 있다. 1970년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발굴 작업이 지속됐고 3개 지점에 걸쳐서 유적이 확인되었는데, 바르부르가즈(Барбургазы)-I, II, III으로 지점에 따라서 각각의 명칭이 있다.

바르부르가즈 I 유적의 20호는 평면형태 원형(직경 5m)으로 무덤 구덩이의 수혈은 직경 2m이다. 그 위에 사암제 자갈돌로 덮여 있다. 무덤 구덩이 안에는 북쪽에는 무덤의 주인공, 남쪽에는 말이 함께 매장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주인공의 실크옷 뿐만 아니라 화살, 전투용 도끼 등 무기가 출토되었다. 말과 관련해서는 안장(가죽)과 철제 재갈과 재갈멈치 및 등자가 출토되었다.

바르부르가즈 II 유적에서는 무덤이 남북 방향으로 무덤이 8기가 열을 이루고 9호는 열에서 떨

어져서 위치한다. 그중에서 가장 큰 무덤이 9호이다. 9호는 무덤 상부를 덮은 돌의 직경이 10m 이고, 높이가 0.5m정도이다. 무덤 구덩이(직경 260cm, 깊이 90cm~110cm)에는 관을 설치하지 않고 죽은 사자는 무덤구덩이의 북쪽, 말은 남쪽에 매장했다. 무덤의 주인공은 머리를 동쪽으로 하고 사지를 뻗은 자세로 묻혔다. 말은 사자와는 반대로 머리를 서쪽으로 하고 척추를 꼬은 상태로 매장했다. 주인공의 오른팔 옆에는 화살통에 화살이 담긴 채로 출토되었다. 화살통 옆에는 활과 화살통을 연결하는 벨트도 확인되었다. 남성은 모피, 가죽, 실크로 된 옷을 여러 겹 입었고 은제 장식판이 붙은 허리띠를 착용했다. 말은 마구를 착용한 채 묻혔는데, 재갈과 재갈 멈치, 등자 등이며, 철재로 만들어진 것이다. 허리띠의 벨트 버클에는 손으로 새겨 넣은 일종의 기호가 확인되었다. 바르부르가스 III 유적에서는 6개의 무덤이 확인되었고 그중에서 7호분이 가장 크다. 유적의 무덤 구조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바르부르가스 유적에는 알타이 지역에서 흉노가 멸망하고 투르크 제국(7세기)이 들어서기 이전 사이의 유적이 존재한다.

이 시기의 유적은 말의 등자가 아직 사용되지 않은 코크 파시 단계와 개마와 금속제 등자가 사용되는 쿠디리게 단계로 구분된다. 전자는 3세기~5세기 중반, 후자는 5세기 중반~7세기이다. 바르부르가스 유적은 금속제 등자가 사용된 것으로 볼 때 알타이에서 투르크 제국이 들어서기 전 쿠디리게 단계(5세기 중반~7세기)의 유적으로 볼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르부르가지

● 다국어 표기 Бурбургазы(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쿠크 파시, 쿠디리게

● 참고문헌(오프라인) Кубарев Г. В. Культура древних тюрок Алта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огребальных памятников). Новосибирск.

Серёгин Н. Н., Матрёнин С. С. Погребальный обряд кочевников Алтая во II в. до н.э. — XI в. н.э. Барнаул: Изд-во Алт. ун-та. 272 с, 2016.

I C011 | 바르스바이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이집트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송경근 ● 라틴 문자 Barsbay

이집트 맘루크 조는 크게 알-바흐리 조(1250년~1382년)과 알-부르지 조(1382년~1517년)로 나뉜다. 알-부르지 조 술탄들은 왕좌에 오르기 위해 격렬한 투쟁을 치렀지만, 그들 중 많은 술탄들이 문학을 즐길 줄 알았고, 높은 미적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정정의 불안으로 빈발하는 반란, 만성적 기근 상태와 전염병의 만연은 민중들의 생활을 고달프게 만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1422년부터 1438년까지 맘루크 국을 지배했던 술탄 바르스바이 재위 기간에는 그래도 이집트가 번영하던 시기였다. 그는 그의 집권 이전 10년 동안 술탄이 5번이나 바뀌었던 혼란을 종식시키고, 맘루크 알-부르지 조를 안정시키고, 최전성기를 만들어냈다. 칼라운데 의해 쫓겨난 예루살렘 왕국은 키프로스왕국과 로도스섬을 지배하며 동부 지중해안에서 해적질을 일삼았다. 1426년 그는 이들을 공격하여 굴복시키고, 그의 종속국으로 만들었다. 그의 집권 후 반기에 맘루크국 동부와 북부에서 전쟁이 빈발했다. 이런 가운데 그는 시리아에서 아나톨리아 반도의 디야르바키르를 원정하여 오스만 제국의 남하를 견제했으며, 맘루크는 소아시아의 동부를 오스만 제국은 서부를 지배하게 되었다.

술탄 바르스바이는 인도양 무역에 노력을 기울여 인도양을 건너오는 이슬람 상인에게 이익을 보장하여 주고, 장사하기 좋은 여건과 보안, 법의 집행 등을 분명하게 처리하여 주면서, 그들이 많은 물건을 이집트에 가져오게 만들었다. 이 물건들에 관세를 부과하여 유럽 상인들에게 팔면서 그의 어떤 전임자보다 많은 국고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그의 과중한 세금 부과와 돈의 가치가 우세한 유럽의 통화를 자국의 영역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베네치아인들은 불만을 품었고, 한동안 알렉산드리아에 온 베네치아인들이 상거래를 중단하고 철수하기도 했다.

그는 재정을 쇄신하여 국고를 튼튼하게 만들었다. 후추와 설탕 거래를 국가의 전매 사업으로 전환해 국고를 풍부하게 만들었다. 그는 추가로 확보한 수입으로 건물 공사비를 충당했고, 해외 원정을 위한 전비로 썼다. 당시 이집트는 시리아, 이라크 등이 전쟁으로 무역로가 폐쇄된 환경 속에서 지중해와 인도양 사이의 무역을 독점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는 풍부



술탄 알-아쉬라프 바르스바이 모스크와 마드라사(카이로, 이집트)

한 재정을 바탕으로 많은 영묘와 마드라사, 빈민이나 수피승들을 위한 숙소인 한카 또는 자위야를 세웠다.

그는 북방의 몽골과 티무르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2,000명 이상의 맘루크를 사들여 국방력을 강화했다. 노예 무역은 이탈리아 도시 제노바 상인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흑해 해변의 크림반도에서 한 해 2,000명의 10세-20세 사이 남자들을 사들였다. 노예의 구입과 교육에는 많은 돈이 들어갔으나, 그것은 맘루크 왕조를 보존하는 데 필수적인 엘리트층을 확보하는 최고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출은 제한되지 않았다.

14세기~15세기 카이로에서는 수피주의가 종교생활에서 두드러졌다. 그 당시 바르스바이 등 여러 술탄들이 도심에 자신의 영묘를 만들고도, 수피들과 학자들이 있는 공동묘지에 영묘를 또 만들어 그곳에 묻히기를 바란 것은 당대 지배층이 얼마나 수피주의에 열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술탄 바르스바이

● 다국어 표기 الأشرف برسباي(아랍어), Barsbay(튀르키예어), Barsbay(우즈베크어), Barsbay(아제르바이잔어), Барсбай(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맘루크, 티무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bmimages.com/pr/626554722/BMImages_00031353001_preview.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송경근 2000, 「이집트 맘루크 조에 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0집, 한국이슬람학회, pp.22~23.

최준석 2009, 『함두릴라, 알카히라』, 메디치, pp.201~207.

Ahmad 'Attiyah Ilah. 'Al-Qamus al-Islamiyun', *Maktabah al-Nahdah al-Misriyah*, al-Qahirah:1963, V.1, p.300.

Bosworth, Clifford Edmund, *The new Islamic dynasties: a chronological and genealogical manual*,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York: 1996, pp.76~77.

Lewis, Bernard, *The Cambridge History of Islam*, Cambridge University Press, London: 1970, pp.224~225.

Muir, William, *Tarikh Dawlah al-Mamalik fi Misr, Maktabah Madbuli*, al-Qahirah: 1995, pp.147~152.

I C012 | 바르스벡 카간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통치자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Barsbek Qaghan

예니세이 키르기스의 통치자가 카간의 칭호를 받기 위해서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국제적 강국으로 여겨졌던 당나라, 돌궐 제국 등 주변 국가들로부터 그들의 독립권을 인정받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당서』에 의하면 당시 당나라가 예니세이 키르기스의 독립을 인정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 제국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장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부 시베리아에 등장한 새로운 세력(예니세이 키르기스인)의 정치권력과 수교에 주저함이 없었고, 이런 의미에서 예니세이 키르기스를 동맹국으로 간주했다.

8세기 초, 당 제국이 예니세이 키르기스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자, 키르기스의 지도자 바르스벡은 돌궐 제2제국 통치자 일테리쉬 카간의 딸과 혼인한다. 이 결혼으로 바르스벡이 받은 카간의 칭호는 합당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예니세이 키르기스는 돌궐 제국과 대외적으로 지위가 동등해졌다.



2010년 키르기스스탄 국립은행 발행 바르스벡 기념주화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이 사건은 몽골 초원에서 발견된 돌궐 비문에도 기술되어 있다. 카간이라는 칭호를 받은 바르스벡은 중앙아시아의 패권자가 되기 위해 활동 범위를 넓혀간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이후 예니세이 키르기스와 동돌궐 제국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결국에는 711년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 전쟁으로 인해 바르스벡이 죽고 키르기스인들은 그들의 칸을 잃게 되었다. 8세기 중반 동돌궐 제국이 붕괴된 후 예니세이 키르기스의 통치자들은 바르스벡과 같이 자신이 카간임을 선언하며, 중앙아시아 재패를 위한 투쟁에 착수했다. 하지만 758년 돌궐 제국의 뒤를 이어 건국된 위구르 유목 제국의 공격으로 키르기스인과 그들의 동맹 연합이었던 칩(Chiks), 오구즈(Oghuz) 및 칼룩(Karluks)은 큰 타격을 입는다. 『신당서』에 따르면 위구르인들은 키르기스인들로부터 카간이라는 칭호를 되찾고, 키르기스인들이 중국으로 사절단을 보내는 것을 막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르스베크 카간, 바르스벡 칸, 바르스베크 칸
- 다국어 표기 Барсбек каган(러시아어), Barsbek/ Bars Beg Kağan(튀르키예어), Barsbek Qaghan(영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1/1e/KG-2014-1som-Barsbek-a.png>
- 참고문헌(오프라인) Mokeev A., “Yenisey ve Altay Kırgızlarında siyasi unvan olarak aco ve idi terimlerinin menşesi ve anlamı”. *Türk Dili Araştırmaları Yıllığı-BELLE TEN*, 67, Haziran, 2019, pp.27~38.

I C013 | 바바이운동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운동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Babai Movement

바바이운동은 아나톨리아 셀주크 조 시대, 13세기 몽골 침입기 직전의 아나톨리아에서 이슬람 신비주의 교단(타리카트)의 지도자나 장로인 바바(baba)의 지도하에 추진된 종교·사회 운동을 말한다. 이 운동의 촉발에는 아나톨리아를 일시 혼란에 빠뜨린 바바 일야스 호스라니와 바바 이스하크의 반란(1240년)



슬라자카라회육

Source:<https://hacibektasmobil.com/wp-content/>

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반란이 진압된 후 바바이들은 비잔틴 제국의 변경에서 새롭게 부상하던 오스만 공국에 들어가 종교운동을 전개했는데, 결국에는 오스만 제국 건국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 시기 바바이들을 ‘룸 압달라르’(Rum Abdallar: 소아시아의 고행자들)이라고 불렀고 이들이 전개한 운동을 ‘룸 압달라르 운동’이라고도 불렀다. 이 운동의 구성원들을 보면, 비록 바바 일야스가 와파이 종단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그의 사상과 운동에 동조한 다른 수피 종단의 여러 고행자도 섞여 있어서 이들의 종교운동은 제교리혼합주의(Syncretism) 성격으로 변모해 갔다.

이들의 활동이 종단으로 발전해 간 것은 바바 일야스의 제자였던 하즈 벡타쉬(Hacı Bektaş)에 의해 비롯되었다. 그는 바바이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반란이 종식된 후 아나톨리아의 술루자카라회육(Sulucakarahöyük)에 정착했다. 그는 이곳을 중심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파했고 그의 영향을 받은 압달들이 소아시아 전역에서 종교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의 사후 그를 추종하던 크즐 델리(Kızıl Deli) 수도원의 지도자였던 발름 술탄이 바예지드 2세에 의세 수도

원의 지도자로 임명됨으로써 알레비 종파의 한 갈래인 벡타슈 종단이 만들어졌다. 바바이운동은 아나톨리아의 정국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투르크족의 문화와 사회 변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정치운동이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바이운동
- 다국어 표기 baba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타리카트, 바예지드 2세, 벡타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hacibektasmobil.com/wp-content/uploads/karahoyuk-768x432.jpg>
- 참고문헌(온라인) 네이버 지식백과 이슬람사전 바바이운동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51104&cid=62098&categoryId=62098>
네이버 지식백과 종교학대사전 바바이운동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29303&cid=50766&categoryId=50794>
-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2009, 「터키 알레비 종파에 나타난 샴니즘 모티프」, 『중동문제연구』 8(1).

I C014 | 바반 가문

- 시기 A.D. 15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이라크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가문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Baban family

바반 가문(Baban family)은 17세기 초부터 1850년까지 현재 이라크 쿠르디스탄과 서부 이란 지역을 포함하는 쿠르드 공국을 통치했다. 바반 공국은 사파비드-오스만 분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오스만 제국에 상당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다. 바반 가문의 설립자는 피지데르(Pijder) 지역 출신 아흐메드 파키흐(Ahmad Faqih/ Faqi Ahmad)로 알려져 있다. 바반에 대해서 오스만 제국 당시 사료에는 출처가 없으며, 그 기원도 불분명하다. 많지는 않지만 현재 남겨진 바반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Šaraf Khan Bedlīsī, Šaraf-nāma』에서 얻을 수 있다. 이 책에 의하면 바반 가문의 지도자는 피르 바닥 바베(Pir Badak Babe)이었으며, 그는 약 1500년대에 살았다고 전해진다.

바반 공국의 왕자들은 1723년부터 1746년까지 이란 전쟁에서 오스만군대를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바반 공국의 왕자들은 이란 국경을 따라 오스만 제국에 안보를 제공한 대가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술라이만 베크는 샤리조르 주와 키르쿠크를 장악했던 최초의 바반 왕자였다. 그는 이란을 침공하여 1694년 아르달란 공국의 군대를 물리친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 무스타파 2세는 술라이만 베크에게 키르쿠크(Kirkuk) 마을이 포함된 바반 지역의 통치권을 준다.

술라이마니아(현 이라크 도시)는 1781년 바반 왕자 마흐무드 파샤가 세운 바반 공국의 수도로 알려져 있다. 바반 통치자들은 각각 자신의 영역에서 문화 및 문학 활동을 장려하곤 했는데 19세기 초, 바반 공국의 후원 아래 학교들이 설립되었다. 쿠르드 고전 시인 날리(Nali)가 이와 관련된 대표적 문학가로 알려져 있다.

바반 공국은 19세기 중반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 시기에 붕괴된다. 바반 공국 내에서 반란이 3년간 지속되었지만, 이는 오스만군대와 쿠르드 부족들의 연합으로 진압된다. 바반의 마지막 통치자인 아흐메드 파샤 바반은 1847년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로 인해 샤라주르 지역은 오스만 제국에 편입된다. 아흐메드 파샤 바반은 1850년 남부 쿠르드족의 독립을 위해 투르크족에 대항하여 싸우다, 결국 술라이마니아를 떠나게 된다.

‘바반’이라는 이름은 19세기 초 서부 여행기에서 bebah, bebbah 또는 bebe와 같은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현대 쿠르드어와 페르시아어 자료들에는 이들을 Bābān 또는 Āl-e Bābān 이라 기록하지만, 튀르키예어로는 Babanlar 또는 Babanzadeler로 기록된다.

바반 공국의 통치자들과 재위 연도는 다음과 같다.

Faqi Ahmad, 1649-1670

Sulaiman Baba, 1670-1703

Khana Mohammad Pasha, 1721-1731

Nawaub Khalid Pasha, 1732-1742

Nawaub Salim Pasha, 1742-1754

Nawaub Sulaiman Pasha, 1754-1765

Muhammad Pasha, 1765-1775

Abdolla Pasha, 1775-1777

Ahmad Pasha, 1777-1780
 Mahmoud Pasha, 1780-1782
 Ibrahim Pasha, 1782-1803
 Abdurrahman Pasha, 1803-1813
 Mahmoud Pasha, 1813-1834
 Sulaiman Pasha, 1834-1838
 Ahmad Pasha, 1838-1847
 Abdollah Pasha, 1847-1850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반패밀리, 바반조
- 다국어 표기 بابان(쿠르드어), Baban family(영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encyclopedia.com/humanities/encyclopedias-almanacs-transcripts-and-maps/baban-family>
<http://historyofkurd.com/english/2020/04/26/baban-emirate/>
- 참고문헌(오프라인) Atmaca M., “Negotiating Political Power in the Early Modern Middle East: Kurdish Emirates between the Ottoman Empire and Iranian Dynasties (Sixteenth to Nineteenth Centurie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Kur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United Kingdom, 2021.
 Bahrami R., & Mozaffari P., “The relations between Ardalan and Baban rulers and the relations between Iran and the Ottoman empire in the Qajar period (1212-1266. AH).” *Foreign Relations History*, 12 (45), 2010, pp.1~24.

I C015 | 바밭지 하툰 영묘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영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Babaji Khatun Mausoleum

바밭지 하툰 영묘(Babaji Khatun Mausoleum)는 카자흐스탄 남부의 잠빌 주 타라즈 시 인근의 아이샤 비비 마을의 아이샤 비비 영묘 근처에 건설되었다. 영묘의 명확한 건축 연도, 후원



바바즈 하툰 영묘

자와 건축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다. 과거 비문을 통해 후원자는 일한샤(Ilhanşah), 건축가는 무함메드(Muhammed)라고 알려졌으나 비문이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증명할 수는 없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아이샤 비비 영묘와 바닷지 하툰 영묘의 건축가는 동일 인물이고 후원자는 샤 마흐무드(Shah Mahmud)라고 한다. 영묘의 주인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웃한 영묘의 주인인 아이샤 비비의 시녀였던 바닷지 하툰을 위하여 건설했다는 주장도 있다. 건축 연도도 비문의 훼손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기법이나 장식 양식, 서체 등을 기반으로 하여 건축 연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10세기 말, 11세기 초 혹은 12세기 등 다양한 학설이 존재한다. 영묘의 돔 부분은 훼손된 상태였으나 1979년과 2004년 수리 및 복원 공사를 했다.

주재료로 벽돌이 사용된 바닷지 하툰 영묘는 6.9mx 6.9m 정사각형 플랜 위에 건설되었다. 별 모양의 16개 조각으로 이루어진 돔 버팀대와 트롬프 위에 돔이 자리하고 있다. 이 돔은 외부에서 보면 십육각뿔에 덮여 있다. 입구는 영묘 동편에 위치해 있으며 영묘의 남쪽과 북쪽 면에는 두 단계로 구성된 아치에 창문이 있다. 영묘 내에는 과거 관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관도 발견되지 않았다.

벽돌을 교차로 배치해 만든 이 영묘에는 어떤 특징적인 장식 기법은 없다. 서편을 제외한 건

물의 세 편에 벽돌로 만든 세 개의 아치와 메달 정도가 전부다. 다만 정문의 벽감은 다른 면의 벽감보다 더 크고 깊으며 중앙의 아치가 다른 아치보다 더 깊다. 영묘의 각 면 상단에는 장식을 목적으로 한 총안(銃眼, embrasure)이 늘어져 있다. 또한, 각 면의 세 개의 아치와 메달을 둘러싼 직사각형의 벽감이 있다. 내부도 장식 요소는 없다.

이 영묘는 카라한 칸국 11세기~12세기 영묘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이런 영묘 형식은 후대에 셀주크 조와 아나톨리아 영묘 건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바즈 하툰 영묘, 바바즈 하툰 튀르베
- 다국어 표기 Бабаджи-Хатун кесенеси(카자흐어), Babaji Hatun Türbes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아이샤 비비 영묘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f/fb/Mausoleum_of_Babaji_Khatun.jpg/450px-Mausoleum_of_Babaji_Khatun.jpg,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6/64/Bibi_khatum.png/800px-Bibi_khatum.png
- 참고문헌(오프라인) Koshenova, Gulbanu. “Kazakistan, Taraz’da Babacı Hatun Türbesi”, *Bilig*, BAHAR 2016 / SAYI 77. pp.183~202.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Cezar, Mustafa. *Anadolu Öncesi Türklerde Şehir ve mimarlık*, Ankara: İş Banka, 1977.

I C016 | 바백

- 시기 B.C.~A.D. 10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지도자
-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Əli Şamil) ● 라틴 문자 Babək

바백 휘르래민(Babək Xürrəmin, 798년~838년)의 원래 이름은 해산(Həsən)으로 부친의 이름은 압둘라(Abdulla)로 추정된다. 10세기의 아랍 역사가 이븐 알 나딤(Ibn al-Nadim, 932년~995년)은 『바백의 역사』라는 작품이 있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전해진 기록은 없다.

바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친(親)칼리프 이슬람 역사가들의 기록에 기반하고 있으나, 그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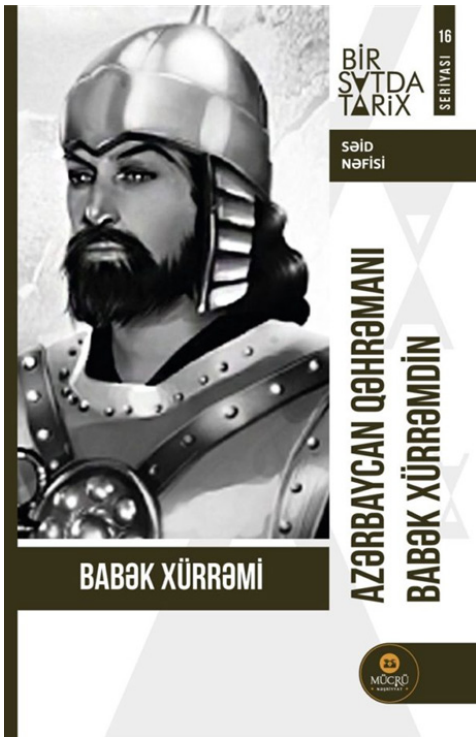
바백과 그가 주도한 휘르래민운동(Xürrəmi hərəkatı, 영어표기: Khurramites)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으며, 휘르래민운동 200년 후에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자료에 모순이 적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역사가 아부 하니파 디나와리(Abu Hanifa Dinawari)는 바백(Babek)은 애부 뫼슬림(Əbu Müslim)의 딸인 파티파(Fatima)의 아들 뫼해리르(Mühərrir)의 자녀 중 한 명이라고 기록했다. 애부 뫼슬림은 칼리프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봉건 영주 중 한 명이며, 바백의 아버지 압둘라(Abdulla)는 아제르바이잔에 사는 기름장수였으며 빌랄아바드(Bilalabad) 마을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했다고 기록한다. 해센도 빌랄아바트에서 태어났다.

아르다빌 시 근처에서 해적의 공격을 받은 압둘라가 사망했을 때 해센은 1살이었다고 한다. 해센의 어머니는 해센과 둘째 아들을 데리고, 새라프(Sərab)로 이사한다. 10살에 일을 시작한 해센은 카라반으로 화물 운송을 시작하여 아제르바이잔과 인근 지방의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며 길을 알게 되었다. 그의 청년기에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아랍 칼리프에 대항하여 일어났던 휘르래미운동이 아제르바이잔에 널리 퍼지고 있었다. 타브리즈에 있던 해센도 이것을 알게 되었다. 휘르래미운동가들은 전통 신앙과 이슬람을 결합하려 했고, 이것은 이슬람 학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으며, 칼리프에게 위협한 것으로 간주했다. 자비단 이븐 쉬흐랙(Cavidan ibn Sührək)과 애부 임란(Əbu İmran)이 이끄는 휘르래미운동 세력은 지역 영주들과도 갈등이 있었다.

아랍 역사가들에 따르면 816년 가을, 잔잔(Zəncan)에서 뱃즈(Bəzz) 성으로 돌아온 자비단 이븐 쉬흐랙은 해센과 그의 가족을 만났으며, 용기있는 해센이 마음에 들었던 그는 해센의 모친의 동의를 얻어 그를 데려간다. 자비단과 애브 임란이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사망하자, 자비단의 부인의 주도로 18세의 해센이 휘르래미운동의 지도자가 된다. 자비단의 후계자로 뱃즈의 성을 물려받는 그는 성의 이름을 따 해센 바백(Həsən Babək)이 되었다.

바백은 휘르래민을 이끌게 되며 이전의 칼리프 세력과 충돌을 분석하여 전략을 짰다. 그리하여 우선 부하들을 아제르바이잔 전역으로 보내 아랍 침략자들과 싸울 것을 요청하고 군대를 만들었다. 각 지역에서 전투에 능한 병사로 이루어진 군대에서 기마병은 2만 명에 이르게 된다. 각 부대는 바백의 동생인 뫼아비야애(Müaviyə)와 압뫼라(Əbdülla)를 비롯하여 타르한(Tarxan), 아딘(Adin), 뫼스탐(Rüstəm) 등이 이끌게 된다. 휘르래미운동의 중심지인 아제르바이잔에서



『바백 휘르래민(Babək Xürrəmin) 전기』 표지
Source: <https://novella.az/>

남부와 데일람(Deylam) 지방에서만 바백의 지지자 수는 30만 명에 이르렀다.

당시 칼리프였던 알마으문(al-Ma'mun, 재위: 813년~833년)은 위협을 느끼고 투르크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바그다드로 수도를 옮긴다. 그 후 819년에 휘르래민을 탄압하고 세금 징수를 위해 최초의 정규군을 파견했다.

819년 휘르래민과 야히야 이븐 무으아드 이븐 무슬림(Yahya ibn Mu'adh ibn Muslim, ? ~821/822년)이 이끄는 칼리프 군대의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어느 쪽도 승리하지 못하자 칼리프는 이사 이븐 무함마드 이븐 아비 칼리드(Isa ibn Muhammad ibn Abi Khalid)를 파견한다. 그러나 뱃즈 성으로 진입하는 산길에서 지리에 익숙하지 못했던 칼리프 군은 공격을 받고 퇴각하고 만다. 바백의 군대는 칼리프 군대로부터 쉬닉(Sünik), 애삭(Ərsak), 배르덴(Bərdən),

베일래간(Beyləqan), 카라바흐(Qarabağ), 아란(Arran) 지역 일부를 해방했다.

829년 6월 3일, 칼리프군은 해시다드사르 산(Həşdadsər dağı)에서 휘르래민인과 전투를 벌이지만, 15만여 명의 아랍군에서 3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듬해 휘르래민은 하마단(Həmədan)을 점령한다.

5번의 승리를 거두었던 휘르래민은 833년 하마단 인근에서 처음으로 패배하고, 6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칼리프는 비잔틴과의 전쟁을 중단하고 주력군을 바백에게 보낸다. 835년에 칼리프는 투르크족 출신의 장군 아프신(Afşin)을 보낸다, 아프신은 도로를 공격하고 초소를 만들었으며, 휘르래민의 성과 가까운 배르잔트(Bərzənd)에 본부를 세웠다. 이후 휘르래민의 최고 사령관인 이스마 엘 퀴르디(İsma Əl-Kürdi), 타르한(Tarxan) 등을 살해한다. 이것은 바백에게 큰 타격이었다. 아프신의 전략에 지역 대형 영주인 새흘 이븐 숨뱃(Səhl İbn Sumbat), 이븐 배이스(İbn Bəis), 애부 무사(Əbu Musa) 등은 바백과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다. 또한, 아프신은 바백이 침투시켰던 스파이까지 회유하게 된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 후 2년만에 전쟁을 일으킨다. 그럼에도 휘르래민은 836년 해시다드새르 산(Həşdadsər dağı) 근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승리했다.

837년에 칼리프는 아프신을 돕기 위해 2개의 대규모 군대와 3천만 디르햄(dirhem)을 보냈다. 그해 여름, 아프신의 군대는 뱃즈 성을 포위했다. 아프신은 바백을 비잔틴과의 전쟁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회유를 시도한다. 평화를 제안하고 칼리프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으나, 바백은 이 제안을 반역으로 간주했다.

마지막 전투는 837년 8월 26일 시작되었다. 바백의 동맹인 비잔틴 황제의 10만 대군이 배후에서 아랍인을 공격하려 했으나 뱃즈 성을 구하지 못한다. 10만여 명의 아랍인과 8만여 명의 휘르래민이 전투에서 사망했다. 아프신의 명령에 따라 뱃즈 성은 3일 동안 불탔고 8천여 명이 포로로 잡혔다. 바백은 비잔틴 황제에게 원군을 받기 위해 포위에서 도망치고, 아라즈 강을 지나 아란에까지 이른다. 칼리프는 아프신에게 바백을 사면하겠다는 서신을 받았으나, 바백의 신념은 확고했다. 칼리프는 바백을 생포한 사람에게 2백만 디르함의 보상을 약속했다. 바백의 전 동맹이자 새키 성(Şəki qalası)의 주인 새흘 이븐 숨밋(Səhl ibn Sumbat)은 바백에게 도움을 약속하고 초대한다. 그러나 새흘 이븐 숨밋은 바백을 배신하고 그와 동료들을 체포하여 아프신에게 데려간다. 9월 15일 뱃즈를 떠난 바백은 838년 1월 4일 사미래(Samirə)에 도착했다. 칼리프 무으타심(al-Mu'tasim, 재위: 833년~842년)의 명령으로 3월 14일 처형을 당했다. 칼리프는 바백의 머리는 호라산으로 보내고, 그의 몸은 반란군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무에 매달았다. 바백의 형제 압둘라(Abdulla)도 바그다드에서 같은 방식으로 처형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백, 바베크, 바베크

● **다국어 표기** Babək(아제르바이잔어), Babek Hürremi(튀르키예어), Бабе́к(카자흐어), Bobak qo'zg'oloni(우즈베크어), Babak Khorramdin(영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과 이슬람 칼리프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Tarixi*. Yeddi Cildə. 2–Ci Cild. Bakı. “Elm”. 2007. 608 Səh.

Azərbaycan Tarixi. Dərslük / Z. Bünyadovun Redaktorluğu ilə. Bakı: Azərneşr, 1994, 680 Sə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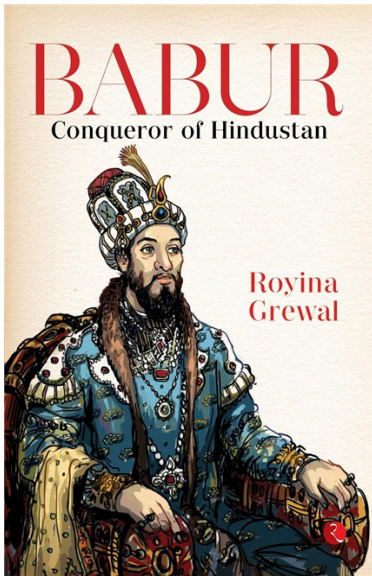
Bayramlı Ceyhun. *Babək və Hürremilik*: Yalanlar və Gerçəklər, Bakı : Kitab Aləmi NPM, 2011. — 452 S.

Bünyadov Ziya, Yusifov Yusif. *Azərbaycan Tarixi*, Bakı, 2006.

- Bünyadov Ziya. *Azərbaycan 7–9-Cü Əsirlərdə*, Bakı, 2008.
- Məmmədova Fəridə. *Azərbaycanın Siyasi Tarixi və Tarixi Coğrafiyası*. Bakı: 1993.
- Məmmədova Fəridə. *Qafqaz Albaniyası və Albanlar*. Bakı: 2005.
- Səid Nəfisi, “*Azərbaycan Qəhrəmanı Babək Xürrəmdin*”, Bakı, “Örnək”, 1990, S. 106.
- Nuriyeva İradə. *Azərbaycan Tarixi (Ən Qədim Zamanlardan-XXI Əsrin Əvvəllərinədək)*. ;Ali Məktəblər Üçün Dərslik. - Bakı: Mütərcim, 2015. - 336 Səh.
- Şərifli M.X. *9–Cü Yüzlün Yansı - 11–Ci Yüzlərdə Azərbaycan Feodal Dövlətləri*. Bakı, 2013.
- vəlixanlı Nailə. *Ərəb Xilafəti və Azərbaycan*. Azərneşr, Bakı, 1993.
- vəlixanlı N.M. Bir Daha Xürrəmilər, Babəkilər və Onların İdeya Sələfləri və Xələfləri Haqqında // *Azərbaycan Elmlər Akademiyasının Xəbərləri. Tarix, Fəlsəfə və Hüquq Seriyası*, 1997, № 1–4, S. 87–97.

I C017 | 바부르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Babur



『바부르, 힌두스탄의 정복자』 표지
Source: <https://www.amazon.com.au/>

바부르(Babur)는 인도 무굴 제국의 창건자이다. ‘호랑이’란 뜻의 바부르는 부계 쪽으로는 차가타이 칸국의 지배자였던 티무르의 후예이고, 모계 쪽으로는 칭기즈 칸의 후손이다. 이런 사족(士族)의 후광 속에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일원에서 지배권을 확립한 그는 서양에서 수입해 온 대포 등 신식무기로 무장한 정예 보병 1만 2,000명과 기병을 이끌고 네 차례의 공격 끝에 델리 부근의 파니파트(Panipat) 전투에서 대승했다. 이어 델리를 공격한 후 1526년에 로디 왕조의 수도 아그라(Agra)에 입성해 왕으로 등극(재위: 1526년~1530년)하고 인도 이슬람 왕조 사상 최대의 제국인 무굴 제국을 세웠다.

16세기 말경 이슬람 세계에서는 오스만 제국 이외에 두 나라가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바로 바부르 제국과

사파비 왕조였다. 바부르 제국은 티무르 제국의 칸이었던 차카타이 투르크의 고손자 바부르에 의해 1526년 인도에서 건국됐다. 페르가나 왕조의 오메르 샤 미르자의 아들이기도 한 바부르는 아버지를 대신해 권좌에 올랐다. 16세기 초 사파비 왕조와 우즈베크 간에 전쟁이 치러지는 동안 그는 사파비 왕조의 지원으로 사마르칸트에 정착했다. 1512년 사파비 왕조가 우즈베크에 패하자 그는 카불로 피신했다. 그는 중앙아시아에서는 살아남기 어려우리라 생각하고 인도로 되돌아왔다.

1526년 파니파트 전투에서 승리한 바부르는 로디 술탄국을 건국하고 아그라를 수도로 삼았다. 1530년 그가 숨질 즈음 이 나라의 영역은 남으로는 빈디아 산맥, 북으로는 아무 다리아 강에 이르렀다. 그가 죽자 아들인 후마윤이 뒤를 이었다. 악바르 샤는 바부르 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였다. 그는 벵갈, 카불, 카슈미르 등을 장악하

는 등 많은 영토를 정복했다. 경제와 행정 분야를 개혁한 그는 오스만 제국, 사파비 왕조, 우즈베크 등과 선린 관계를 유지하고, 전쟁 대신 평화 정책을 추구했다. 그는 인도양을 무대로 활약하던 포르투갈에 대항해 오스만 제국에도 같은 정책을 펴자고 제안했지만 두 나라 사이가 너무 멀어 이를 실행하지는 못했다. 에그렌지프 시대에 바부르 제국은 최전성기를 구가했다. 사파비 왕조와의 선린 관계는 계속 유지됐다. 우호 사절을 메카로 보내기도 했고, 막대한 재정 후원도 해주었다. 실레이만 2세 때는 오스만 제국이 바부르 제국에 사절단을 보내기도 했는데 양국 간의 선린 관계도 발전해 갔다.



바부르와 술탄 알리 미르자의 만남, 바부르나마 作
Source: <https://images.metmuseum.org>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보부르, 버부르
- 다국어 표기 ज़हीरुद्दीन मुहम्मद बाबर(힌두어), ظہیر الدین محمد بابر(우르두어)
- 연관 검색어 차가타이 칸국, 티무르, 칭기즈 칸, 사마르칸트, 쉴레이만 2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images.metmuseum.org/CRDImages/is/original/sf67-266-3.jpg>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바부르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97570&cid=40942&categoryId=34311>
- 참고문헌(오프라인) Christoph Baumer, *The History of Central Asia: The Age of Islam and the Mongols*, Bloomsbury Publishing, 2018.

I C018 | 바브으알리

- 시기 A.D. 15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기관 ● 유형 소분류2 행정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The Sublime Porte

바브으알리는 간혹 ‘바브으아사피’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직역하면 오스만 제국의 이른바 ‘드높은 문(The Sublime Porte, Yüce Kapı)’으로 대재상 휘하의 중앙 정부를 의미한다. 원래는 파샤 카프스(Paşa Kapısı) 혹은 웨지르 카프스(Vezir Kapısı)라고 불렸다. 어떤 통치자의 궁정이나 정부를 ‘문’이나 ‘문전(門前)’으로 부르는 것은 사산 왕조나 이집트의 파라오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상당히 흔한 관행이었다.

오스만 제국 행정 수뇌부는 고전시대(1450년~1550년)에는 궁정의 ‘디완으휘마운’에 있었고, 이런 상황은 17세기 후반까지 계속되었다. 그 후 디완으휘마운은 즉위 축하금이나 군대에 봉급을 분배하는 일 그리고 사신을 영접하는 의례 정도의 용도로 제한됐다. 즉, 상징적인 기능만을 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국의 행정은 제국이 소멸될 때까지 재상들이 맡게 됐다. 오스만 제국의 ‘포르트(porte)’는 처음에는 대재상의 사저를 겸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한 곳에 계속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재상이 바뀔 때마다 톱카프 궁 가까운 위치로 여러 건물들을 옮겨다녔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점점 바뀌어서 대재상의 사저(私邸)로서의 성격은 사라졌다. 결국



오스만 제국의 '드높은 문'

1718년 대재상 네브셰히를리 이브라힘 파샤가 파사로비츠 조약 체결 후 장인인 술탄 아흐마드 3세와 함께 에디르네에서 이스탄불로 돌아왔을 때부터는 공식적 기능으로 확립되었다.

이 시기 이전까지 '바브 으 알리'라는 용어는 술탄의 궁이나 궁정의 각료회의를 지칭하는 경향이 있었다. 1826년 예니체리 폐지 후 특히 1830년대 이후 행정부처들이 설립됨과 함께 바브 으 알리는 점차 새로운 조직으로 재편됐고, 운영 방식도 달라졌다. 유럽식 정부와 행정을 모델로 해서 바브 으 알리가 재편된 것이다. 제국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톱카프 궁전의 소옥 체쉬메문의 건너편에 자리잡은 바브 으 알리는 케트뤼다 베이 부서의 후신인 내무부, 레이실컷탑의 부서의 후신인 외무부, 국가 평의회(Şura-yı Devlet) 등을 포함했고, 술탄제가 폐지되고 공화국이 들어선 뒤에는 이스탄불 율라예트(광역 행정구역)의 청사로 쓰이게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법 으 알리, 바브 알리
- 다국어 표기 Bab-ı Ali(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www.eskiistanbul.net/resimler/babiali-1900ler-2370.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J. Deny, "Bab-ı 'Âli," *Encyclopaedia of Islam (Brill) 2nd edition*, Vol. 1 1986, pp. 836. Mehmet İpşirli "Bâbiâli," *TDV İslam Ansiklopedisi*, Vol. 4, 1991, pp.378~386.

I C019 | 바브사크와 쿠세크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작품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Babsak i Kusek

『바브사크와 쿠세크』는 바시키르의 구비 문학작품으로 바시키르 민족을 구성하는 킵차크 부족과 부르잔 부족의 경쟁에 대한 이야기이다. 특히 이 서사시는 남 우랄 역사와 관련된 실제 역사적 사건들을 민족 전통의 관점으로 묘사하고 있다.

바브사크와 쿠세크는 킵차크 판본과 부르잔 판본이 널리 퍼져 있으며 이들은 전설의 주인공들인 바브사크(Бабсак)와 카라쿨룸베트(Каракулумбет)의 형상을 상반되게 묘사하고 있다. 1916년 무하메트쿨로프(C.M. Мухаметкулов)가 운문과 산문이 혼합된 형태로 된 판본을 채록했고, 1939년에는 알리 카르나엠(Али Карнаем)이 부르잔 판본을 처음 채록했다. 이 판본은 산문 형태이다. 현재는 대략 30개의 판본이 채록되어 있다.

킵차크 판본에서 바브사크는 자신의 칸국을 침입한 ‘짐승’이라는 적을 죽이지만, 부르잔 판본에서는 반대로 카라쿨룸베트가 승자가 되어 ‘짐승’을 무찌르는 것으로 나온다. 이후 사건은 두 판본에서 비슷하게 진행된다. 바브사크가 죽은 뒤 카라쿨룸베트는 바브사크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와 결혼한다. 그녀는 아들 쿠세크를 낳는다. 성인이 된 쿠세크는 친아버지가 어떻게 죽은 지 알고서는 카라쿨룸베트와 그 일족을 살해하는데, 부르잔 부족 소년 하나가 유일하게 살아남는다. 두 판본에서 쿠세크의 행동은 서로 다르게 평가된다. 킵차크 판본에서는 그의 복수를 정당하게 평가하지만, 부르잔 판본에서는 그의 잔혹성과 난폭성을 비난한다. 하지만 두 판

본 모두 동일한 사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란은 있어서는 안 되며, 바시키르 부족들이 단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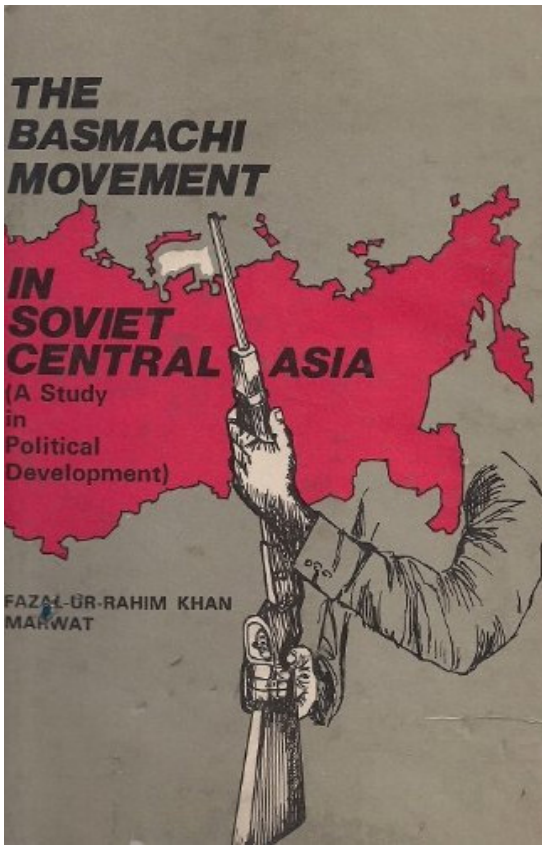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브사크 메넨 쿠세크
- 다국어 표기 Бабсак и Кусэк(러시아어), Бабсак менән Күсәк(바시키르어)
- 연관 검색어 우랄바티르, 아크부자트
- 참고문헌(온라인) Бабсак и Кусэк. Башкирский эпос// http://suyun.info/index.php?p=babsak_and_kusek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иреев А.Н. Башкирский народный героический эпос. Уфа, 1970.
Галин С.А. Башкирский народный эпос. Уфа, 2004.

Ⅰ C020 Ⅰ 바스마치운동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운동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Basmachi Hareketi

바스마치운동은 소비에트정권에 대한 중앙아시아 제 민족의 무력저항운동이다.

러시아인들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오랜 관행인 이슬람을 보호해주었는데, 현지 무슬림들은 독립이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바스마치운동을 시작했다. 제정러시아에 이은 소비에트 정권의 억압이 계속 되자, 무슬림 개혁운동인 자디드운동이 일어났고,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 무슬림들에게 커다란 민족적, 정치적 의식의 자각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 이 지역에서 발생한 기근으로 인해 상당수의 농민들이 유민화하게 되었는데, 유민이 된 농민들은 그들의 생활고 해결을 목적으로 러시아인과 이 지역 무슬림들을 상대로 약탈을 자행하는 상황까지 발전했다. 이것이 바스마치의 시작이다. 즉, 초기의 바스마치 그룹에 의한 약탈행위는 소비에트 정부의 경제적 수탈과 이 지역에서 발생한 기근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1918년 소비에트 정부가 코칸드 자치정부를 무력해산 하자 바스마치 그룹은 조직정비를 통해 본격적인 바스



『소비에트 중앙아시아의 바스마치운동』 표지
 Source: <https://www.amazon.com>

마치운동을 전개했다. 이때 초기의 약탈적 성격의 저항운동은 소비에트의 지배에서 이탈하려는 민족해방운동으로 발전했다. 이처럼 바스마치운동이 범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한 것은 당시 약탈행위를 일삼던 바스마치들이 바스마치운동에 대거 가담하면서 시작되었다.

1918년 이후 본격적인 바스마치운동을 주도했던 바스마치 그룹의 분열과 연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번의 시기에 걸쳐 일어났다.

첫 번째는 소비에트군의 무자비한 공격으로부터 코칸드 자치정부의 방어라는 명목으로 이르가쉬 벡(Irgash Beg)과 마다민 벡(Irgash Beg)이 중심이 되어 초기 바스마치들을 규합했고, 바스마치 그룹의 활동이 초기의 약탈행위에서 벗어나 정치적인 무력저항운동으로 변모하게 된 시기이다.

두 번째는 오스만 제국의 엔베르 파샤(Enver Pasha)가 중앙아시아로 건너와 바스

마치조직에 합류한 후 주로 페르가나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바스마치그룹들을 규합했던 시기와 엔베르 파샤의 사후 그와는 별도로 중부 페르가나지역의 바스마치조직을 이끌던 이브라힘 벡(Ibrahim Beg) 주도로 소비에트정부에 대한 저항이 전개되었던 시기이다.

바스마치운동이 실패하게 된 원인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스마치조직을 완전한 하나로 묶을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초기의 바스마치운동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해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소비에트로부터 독립을 하려는 노력보다는 자치정부 형성에만 급급했다. 물론, 엔베르 파샤의 등장으로 인해 각 바스마치 조직들이 연합결성되기는 했지만 중앙아시아 전지역에 걸쳐 형성되지는 못했다. 특히, 엔베르 파샤는 중부 페르가나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하던 이브라힘 벡과 군사적 연합을 하지 못했다. 여기서 결정적 실

패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둘째, 군사적인 측면에서 전투기, 대포 등 신무기를 앞세운 소비에트군의 강력한 화력 앞에 바스마치 전사들의 전력은 지나친 열세에 있었다. 물론, 영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지원이 있었지만 바스마치운동이 쇠퇴해 갈 무렵에는 아프가니스탄의 군사지원마저 끊기게 되었다.

셋째, 1905년 이슬람개혁주의자들이 자디드운동을 시작한 이후 개혁주의자와 전통주의자들 사이의 세력다툼이 극심해져 통일된 대소비에트 저항운동을 전개하지 못했다.

넷째, 제1차 대전후 형성된 신국제질서 속에서 중동국가들은 바스마치운동이 성공할 경우 또다시 대두될 수 있는 범투란주의(Pan-Turanism)의 확산을 경계했기 때문에 방관적인 태도를 취했다.

바스마치운동은 종국에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중앙아시아 현지민들이 중심이 되어 소비에트의 압제에 항거해서 전개한 강력한 반제국주의, 민족주의 저항운동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스마치

● 다국어 표기 Basmachi movement(영어)

● 연관 검색어 엔베르 파샤, 페르가나, 자디드운동

● 참고문헌(오프라인) 김문경, 「舊소련의 中央아시아 強占과 무슬림 抵抗運動 -바스마치운동(1917~1927)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최한우, 『중앙아시아학입문』, 도서출판 펴내기, 1997.

I C021 | 바시쿠르트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우덕찬, 김홍중 ● 라틴 문자 Bashkurt

바시쿠르트는 바시키르 공화국(바시코르토스탄)을 근거지로 삼는 토착 투르크 민족으로, ‘바시키르’라고도 불린다. 바시키르스키어로는 ‘башҡорттар’이며 스스로를 바시코르트(башкорт)라고 부른다. 전 세계에 170만 명, 러시아에는 2010년 기준으로 1,584,554명이 살고 있으며, 이 중 1,172,287명이 바시키르공화국(바시코르토스탄)에 살고 있다.

알타이어족 투르크어군에 속하는 바시키르어를 사용하지만 러시아어와 타타르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종교는 이슬람 수니파이지만 물신을 숭배하거나 동물을 숭배하는 원시 종교의 전통도 남아 있다.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기 때문에 바시코르트란 호칭은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1) 우두머리 늑대를 지칭 2) 양봉, 벌의 주인을 의미 3) 우랄 지역의 중심지 4) 중요한 웅가르(баш унгар) 5) 불가르의 변형 등이다.

고대에 오늘날의 바시키르공화국(바시코르토스탄)은 인도유럽계 민족들과 핀-우그르 민족들이 서로 섞여 지냈었다. 9세기 시베리아와 우랄 지역의 투르크 유목 민족들이 들어와 바시키르인들에게 투르크어를 전파했다고 여겨진다. 기원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렇게 투르크계와 핀족의 혼혈이 이루어졌고, 10세기에 바시쿠르트 민족의 정체성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1236년 몽골 바투에 의해 정복되었고, 킵차크 칸국의 지배를 받았다. 킵차크 칸국과 몽골 제국이 멸망한 후에는 카잔 칸국의 지배하에서 완전 투르크화 되었고, 종교적으로도 이슬람화 되었다. 바시키르 민족의 본격적 형성은 13세기 금장 칸군(킵차크 칸국)의 킵차크어를 받아들이면서 완성되었고, 15세기 카잔 칸국을 지나 16세기 러시아 왕국 때까지 민족의 발전이 지속되었다. 16세기까지 경제적 독립성을 지닌 대가족 집단이 우세했으나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는 경제 형태, 즉 반유목 경제인지 정주 경제인지에 따라 대가족, 소가족 형태가 공존했다. 일부다처제도 존재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소가족 형태이다. 17세기까지 바시키르인들은 반유목이나 사냥에 종사했고 점차 농업으로 옮겨가 지금 대부분의 바시키르인들은 농업이나 양봉에

종사한다. 바시키르인들의 용맹과 전투력은 명성이 높는데, 주치의 몽골군과 14년 동안 전쟁을 하고도 패하지 않았으며 18세기~19세기 바시키르 메세랴스키 군대(Башкиро-мещеряжское войско)는 러시아의 국경 경비를 담당했다.

현재는 러시아연방 안에 자치공화국을 형성하고 있다. 바시코르토스탄의 수도는 우파(Ufa)이며, 러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으로, 러시아 중서부 우랄산맥 남부에 위치한다. 모스크바(Москва, Moscow)에서 남동쪽으로 1167km 떨어져 있으며, 러시아 불가연방관구(Приволжский федеральный округ)의 우랄경제지구(Ураль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айон)에 속하는 지역이다. 동쪽으로는 첼랴빈스크주(Челябинская область), 남쪽과 서쪽으로는 오렌부르크주(Оренбургская область), 북서쪽으로는 타타르스탄 공화국(Республика Татарстан), 북쪽으로는 우드무르트 공화국(Удмурт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페름 변강주(Пермский край), 스베르들롭스크주(Свердловская область)를 접한다.

인구 4,051,005명(2019년 기준)인 바시코르토스탄 공화국의 주민은 러시아인(36%), 바시키르인(29.5%), 타타르인(25.4%), 추바시인(2.7%), 마리인(2.6%), 우크라이나인(1.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는 이슬람교 수니파(67%)와 러시아정교회(22%)가 대표적이다. 주로 바시키르인과 타타르인이 이슬람교를, 러시아인과 추바시인, 우크라이나인 등이 러시아정교회를 믿고 있다.

러시아 연방 내에서 산업구조가 다각화된 지역 중 하나이다. 주요 산업은 정유 및 석유화학, 화학, 연료생산, 광업, 기계, 금속가공, 목재가공, 건축, 농업 및 낙농업, 관광업 등이다. 특히 정유 및 석유 화학산업은 공화국의 경제를 이끄는 중심 산업이다. 불가우랄 유전의 동반(東半)에 해당하는 바시코르토스탄 공화국은 우파, 네프테캄스크 인근, 벨레베이, 벨라야강 중류의 이심바이 등지에서 석유가 산출되고 있고, 이에 따라 우파, 이심바이, 살라바트가 정유 및 석유화학 등의 신흥 공업도시로 성장했다. 또한, 풍부한 광물이 공화국 영토에 매장되어 있으며, 주로 철, 구리, 금, 망간, 보크사이트, 아탄(亞炭), 돌소금 등이 채굴된다. 농업은 주로 벨라야 계곡 인근에서 이루어지며, 호밀, 귀리, 옥수수, 아마(亞麻), 사탕무, 감자, 해바라기 등이 재배된다. 공화국 북부의 우랄산맥 지방에서는 소, 양, 말 등의 가축 사육과 양봉업이 활발하다. 바시키르 전통 수공업으로 섬유, 펠트, 양탄자, 자수, 가죽공예를 들 수 있다. 최근에는 바시코르토스탄 공화국의 다양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휴양시설이 들어서면서 관광업이 성장하고 있다.



바시코르토스탄 주민 모습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쉬쿠르트, 바시키르, 바쉬키르, 바쉬키르
- 다국어 표기 Башкíрия(러시아어), Bashkir(튀르키예어), Башкиры(러시아어), Başkurtlar(튀르키예어), Bashkirs(영어)
- 연관 검색어 바시키르공화국(바시코르토스탄), 바시키르인, 추바시인
- 참고문헌(오프라인) 최한우. 『중앙아시아학 입문』, 도서출판 펴내기, 1997.

Мурзагалиев Р.И., Сулейманов А.Р. Чекрызов А.В., Мурзагалиев Б.Р. «Традиции и праздники тюркских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Диалог, Уфа, 2017.

Энциклопедия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 2005.

I C022 | 바시키르공화국(바시코르토스탄)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국가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Bashkortostan

바시키르공화국(바시코르토스탄)은 ‘바시키르(바쉬쿠르트) 민족의 나라’란 뜻으로, 러시아 연방 자치공화국 중 하나이다. 프리볼쥬스키 연방관구에 속하며 우랄 경제 지역에 포함된다. 러시아 유럽 지역의 남동쪽인 우랄산맥의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페름 변경, 스베르들롭스키주, 첼랴빈스키주, 오렌부르크주, 타타르스탄 공화국, 우드무르트 공화국과 접해 있다. 바시키르공화국(바시코르토스탄, Башкортостан), 바시키르공화국(바시코르토스탄, Республика Башкортостан), 바시키리아(Башкирия) 등으로 부르며 수도는 우파(Уфа)이다. 바시키르공화국(바시코르토스탄)의 인구는 약 400만(2005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자치공화국 중 가장 인구가 많다. 영토는 142,947제곱미터로 러시아 연방에서 27번째로 크다. 시간대는 예카테린부르크와 동일한 UTC +5:00이다. 바시키르공화국(바시코르토스탄)의 지리는 서부, 남부, 그리고 산악 바시키르공화국(바시코르토스탄)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며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동광, 아연, 금, 암염, 시멘트 원료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바시키르공화국(바시코르토스탄) 면적의 40%를 숲이 차지하며 여기에는 다양한 생태자원이 존재한다. 바시키르공화국(바시코르토스탄)에는 세 군데 국립보호공원(바시키르 국립보호공원, 남우랄국립보호공원, 술간-타시 국립보호공원)과 하나의 생태보호구역, 하나의 민속공원, 29개의 생물보호구역, 다섯 개의 자연공원 등이 있다. 다민족 국가인 바시키르공화국(바시코르토스탄)에는 36.1%를 차지하는 러시아인과 29.5%를 차지하는 바시키르인, 그리고 25.4%를 차지하는 타타르인이 주요 민족 구성원이다. 우크라이나, 독일, 기타 투르크계 민족들도 살고 있다. 바시키르공화국(바시코르토스탄) 지역에서는 선사시대의 유적들이 발굴되며, 청동기 시대와 철기시대 초기까지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했다. 9세기 후반 페체네크(печенеги)와 오구즈(огузы)가 처음 등장하며, 10세기 말에 바시키르인이 등장한다. 이들은 13세기 초 주치의 몽골군대에 합류하면서 금장 칸국(Золотая орда, 킵차크 칸국)의 일원이 되지만 14세기에 이슬람이 널리 퍼지게 되고 바시키르 문화가 비로써 형성되었다.



바시키르공화국의 수도 우파(Ufa)

금장 칸국이 멸망한 뒤에 바시키르공화국(바시코르토스탄)은 카잔 칸국, 시비르스키 칸국, 노가이 칸국에 포함된다. 1558년 자진해서 러시아에 복속되었지만 기독교 강제 개종, 가혹한 세금, 토지 소유권 문제 등으로 잦은 봉기를 일으켰다. 이 지역은 18세기 푸가쵸프의 봉기의 주요 근거지이기도 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직후 자치를 선언했으며, 1992년 현재의 공화국명인 바시키르공화국(바시코르토스탄)을 가지게 된다.

바시키르공화국(바시코르토스탄)은 2003년 기준으로 러시아연방의 총 생산 중 2.3%를 담당했다. 석유채굴, 동광, 암염 같은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화학공업, 기계산업 등도 발달해 러시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업, 축산, 양봉 등도 발달했다.

수만개의 초등, 중급 교육기관 뿐 아니라 바시키르공화국(바시코르토스탄) 종합대학, 농업대학, 의학대학, 석유기술대학, 항공기술대학, 사범대학, 예술 아카데미와 과학아카데미 등이 바시키르공화국(바시코르토스탄)의 높은 교육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건축물과 박물관, 극장, 발레-오페라 극장, 음악연주회장이 이 자치공화국의 문화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쉬키르공화국
- 다국어 표기 Башкортостан(러시아어), Başkurdista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바시키르, 오구즈, 노가이, 바시쿠르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www.islamicworld.it/wp/wp-content/uploads/2017/01/05-Bashkortostan-Flag.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xn----7sbacsfscnbdnzsqis3h5a6ivbm.xn--p1ai/6921>
<https://bigenc.ru/geography/text/1857907>
- 참고문헌(오프라인) Мурзагалеев Р.И., Сулейманов А.Р. Чекрызхов А.В., Мурзагалеев Б.Р. «Традиции и праздники тюркских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Диалог, Уфа, 2017.
Энциклопедия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 2005.

I C023 | 바시키르어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언어명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Bashkir Language

바시키르어(바시쿠르트어)는 러시아연방 바시키르공화국(바시코르토스탄)에서 쓰이는 투르크어이다. 바시키르어 투르크어 분류체계에 의하여 북서부 투르크어, 즉 킵차크 그룹의 언어에 속한다. 바시키르어는 타타르어, 카자흐어, 노가이어와 그 형태가 거의 비슷하다. 바시키르어에는 몽골어, 만주-통구스어, 핀-우고르어, 페르시아어 그리고 아랍어에서 차용된 단어들도 발견된다. 바시키르어 화자는 2002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대략 1,057,000명 정도로 추정되며, 바시키르 공화국 이외에 타타르 공화국, 우드무르트 공화국, 페름 지방, 오렌부르크주, 쿠르간주, 첼랴빈스크주, 페름 지방에 거주한다.

바시키르어는 불가르어의 방언으로서 킵차크어가 바시키르어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바시키르어는 타타르어와 매우 유사하다.

바시키르인들은 15세기부터 1923년까지 차가타이어를 사용하며 그들의 언어를 모두 아랍문자로 표기했으나, 이후 러시아의 영향으로 인하여 1938년부터 키릴문자로 표기한다.

바시키르어는 오구즈어, 불가리아어 그리고 시베리아 투르크어에서 발견되는 가장 오래된 투르크어의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초기 투르크어에서는 단어의 첫 음절 /h/음가가 보존되어 나타난다. 실제로 북서부 투르크어 그룹의 투르크어들의 경우 단어 첫 음절에 /h/ 음가가 나타나지 않지만, 바시키르어에서는 초기 투르크어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인 /h/ 음가가 발견되는데 이를 뒷받침해 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바시키르인의 이슬람교로의 개종은 그들의 언어 사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슬람 문화의 유입은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어휘의 대량 유입과 더불어 음성 구조 변화도 초래했다. 20세기 이후 러시아어가 공용어로 채택되면서 바시키르어에 대한 러시아어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쉬키르언어, 바쉬키르어, 바쉬쿠르크어
- 다국어 표기 Башҡортса(바시키르어), Baškurtç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타타르어, 카자흐어, 노가이어, 바시키르 공화국, 킵차크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Hisamitdinova F., & BİNER İ., “Başkurtlar ve Baškurtça”. *Tehlikedeki Diller Dergisi*, 3(4), 2014, 93~109.
- Arslan H. Ç., “Baškurtça Dil İncelemeleri”. *Çukurova Üniversitesi Türkojji Araştırmaları Dergisi*, 2(2), 2017. 263~294.

I C024 | 바야트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구비문학 ● 유형 소분류2 시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Bayatı

바야트(Bayatı)는 아제르바이잔 구비문학의 시 형식이다. 바야트라는 이름은 바얏(bayat) 부족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바야트는 시 형식이며, 4행으로 구성된다. 각 행은 7개의 음절로 이루어진다. 바야트의 각운 체계는 a-a-b-a이다. 첫번째, 두번째, 네번째 행들에서는 각운을 철저히 지키지만 세번째 행은 자율이다. 첫번째와 두번째 행은 서론에 해당한다. 핵심 아이디어는 마지막 두 문장 즉, 세번째와 네번째 행에서 나타난다. 바야트의 첫번째 행은 주로

‘나는 명창(Mən aşıq)’, ‘나는 명창이요(Mən aşıqəm)’, ‘여러분(Əzizinəm)’, ‘조국이여(Eləm)’로 시작한다.

바야트는 주제 면에서 매우 다채롭다. 주로 민족의 애환, 사회의 구조적 부조리에 대한 저항, 억압과 외국인 침략자에 대한 증오 그리고 자유와 행복을 표현한다. 사랑과 이별 그리고 우정을 다루는 바야트들도 많이 쓰여졌다. 다른 구비문학 장르들과 마찬가지로 바야트도 여러 세대로 이어지면서 다양한 버전을 갖게 됐다.

바야트 대부분은 저자가 없다. 바야트는 민중 사이에 퍼지면서 내용이 수정되고 변경됐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에는 일부 저자가 있는 바야트들도 있다. 저자가 있는 바야트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르 아시윅(Sarı Aşıq, 16세기~17세기)의 바야트를 들 수 있다.

한편 바야트는 고전문학이나 현대문학에 모두 존재한다. 투르크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민족에게는 바야트와 비슷한 시 형식이 있다. 가령 이라크(İraq)에 사는 호이랏(xoyrat) 족을 예로 들 수 있다. 바야트 장르는 의미와 형식 면에서 차스투스카(çastuşka, 영어: Chastúshk, 러시아 민요)에 가깝다. 슬픈 멜로디와 노래들도 바야트에 포함되는데, 아제르바이잔 전통 음악인 무감(muğam)도 바야트와 관련 있다. 예를 들자면, 바야트 쉬라즈(Bayatı Şiraz), 바야트-퀴르드(Bayatı-kürd), 바야트-가자르(Bayatı-qacar) 등이다.

바야트는 가장 많이 알려진 대중적인 구비문학 장르 중 하나다. 바야트들의 대부분이 슬프고 애절한 정서를 담고 있다. 타국에서의 외로움, 이별 그리고 고향에 대한 향수를 그린 바야트들이 많다. 다음은 바야트의 예시이다:

나의 연인이여
구걸하라
정원에서 꽃을 구걸하라
타국에서 왕이 되려 하지 마라
고향에서 구걸하라
나의 조국이여
나를 남에게
나를 남에게 팔았다

내게는 아무도 없다
나를 기억해 줄 사람 하나 없다.

바야트들의 종류 중에는 지나스(cinas, 시에 쓰이는 동음이의어, 각운의 한 방식)에 의해 형성된 바야트들도 있다. 아래는 그 예이다:

나의 연인이여,
라일락을
나는 라일락을 뺐다.
너는 떠나면서 뒤를 돌아봤다.
너는 나를 시름에 빠지게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얏
- 다국어 표기 Bayatı(아제르바이잔어), Bayatı(튀르키예어), баяты(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마컴, 무감, 데스탄, 더스텐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10 cildə, I c., Bakı, 2018, s. 340~357.

I C025 | 바얀 운데르 유적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성지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Bayan Undur

바얀 운데르 유적은 러시아에 있는 흥노 성지이다. 바얀 운데르 지역의 지다 강의 우안 언덕 위에 위치한다. 이 유적의 면적은 70m×70m이고 성벽 밖에 해자가 설치되었다. 정착지 내부에는 또 다른 성벽이 확인되었다. 현재에서 성벽에서 내부에서 잦 높이는 1m, 외부에서 잦 높이는 160cm~170cm이다. 성곽 외부 성벽의 기능은 명확하지 않다. 성벽의 입구는 남쪽에 있

는데, 다른 구조물 없이 성벽이 끊어지게 설치된 것이다. 방어용으로 설치되었다. 성벽 내부의 북서쪽에는 지상식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두께 0.5m이고 7m×8m의 지상건물지이다. 외부에는 정사각형 모양의 점토 돌출부가 있는데, 그 안에는 나무기둥의 흔적이 있다. 기둥 아래에는 석재 타일이 있는 구멍이 있다. 건물의 북동쪽에는 아궁이 시설이 확인되었고, 이



바얀 운데르 유적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를 따라서 석판이 연결되었는데 이불가 성지와 마찬가지로 온돌시설로 생각된다. 사면에서 1.2m~1.4m의 진흙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동북 주변에서도 집터의 잔해가 남았다. 세 벽을 따라서 석판이 둘러진 흔적이 있는데, 이것도 온돌시설이다. 흥노 성지 가운데 온돌시설이 확인된 유적은 이불가 성지와 바얀 운데르 성지가 있다. 바얀 운데르 유적은 이불가 성지와 같은 시기로 기원전 2세기~기원전 1세기에 해당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얀운데르

● 다국어 표기 Баян Ундэр(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흥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2TyL>

<https://ru.wikipedia.org/wiki/%D0%90%D0%BB%D1%82%D1%8B%D0%BD%D0%B0%D1%81%D0%B0%D1%80>

● 참고문헌(오프라인) С.В. Данилов Города в кочевых обществах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Улан-Удэ: 2004, 202 с.

I C026 | 바얀추르(시네 우수 비문)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유물 ● 유형 소분류2 비문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Bayanchur Inscription / Sine-Ussu Inscription

바얀추르는 고대 투르크 룬 문자를 이용해 위구르인들이 남긴 비문이다. 위구르인들도 돌궐인들처럼 돌궐문자를 사용하여 비문을 남기곤 했는데 테스(Tes)비문, 타리아트(Tariat), 바얀추르(Bayanchur; 시네우수(Sine Ussu)), 카라발가순(KarabalgasunI)비문, 카라발가순 제2(Karabalgasun II), 수지(Süüji)비문이 그 예이다. 이들 중 시네 우수 비문은 위구르 비문 중 내용면에서 가장 방대하다. 시네 우수 비문은 1909년 봄, 알타이어 이론의 창시자이며 핀란드 학자인 구스타프 존 람스테드(Justaf John Ramstedt)가 “Finno-Ugric Society”(핀-우고르 사회) 월정 도중 발견했다. 당시 문헌학자 사카리 팰시(Sakari Pälsi)와 두 명의 몽골인 조수가 그의 연구에 동행했다. 당시 유럽인들이 자신들의 신성한 유물과 유적을 훼손할까 우려했던 지역 원주민 몽골인들은 그들의 연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때문에 연구팀은 비문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들도 제공받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람스테드와 그의 연구원 팰시가 그들이 머물고 있던 숙소의 손님 접대실에 근무하던 공무원에게 돌궐 문자를 보여주자, 공무원은 무의식 중에 이 근처에도 이 글씨가 쓰인 비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비문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람스테드는 이내 그것이 새로운 투르크 비문임을 인지하게 되고, 서둘러 그 비문을 찾아 나섰다.

람스테드는 몽골 북서부에 위치한, 모고이투(Mogoitu)라는 작은 강과 시네 우수 호수 근처에서 비문을 발견했다. 시네 우수 호수는 달고 짠 맛이 나며, 강수량에 의해 호수가 불어나기도 때로는 말라버리기도 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호수이다.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이 호수의 이름을 시네 우수(새로운 물)이라 불렀다. 람스테드는 이 호수 인근에서 발견된 비문의 이름을 호수의 이름을 따서 ‘시네우스 비문’이라 명명했다. 화강암으로 구성된 3.8m의 높이를 자랑하는 시네 우수 비문의 사면은 모두 고대 투르크 문자인 돌궐 문자로 작성되어 있으며 북쪽, 동쪽, 서쪽 면은 12행, 남쪽 면은 15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남쪽과 서쪽 면에 두 행이 더 추가되어 있는데, 서쪽 면에서 읽을 수 있는 한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마지막 행의 경우는 일부 연구자들

은 이전 행의 연속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시네 우수 비문은 총 50행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문에 쓰여진 낱자들은 비문의 연대기를 해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네우수 비문은 테르힌(Terhin) 및 테스(Tes) 비문과 마찬가지로 747년에서 759년 사이 돌궐 제국을 지배했던 바얀추르(Tenride Bolmış El Etmiş Bilge Kagan/BayanChur=Moyunchur)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비문에는 740년부터 바얀추르가 사망한 759년까지 위구르인들이 돌궐, 카르루크, 토쿠즈 타타르, 철릭, 키르기스 및 바스밀과 치렀던 전쟁에 대하여 적혀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얀초르비문, 모윤초르비문, 쉬네우수 비문

● 다국어 표기 Bayan Çor /Moyun Çor /Şine-Usu Yazıtı(튀르키예어), 磨延啜(중국어)

● 연관 검색어 돌궐, 위구르, 키르기스

● 참고문헌(오프라인) Aydın Erhan., *Şine Usu Yazıtı*. Çorum: Kara M. 2007.

Ölmez Mehmet., *Uygur Hakanlığı yazıtları*. Ankara: Bilgesu, 2018.

Hamilton J. R., "Tokuz Oguz ve On Uygur". (Y-Koç-İ. Birkan, Trans.). *Türk Dilleri Araştırmaları* 7, 1997. pp.187~232.

Ramstedt, G. J., "Zwei Uigurische runeninschriften in der Nord-Mongolei". *Journal de la Société Finno-Ugrienne* XXX/3, 1913. pp.1~63.

이용성, 「시네 우수(Şine-Usu) 비문의 남쪽 면 제3행에 있는 bldgWčlr에 관하여」. 『중앙아시아연구』, 23(1), 2018, pp.33~46.

I C027 | 바양 불락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터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Bayan Bulag

유적은 흉노 시대의 성지로 움누고비 아이막 넘건 솜 중심지에서 30km 떨어진 보르존강 고비의 북부에 위치한다. 이 유적은 1950년대 Kh. Perlee가 발견한 곳이다. 그는 당시 토성의 규모를 북벽 180m, 서벽 길이를 160m-180m로 계측한 바 있다. 작은 지역을 시굴한 결과 청동

의 화살촉과 흉노의 토기편을 발견했고, 흉노성지로 알려졌다. 나중에 몽골의 고고학자 D.나완이 발굴하고 좀 더 많은 유물을 발굴해서 유적으로는 오수전과 청동도장, 토기편 등이 출토되어서 흉노시대와 13세기~14세기의 인간 흔적이 남았던 걸로 알려졌다. 유적의 북쪽과 남쪽으로 구분되는데, 동벽과 서벽에 동물, 자연환경 등으로 절개 면이 생겨서 파손되었기 때문이다. 유적의 북쪽 부분은 길이가 180m가량 남아 있고, 너비는 10m~18m로 지점마다 차이가 있다. 북벽과 서벽, 동벽이 만나는 지점의 2곳 모서리에는 성벽을 방어하는 치가 남아 있다. 성벽은 북쪽을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1990년에 몽골과 러시아고고학자들이 새롭게 이 유적을 조사해서 다양한 청동화살촉과 토기 등이 발굴되었다. 이 유적은 오수전과 한대 철경 등이 출토되었고, 고비 사막의 북부에 위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Z.바트사이한은 바양볼락 토성을 역사서에 등장하는 조신성(趙信城)이라는 의견이 있다. 조신(趙信)은 중국 한나라 장군인데, 기원전 123년에 흉노와 한무제의 전투 중에 항복했다. 그 후에 선우가 가장 좋아하는 참모가 되어서 흉노의 선우정을 고비 이북으로 옮기자고 설득한 인물이다. 흉노의 선우가 조신을 위해서 이북 지역에 토성을 만들었는데 바양볼락 유적이 그곳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조신성은 흉노 선우정이 고비 이북으로 옮겨진 이후에 만들어져서, 한나라의 군대를 방어하기 위해서 고비 사막 북부에 세워진 토성이다. 사막을 건너오느라고 힘들어진 한나라 군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세워진 전략적 방어 토성이라는 의견도 있다.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까지 망가신 후레 유적과 함께 흉노 제국과 한 왕조사이의 자연적인 입지에 기반한 국경 성지임은 틀림없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얀 불라그

● 다국어 표기 Bayan Bulag(몽골어)

● 연관 검색어 흉노, 무제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2013.

에렉젠, 양시은, 『흉노』,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2017.

I C028 | 바우으르삭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식주 ● 유형 소분류2 음식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Boursak

바우으르삭은 카자흐인들이 디저트용으로 먹는 작은 형태의 도너스이다. 바우으르삭은 카자흐인, 키르기스인 튀르키예인 등 여러 투르크 민족과 몽골인들이 주로 먹는 음식이다. 대개 잔치나 주요 행사 때에 손님들이 간단히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바우으르삭의 모양은 민족별로 차이가 있지만 카자흐인의 경우에는 둥글둥글한 형태를 띠고 있고, 한입에 바로 들어가는 크기이다. 바로 도너스 형태이다. 맛도 도너스와 비슷하다. 바우으르삭의 재료는 밀가루, 우유, 달걀, 설탕, 소금, 버터, 이스터 등이다. 바우으르삭을 만드는 방법은 도너스 만드는 법과 거의 같으며 만들어진 바우으르삭을 설탕이나 꿀에 곁들여 먹는다. 손님맞이 잔치상이나 행사 때 간식용 음식으로 제공된다. 바우으르삭 내부에는 팥 등 특별한 첨가물이 없고 밀가루로만 되어 있어서 담백한 맛을 낸다. 외부에 설탕가루를 뿌리거나 꿀에 찍어서 먹는다. 중앙아시아에서는 국가에 관계없이 시장이나 음식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바우으르삭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보그르속, 바이르삭
- 다국어 표기 бауырсақ(카자흐어), боорсок(키르기스어), bog'irsoq(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베스바르막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baribar.kz/wp-content/uploads/2018/08/0cc175b9c0f1b6a831c399e269772661-4-1536x1024.jpg>

<https://www.youtube.com/watch?v=BYpbTyqM4Bk>

● 참고문헌(온라인) <https://folkways.today/boursak-bread-hospitality/>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1, Алматы, 2004.

I C029 | 바을라마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악기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Bağlama

바을라마는 사즈(saz)라고도 불리며, 튀르키예 민속 음악에서 널리 쓰이는 발현악기이다. 지역과 악기의 크기에 따라 코푸즈(kopuz), 주라(cura), 사즈(saz), 최위르(çöğür), 돔브라(dombra), 이키텔리(ikiteli), 탄부라(tanbura), 타르(tar)와 같이 달리 불린다. 오스만 고전 음악에서는 (바을라마 연주가를) ‘사즈’를 연주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즈카르, 사젠데(sazkâr, sâzende)라고 부르기도 했다.

바을라마는 일반적으로 몸통(tekne), 공명판(ses tablası), 사프(또는 목, sap), 헤드(burguluk), 줄감개(burgular), 플랫(perde), 현(teller)과 하단 및 상단 브릿지(eşik)으로 구성된다. 종류에 따라 현의 개수가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7개의 현이 있으며, 플렉트럼 또는 손가락으로 연주한다.

아나톨리아반도에서 바을라마는 결혼식이나 헤나의 밤과 같은 의식, 일반적인 모임에서 연주된다. 또한, 발칸반도와 아나톨리아반도에서는 알레비-벡타슈 모임인 아이이니 켄(âyîn-i Cem)등에서 오프닝을 맡는 악기이기도 하다. 이런 종교적 모임에서 바을라마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악기는 귀하게 취급된다. 악기를 절대로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연주가 끝난 후에는 잘 보관한다. 종교적 의식 이외에도 일반적인 민속 음악 연주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악기이다. 아시옥(Aşık: 구비서사시를 노래하는 음유시인)도 일반적으로 공연시에는 반주 악기로 바을라마를 사용한다.

바을라마의 일종인 주라(cura)는 아나톨리아 오잔(ozan, 음유시인;소리꾼)들이 가장 많이 사



바울라마 연주

용하는 악기로 바울라마 종류 악기 중 가장 작으며 3현, 4현, 5현, 6현, 2현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목의 길이는 약 40cm 정도이다. 바울라마 보다 한 옥타브 위로 설정된 소리가 다른 현악기와 함께 연주할 때 더 명확하게 선율을 다양화한다. 크기가 작은 만큼 춤과 함께 추는 곳에서 움직이며 연주하는 데 적합하다.

디완 사즈(Divan sazı)도 바울라마의 일종이다. 9현 또는 7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몸통의 길이는 48cm~52cm, 목의 길이는 65cm~55cm, 현의 길이는 104cm~106cm이다.

메이단 사즈(Meydan sazı)도 바울라마의 일종이며 12현으로 되어 있다. 바울라마 류의 악기 중에 가장 크다.

최위르(Çöğür)는 목 부분이 짧은 바울라마로 디완 사즈와 비슷한 크기이며 9현 또는 6현이다. 최위르로 연주되는 작품은 풍부한 감성을 만들어낸다.

탄부라(Tanbura)는 크기는 바울라마보다 더 작고 디완 사즈보다 한 옥타브 높다. 바울라마

보다 네 음 더 높다.

현재도 널리 쓰이는 악기인 바울라마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전자 바울라마로 연주되기도 하며, 플렛의 개수가 변화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대화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울라마

● 다국어 표기 Bağlam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코푸즈, 사르, 알레비, 백타슈, 사즈

● 멀티미디어 링크 바울라마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1/11/Parts_of_the_saz.jpg/423px-Parts_of_the_saz.jpg

바울라마_연주

<https://www.youtube.com/watch?v=Ce2RiEoMSFI>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turksanatmuzigi.org/bilgiler/calgilarimiz/baglama-saz/>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145987&categoryId=60476&cid=60476>

● 참고문헌(오프라인) Duygulu, Melih. “Saz”,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36, İstanbul: TDV, 2009, pp.218~220.

I C030 | 바이드벡-아타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Baidibek Ata

바이드벡 아타는 ‘바이드벡-비’라고도 불리며, 카자흐 민족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서 현재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에서 활약한 카자흐인 선조이다. 그 활동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 문헌이 남아 있지 않아서 다양한 설이 있다. 대개 6세기-7세기설, 11세기~12세기설 및 최근에는 14세기설 등이 있을 정도로 역사적 실존 유무가 명확하지 않은 전설적인 인물이다. 하지만 바이드벡-비는 훗날 대쥬즈의 부족들이 형성되는 데 있어 혈연적 연고가 있다. 바이드벡-비는 알반(Alban), 수안(Suan), 둘라트(Dulat), 사리-우순(Sary-Uisun), 샤프라쉬트(Shapyrashty), 이스트(Ysty) 및 오삭트(Oshakty) 씨족 등의 선조이다. 전설에 의하면 어린 시절에 일찍 고아가

된 바이드벡은 15세가 되면서 뛰어난 능력과 활약으로 씨족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비(태수, 호족)’라는 상층 지도자 타이틀을 구성원들로부터 받았다. 바이드벡-비는 그의 첫 부인 사라에게서 6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은 카라타우(Karatau) 동부 지역 전투에서 모두 전사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현재 사라의 6명 아들의 무덤으로 불리고 있다. 바이드벡-비 자신은 발라보겐(Balabogen) 강가의 인접한 곳에 묻혔으며, 1998년에 그를 기리는 묘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바이드벡-비에 관한 이야기는 기록문헌으로는 전해지지 않고 단지 해당 지역민들 속에서 구전으로 전해오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카자흐인들은 바이드벡-비를 그들의 조상으로 간주하고 존경하고 있고, 그는 카자흐 민족의 선조로서 입지가 굳건하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남부 지역 중심 도시인 심켄트에는 바이드벡-비의 동상이 있을 정도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이드벡 아타
- 다국어 표기 Бәйдібек Қарашаұлы(카자흐어), Байдибек Карашаулы(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uHHHv6M_djk
-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tarih-begalinka.kz/ru/history/medieval/figures/baydibek/> <https://zrr.kr/7xX5>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1, Алматы, 2004.

I C031 | 바이바르스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기타 ● 나라이집트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송경근 ● 라틴 문자 Al-Zahir Baybars

바이바르스(1223년~1277년; 재위: 1260년~1277년)는 이집트와 시리아를 지배한 맘루크 왕조의 5대 술탄이지만 맘루크 조의 실질적 건국 시조이다.

킵차크계 투르크 유목민으로 쿠만족이며, 1223년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키가 크고, 눈은 푸른색을 띠었으며, 한쪽 눈의 수정체는 혼탁부가 있었다. 그는 불가 근처에서 10살이 넘을 때까지 살았고, 14살에 노예로 팔려가 친구와 함께 중동 노예 시장에 끌려다녔다. 몇 차례



바이바르스의 영묘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

주인이 바뀌다가 1246년 18세에 아우브조의 술탄 알 살리흐의 맘루크(노예)가 되어, 술탄 친위대에 근무하게 되었다. 뛰어난 힘과 몽골군 전술 그리고 장비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 덕분에 2년 만에 경호대장이 되었다.

1250년 제7차 십자군 침입 시기에 만수라 전투에서 십자군을 격파하고, 프랑스왕 루이 9세를 포로로 잡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전후 술탄 알-살리흐의 후계자 투란 샤가 맘루크를 탄압하자, 술탄 알-살리흐의 후궁 샤자르 알-두르와 결탁하여 투란 샤를 죽이고 샤자르 알-두르를 맘루크 왕조의 술탄으로 추대했다. 샤자르 알-두르와 결혼하여 술탄이 된 아이박이 그를 공격하자, 그는 할 수 없이 시리아로 도주했다. 얼마 후 아이박은 암살됐고, 그 뒤를 이은 쿠투즈가 그를 고용했다.

1260년 몽골군이 침입해 오자, 그는 술탄 쿠투즈의 휘하 장수로서 아인 잘루트 전투에서 맘루크의 선발대로 나서서 몽골군을 격파했다.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이집트로 귀환 중에 그는 알

레포의 통치권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그의 군단장이던 악타이를 처형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쿠투즈를 살해했다. 그런 이유 외에도 아이박과 같은 계열이었던 쿠투즈는 애초에 바이바르스의 정치적 숙적이었다.

그가 카이로에 돌아왔을 때는 추종자들이 그를 열렬히 지지했고, 그는 그 지지기반을 업고 술탄이 되었다. 바이바르스는 지중해변의 십자군 잔류 세력 대부분을 격파하여 멸망시켰으며, 정치적 불안 요소로 작동하던 시리아 암살단을 제거했다. 또한 시리아 땅을 평정하여 맘루크국을 이집트와 시리아 두 지역에 걸친 강국으로 발전시켰다. 반역과 술수로 권력을 잡은 바이바르스는 정통성 확보가 필요했기에 이를 위하여 압바스가의 한 왕자를 칼리프로 옹립하여 맘루크 조의 술탄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가 만든 제도와 기구는 오래 지속되어 3세기 동안 맘루크 정부의 근간이 되었다. 그는 육군과 해군을 양성했고, 군 지휘관들에게 봉토(이크타, iqta)를 수여했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거대한 공공 인프라를 건설했으며, 요새와 성곽을 수리하여 외적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방어했다. 맘루크국 내에서는 수니파의 4대 법학과 권위가 모두 인정되었다. 그는 또한 맘루크국 내에 모든 법학과 출신을 재판관(카디, qadi)으로 등용하는 관행을 정착시켰다. 바이바르스는 학파 간에 반목을 부추겨 이득을 취했다. 그는 압바스 조 전성기에 이용되던 기수를 이용한 우편제도를 다시 재정비하여 카이로와 다마스쿠스 사이에 우편이 사흘 만에 도달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비잔틴 제국, 킵차크 칸국과 동맹을 맺었으며, 몽골의 일 칸국을 물리쳤다. 그는 몽골군의 서진을 막고, 투르크계 노예 왕조인 맘루크국을 굳건하게 세워 이슬람 세계를 몽골의 침입으로부터 지켜냈다.

그는 늘 신변에 유의하면서 살아왔으나, आयु브가의 한 왕자를 독살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컵을 다시 사용하다가 거기에 남은 독을 마시고 나서 사망했다. 그가 사망한 후 술탄의 자리는 능력이 부족한 아들에게 가지 않고, 그의 장수 중 한 사람인 칼라운에게 넘어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술탄 바이바르스, 바이바르스1세, 바이바로스

● 다국어 표기 الطاهر بيبرس(아랍어), Baybars(튀르키예어), Baybars(우즈베크어), Baybars(아제르바이잔어), Султан Бейбарыс(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맘루크, 샤자르 알-두르, 아이박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jdhJ>

● 참고문헌(오프라인) Afaf Lutfi al-Sayyid Marsot. *A Short History of Modern Egypt*,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6, p. 28.

Ahmad Attiyah Ilaah. "Al-Qamus al-Islamiyun", *Maktabah al-Nahdah al-Misriyah*, al-Qahirah:1963, V.1, pp.401~402.

Philipp, Thomas & Haarmann, Ulrich, *The Mamluks in Egyptian politics and Soc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8, p. 5.

Thorau, Peter. *The Lion of Egypt*, Longman, London: 1992, pp.79~85.

I C032 | 바이바르스 모스크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이집트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osque of al-Zahir Baybars

바이바르스 모스크는 현재까지 전해오는 맘루크 시대 모스크 중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모스크 비문에 의하면 1267년에 건축에 착공했고, 1269년에 완성되었다고 한다. 모스크는 아타 베크 파리스 알 딘 아크타이(Atabeg Faris al-Din Aqtaï, 13세기)의 재상이었던 바하 알 딘 알 리 이븐 힌나(Baha' al-Din 'Ali ibn Hinna, 재직: 1267년~1269년) 감독하에 시공됐다.

건축 도중이었던 1268년 다마스쿠스 원정에 나섰던 바이바르스(Baybars, 재위: 1260년~1277년)는 야파 시를 정복하고 그곳의 성을 무너뜨려 성 건축에 쓰였던 목재와 대리석을 카이로로 가져왔다. 승리의 상징으로써 그 재료들을 모스크의 미흐랍과 돔, 막수라(Maqsurah: 모스크 내에 중요 인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철창으로 둘러싼 조금 높은 곳) 축조에 사용하게 했다. 그러나 목재로 만든 돔 등은 오래전에 파손되어 사라졌다.

100mx100m 크기의 정사각형 형식으로 모스크의 주변은 10.96m 높이의 석재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나 키블라 벽면 쪽에만 흔적이 남아 있다. 탑은 모스크와 분리된 상태로 네 곳에 있다. 그중 키블라 면 모서리에 정사각형 형태로 두 개, 나머지 두 개는 직사각형 형태이다.

정문은 북서쪽 면에 있으며, 외부로 약간 튀어나온 형태로 11.83m 넓이의 육면체로 되어 있으며 아치로 이루어진 벽감과 마름모 모양의 장식이 있다. 벽감 양옆에는 현재는 사라진 기둥



바이바르스 모스크
Source: <https://mosqpedia.org/>

이 있었는데 이 기둥 양옆에 무카르나스로 장식된 직사각형 벽감과 이 벽감 상단부에도 무카르나스로 장식된 삼각형 벽감이 있다. 문 양옆에는 로젯 내에 ‘알라’가 쓰인 장식이 달려있다. 이 문 앞에 직사각형 형태의 미너렛이 있었다. 입구 아치의 상단부는 물결 문양 음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입구를 지나가는 복도 윗부분은 펜덴티브의 지지를 받는 돔으로 덮여 있다. 이 돔은 이집트 모스크 건축에 있어 둥근 천장이 도입된 사례로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첫 번째 예시이다.

모스크의 북동쪽과 남서쪽 벽에도 정문과 마찬가지로 외부로 돌출된 형태의 문이 있으며, 이

문을 통해 내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내원으로 들어가는 복도는 교차볼트로 덮여 있다.

아케이드는 야외 공간과 키블라 벽 방향의 지붕이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키블라 벽 쪽으로는 여섯 줄의 기둥과 그 위를 볼트가 지지하고 있는 중앙 돔 그리고 평천장으로 덮여 있다. 이 두 공간 모두 기도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이 모스크는 특히 짙은 색과 밝은색의 석재를 교차로 배치하여 장식하는 아블락(ablak)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이다.

16세기부터 시작된 훼손된 모스크는 계속 복구공사를 하지 못하고 창고, 프랑스 군대의 탑, 이집트 군대의 병영과 비누 공장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영국 군대는 도축장 및 주방으로 사용했다. 많은 부침을 겪다가 1918년에 이르러서야 이집트 정부가 일부분을 허물고 새롭게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바이바르스 모스크는 맘루크 왕조의 실질적인 창시자였던 바이바르스의 승리를 기념하고, 동시에 맘루크 건축의 기초를 다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건축물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이바르스 자미, 바이바르스 마스지드

● 다국어 표기 مسجد الظاهر ببيرس (아랍어), Baybars Camii (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9/9c/Al-Zahir_Baybars_Mosque_in_Cairo_DSCF4257.jpg

바이바르스 모스크 정문

https://s3.amazonaws.com/media.archnet.org/system/media_contents/contents/6510/original/IHC0591.jpg?1487097755

● 참고문헌(오프라인) Bloom, Jonathan. "The Mosque of Baybars al-Bunduqdari in Cairo". *Annales Islamologiques* 18, 1982. pp.45~78.

Behrens-Abouseif, Doris. "Baybarsı Camii", *TDV İslâm Ansiklopedisi*, 5. cilt, pp.223~224.

I C033 I 바이에지드 1세

- 시기 A.D.1000년~A.D.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Bayezid I, the Thunderbolt

바이에지드 1세(I.Bayezid, 1354년 ~1403년, 재위: 1389년~1402년)는 오스만 제국의 술탄으로 제 4대 군주이다. 벽력(이을드름, yıldırım)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카라만 공국과의 앙카라 근교 프랭크 야즈스 전투에서 대단한 용맹을 과시하여 위의 별칭을 얻게 되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아나톨리아와 발칸은 지속적인 전쟁 상태였다. 바이에지드 1세는 오스만 영토를 다뉴브강에서 유프라테스강 유역까지 확장시켰다. 그는 코소보 전투(1389년)에서 아버지 무라드 1세가 죽고, 전장에서 술탄으로 즉위하자, 곧바로 전투에 같이 참전했던 동생 야쿱 왕자를 제거하여 왕권 도전의 여지를 없앴다.



바이에지드 1세 초상화, 파올로 베로네세 작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무라드 1세의 죽음은 아나톨리아 가신국들이 이반(離叛)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바이에지드는 아이든, 사루한, 게르미안, 멘테세, 하미드 같은 공국들을 무력으로 정복해 버렸다. 이는 종래에 간혹 갈등이 있거나 영토를 점령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무슬림 국가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정책을 취했던 선대의 군주들과는 파격적으로 다른 행보였다. 그는 북 아나톨리아 카스타모누의 실레이만 베이와 시바스의 카디 부르한엠티와도 싸움을 벌여 전자를 1392년, 후자를 1398년에 제거했다. 1397년에는 카라만의 알라엠티 베이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그를

죽였다. 아나톨리아에서 치열한 전쟁이 진행중인데고 그는 비잔티움의 이반(離反) 움직임을 알아채고 1394년에서 1402년에 걸쳐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포위했다. 1396년에는 헝가리의 지기스문트 왕을 중심으로 조직된 십자군을 다뉴브강 유역의 니코폴리스에서 격퇴했으며(‘코폴리스의 십자군’), 불가리아의 비딘을 정복했다. 이와 같은 많은 정복전쟁을 하면서 그는 궁정에서 훈련된 심복(쿨, kul)들을 써서 제국의 일부 지역에서 직접 지배와 중앙집권을 실험해나갔다. 이는 변방의 전사(가지, gazi)들의 이익과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었다. 가지들은 바이에지드가 무슬림 공국들을 공격하고 합병한 것을 비판했으며, 상당수는 티무르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거부했다. 바이에지드의 연이은 승전은 1402년 중앙아시아로부터 서쪽으로 진출해 온 티무르의 군대에 의해 참패를 당하면서 끝이 났다. 앙카라 전투의 패전에는 합병된 공국들로부터 착출된 인력이 전투 중에 티무르 진영으로 넘어간 것도 크게 작용했다.

바이에지드 1세는 오스만 영토를 다뉴브 강에서 유프라테스강 유역까지로 확장시켰다. 그는 티무르 제국의 수도 사마르칸드로 잡혀갔는데, 크리스토퍼 말로우의 사극에서 묘사된 것과는 달리 티무르는 바이에지드에게 상당한 예우를 해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바이에지드는 낙담하여 오래 살지 못하고 1403년 사망했다. 앙카라 전투에서 패배한 여파로 제국은 여러 왕자들 사이에서 분열되었고, 아나톨리아의 무슬림 공국들이 재건되었으며, 그들 모두는 티무르의 가신이 되었다. 약 10년간 오스만 제국은 분열기를 겪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예지드 1세, 바이예지드 1세, 바야지드 1세
- 다국어 표기 I. Bayezid(튀르키예어), I. Bayazid(영어)
- 연관 검색어 앙카라 전투, 니코폴리스 전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3/3f/Baiazeth._P._III.jpg/800px-Baiazeth._P._III.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Halil İnalçık, “Bayazid,”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ition (Brill) Vol. I 1986, pp.1117~1119. Gabor Agoston, “Bayezid I,”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80~82.

I C034 | 바이에지드 2세

● 시기 A.D. 10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Bayezid II

바이에지드 2세(II. Bayezid, 1448년~1512년, 재위 1481년~1512년)는 오스만 왕조의 8번째 군주이다. 메흐메드 2세와 쉴바하르 하툼의 아들로 1448년 트라키아의 디메토카에서 태어났다. 그는 7세의 어린 나이에 아마시아에 지방관으로 파견되었고, 악코윤루의 우준 하산과의 에르진잔 오틀룩벨리 전투(1473년)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메흐메드 2세나 그의 마지막 대재상 카라마니 메흐메드에게서 왕위계승에 적격이라고 인정받지는 못했다. 바이에지드도 부왕을 몇 번 거역했고, 그의 주변에는 메흐메드 2세의 중앙집권과 재산몰수 정책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모여들었다. 메흐메드 2세가 1481년 승하했을 때 대재상은 그의 동생 쟈왕자의 즉위를 돕고자 했으나 예니체리의 지지를 얻은 반대파가 대재상을 암살했고 바이에지드가 이스탄불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주었기 때문에 결국 바이에지드는 즉위에 성공했다. 쟈왕자는 부르사에 거점을 두고 스스로 술탄을 자칭하며 저항했다. 그러나 중앙군이 이미 바이에지드 편에 있었기 때문에 쟈의 세력은 1481년과 1482년 연이어 패전을 맛보았다. 그후 적국인 맘루크 술탄국에 먼저 망명했다가 두 번째 패배한 후에는 로도스 섬의 성 요한 기사단에 스스로를 의탁했다. 성 요한 기사단은 바이에지드와 은밀한 거래를 통해 쟈를 붙잡아두는 대신 매년 45,000 두카트 금화를 받았고, 쟈는 1495년 죽을 때까지 프랑스와 이탈리아 기사단과 교황청의 볼모로 잡혀 있었다. 쟈는 당시 유럽의 십자군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볼모였고, 그런 상황은 바이에지드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바이에지드 2세는 쟈와 협력했던 카라만 잔존세력과 협상하여 카라만의 병합을 확고히 했으나, 맘루크 술탄국과의 완충지대인 토로스산맥 남동부와 동부의 라마잔올루 그리고 둘카드르올루 공국들은 여전히 충정이 흔들리는 채로 남겨졌다. 1485년부터 1491년까지 이어진 맘루크 술탄국과의 전쟁은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났다. 한편 그의 몰다비아 원정(1484년)과 베네치아와의 전쟁(1499년~1503년)은 비교적 성공적이어서 반항적이던 몰다비아를 다시 한번 조공을 바치는 가신국의 위치로 확정지었다. 또한, 동(東)아드리아해와 모레아의 베네치아인 거류지를 상당부분 빼앗았다. 베네치아와의 전쟁 가운데 바



바이에지드 2세 초상화, 콘스탄틴 카프다올르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이에지드는 오스만 해군력을 크게 강화하여 한 동안 동 지중해를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도록 기틀을 닦아놓았다. 이는 홍해와 페르시아만에서 포르투갈 세력의 팽창을 막고 맘루크 술탄국을 정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의 재위기간에 가장 큰 도전이었던 것은 이란에서 악코윤루와 인척관계인 유서 깊은 수피 가문에 의해 새로 개창된 사파비 왕조였다. 사파비 왕조의 첫 군주 샤 이스마일은 종말론적(기성의 시아 무슬림 학자가 이단이라고 여겼을 만한) 시아 이슬람을 내세웠고, 스스로를 예언자의 사촌 알리를 비롯하여 많은 이슬람 성인 및 정치 지도자들의 화신이라고 주장했다. 샤 이스마일은 1501년 왕위에 오른 후 이란 전역을 석권했고, 중앙집권적인 오스만 제국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투르크멘 유목민들에게 정치 선전을 해

서 오스만 영토 내에서도 많은 추종자들을 확보했다. 그들 중 일부는 서남 아나톨리아에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샤쿨루의 반란, 1511년) 사파비 추종자는 12개의 천 조각을 덧대 붙여 만든 붉은 모자를 썼기 때문에 “크즐바슈”(붉은 모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러한 엄청난 위기가 점점 더 커지는 동안 늙고 심신이 쇠약해진 바이에지드는 정면으로 이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했다. 사파비군은 1507년 둘카드르 공국을 공격하는 길에 오스만 영토를 침범했고, 1510년에는 트라브존을 위협했다. 이에 트라브존을 다스리고 있던 셀림 왕자는 보복으로 사파비 영토를 쳐들어갔는데, 이를 바이에지드의 궁정은 명령 불복종으로 보았다. 그는 반발하여 1511년 봄에 부하들을 거느리고 영지를 이탈하여 흑해를 거쳐 발칸으로 건너가서 이스탄불에 더 가까운 영지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중앙정부와 대치했다. 그는 다뉴브 유역의 스메데레보의 지방관으로 임명받은 후에도 긴장을 풀지 않았다.

바이에지드 2세는 아흐메드 왕자를 이스탄불로 불러 양위하고자 했으나 예니체리들의 거부

로 무산되었고 술탄위는 예니체리의 지지를 얻은 셸림에게 돌아갔다. 술탄위에서 폐위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바이예지드 2세는 1512년 6월 디메토카로 이동하던 중 사망했다.

그의 치세에 일어난 또 다른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오스만 제국이 이베리아반도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을 받아주었다는 것이다. 이들 이베리아 유대인들은 이후 오스만 제국에서 가장 큰 유대인 집단이 되었다. 그는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한 술탄위였고, 신앙과 자선을 지향하여 ‘성인(Veli)라는’ 별명이 있었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전쟁을 하지 않으려 했으며 부왕 메흐메드 2세가 몰수했던 와크프 토지를 상당 부분 돌려주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베야짓 2세, 베야지트 2세, 바예지드 2세, 바이예지드 2세, 바야지드 2세.
- 다국어 표기 II. Bayezid(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크즐바슈, 샤 이스마일, 사파비, 메흐메드 2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9/94/Sultan_II._Bayezit.JPG/800px-Sultan_II._Bayezit.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Gabor Agoston, “Bayezid II ,”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pp.82~84.
Şerafettin Turan, “Bayezid II ,” *TDV İslam Ansiklopedisi*, Vol. 5, pp.234~238.

I C035 | 바일로

- 시기 A.D. 10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기타 ● 나라 튀르키예, 이탈리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 류1 칭호 ● 유형 소분류2 직책
- 집필자 이영희 ● 라틴 문자 Bailo

‘바일로’는 베네치아 공화국의 대표자이며, 해외 베네치아 공동체의 수장을 의미한다. 바일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베네치아 인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하고, 세금과 관세를 징수하고, 무역을 감독했으며 지방과 본국의 공식적인 연락을 담당했다.

‘바일로’라는 단어는 라틴어 ‘바이울루스(baiulus)’에서 기원했고, 12세기 라틴어를 번역한 아랍 문서에서 처음 확인된다. 바일로 직책은 13세기 베네치아 동부 식민지를 통치하는 업무를

시작으로 여러 지역으로 확대된다. 네그로폰테, 파트라스, 테네도스, 티레, 시리아, 트리폴리, 아크레, 트라브존, 아르메니아, 키프로스, 코르푸, 알레포, 두러스, 나폴리오, 코론, 모돈 등 베네치아 공동체가 형성된 곳에서 확인된다. 베네치아는 비잔티움 제국 수도 콘스탄티노플에 바일로를 파견했고,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한 이후에도 그 직책과 업무는 유지되었다.

바일로의 임기는 통상 2년이며,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의 경우 3년 임기였다. 바일로는 식민지에서 수장, 총리로서 12인으로 구성된 평의회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바일로는 식민지의 정치, 문제와 현지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 가격, 수량에 대해 본국에 보고해야 했다. 바일로는 해외에 파견될 경우 해외 주재 영사(consul)의 상관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했다. 15세기 이후에 해외에 파견된 영사, 총독들이 바일로 직책을 함께 수행했다. 1575년 베네치아 법으로 이스탄불의 바일로는 상주 대사로 간주됐다. 1670년 오스만 제국에 파견된 바일로는 오스만 제국에 파견된 모든 베네치아 외교관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스탄불 바일로는 오스만 제국의 최고 권력자, 관리들을 상대했다. 이 때문에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에 파견되는 바일로는 주로 베네치아 귀족들이 파견되기를 원했다.

베네치아와 오스만 제국이 적대관계가 되었을 경우 바일로는 위협에 처하기도 했다. 예로 들면 메흐메드 2세(Mehmed II, 재위: 1444년~1446년, 1451년~1481년)시대 콘스탄티노플에 파견된 바일로 지롤라모 미노토(Girolamo Minotto)는 비잔티움 제국을 지원했기 때문에 처형된다. 그리고 여러 명의 바일로들은 이스탄불 외곽에 위치한 루멜리 히사르에 수감되거나 가택연금을 당했다.

16세기 바일로는 이스탄불 중심지, 유대인 거주지, 갈라타 지역에 공관을 두었다. 특히 페라의 포도원(the vineyards of Pera)이라고 불리는 갈라타 언덕 상부에 위치한 공관이 주로 활용되었다. 이후 이곳은 이스탄불 주재 이탈리아 영사관이 되었다. 1797년 베네치아 공화국이 멸망하면서 바일로 직책은 사라진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일로, 바이로

● 다국어 표기 Baylo(영어), Balyos(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Maria Pia Pedani, "Bailo",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New York: Facts On File, 2009, pp.72~73.

I C036 I 바쿠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Baku

바쿠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이며, 구소련 시대에는 5번째로 큰 도시였다. 카스피해 서해안의 아프셰론반도 남해안에 있으며, 로스토프·트빌리시·바투미 등지로 통하는 철도와, 바투미 송유관의 기점이다. 바쿠라는 지명은 페르시아어의 ‘바트쿠베’ 즉, ‘산바람이 심하게 부는 곳’이라는 뜻이다.

산업은 석유정제, 석유화학, 황산, 소다, 아세틸렌, 합성고무, 석유굴착기, 석유 플랜트 시설, 전동기, 조선, 정면(精綿), 합성섬유, 공업약품, 피혁, 식품, 담배 등 다양하다. 항만은 현대식 시



바쿠 전경

설과 화물 수송량을 자랑하며, 시가지는 해안에서부터 배후의 바쿠 구릉에 걸쳐 전개된다. 구릉 경사면에는 잘 정돈된 도로와 위압적인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해안에는 아름다운 공원이 자리잡고 있다. 전력수요의 태반은 몇 개의 가스터빈 발전소와 부수적으로 밉게차우르 댐 송전에 의존하고 있다.

기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중세에는 아제르바이잔 인(人)의 교역도시로써 번영했으며, 요새(13세기), 시르반샤 궁전(15세기) 등이 남아 있다. 16세기 이후부터 오스만 제국과 이란의 침공을 받아 18세기에는 일시적인 쇠퇴기를 맞이했다. 1747년 바쿠 칸국이 설립되었고, 1804년~1813년 동안 러시아-이란전쟁 중 1806년 러시아에 병합되었다. 1920년 9월에는 볼셰비키 국제 공산당(Communist International) 대회가 바쿠에서 열렸는데 ‘중동피압박민족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렸으며 이 대회를 통해 공산주의의 국제적 확대를 시도했다. 19세기 후반부터 바쿠 유전에 외국자본이 투입되어 개발이 시작되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으며(1997년:11만 2천), 1989년 소련 붕괴에 앞서 주권을 선언했고, 1991년 독립 후 신생공화국의 수도가 되었다. 교육기관으로는 종합대학과 8개의 단과대학 및 고등전문학교가 있다. 그 밖에도 과학 아카데미, 니자미 극장, 니자미 문학박물관, 민족역사박물관 등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쿠

● 다국어 표기 Baki(아제르바이잔어), Bakü(튀르키예어), Baku(영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 멀티미디어 링크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인문지리사전 바쿠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468968&cid=51778&categoryId=51778>

● 참고문헌(오프라인) 최한우, 『중앙아시아학 입문』, 도서출판 펴내기, 1997.

Ⅰ C037 Ⅰ 바쿠 금요 모스크

- 시기 AD.10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Cümə məscidi

바쿠 금요 모스크는 바쿠의 '도심'이라는 의미의 '이채리시예해르(İçərişəhər)'에 12세기에 건설되었는데, 모스크 북쪽에 1437년에 추가된 미너렛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과거 모스크가 건설되기 전에는 이 자리에 조로아스터교 신전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모스크는 여러 번 재건됐는데, 현재의 모습은 1899년 하즈 시으헬리 다다쇼프(Hacı Şıxəli Dadaşov)의 지원으로 과거 건물 흔적 위에 재건한 것이다. 이 건물은 소련 시대에는 카펫 박물관으로 이용되다가, 1990년 모스크로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복구공사를 하게 되었다.



바쿠 금요 모스크

과거 이 모스크는 주거 지역의 한정된 구역에서 건설되었다가 여러 단계에 걸쳐 확장되었다. 주요 부분은 남쪽의 정사각형의 기도실과 북쪽의 미너렛이었다. 기도실을 덮은 돔의 형태는 겹으로 볼 때는 원추형인 나흐치반 유파 양식이었다.

모스크에 기도 공간 외에 15세기에 몇 개의 방이 증축되었으며, 이는 마드라사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9세기 도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이 방들은 대부분 철거하고 오로지 방 하나만 남게 되었다. 미너렛의 경우 무카르나스로 장식된 발코니가 있는 원통형 형태였다. 미너렛의 주춧돌에는 일 칸국의 올제이투(Öljaitü, 재위:1304년~1316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1899년 같은 자리에 재건된 모스크는 과거와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정사각형 기도실에 4개의 기둥이 돔을 지탱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현 건물의 서쪽과 북쪽 면에 직사각형의 입구 영역을 건설했다. 건물의 각 면에는 둥근 아치형 창문이 있다. 이 창을 통하여 건물 내부의 조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도 공간은 돔을 지탱하는 기둥 4개를 포함하여 9개 구역으로 나뉘게 된다. 기둥은 아치로 연결되어 있으며 측벽으로 이어지게 된다. 돔으로 덮인 중앙 부분 이외에는 교차 궁륭(穹窿)으로 처리되었다.

처마, 창, 아치, 기둥을 비롯하여 문설주, 대문 등 장식은 서양과 동양의 고전적인 문양을 사용하여 19세기-20세기 아제르바이잔에서 유행했던 스타일을 따랐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쿠 주마 모스크, 바쿠 쥐매 매스지드

● 다국어 표기 Cümə məscidi Bakı(아제르바이잔어), Bakü Ulu Camii(튀르키예어), Juma masjid Boku(우즈베크어), Juma Mosque Baku(영어)

● 멀티미디어 링크 바쿠 금요 모스크(재건 이전)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9/98/Second_building_of_Juma_mosque_in_Baku.jpg

바쿠 금요 모스크(재건 이후)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b/b2/Juma_Mosque_of_Baku.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Musa Mərjanlı(ed), *Qədim Qalanın Yuxuları*, Dubai: IRS Publishing House. 2013.

Ersel Çağlıtütüncügil, “BAKÜ CUMA CAMİİ”, *Cihannüma Tarih ve Coğrafya Araştırmaları Dergisi*, Sayı III/2 – Aralık 2017, pp.27~64.

Ⅰ C038 Ⅰ 바트르 악잔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민담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Batyr Akzhan

『바트르 악잔』은 유목생활을 하는 카자흐인들에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담이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초원에 많은 가축을 가진 한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야생 동물과 새들의 습격 때문에 가축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특히 추운 겨울을 무난하게 나는 것만도 보통 일이 아니어서 부자 영감은 걱정이 태산이었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해 줄 뛰어난 무사를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능력이 출중한 무사 악잔(Akzhan)을 만나게 되었다. 악잔은 영감으로부터 가축 떼를 지키기로 약속하고, 영감의 동생을 포함해 5명의 보조원을 지원받는다. 그들은 유르타를 6개나 치고 여러 달동안 아무 탈없이 가축을 보호한다. 이들은 교대로 가축 떼를 지키다가 유르타에서 휴식을 취하는 일을 반복했다.

하루는 악잔이 유르타로 돌아가서 쉬려고 했는데, 그때마침 외눈박이 괴물이 나타난다. 결국 괴물과의 결투 끝에 그는 괴물을 무찌른다. 그렇게 악잔은 유르타와 가축을 지켜낸다.

악잔은 마을로 이동 중에 또다른 괴물과 마주한다. 또다시 건장한 몸과 뛰어난 활솜씨로 그들을 모두 물리친다. 3일에 걸친 괴물과의 사투 끝에 악잔은 마을로 돌아온다. 부자 영감을 만나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해주면서 이야기는 끝난다.

『바트르 악잔』은 카자흐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이었고, 이들을 괴롭히는 동물과 괴물들을 물리치는 정의의 무사(용사)의 활약이 중요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민담이다. 악잔은 가축을 지키고 마을의 평화를 가져다준 선한 영웅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티르 악잔
- 다국어 표기 Батыр Ақжан(카자흐어), Батыр Акжа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유르트, 카자흐스탄 구전 문학
- 멀티미디어 링크 러시아어로 구술한 카자흐스탄 영웅담인 바트르 악잔
<https://levelcash.ru/batyr-akzhan/>

●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ertegi.ru/index.php?id=5&idnametext=93&idpg=1>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кие народные сказки в в трех томах. Том третий, Алма-Ата: Жазушы, 1971 г.

I C039 | 바하엠티딘 외겔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Bahaeddin Ögel

바하엠티딘 외겔(1923년~1989년)은 튀르키예 역사가이며, 문화연구자이며, 튀르크학자이다. 바하엠티딘 외겔은 튀르키예 엘라지(Elazığ)의 차르쉬 지구에서 태어났다. 그는 엘라지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말라티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45년 앙카라 대학교 언어역사지리학부 역사학과를 졸업한 이후, 에르주름 고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한다. 그는 에르주름에서 발행된 <이상(Ülkü)>저널의 '알타이-투르크의 예술과 자취'라는 주제 편에 「에르주름의 천장」, 「에르주름의 가택」과 관련된 글을 작성했다. 바하엠티딘 외겔은 제 4회 튀르크 역사학회에서 「이슬람 이전의 튀르크 국가들의 티마르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으며, 그 논문이 푸앗 쿠피릴뤼(M. Fuad Köprülü)의 눈에 들어 앙카라 하산오을란 향토 연구소(Ankara Hasanoğlan Köy Enstitüsü)의 역사 교사로 임명되었다. 오래지 않아 연구소의 일부가 폐쇄됨에 따라 9일 만에 그의 임용은 취소 되었고, 11월 17일 결국 그는 사임했다.

이후 1948년 독일인 중국학자 볼프람 에버하드(Wolfram Eberhard)의 지도하에 「위구르 제국의 건국(Uygur Devleti'nin Kuruluşu)」 연구로 앙카라 대학교 언어역사지리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1948년 10월 동대학 조교수로 임명되었다. 군 복무를 마치고 그는 1953년 이란으로 가서 튀르키예-이슬람 역사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1953년부터 1954년까지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베르톨트 스폴러(B. Spuler), 안네마리 폰 가바인(A. von Gabain)과 같은 튀르크 역사가들과 함께 연구했다. 1955년 11월 18일 그는 '랴오 시대 이전의 거란'이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앙카라 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승진했다. 1959년부터 1961년까지 독일에서 연구를 수행했으며, 정부 장학금으로 1962년~1963년에는 대만의 국립 정치대학교에서 연구활동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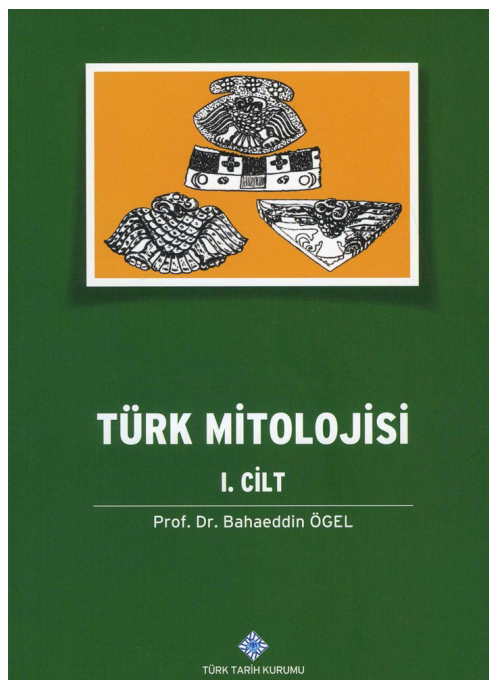
했다. 1963년 7월에는 일본으로 가서 중앙아시아 전문가인 일본 역사가들과 만나 학술적으로 교류했다. 1965년 1월 27일, 「중국 왕조와 칭기즈 칸 시대의 투르크 고문들(INO - TURCICA (Cingiz Han ve Cin'deki Hanedaninin Türk Müsavirleri)」를 주제로 발표한 논문을 통해 정교수로 임용되었다. 그는 앙카라 대학교 이외에도 온두쿠즈 마이스 청소년 및 스포츠 아카데미, 군사 아카데미, 튀르키예 혁명역사 연구소, 가지 대학교, 셸축 대학교, 프라트 대학에서 튀르키예 문화사 및 정치사에 대한 강의를 했다. 1984년 10월 22일 앙카라 대학교 역사학과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986년 5월 7일 은퇴한다. 바하엠티 외겔은 1989년 3월 7일 앙카라에서 세상을 떠난다.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페르시아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에 능통했던 바하엠티 외겔은 주로 투르크 제국의 정치, 특히 이슬람 이전의 문화사에 대한 연구를 했다. 중앙아시아, 셸주크 투르크, 오스만 제국, 튀르키예 공화국이 그의 주요 연구분야였다. 외겔은 투르크인들의 마을, 도시, 농업, 음식 문화, 민속 음악, 악기 등과 관련된 연구를 주로 했다. 19세기 말, 외국 학자들의 투르크학의 연구들에서 보이는 결점들을 지적하며, 튀르키예의 역사 연구는 튀르키예의 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의 대표적 학술저서는 다음과 같다:

『에르주름 기념비에 있는 알타이-투르크 예술과 자취(Erzurum Anıtlarında Altay-Türk Sanatının İzleri, 1947)』,

『이슬람 이전의 투르크 문화사(İslâmiyet'ten Önce Türk Kültür Tarihi: Orta Asya Kaynak ve Buluntularına Göre, 1962)』,

『칭기즈 칸과 중국 왕조의 투르크 고문들(Sino-Turcica Çingiz Han ve Çin'deki



『투르크 신화(Türk Mitolojisi)』 표지
Source:<https://www.arkeolojisanat.com/>

Hanedanının Türk Müşavirleri, 1964)』,

『투르크 문화의 발전 시대(Türk Kültürünün Gelişme Çağları, 1971)』,

『투르크 신화(Türk Mitolojisi I-II, 1971-1989)』,

『투르크 문화사 소개(Türk Kültür Tarihine Giriş I-IX, 1978-1987)』,

『훈 제국의 역사(Büyük Hun İmparatorluğu Tarihi I-III, 1981)』,

『투르크 국가에 대한 이해: 13세기 말 까지(Türklerde Devlet Anlayışı: 13. Yüzyıl Sonlarına Kadar, 1982)』 등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하에딘 오겔, 바하에딘 외겔, 바하엣딘 오겔

● 연관 검색어 푸앗 코프뤼뤼(M. Fuad Köprülü), 칭기즈 칸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ogel-bahaeddin>

● 참고문헌(오프라인) Özçelik İ., “Dersleri ve Eserleri Işığında Büyük Türk Tarihçisi Prof. Dr. Bahaeddin Ögel’in Tarih Tasavvuru ve Metodolojisi.” *Türk Tarihi Araştırmaları Dergisi*, 4(1), 2019, 40~58.

Kalafat Y., “Yaşayan Eski Türk İnançları itibarıyla Türk Mitolojisi ve Prof. Dr. Bahaeddin Ögel”. *Journal of International Social Research*, 2(8). 2009.

I C040 | 바흐쉬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구비문학 ● 유형 소분류2 명창
- 집필자 김근식, 오은경 ● 라틴 문자 Baxsh

‘바흐쉬(bakhshi, bagshi, bakshi, baksy, bakhsy)’라는 단어는 여러 민족의 언어에서 발견된다. ‘바흐쉬’란 단어는 산스크리트어의 ‘비학수(bhikkhu)’에서 기원한다. 즉, ‘선생’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마흐무트 카쉬가리의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에는 ‘바흐쉬의 의미가 역사적 시기와 민족에 따라 다르며, 샤먼, 마법사, 승려, 예언자, 주술사, 치료사, 성직자, 서기관, 선생 등을 뜻했다’고 쓰고 있다.



수르헨다르여의 바흐쉬

불교를 믿는 몽골인에게 바흐쉬는 위구르 문자를 쓸 줄 아는 사람을 의미했다. 그래서 칭기즈 칸 시대부터 15세기까지 바흐쉬는 관공서에서 일하는 서기관을 의미했다. 이에 비해 마르코 폴로(Marco Polo)에 의하면 13세기 몽골 칸의 궁정에서 일했던 주술사들도 바흐쉬라고 불렸다고 한다.

바르톨드(V. Bartold)와 사모일로비치(A. Samoylovich)에 따르면 ‘바흐쉬’라는 단어를 투르크어권과 페르시아어권 민족들은 ‘스승’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또한, 몽골 제국에서는 궁정 치료사들을 일컫는 말이었고, 티무르 제국(Timurid Empire)에서는 투르크인 서기관들을 뜻

했으며, 바부르 왕조(Baburid)에서는 군부대를 관장하는 고위 관리들을 ‘바흐쉬’라고 불렀다.

한편, 고대 투르크 민족에게는 오잔-박스(Ozan-Baksı) 전통이 있었다. ‘오잔’이라고도 불리고, ‘박스’ 혹은 ‘캄(kam)’이라고도 불렸던 이들은 샤먼 킹(Shaman-king)의 역할을 했다. 통치자는 물론 영적 지도자, 명창, 음악가, 치료사 등의 총체적 기능을 수행했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치의 기능을 왕이 맡아서 하게 되자 기능 분리가 일어나게 됐다. 주술적 노래와 악기 연주로 악귀를 몰아내는 주술사 샤먼들만 오잔이나, 박스 혹은 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즉, 샤먼-킹의 역할에서 왕의 절대왕권이 자리를 잡게 되자 주술사의 역할만을 하게 되었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점차로 명창과 음악가로의 기능만을 수행하게 된 사람들을 고대 투르크 민족들은 ‘오잔(ozan)’, ‘지라우(jyrau)’, ‘아시옥(ashyk)’, ‘바흐쉬(bakhshi)’, ‘바그시(bagshi)’, ‘박크쉬(bakhshi)’, ‘박수(baksy)’, ‘박쉬(bakshi)’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박스’라는 단어가 어원인 ‘바흐쉬’의 경우, 악기 연주와 주술적 노래로 환자들에게서 악한 영혼을 쫓아내는 마법사, 주술사, 치료사, 샤먼을 의미했으나, 샤머니즘이 이슬람에 밀려나면서 ‘바흐쉬’라는 단어가 음악가, 서사시 구연자를 의미하기 시작했다. 특히, ‘바흐쉬’라는 용어는 그들이 전국민적 행사와 축제, 혼례, 사일리(Saili: 고대 영웅을 칭송하는 국가 행사)에서 고대 영웅이나 전사 혹은 그 연인들을 칭송하는 공연을 하게 되면서 전문 가창자의 의미로 굳어졌다. 그들은 선조들이 남긴 전통의 계승자이자 전통문화의 지역적 특색을 보유하는 인간문화재로써 구비서사시 계승과 발전 과정에 크게 기여했다.

바흐쉬가 샤먼과 연관이 있다는 흔적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선, 우즈베크어에서 ‘바흐쉬’는 세 가지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됐다. 첫째 구비서사시 구연자 혹은 시인, 둘째 민간 치료사, 셋째 샤먼이라는 뜻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바흐쉬’라는 용어는 주로 구비서사시 구연자라는 의미로만 사용되는데, 나보이(Navoiy)를 비롯한 일부 지방에서는 아직도 ‘샤먼(무당)’이라는 뜻과 혼용되고 있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바흐쉬’가 아직도 일부 샤먼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례는 샤먼박사이다. 샤먼에 의한 치병곳이 단순한 축귀의례로 변질돼 혼종적인 무의를 베푸는 사람이 바로 카자흐와 키르기스인들의 샤먼박사이다. 박사(Baksa)의 무의는 알라와 이슬람 성자(聖者)들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된다. 무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박사는 이슬람 신화에 나오는 정령들인 지니(jinni)의 이름을 불러서 빌고, 악령을 불러서는 헐박한다. 이 동안 박사는 계속

해서 노래를 부른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영신에 들린다. 즉, 박사는 망아상태에 드는 것이다. 카자흐-키르기즈인의 치병 의례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병자에게 씌워진 악령을 쫓아내는 일이다.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 박사는 영신 상태에 이른다. 불에 달고 칼에 베어도 어떤 상처도 입지 않는 상태이며, 질병의 마귀를 쫓아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한편, 전문 가창자 바흐쉬는 2현 악기인 두타르 반주에 맞춰 민요나 구비서사시인 다스탄을 부른다. 바흐쉬는 구비서사시를 창작을 하거나 전승한다. 문해력이 없는 주민들 사이에서 바흐쉬는 고전작품과 민요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바흐쉬가 플롯 면에서 기념비적인 다스탄을 연행하기 위해서는 즉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과 음악적이며 시적인 재능 그리고 기본적인 구연 기술이 요구된다. 여기에 당연히 높은 수준의 숙련도도 필요하다. 바흐쉬는 즉흥 이야기꾼이자, 시인이고, 낭송가이며, 전문 가창자이자 음악가이다. 심지어 배우에게 필요한 예술적 연기력도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마임과 동작 유연성(body mobility)은 물론 손짓과 몸짓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 구연자이다.

바흐쉬 예술에는 중앙아시아 각 민족의 전통 문화가 매우 선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각 지역마다 연행 특징을 토대로 자체적인 음악 전통과 예술과 미학에 대한 사상을 담고 있는 고유한 바흐쉬 예술 스타일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스타일(local style)이 형성되어 있다.

바흐쉬는 투르크 민족의 구비서사시 전승과 보존에 있어 수호자이며, 창조자이다. 명인으로 인정받는 대가 바흐쉬마다 지역색이 담긴 고유의 스타일이 있다. 이를 ‘욘(yo’)이라는 표현을 써서 유파와 계파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히바(Khiva) 율리(yo’li), 아할(Akhal) 율리와 같이 지명과 함께 표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통 보유자 명인의 구체적인 이름과 함께 표시하기도 한다.

지역 스타일이 뿌리를 내리고 더욱 발전해 가는 데에 큰 공을 세운 숙련된 대가 바흐쉬들은 자신들의 유파를 형성한다. 즉, 자신의 음악적 연행 활동에 지역 전통을 창조적으로 융합한 후, 계보를 형성하고 거기에 속한 학파나 유파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명인 및 대가들을 ‘우스터즈(ustoz, ustod)’라고 부른다. 그러한 명인(Master, Meistersinger) 주위에 점차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제자와 문하생이 모여서 일종의 동업조합 또는 계파를 형성했다. 이러한 계파 내에서 초보 구연자는 레퍼토리를 익히고, 가창 경험과 기술 그리고 전통을 배우며, ‘도제[우스터즈-셔그르드(ustoz-shogird:khalypa-shegird)]’ 시스템에 따라 명인의 예술을 전수 받는다. 제자

들은 스승의 기본적인 스타일에 입각해서 연행하게 되는데, 바로 이 제도 덕분에 각 지역마다 고유한 스타일이 생겨났다. 그리고 바흐쉬 예술 전반에서 세대간의 직접적인 전승이 가능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흐시, 박쉬, 박시, 박스
- 다국어 표기 Бахши(러시아어), Bakshy(영어), Baksı(튀르키예어), بخشى(페르시아어)
- 연관 검색어 다스탄, 더스틴, 두타르, 아시옥, 오잔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QEj3tEyVoo>
- 참고문헌(오프라인) 압둘라예브 루스탐베크, 「중앙아시아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구전전통 및 다스탄의 특성」, 『중앙아시아의 구전전통과 서사시』, 유네스코아태무형문화센터, 2016.
오은경, 「우즈베크의 구연자와 구연학파, 알퍼므쉬 콘그룻(우즈베크) 판본의 구연본 연구」, 『중동연구』, 32(1), 2013, pp.139~166.
오은경, 「투르크 구전서사시의 샤머니즘적 모티프 연구」, 『중동문제연구』, 14(3), 2015, pp.117~147.
오은경, 「터키 명창 아식(Aşık)과 아식문학 형성 고찰」, 『국제언어문학』, 46, 2020, pp.95~135.
Энциклопедия,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Гл. ред. АМ Прохоров. Изд. 3-е.» М.: Сов. Энцикл, 3. 1970, 154~155.
Жирмунский В.М. Сказание об Алпамыше и богатырская сказка. - М., 1960.
Жирмунский В.М. Тюркский героический эпос. - Л., 1974.

I C041 | 박트리아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 나라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지역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Bactria

박트리아는 고대 트란스옥시아나 중앙아시아의 지명을 지칭하는 것으로 아무다리야강과 힌두쿠시산맥 사이의 평야 지대로써, 현대의 아프가니스탄 북부 일대를 가리킨다.

사산 조 이후에는 이곳을 토히리스탄(Tokharistan), 중국에서는 대하(大夏)라고 불렀다. 학자들은 박트리아는 인도 이란인들의 초기 거주지였다고 한다.

B.C. 2500년~B.C. 2000년경 그들은 남서쪽으로 이동하여 이란과 인도로 들어왔으며 후에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제국의 북부 영토가 되었다. 산지 국가의 비옥한 토양이 투란 사막으로 둘러



박트리아 지역(아프가니스탄)

싸인 이 영역에서 조로아스터교(자라투스트라)가 성장했다. 아베스타어는 조로아스터교의 언어로써 산스크리트어와 연관된 고대 이란어이다. 오늘날 학자들은 아베스타어와 산스크리트어는 매우 가까운 언어라고 믿는다. 두 언어 모두 인도아리안어군이기 때문이다.

좁은 의미로 박트리아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 정복 이후 박트리아 지역에 들어섰던 헬레니즘 국가 그리스-박트리아 왕국(Greco-Bactrian Kingdom)을 가리키기도 한다. 서양권에서는 낙타 중 쌍봉낙타를 박트리아 낙타라고 하기도 하는데, 유럽에서 가장 가까운 쌍봉낙타 서식지가 그 주변이기 때문이다. 단봉낙타는 아라비아 낙타라고 한다. 박트리아는 기원전 600년 무렵에는 메디아의 일부 지역이었는데, 언제부터 메디아에 편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며, 기원전 6세기 중반 키루스 대왕에 의해 병합되었다. 그 후 페르시아 제국 총독령이 되었다.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3세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패하자 그를 살해한 박트리아의 총독 베크스는 민족저항운동을 시도했다. 알렉산드로스는 소그디아나와 이란에 그리스 국가들을 건국한다. 다시 옥수스강 너머로 향하던 그는 강력한 저항을 만났다.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뒤 마케



박트리아-마르지아나 고고학 단지 발굴 유물
Source: <https://collectionapi.metmuseum.org/>

도니아 제국은 결국 분열되었고, 박트리아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되었다.

그리스-박트리아 왕국은 갑작스럽게 멸망했는데, 이는 토하라인들이 세운 월지국에 의해서였다. 월지는 본래 현재의 간쑤 지역에 존재했으나, 흉노의 공격을 받아 서쪽의 박트리아로 쫓겨난 후 그리스-박트리아를 멸망시켰다. 장건이 한나라의 사절로서 기원전 128년 월지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 소그디아나(옥서스의 북쪽)를 지배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이후 박트리아에 자리잡은 월지국 세력의 일부가 인도로 들어가서 쿠산 제국을 건설하게 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박트리아

● 다국어 표기 Βακτριανή(그리스어), Bactria(영어)

● 연관 검색어 트란스옥시아나, 흉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7P9_l9zrm04

<https://collectionapi.metmuseum.org/api/collection/v1/iiif/329076/711623/main-image>

● 참고문헌(오프라인) Bernard, Paul. "The Greek Kingdoms of Central Asia."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Volume II. The development of sedentary and nomadic civilizations: 700 B.C. to A.D. 250*, pp.99-129. Harmatta, János, ed., Paris: UNESCO Publishing, 1994.

Holt, Frank Lee. *Into the Land of Bones: Alexander the Great in Afghanist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Watson, Burton (trans.). "Chapter 123: The Account of Dayuan." Translated from the Shiji by Sima Qian. *Records of the Grand Historian of China II (Revised Edi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I C042 | 발라사군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키르기스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Balasagun

발라사군은 현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비슈케크와 이식쿨 호 사이에 추이 계곡에 위치한다. 장안과 텐산산맥을 잇는 실크로드 상에 있다. 과거 중앙아시아의 이슬람화 시기의 자료에는 발라사군, 발라사쿤, 벨라사운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마흐무드 알 카쉬가리(Mahmud al-Kashgari, 1005년~1102년)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쿠즈 발릭(Kuz-Balık), 쿠즈 울루쉬(Kuz-Uluş) 또는 쿠즈 오르두(Kuz-Ordu) 즉, '북쪽의 도시'라는 의미의 이름으로도 알려졌다고 한다.

발라사군에 도시가 건설된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히 알려진 바는 없다. 7세기부터 돌궐의 통치하에 있었으며, 658년 중국이 잠시 이곳을 점령하기도 했다. 766년 카를루크족에 의해 함락된 발라사군은 9세기에는 카라한조의 수도가 되었다. 카라한조는 이곳을 이슬람화 시켰으며, 화폐를 주조했다. 이 시기 트란스옥시아나 지역의 소그드인들도 발라사군에 정착했고, 많은 소그드어 단어가 투르크어에 영향을 미치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과거 발라사군은 추이 계곡에서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다. 당대 아랍 여행가들은 발라사군을 대도시이자 문화의 중심지로 묘사하고 있다. 쿠타드구 빌리그(Kutadgu Bilig)의 저자인 유수프 발라사구니(Yūsuf Balasaguni, 1019년~1077년)는 발라사군 태생이며, 무함메드 엘 발라사구니 옛 투르키(Muhammed el-Balasagunî et-Türkî)나 제말리 카르쉬(Cemâl-i Karşî) 같은 이슬람 법학자들이 발라사군에서 출생하기도 했다.

11세기 카라한조가 몰락하자 발라사군의 중요성은 점차 추락했다. 1134년 서요가 이 도시를 잠시 정복했으나 호라즘 샤 알라 아드 딘 무함마드 2세(Ala ad-Din Muhammad II, 재위: 1200년~1220년)가 서요를 침략하고, 그 사이 발라사군 주민은 서요에 맞서 싸웠다. 그러나 1210년 서요는 단기간에 이 봉기를 진압한 후 사흘간 도시를 약탈하고 약 4만 7천 명의 주민을 살해했다.

13세기에 몽골과 관계는 나쁘지 않았기에, 몽골 침략 당시 빠르게 함락되었지만, 카라한 가문 사람이 이곳을 통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13세기 후반에는 몽골의 제위 쟁탈의 전장이 되었



발라사군에 남은 부라나 탑

고, 14세기에는 도시의 기능을 잃어 인근 지역에 유목민만 살게 되었다.

발라사군은 19세기와 20세기에 러시아 학자들에 의해 도시가 발굴되었으며, 2014년 실크로드 장안-천산 루트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발라사군도 보호받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발라사군
- 다국어 표기 Balasagun(튀르키예어), Баласағұн(카자흐어), Balasağun(아제르바이잔어), Bolasog'un(우즈베크어), Баласагун(키르기스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a/a4/Burana_01.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hc.unesco.org/en/tentativelists/5335/>
- 참고문헌(오프라인) Konukçu, Enver. "BALASAGUN",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5, Istanbul: TDV, 1992, p. 4. Barthold, W, "Balāsāghūn or Balāsakūn". *Encyclopaedia of Islam*(ed:H. A. R. Gibb, J. H. Kramers, E. Lfivi-Provengal, J. Schacht) VOLUME 1. Leiden: E.J. Brill. 1986. p. 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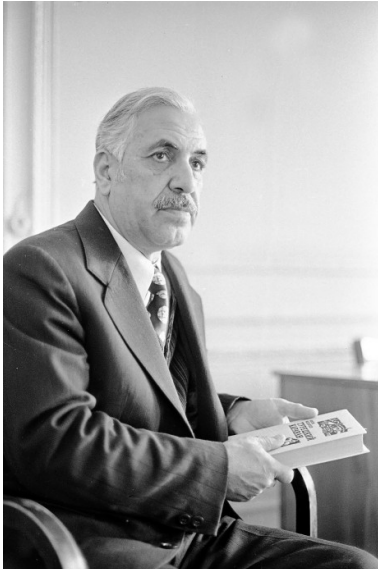
I C043 | 발라쉬 아재르오글루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시인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Balash Azeroghlu

발라쉬 아재르오글루(Balaş Azəroğlu)는 아제르바이잔의 근현대 시인이다. 그는 1921년 11월 11일 바쿠(Bakı)에서 태어났다. 그는 중등교육을 바쿠에서 받았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문학에 매우 열성적이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소설을 읽으며 보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문예 창작을 시작했다. 그의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첫번째 시집 『드네프르(Dnepr)』는 1937년에 발간됐다. 1938년에는 가족이 남부 아제르바이잔(현재 이란 북부)의 도시 애르대빌(Ərdəbil)로 이주했기 때문에, 그는 그곳 초등학교에서 페르시아어로 교육받았다.

그는 1941년에 민족해방운동에 가담하는데, 이는 그의 작품이 정치적 서정성을 띠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1942년에 이란 국민당(İran Xalq Partiyası)에 입당했고, 1943년에 <아제르바이잔 반파시스트 연합회(Azərbaycan zidd faşist cəmiyyəti)>의 애르대빌(Ərdəbil) 지역회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이 연합회의 기관지인 <주먹(Yumruq)> 신문의 편집장을 맡았다.

또한, 그는 아제르바이잔 민주당(Azərbaycan Demokrat Partiyası)의 애르대빌 지역위원장, <죄브대트(Cövdət)> 신문 편집장, 1943년부터 1945년까지는 <시인들의 모임>의 애르대빌(Ərdəbil) 지역 부서장을 역임했다. 그는 태브리즈에서 아제르바이잔 국립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위원회(Azərbaycan Dövlət Radio Verilişləri Komitəsi)의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1946년에는 ‘작가와 시인 협회(Yazıçılar və şairlər cəmiyyəti)’ 이사로 선출됐다. 이후 그는 1947년~1952년에 바쿠(Bakı) 아제르바이잔 국립대학교(ADU) 아제르바이잔어문학과를 다녔다. 동시에, ‘남아제르바이잔 작가협회(ənubi Azərbaycan Yazıçılar Cəmiyyəti)’ 회장을 역임했다. 1948년~1953년에는 <아제르바이잔(Azərbaycan)> 신문 문학부서장, 1953년~1956년에는 동신문사 편집장, 1958년~1959년에는 아제르바이잔 고위급 정당 학교(Azərbaycan Ali Partiya məktəbi) 교장으로 활약했다. 1959년~1963년에는 아제르바이잔 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이어 1963년~1982년에는 아제르바이잔 과학아카데미(Azərbaycan EA) 니자미 문학연구소(Nizami adına Ədəbiyyat İnstitutu) 중세문학부(Orta əsrlər ədəbiyyatı



발라쉬 아제르오글루
Source: <https://www.azkataloq.org>

şöbəsi)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1981년~1991년에는 아제르바이잔 작가연맹(Azərbaycan Yazıçılar İttifaqı) 서기관으로 근무했다. 1991년에는 아제르바이잔 작가연맹 남부 아제르바이잔 문학교문으로 임명됐다. 같은 해 그는 아제르바이잔 작가연맹 지도위원으로 선출됐다. 그는 또한 이란 인민당(İran Xalq partiyası) 당원이었고, 소비에트에 거주하는 이란 정치이민협회 아제르바이잔 부서의 상임이사였다.

1981년에 그는 ‘아제르바이잔 국민시인(Azərbaycanın Xalq şairi)’이라는 명예 칭호를 받았다. 소설과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업적과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명예훈장(Şərəf nişanı)과 국제친선(Xalqlar dostluğu)상 그리고 명예메달(Şöhrət Ordeni)을 받았다. 그는 2011년 4월 24일 바쿠(Bakı)에서 사망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시 선집(Şeirlər, 1948)』, 『나의 노래들(Mənim nəğmələrim, 1952)』, 『조국은 그런 아들을 원한다(Elə oğul istəyir vətən, 1961)』, 『매즈는 버드 나무(Məcnun söyüd, 1966)』, 『나뭇잎 떨어질 때(Yarpaqlar töküləndə, 1976)』, 『나는 사발란 산을 원한다(Sinəm Savalan dağdır, 1984)』, 『하나의 단상을 원한다(Bir kürsü istəyirəm, 1989)』, 『만남의 다리(Vüsal körpüsü, 2017)』 등이 있다.

그는 시(詩)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열망을 예술적으로 승화했다. 그는 니자미(Nizami)의 시 「일곱 미인(Yeddi gözəl)」과 푸줄리(Füzuli)의 가젤들 그리고 새흐리야르(Şəhriyar)의 시들을 페르시아어에서 아제르바이잔어로 번역했다.

그는 아제르바이잔 문학사에서 애국심을 주제로 시를 쓴 시인으로 유명하다. 그는 연구 및 학술활동에도 주력했다. 사립 태브리지의 작품 세계에 관한 학술서적을 집필했으며, 문학비평과 문학이론에 관한 저술을 통해 남아제르바이잔 문학을 폭넓게 연구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발라쉬 아제르오울루, 발라시 아제르오글루
- 다국어 표기 Balash Azeroğlu(튀르키예어), Балаш Азероглу(러시아어), بلاش آذراوغلو(아랍어), Balış Azeroğlu(아제르

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바쿠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azkataloq.org/photo/1355/balas-azeroglu-1981>

● 참고문헌(오프라인) Bərdəli Bahar, *Balaş Azəroğlunun yaradıcılıq yolu*, Bakı: Nurlan nəşriyyatı, 2007.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Əmirov Sabir, *Azəroğlu*, Bakı: Yazıçı nəşriyyatı, 1986.

| C044 | 발르익-소오크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Balyk-Sook

발르익-소오크 유적은 우르술(Урусул, Urusul) 강의 지류와 합류되는 쿠로타(Курота, Kurota)강의 계곡에 위치한다. 유적에는 초기 철기시대 파지리크 문화의 대형 무덤이 8개 존재하고, 그 옆에 초기 투르크 시기의 무덤 10기가 존재한다. 11호 무덤에는 수혈 안에 말 4마리와 인간을 매장했는데, 인간은 북쪽, 말은 남쪽에 위치한다. 무덤은 평면형태가 원형이고, 직경은 12m×8m, 깊이 0.5m이다. 무덤구덩이만 존재하고 다른 매장 시설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골 옆에서 재갈, 등자, 버클, 은제 그릇, 쇠사슬 갑옷, 찰갑(비늘 갑옷)등이 출토되었다. 12호 무덤의 상부가 돌로 덮여 있는데 그 범위가 직경 11m, 높이 0.5m~0.6m이고, 그 아래에 묘는 토광묘이다. 무덤 내부에서는 철제 등자와 재갈이 출토되었다. 알타이 지역에는 흉노가 멸망하고 투르크 제국(7세기)이 들어서기 전의 유적이 존재한다. 이 지역의 유적은 말의 등자가 아직 사용되지 않은 코크파쉬 단계와 개마와 금속제 등자가 사용되는 쿠디리게 단계로 구분된다. 전자는 3세기~5세기 중반, 후자는 5세기 중반~7세기이다. 발르익-소오크 유적은 금속제 등자가 사용되고, 알타이에 투르크 제국이 들어서기 전인 쿠디리게 단계(5세기 중반~7세기)의 유적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발릭 속
- 다국어 표기 Балык-Сook(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쿠디리게
- 참고문헌(오프라인) Кубарев Г.В. Культура древних тюрков Алта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огребальных памятников). Новосибирск: Изд-во ИАЭТ СО РАН, 2005, 400 с.

I C045 I 발발

- 시기 B.C.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석상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Balbal

발발은 쿠르간이나 무덤 인근에 세워진 인물 형상의 석상이다. 발발은 주로 흑해 북부에 있는 초원에서부터 몽골에 이르는 지역에 존재했다. 발발의 어원은 고대 투르크어에서 기원한 단어로 ‘bal+bal’의 형태로, ‘두드리다’, ‘때리다’, ‘박다’에서 기원했다는 설과 몽골어 ‘barimal-동상’에서 기원했다는 설 등이 있다. 인물형상의 석상인 발발은 커다란 돌을 통째로 조각하여 제작한다. 다소 납작한 직육면체나 원통/원추형을 띠고 있으며 얼굴과 몸을 양각 또는 음각으로 조각한다. 석상의 손에는 무기나 그릇 등을 들고 있고 의상, 머리 장식 등으로 민족/부족을 추정할 수 있다.

현재까지 발굴된 발발은 가장 작은 것은 높이 40cm~50cm, 가장 큰 것은 높이 250cm가량이다. 발발은 무덤 인근에 세워져 있으며 여러 개가 줄을 지어 서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발발은 주로 무덤 시신의 머리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다. 무덤 인근에 발발을 세우는 것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된 문화인지 알려진 바는 없다. 알타이와 투바 지역 등에서는 기원전 2세기경에 만들어진 발발이 발굴되기도 했다.

훈족이나 돌궐 등 투르크인의 장례 문화를 기록한 각종 사서와 기록 등에서 ‘무덤을 만들고 그 후 돌 조각을 세웠다’라는 언급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발발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존재한다. 하나는 무덤의 주인(묘주)과 그



발발

지인들을 형상화했다는 학설이다. 즉, 무덤의 주인을 기리기 위한 조각이라는 것이다. 반면, 발발이 무덤의 주인이 죽은 적의 모습을 형상화했다는 학설도 있다. 주로 오르혼 비문 등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주장에 따르면, 묘주에 의해 죽은 자를 형상화하여 발발을 만들었고, 이들은 사후 세계에서 자신을 살해한 사람, 즉 묘주에게 봉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세웠다는 것이다. 길게 나열한 발발의 개수가 묘주가 생전에 죽인 사람의 숫자이며, 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묘주의 영웅성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발발 문화는 최대 13세기까지는 지속했던 것으로 보이나, 좀 더 쉽게 조각할 수 있는 목재 조각 따위로 변화하여 계승되었다가 사라졌다는 학설과 이슬람의 전래와 개종 이후 묘비로 대체되며 사라졌다는 학설 등이 존재한다. 발발은 이 석상 대한 종교적인 해석이나 의미를 통해 고대 투르크인의 정신세계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인 한편, 발발에 표현된 인물의 머리 장식, 의복을 통해 고대 투르크인의 풍속을 연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키지 케지

● 다국어 표기 балбал(키르기스어), Кижж-көжжэ(투바어), balbal(튀르키예어), Balbal(아제르바이잔어), Балбал(카자흐어), Балбал(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쿠르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f/f3/Balbal.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Belli, Oktay. "Türklerde Taş Heykel ve Balballar". *Türklercilt III*, Ankara:Yeni Türkiye, 2002, pp.910~914.

Çoruhlu, Yaşar. *Eski Türklerin Kutsal Mezarları Kurganlar: Orta ve İç Asya'nın Erken Devir Türk Mezar Mimarisi Üzerine bir Deneme*, İstanbul: Ötüken Neşriyat, 2016.

Çoruhlu, Yaşar. *Erken Devir. Türk Sanatı: İç Asya'da Türk sanatının Doğuş ve gelişimi*. İstanbul : KabcacıYayıncılık, 2013.

I C046 | 발카르인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Balkars

발카르인은 주로 북 캅카스 중앙에 살고 있는 투르크계 산악 민족이며 알타이어족 투르크어군 중 하나인 카라차예보 발카르스키어를 사용한다. 인종적으로는 북코카시아인(North Caucasian race)에 속한다. 카라차예보 발카르스키어는 과거에는 산악타타르어(горско-татарский), 산악투르크어(горско-тюркский), 타타르차가타이어(татарско-ждагатайский) 등으로 불렸다.

발카르란 단어의 기원으로는 말카르 협곡의 주민들을 지칭하던 말카르인(малкарцы)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고대 투르크 국가인 불가르인(болгар)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그래서 발카르인들은 불가르, 말가르, 말카르, 발카르 등으로 스스로를 지칭하기도 하며 주로 타울룰라(таулула)라고 부른다.

2010년 기준 발카르인의 총 수는 15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약 10여만 명이 러시아의 카바르디노-발카리아 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다. 발카르인은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 튀르키

예, 유럽 등지에도 분포하고 있다.

알란인, 불가르인, 킵차크인, 폴로베츠인 등이 캅카스에 도착화되면서 발카르 민족을 형성했다. 1629년 러시아 공식 문서에서는 발카르인들을 산악 타타르인으로 부른 바 있으며, 14세기~18세기 조지아에서는 바시안인(басианы)으로 불렸다. 발카르인의 신앙은 이슬람 수니파 하나피파이다. 19세기 이후 발카르인들의 종교와 문화에는 기독교, 이슬람, 원시종교 전통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었다. 주술이나 신목(神木), 암석, 수호신 신앙 전통이 남아 있다.

발카르 사회는 계급 구분이 뚜렷하며 가부장 전통이 잘 지켜지고 있다. 여러 금기사항이 있으며 대를 이은 피의 복수(vendetta), 의형제, 쿠나체스트보(куначество: 산악 민족이 서로 구원하고 습격에서 보호해 주는 풍습), 아탈리체스트보(аталыгчество: 자식을 하인의 손에 맡겨 기르는 풍습), 손님접대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발카르족, 발키르인
- 다국어 표기 Балкарцы(러시아어), بلقار(아랍어), Balkarlar(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알타이어, 발카리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캅카스
- 참고문헌(온라인) <https://skavkaza.ru/pub/balkarci>
- 참고문헌(오프라인) Мурзагалеев Р.И., Сулейманов А.Р. Чекрыжов А.В., Мурзагалеев Б.Р. «Традиции и праздники тюркских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Диалог, Уфа, 2017.
Энциклопедия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 2005.

Ⅰ C047 Ⅰ 발카리아

- 시기 A.D. 1500년~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국가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Balkariya

발카리아(балкария)는 발카르인들이 사는 카바르디노-발카르스키 공화국의 남쪽에 위치한 지역을 일컫는다. 남쪽에는 조지아가, 남동쪽에는 북오세티야가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발카리아 지역(러시아)

테레크(Терек)강의 지류인 박산(Баксан), 체겜(Чегем), 체레크(Черек) 강에 걸쳐 있으며 유럽과 러시아에서 가장 높은 해발 5,642미터의 엘브루스(Эльбрус) 산과 빙하와 만년설이 뒤덮인 5,000천 미터 이상의 산들이 위치해 있다. 발카리아의 고봉들 중 유명한 것은 디흐타우(Дыхтау), 코시탄타우(Коштантау), 잔기타우(Джангитау)이며, 아자우(Азау), 테르스콜(Терскол), 이트콜(Иткол), 체게트(Чегет) 등의 빙하, 만년설도 잘 알려져 있다. 발카리아에는 산맥, 숲, 비옥한 계곡, 고산 목초지, 각종 광물의 산지들이 풍부하다.

역사적으로 발카리아는 타우비(таубий)라고 불리는 발카르 산악 귀족들이 통치했으며 17세기 중반 러시아 왕국이 발카리아의 은광에 관심을 가지면서 러시아와 관련을 맺었고 1827년 러시아에 공식적으로 편입되었다. 이때 발카르인들은 러시아로부터 자신들의 사회구조, 고대 관습, 샤리아 법, 이슬람 신앙 등을 보장받았다.

18세기~19세기에 발카리아는 지리, 역사, 문화 영역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러시아 제국 편입 이후 유럽 지식인들의 여행지로도 인기를 끌었다.



발카리아의 한 계곡에서 본 마을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지금도 발카리아에는 발카르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엘브루스 산의 만년설이 녹아 생성되는 강들을 따라 수로교통과 스포츠, 레크레이션, 관광 자원들이 풍부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발카르스키 공화국, 발카르공화국
- 다국어 표기 Балкария(러시아어), Balkary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발카르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tuZ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etokavkaz.ru/istorija_kavkaza/kbr
- 참고문헌(오프라인) Мурзагалеев Р.И., Сулейманов А.Р. Чекрыжов А.В., Мурзагалеев Б.Р. «Традиции и праздники тюркских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Диалог, Уфа, 2017.

I C048 | 발타 리마느 조약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기타 ● 나라 튀르키예, 영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조약
- 유형 소분류2 불평등조약
- 집필자 이영희 ● 라틴 문자 Treaty of Balta Limani

발타 리마느 조약은 오스만 제국과 영국사이 맺어진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하며 다른 말로는 앵글로-오스만 협약(Anglo-Ottoman Convention) 이라 한다.

19세기 오스만 제국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그리스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독립 전쟁을 일으킨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 마흐무드 2세(Mahmud II, 재위: 1808년~1839년)는 그리스 반란을 진압하고자 당시 이집트 총독 메흐메드 알리 파샤(Kavalalı Mehmed Ali Paşa)에게 시리아 지역의 통치권을 대가로 지원을 요청한다. 오스만-이집트 연합군은 서구 열강의 지원을 받은 그리스 독립군을 제압하지 못했고 결국, 1830년 그리스는 독립을 이루게 된다.

알리 파샤는 오스만 제국에게 약속받은 시리아 지역의 지배권을 요구하지만 오스만 제국은 패전을 이유로 거절하고, 분노한 알리 파샤는 1832년 자신의 아들 이브라힘 파샤(İbrahim Paşa)를 시켜 시리아를 점령한다. 알리 파샤의 행동에 위협을 느낀 오스만 제국은 영국의 지원을 받아 알리 파샤를 제압하고자 한다. 영국은 오스만 제국의 지원 요청을 받아 자신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무역협정 체결을 댓가로 제안하고, 오스만 제국은 어쩔 수 없이 영국과 자유무역협정 '발타 리마느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조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국은 오스만 제국과 자유무역을 하게 된다. 당시 오스만 제국은 자국 시장,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상품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했다. 이 조약을 계기로 영국은 모든 상품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영국 상인은 오스만 제국 어디든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발타 리마느 조약을 계기로 오스만 제국의 무역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영국을 모델 삼아 다른 유럽 국가들도 오스만 제국에게 영국과 유사한 조건으로 무역협정을 요구한다. 더구나 오스만 제국 상인들은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 급기야 오스만 제국 상인들은 외국인이 누리는 혜택을 이용하고자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게 된다. 그리고 관세 폐지로 인해 오스만 제국

상품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오스만 제국의 산업이 붕괴하게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발타 리만스 협약

● 다국어 표기 Baltalimanı muahedesi(튀르키예어), Treaty of Balta Liman(영어)

● 연관 검색어 마흐무드 2세

● 참고문헌(오프라인) Mübahat S. Kütükoğlu “Baltalimanı Muahedesi”, *TDV İslam Ansiklopedisi*, Vol. 5 1997, pp.38~40.
Bruce Masters, “Anglo-Ottoman Convention”,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New York: Facts On File, 2009, pp.42~43.

| C049 | 발흐

● 시기 기타 ● 지역 남아시아 ● 나라 아프가니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Balkh

발흐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북부에 위치한 고대 도시 이름이다. 기원전 2천년부터 페르시아 민족이 살았고, 아케메네스 제국의 영토였다. 이후에는 알렉산드로스 3세의 지배를 받았다. 나중에는 그레코-박트리아와 쿠산 왕조 영토의 일부가 되었던 곳이다. 7세기까지는 사산 조, 7세기 초부터는 아랍의 칼리프들이 이 지역을 통치했다. 그 이후에는 사만 왕조, 가즈나 조, 셀주크 조, 호라즘 조, 구르 왕조와 같은 왕조들이 이 곳을 지배했다. 칭기즈 칸 침략 이후에는 차가타이 칸국의 일부가 됐다. 1370년 이후부터는 아미르 티무르의 지배를 받게 된다. 『바부르나메』는 발흐에 대한 15세



발흐 인근에서 출토된 쿠산 왕조의 패널
Source: <https://collectionapi.metmuseum.org/>



발흐유적

기 말-16세기 초반 역사를 담고 있다.

발흐는 바부르의 삶과 정치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바부르는 카불에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고 난 뒤에 커다란 전략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발흐를 정복하려고 했다. 이 당시에 발흐는 샤이바니 칸 통치하에 있었다. 그는 1516년에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는 발흐 정복 후 이브라힘 벅치(Ibroxim Bekchi)를 그 지역 주지사로 임명했다. 그때 이라크에서 온 무함마드 자먼 미르저(Muhammad Zamon Mirzo)도 발흐 정복을 목적으로 쳐들어오지만 패배하고 만다. 1517년 몇 달 후 바부르는 발흐에서 이브라힘 벅치를 소환하고, 대신에 무함마드 자먼 미르저를 주지사로 임명한다. 그는 몇 년 동안 바부르를 대신하여 발흐를 통치한다. 그러나 샤이바니 왕조는 바부르가 인도로 원정을 떠난 틈을 이용하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군사 활동을 시작한다. 1526년 바부르의 전폭적인 군사 및 물질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흐는 샤이바니 왕조의 군대가 점령하고 만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도 바부르는 발

흐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발흐는 1850년까지는 부분적으로 부하라 칸국의 일부였으나, 1850년 이후부터는 아프가니스탄에 속하게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발크

● 다국어 표기 БАЛХ(러시아어), Balx(우즈베크어), بلخ(페르시아어/다리어), Balkh(영어)

● 연관 검색어 아미르 티무르, 바부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collectionapi.metmuseum.org/api/collection/v1/iiif/327830/711829/main-image>

● 참고문헌(오프라인) Абдураззоц Самарцандий, Матлаи саъдайн ва мажмаи баҳрайн. Т., «Ўзбекистон», 2008.

Мухаммад Гайдар Мирзо, Тарихи Рашидий. Т., «Шарх», 2010.

Хон- дамир. Хабибус-сияр, Т., «Ўзбекистон», 2013.

I C050 | 밤과 낮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작품 ● 유형 소분류2 소설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Kecha va kunduz

『밤과 낮(Kecha va kunduz)』은 우즈베키스탄의 20세기 작가 출판(Cho'lpun, 본명 Abdulhamid Sulaymon O'g'li Yusunov; 1893년~1938년)의 소설이다. 1935년 문예지 <소련문학(Sovet adabiyoti)>에 게재되었다가 1936년 완성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이 소설은 제목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현재와 과거를 주제로 하고 있다. 작가는 본 소설을 통해서 우즈베크 민족사의 밤과 낮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러나 이 소설은 『밤과 낮(Kecha va kunduz)』 중 과거에 대한 이야기 1권 「밤(Kecha)」만 전해진다. 소련 시대 이야기를 들려주는 2권 「낮(Kunduz)」은 안타깝게도 분실 상태이다. 연구자들은 당시 작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직후 출판사에서 출판을 마쳤고, 곧바로 출판사를 압수수색하면서 그 과정에서 작품이 모두 분실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작품은 가정생활, 특히 전통적인 쿤더쉬(kundosh: 이슬람 일부다처제 가정에서 부인들



『밤과 낮(Kecha va kunduz)』 표지
Source: <https://kitobxon.com/>

간의 관계를 이르는 우즈베크어. 부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쿤더쉬가 되고 그 부인들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함. 부인은 모두 정식 부인이며 첩과는 다름)의 갈등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관계가 주요 테마를 이루고 있다. 작품에는 ‘자본주의적 관계’나 ‘부르주아 도덕’과 같이 기존의 이슬람적 생활 방식과 동떨어진 풍습들이 묘사된다.

주인공인 제비(Zebi)는 도시에 거주하는 가난한 15세 소녀이다. 아름다운 노래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제비의 아버지는 수피교도이며, 광신도로 수피교 지도자의 말을 맹신하는 무지한 인물이다. 어머니는 이런 상황에 무력한 인물이다. 제비는 친구와 마을로 놀러 간 어느 봄날 군대 사령관인 악바랄리(Akbarali)가 놓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 악바랄리는 부유하지만, 못생기고 무례하며 무지한 인물이다. 악바랄리에게는 세명의 부인이

있다. 젊은 부인 술턴헌(Sultonxon)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자, 다른 두명의 부인 하디차(Xadicha)와 포쉬샤헌(Poshshaxon)은 제비를 악바랄리의 새로운 부인으로 들이려고 계락을 꾸민다. 결국 제비는 악바랄리의 네번째 부인이 되고 만다. 하디차와 포쉬샤헌은 자신들의 계락을 성공시켰으나, ‘상속’이라는 다른 문제가 시작된다. 포쉬샤헌은 젊은 부인들이 남편의 모든 재산을 가로챌까봐 두려워서 제비를 독살하고, 그 죄를 술턴헌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한다. 그러나 독이 들어간 차는 제비가 아닌 남편이 마시게 되고, 그 혐의는 제비가 받는다. 결국, 남편을 독살한 죄로 기소된 제비는 7년 동안 시베리아로 유배된다. 제비가 유배되자, 제비의 신실한 아버지는 수피교 지도자에게 반항하며 그를 죽이려고 한다. 이 모든 불행을 감당하지 못한 어머니는 미쳐버리고 만다.

무지한 악바랄리의 모든 일을 대신해주던 조수 미르여쿱(Miryoqub)은 작품의 또 다른 주요

등장인물이다. 미르여쿱은 매우 민첩하고, 사업가적인 자질을 갖고 있으며 모든 일을 능숙하게 해결한다. 그러나 그것은 미르여쿱이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것에 밝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미르여쿱은 성매매 여성 마리아(Mariya)를 만나게 된다. 미르여쿱은 사고방식이 차츰 바뀌게 되는데, 결정적인 원인은 기차에서 만난 개혁주의 자디드(Jadid) 성향의 부유한 지식인 사업가 샤라푸딘 호자예브(Sharafiddin Xo'jaev)와의 만남 때문이었다. 그는 단순히 부유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많이 알고 있었다. 외국어에도 능통하며,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고민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그는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과거에 미르여쿱은 자디드(Jadid) 개혁주의자들이 '최악의 이교도'라고만 생각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만나본 자디드 개혁주의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샤라푸딘 호자예브는 국가의 모든 젊은이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 모국어로 교육받아야 하고, 자디드인들이 부자들의 땅과 공장 등을 빼앗아 떠돌이들에게 나눠준다는 말은 사회주의자들이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며, 자디드(jadid)인들은 반대로 공장을 설립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국가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라 말해준다.

샤라푸딘 호자예브에게서 영향을 받은 미르여쿱은 마리아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로 결심한다. 마리아를 매매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후 마침내 그녀와 결혼한다. 이 두 주인공의 이야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제2권 '낮(Kunduz)'의 내용이다.

소설 속에는 주인공 외에도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 소설의 상당 부분은 차르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묘사가 차지하며, 작가는 당시 사회를 사실적이고 인상적으로 그려낸다. 특히 개혁주의자 자디드와 보수주의자(qadim)와의 논쟁, 제1차 세계 대전과 징집령(동원령), 신문 <번역(Tarjimon)>과 <시간(Vaqt)>에 대한 이야기, 오렌부르크의 유명한 후사이니아(Husayniya) 마드라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이 당시 시대 상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밤과 낮(Kecha va kunduz)』은 우즈베크 소설사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우즈베크 민족 부흥기를 사실적으로 조명하며,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등장한 다양한 인물 유형의 이미지를 독자에게 소개했다. 이 작품은 우즈베크 소설을 한 단계 끌어올린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케차 바 쿤두즈
- 다국어 표기 Kecha va kunduz(우즈베크어), Ночь и день(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출판, 자디드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kitobxon.com/img_knigi/s390.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rr.kr/S9DH>

● 참고문헌(오프라인) Mirzayev Saydulla, *XX asr o'zbek adabiyoti*, Toshkent: Yangi avlod, 2005.

Qosimov B. va boshqalar, *Milliy uyg'onish davri o'zbek adabiyoti*, Toshkent: Ma'naviyat, 2004.

I C051 | 밤스 베이레크

● 시기 A.D. 10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구비 문학 ● 유형 소분류2 작품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Bamsı Beyrek

「밤스 베이레크(Kampüre bey Oğlu Bamsı Beyrek)」는 투르크 고전 문학의 정수(精髓)라 할 수 있는 『현자 코르크트의 서(書)(Dede Korkut Kitabı)』에 수록된 12편 이야기 중 하나이다. 「밤스 베이레크」 이야기는 12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손꼽힌다.

카스피해 주변국에서는 ‘밤스 베이레크’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동북부 지역에서는 다른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카스피해 서쪽에서는 「베이 뵈이렉(Bey Böyrek)」, 「덴기보즈(Dengiboz)」, 「바이 부라(Bay Bura)」, 「베이 비르야(Bey Birya)」, 「베으 베이으라와 벵기보즈(Beğ Beyra ile Bengiboz)」, 「베이 베이레크(Bey Beyrek)」, 「바이 뵈이렉(Bay Börek)」, 「약가 박 그즈(Akgavak Gızı)」, 「바으 뵈으렉(Bağ Bö ğrek)」, 「벵기보즈(Bengiboz)」와 같은 이름으로도 구비 전승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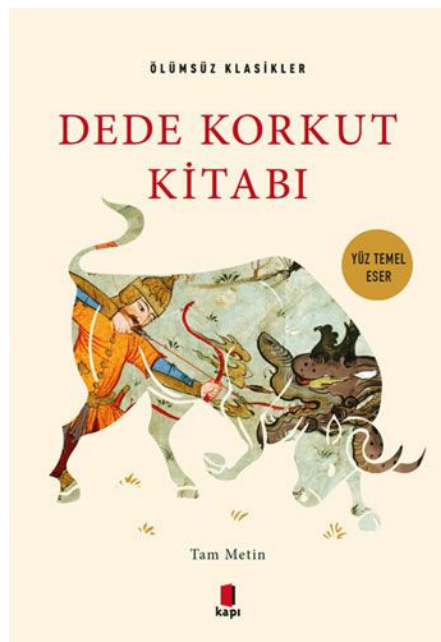
『현자 코르크트의 서(書)(Kitab-ı Dedem Korkut Ala Lisan-ı Taife-i Oğuzhan)』에 수록된 「밤스 베이레크」의 경우, 시와 노래로 구연되는 구비전승이 완전히 중단되었다. 그러나 구연본에 해당하는 「베이 뵈이렉(Bey Böyrek)」이 존재한다. 놀라운 사실은 오래전에 채록된 「베이 뵈이렉(Bey Böyrek)」의 필사본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두 권은 이스탄불 대학교에, 다른 한 권은 튀르키예 국립국어원(Türk Dil Kurumu)에 소장돼 있다. 나머지 한 권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발견되었다. 이렇게 총 4개의 필사본이 존재한다. 여기에 구연본(판본)까지 더하면 거

의 100여 편에 이른다.

이스탄불 대학교 도서관 문과대 소장번호 239번 필사본은 총 46 페이지이며, 각 페이지는 23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스탄불 대학교 소장본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페르테브 나일리 보라타브(Pertev Naili Boratav)의 공이었다. 앙카라에 자리 잡은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에 소장 중인 필사본은 카탈로그 번호 A/87번인데, 이것이 최초로 공개된 것도 페르테브 보라타브에 의해서였다. 이후 사임 사칼오을루(Saim Sakaoğlu)가 해석과 분석을 곁들여서 『현자 코르크트의 서(Dede Korkut Kitabı) 해석-본문-인용』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았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발견된 필사본도 밤스 베이레크의 구연본이라고 볼 수 있는 「베이 뷔이레크」를 채록한 후 필사한 것이다. 52번째 페이지 이후 페이지부터는 70년 후 첨가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총 2권이지만 1권은 유실되었다. 피크레트 튀르크멘(Fikret Türkmen)은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이 2권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카이로 소장본의 52페이지가 요약되어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소장본으로 채록되었다는 것이다. 이 판본은 「베그 뷔이웁 메나크브(Beg Büyük Menakıbı)」로 제목이 붙어있는데 ‘뷔이웁(Büyük)’은 ‘베이레크(Beyrek)’의 잘못된 표기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분량은 낱장 90페이지 정도이며, 국립도서관 튀르키예어 서가번호 295번으로 등록되어 있다.

페르테브 보라타브가 언급한 이스탄불대학교에 소장된 필사본과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에 소장된 필사본은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필사본과 현재 구비전승되고 있는 구연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필사본에는 주인공 이름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구연본에는 그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파디샤의 딸, 왕의 딸, 대상과 같은 일반 명사로 부른다. 작품들이 점차로 민담이나 전설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본문의 차이를 들자면 오래 전에 채록된 필사본은 모두 시(詩)와 산문의 혼용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



『현자 코르크트의 서(書)(Dede Korkut Kitabı)』 표지
Source: <https://www.alfakitap.com/>

에 비해 현재 구연자가 암송하는 구연본에는 운문 즉, 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도 흥미로운 점이다.

「밤스 베이레크」 관련 서적은 페르테브 보라타브(Pertev Naili Boratav), 오르한 샤익 곱야이(Orhan Şaik Gökyay), 사임 사칼오을루(Saim Sakaoğlu)와 같은 저명학자들의 연구 결과물만 추려도 46편 정도이다. 여기에 여러 잡지나 아카이브의 자료들을 모두 취합하면 100여 편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베이 뵤이렉, 덩기보즈, 바이 부라, 베이 비르야, 베으 베이으라와 벵기보즈, 베이 베이렉, 바이 뵤이렉, 약가박 그즈, 바으 뵤으렉, 벵기보즈 베이 뵤이렉

● 다국어 표기 Bamsı Beyrek(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알퍼므쉬, 현자 코르쿠트의 서

● 참고문헌(오프라인) Boratav Pertev Naili, “Bey Böyreğ Hikâyesine Ait Metinler”, *Folklor ve Edebiyat-2*, İstanbul, 1991. Chawick, Zhirmunsky, *Oral Epic of Central Asia*, Cambridge Univ. Press, 1969.

Türkmen Fikret, “Bamsı Beyrek Hikâyesinin Yeni Bulunan Kahire, Nüshası ile Türk Dil Kurumu Kütüphanesindeki Eksik Yazma Nüshası Hakkında”, *Uluslararası Dede Korkut Bilgi Şöleni*, Ankara, Atatürk Yüksek Kurumu Atatürk Kültür Merkezi Yayını, 1999.

I C052 | 배디르한 애흐매들리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비평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Bədirxan Əhmədli

배디르한 애흐매들리(Bədirxan Əhmədli)는 아제르바이잔의 문학 평론가이다. 1955년에 조지아 공화국의 도시 바스케치드(Başkeçid)의 시골 마을인 아즈개일리엔(AzGəyliyan)에서 태어났다. 중등교육을 아즈-개일리엔(Az Gəyliyan)에서 받았다. 1973년~1977년에 아제르바이잔 국립사범대학교(Azərbaycan Dövlət Pedaqoji İnstitutu) 아제르바이잔 어문학과에서 수학했다. 그리고 졸업 후 1977년~1982년에는 소도시 사비라바드(Sabirabad rayonu)에서 아제

르바이잔어문학 교사로 일했다. 1980년~1983년에는 아제르바이잔 과학아카데미(Azərbaycan Milli Elmlər Akademiyası)에서 박사과정을 했다. 그는 1983년~1990년에는 아제르바이잔의 내무부(Azərbaycan Nazirlər Kabineti) 문서보관소(Baş Arxiv İdarəsi) 부서장으로 일했다. 배디르한 애흐매들리는 「사빏 래흐만의 풍자(Sabit Rəhmanın satirası)」라는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으며, 「1920년~2000년 아제르바이잔 풍자문학의 발전(Azərbaycan satirasının inkişaf problemləri:1920-2000-ci illər)」을 주제로 인문학 국가박사(Doctor of Philology) 학위를 받았다. 그는 잠시 언론사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배디르한 애흐매들리는 2000년에 바쿠 슬라브 대학교(Bakı Slavyan Universiteti)에서 아제르바이잔 문학사 강의를 했다. 2011년에는 튀르키예의 도시 카르스(Kars)에 있는 캅카스 대학교(Kafkas Universiteti)에서 근무했다. 현재 아제르바이잔 과학아카데미(Azərbaycan Elmlər Akademiyası)의 아제르바이잔-아시아(Azərbaycan-Asiya ədəbi əlaqələri şöbəsi) 부서장을 맡고 있다.



배디르한 애흐매들리

배디르한 애흐매들리는 『사빏 래흐만의 풍자(Sabit Rəhmanın satirası, 1998)』, 『아제르바이잔 풍자문학의 발전(Azərbaycan satirasının inkişaf problemləri, 2000)』, 『어느 독립적인 여행자(Bir istiqlal yolçusu, 2003)』, 『사빏 래흐만: 생애, 환경, 역사(Sabit Rəhman: həyatı, mühiti, yaradıcılığı, 2010)』, 『20세기 아제르바이잔 문학의 역사, 제1권(XX əsr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2011)』, 『극작가, 예술과 진실(Dramaturq, sənət, həqiqət, 2011)』, 『20세기 아제르바이잔 문학의 역사, 제2권(XX əsr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II c., 2010)』, 『20세기 아제르바이잔 문학: 단계과 문제 그리고 방향(XX yüzil Azərbaycan ədəbiyyatı: mərhələlər, problemlər, istiqamətlər, 2015)』, 『아제르바이잔 국민문학: 형성과 문제점 그리고 인물(Azərbaycan mühacirət ədəbiyyatı: Təşəkkülü, problemləri, şəxsiyyətləri, 2017)』, 『투르크학의 3각 공식(Türkçülüyün üçlü formulu, 2020)』 등 학술서적과 교과서들을 저술했다. 그는 『애민 아비드(Əmin Abid) 선집(Seçilmiş əsərləri, 2007)』, 『아제르바이잔 투르크 문학사(Azərbaycan türklərinin ədəbiyyatı tarixi, 2017)』, 『아제르 문학사(Azəri ədəbiyyatı

tarixi, 2020)』 등을 출판했다.

배디르한 애흐매들리는 이외에도 국내 및 국제 학술지와 컨퍼런스에서 20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 배디르한 애흐매들리의 연구의 주요 방향은 20세기 아제르바이잔 문학사, 디아스포라 문학, 풍자문학의 학술-이론적 문제들, 억압과 문학 등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베드리한 아흐메들리

● 다국어 표기 Bedirhan Ahmedli(튀르키예어), Бадирхан Ахмадли(타타르어), Бәдірхан Ахмадли(카자흐어), Badirxon Ahmadli(우즈베크어), Бедирхан Ахмедли(러시아어), Бадырхан Ахмадли(키르기스어), Bədirxan Əhmədli(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Əbdülrəhmanlı Nəriman, “Milli Ədəbiyyatşünaslığımlza San Bal Li Təhfe”, *Kaspi qəzeti*, 7-9 aprel, 2012.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Əzizəliyeva Bəsirə, *Azərbaycan Mühacirət Ədəbiyyatına Yeni Konseptual Baxış*, 525-ci qəzet, 6 iyun 2017.

Kadioğlu Muhsin, *Üçlü Formula Yeni Baxış*, 525-ci qəzet, 17 aprel 2019.

I C053 | 배이릭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식주 ● 유형 소분류2 의복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Bəylik

배이릭은 아제르바이잔의 결혼식에서 신랑이 입는 예복(禮服)을 말한다. 아제르바이잔어 ‘배이릭(bəylik)’에서 ‘배이(bəy)’는 ‘신랑’ 혹은 ‘남자’라는 뜻이며, ‘릭(lik)’은 ‘~용도’라는 뜻의 명사형 접미사이다. 배이릭은 결혼식 용으로 구매하거나 특별히 맞춰 입는다. 배이두르마 의식(Bəydurma mərasimi)에서는 약혼한 남자의 머리 위에 가라굴(qaragül, 털이 검은 양) 양가죽으로 만든 쉬쉬파파크(şişpapaq)나 닥가파파크(daqqapapaq) 혹은 압파파파크(yappa papaq)를 쓴다. 쉬쉬파파크(şişpapaq)는 원뿔형 모자이다. 닥가파파크와 압파파파크는 아래와 위가 사이즈가 같은 원통형 모자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신부가 혼례복에 허리에 리본을 맬 때 신랑이

쓸 모자를 신부 머리에 얹은 3번 씌웠다가 벗기기도 한다.

예전에는 결혼식날 신랑은 보통 칸(Khan)의 옷과 왕관을 모방한 ‘키스베티(kisvət)’를 입었다. 오구즈 투르크인의 양모나 비단으로 만든 붉은 자켓인 고프탄(qoftan, qaftan)은 원래는 아르할릭(arxalıq, 허리에 걸치는 옷)이었다. 신랑들은 이 옷을 입고 신방에 들어갔다. 결혼식을 올린 지 40일이 지나면, 신랑은 고프탄을 벗어 거지나 가난한 사람에게 선물로 나눠줬다.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입는 옷은 모두 같았다. 차이가 있다면 옷감의 질감이었다.

혼례 예물로 신부 측에서는 신랑을 위해 옷을 최소 2벌 만들어야 했다. 신부 측에서 신랑 측에게 목욕 보자기(boğça)를 보내면, ‘태색(təsək)’이라는 모자와 아르할릭과 ‘추하(çuxa, 남성들이 입는 겹옷)’ 그리고 신랑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준비한 옷들을 넣어 포장했다. 신랑은 이 보자기에 있는 옷들을 결혼식 전 목욕하러 갈 때와 신방에서 입었다.

고대에는 자손이 많은 노인이 결혼식 예복을 신랑에게 입혀줘야 했다. 신랑이 쓴 모자나 옷 그리고 신발의 모양 등으로 신랑이 어떤 계급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가난한 집 신랑은 아르할릭을 입었다. 신랑은 쉬라지 차릭(şirazi çarıq, 가죽신발)을 신고, 허리에 깔래가이(kəlağayı, 실크로 짠 여성용 직사각형 머리스카프)로 만든 벨트를 맨 후 손수건 세 개를 목에 두른 다음, 마지막으로 추하(çuxa)를 입었다. 부잣집에서는 흰 비단이나 벨벳으로 만든 셔츠를 입고, 신부의 어머니가 신랑에게 보내준 진홍색 비단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계급에 따라 다른 모자를 머리에 썼다. 추하 위에 벨트를 매고, ‘즉즉(cıqciq)’이라는 신발을 신었다. 때로는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든 긴 부츠를 신기도 했다.

신랑이 옷을 입고 나면, 한 사람이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손에 소금을 쥐고 신랑의 옷 하단 위로 몇 번 돌린 뒤, 그 소금을 불에 집어넣는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옷에 깨끗한 물을 뿌린다. 이런 의식을 마치고 나면, 신랑이 입은 옷은 이제 기혼 남성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신랑의 혼례복을 가리키는 명칭은 지역마다 다르다. 베이릭(bəylik), 베이릭 리바스(bəylik libas), 베이래르 팔타르(bəylər paltarı), 토이룩 리바스(toyluq libas) 등으로 불린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베이릭, 베일릭

● 다국어 표기 Clothing for the bay(영어), beylik(튀르키예어), одежда для жениха(러시아어), bəylik(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bdulla B., *Azərbaycan mərasim folkloru və onun poetikası*, Bakı: Elm, 1990.

Nəbiyev A., *Azərbaycan folklorunun janrları*, Bakı, 1983.

Nəbiyev A., *Azərbaycan uşaq folkloru*, Bakı, 2000.

Vəliyev V., *Azərbaycan folkloru*, Bakı, 1985.

I C054 | 배이바시의 의식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풍습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Bəybaşı mərasimi

배이바시의 의식(Bəybaşı mərasimi)은 고대부터 아제르바이잔에 전해 내려오는 혼인의례 풍습 중 하나이다. 신랑 측이 신부 집으로 청혼에 대한 확답을 받으러 가는 의식과 약혼식 이후 거행되는 혼례를 말한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신랑과 신부 집에서 두번 혼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신부 집에서 신부 결혼식(그즈 토유, qız toyu)을 하고, 신랑 집으로 가서 신랑 결혼식(오글란 토유, Oğlan toyu)을 한 번 더 치른다. 신랑 집 마당에 텐트를 치고 진행하며, 주로 신랑 측 지인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이 초대된다. 신랑 결혼식이나 신부 결혼식 모두 대접하는 음식과 음료들은 거의 같다. 혼례복도 신랑은 예복 정장을 입고, 신부는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는다.

신랑 결혼식을 치르는 날에는 신랑의 부모, 형제자매, 가까운 친척 중 몇 명이 혼례용으로 꾸민 자동차를 타고 신부를 데리러 간다. 신부 집에 신랑 측 하객들이 도착하면 와그잘르(vağzalı, 아제르바이잔 전통 음악, 주로 신부가 친정을 떠날 때 연주된다) 연주로 그들을 맞이해야 한다.

음악 연주와 함께 신랑 측이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면 신부를 보내기 위한 의식이 시작된다.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허리에는 빨간 리본을 매고 기다리고 있는 신부 머리에 신부 아버지는 빨간 스카프를 씌워준다. 붉은 색 스카프는 신부를 액운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신부로 하여금 불 붙인 램프 주변을 돌도록 한다. 램프를 돌면서 신부의 밝은 앞날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그 후에 신랑이 신부에게 다가와서 꽃을 선물한다.

이런 의식을 마치고 비로소 신랑과 신랑 측 하객들은 신부를 차에 태우고 남자 집으로 가게

된다. 바그잘르 음악 연주와 함께 신부는 차에 타게 된다. 이때, 신랑 측 하객들은 신부가 주변을 돌았던 램프를 신랑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

신랑 집에 도착한 신랑과 신부가 차에서 내리면, 이때 친척과 이웃사람들은 춤을 추며 그들을 맞이해야 한다. 신랑과 신부도 이때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춰야 한다. 바그잘르 음악연주를 들으면서 신랑과 신부는 신랑 집으로 들어간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몇가지 절차와 의식이 있다. 집 앞에는 신부 발밑에 물이 담긴 깊은 그릇과 접시가 놓여져 있다. 신부는 물이 담긴 그릇을 발로 차서 물을 바닥으로 쏟고, 접시를 깨뜨려야 한다. 이것 역시 액운을 막기 위한 뜻이다. 다음은 신부의 선물고르기이다. 신랑 아버지가 신부를 위해 준비한 선물 중에서 신부는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한다. 신부가 선물을 받고 나면, 신랑과 신부는 준비된 자리에 앉는다. 그후에는 신부 품에 어린 남자 아기를 안겨준다. 이러한 의식은 신부가 아들을 낳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절차와 의식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모든 사람은 집으로 들어가 본격적인 결혼 피로연을 시작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배이바쉬

● 다국어 표기 baybaşı(튀르키예어), байбашы(러시아어), Bəybaşı mərasimi(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toyu*, Bali, Tuti, 2003, s. 34

Nəbiyev A., *Azərbaycan folklorunun janrları*, Bakı, 1983.

Nəbiyev A., *Azərbaycan uşaq folkloru*, Bakı, 2000.

Abdulla B., *Azərbaycan mərasim folkloru və onun poetikası*, Bakı: Elm, 1990.

Vəliyev V., *Azərbaycan folkloru*, Bakı, 1985.

I C055 | 배키르 내비예브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비평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Bəkir Nəbiyev



배키르 내비예브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배키르 내비예브(Bəkir Nəbiyev)는 아제르바이잔의 유명한 비평가이자 문학평론가이다. 배키르 내비예브는 1930년 8월 21일 소도시 아그다스(Ağdaş rayonu)에 있는 시골 마을인 위츠고바그(Üçqovaq kəndi)에서 태어났다. 그는 중등 교육을 아그다스에서 받았다. 1949년~1954년에 아제르바이잔 국립대학교(Azərbaycan Dövlət Universiteti, 현재 바쿠 국립대학교)의 아제르바이잔어문학과에서 수학했다. 배키르 내비예브는 1960년에 ‘피리둔 배이 쿵첼리의 삶과 작품 세계 (Firidun bəy Köçərlinin həyat və yaradıcılığı)’라는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썼다. 이어서 그는 1970년에 ‘대조국 전쟁 시기 아제르바이잔 문학(Böyük vətən müharibəsi dövründə Azərbaycan ədəbiyyatı)’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2년에 정교수로 임용됐고, 이어서 1989년에는 학술 아카데미 교수가 됐다. 2003년~2012년까지는 아제르바이잔 과학 아카데미(Azərbaycanın Milli Elmlər Akademiyası) 원장을 역임했다.

수상경력으로는 1978년에 아제르바이잔 국가 훈장, 1990년에 학술연구자(Əməkdar Elm xadimi) 상 그리고 2000년에는 명예(Şöhrət) 훈장을 받았다.

배키르 내비예브의 연구주제는 소비에트 시대 아제르바이잔 문학사와 소비에트 시대 아제르바이잔 문학 인물 유형 및 문제점에 관한 것이다. 그의 문학에 대한 유연한 접근 그리고 저널리즘과 언어학적 사고의 결합은 그의 창의적 비평 스타일을 형성하는 자질 중 하나이다. 저자는 『저명한 비평가이자 문학연구자(Görkəmli tənqidçi və ədəbiyyatşünas, 1963)』에서 문학사의 기초를 닦은 피리둔 배이 쿵첼리(Firidun bəy Köçərli)의 작품을 연구했다. 1984년에는 연구성과를 발전시켜 『피리둔 배이 쿵첼리(Firidun bəy Köçərli)』라는 제목으로 출판했

다. 이후 그는 『현대성과 예술성이라는 명분으로(Müasirlik və sənətkarlıq uğrunda, 1966)』, 『총검으로 변한 펜(Süngüyə çevrilmiş qələm, 1970)』, 『문학적 사고(Ədəbi düşüncələr, 1971)』, 『비평과 문학과정(Tənqid və ədəbi proses, 1976)』, 『대조국전쟁과 아제르바이잔 문학(Böyük Vətən müharibəsi və Azərbaycan ədəbiyyatı, 1977)』, 『새로운 발자취를 찾아(Təzə izlər sorağında, 1979)』, 『카말르의 의식(Kamalın təntənəsi, 1981)』, 『우리의 현대성과 문학(Müasirlərimiz bədii ədəbiyyatda, 1983)』,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Söz ürəkdən gələndə, 1984)』, 『소설과 현대적 영웅(Roman və müasir qəhrəman, 1987)』, 『우리 자신에서 시작하자(Özümüzdən başlayaq, 1980)』 등의 학술서적을 출간했다. 그는 이 연구들에서 아제르바이잔 문학사의 여러 저명한 작가들의 작품 세계, 특히 현대문학의 문제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피력한다. 베키르 나비예브는 『대조국전쟁과 아제르바이잔 문학(Böyük Vətən müharibəsi və Azərbaycan ədəbiyyatı, 1977)』에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아제르바이잔 문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시대의 문학 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 그 연구는 곧 『카말의 의식(Kamalın təntənəsi, 1981)』이라는 제목으로 재출간됐다. 그는 이어 아제르바이잔이 독립을 되찾은 후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작품들에 대한 비평을 수행했다. 결과물로 그는 『애흐매트 자바드(Əhməd Cavad, 1993)』와 『망명 시인(Didərgin şair, 1994)』이라는 학술서적을 저술했다. 해당 연구에서 애흐매트 자바드와 알마스 일드름이라는 시인은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분석 대상이 됐다. 베키르 나비예브의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의 문학비평에서는 다양한 세계관을 볼 수 있다.

베키르 나비예브는 2012년 3월 15일 바쿠에서 사망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베키르 나비예브, 베키르 네비예브

● **다국어 표기** نەبیبەف باكس (위구르어), Bekir Nebiyev (튀르키예어), Бекир Небиев (러시아어), Бакир Нәбиев (타타르어), Bakir Nabiyew (투르크멘어), Бәкір Нәбиев (카자흐어), Бакир Набиев (키르기스어), Bəkir Nəbiyev (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피리둔 배이 쿼첼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az/a/aa/B%C9%99kir_N%C9%99biyev.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rzumanlı Vaqif, *Dəyərli Ustad*, Bakı: Qartal nəşriyyatı, 2010.

Akademik Bəkir Nəbiyev Haqqında Soraq Kitabı, Bakı: Nafta Press, 2009.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Nəbiyev Bəkir, *Bibliografiya*, Bakı: Elm nəşriyyatı, 1991.
 Sultanlı Vaqif, *Azərbaycan Ədəbi Tənqidi*,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9.
 Vətəndaş Alim, Ziyalı: *Akademik Bəkir Nəbiyevin 85 illiyinə*, Bakı: Elm nəşriyyatı, 2015.

I C056 | 배키르 초반자대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비평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Bəkir Çobanzadə

배키르 초반자대(Bəkir Çobanzadə)는 20세기 아제르바이잔의 저명한 투르크학자이며 동시에 문학평론가이다. 배키르 초반자대는 1893년 크림반도의 도시 심페로폴 가라수바사르(Qarasubasar kəndi)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초등교육을 가라수바사르 마을에서 받았다. 이어 1908년부터 1918년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갈라타사라이 학교(Qalatasaray liseyi)에서 수학했다. 그리고 이스탄불 대학교(İstanbul Universiteti)에 재학 중에는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를 배웠다. 대학시절에 문예창작을 시작한 배키르 초반자대는 초기에는 시를 썼고, 다양한 언론사에 자신의 예술적 아이디어들을 발표했다. 배키르 초반자대는 성공적으로 창작활동을 하면서 부다페스트 대학교(Budapeşt Universiteti) 역사·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한동안 부다페스트에서 튀르키예어로 출간되는 신문 <동방(Şərq)>의 편집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어 고향으로 돌아가 크림대학교(Krım Universiteti) 교수로 일하다가, 해당 대학교에서 총장도 역임했다. 1926년 신(新)문자위원회(Yeni Əlifba Komitəsi) 초청으로 아제르바이잔에 온 배키르 초반자대는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문자개혁 이후에도 생을 마감할 때까지 바쿠에서 살았다.

그는 투르크학자로 활동하면서 투르크 민족들의 언어, 문학, 문화, 역사에 관한 40여 편의 학술서적과 수많은 칼럼을 저술했다. 그의 문학평론을 보면, 『아제르바이잔어와 문학 교수법 1권(Türk dili və ədəbiyyatının tərdis üsulu, I cild, 1926)』, 『아제르바이잔어와 문학 교수법 2권(Türk dili və ədəbiyyatının tərdis üsulu II cild, 1927)』, 『투르크(아제르바이잔)-

타타르 문학에서 쿠릴타이주의와 민족주의(Türk-tatar ədəbiyyatında qurultayçılıq və millətçilik, 1929)』, 『아제르바이잔 문학의 새로운 시대(Azəri ədəbiyyatının yeni dövrü)』, 『민족주의에서 세계주의로(Nasionalizmdən internasionalizmə, 1930)』, 『투르크어문학(Türk dili və ədəbiyyatı, 1936)』 등의 작품들은 아제르바이잔의 문학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 중요한 문헌들이다. 그는 동일한 역사·문화적 기원을 가진 투르크 민족의 문학을 통일성 있게 연구하자고 주장했다. 그의 문학과 역사관에서 투르크 민족의 문학은 동일한 하나의 원리에 근거해 분류됐으며, 투르크 민족의 역사는 각 개별 민족들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분류됐다. 그는 문학과 삶의 관계성, 내용과 형식의 통일성, 전통과 개혁 등 문학의 이데올로기적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배키르 초반자대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그는 1937년 10월 13일 정치적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비에트 정권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고 숙청됐다. 그러나 투르크학과 문학비평 등은 그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학문적 역량 면에서 큰 관심을 끌었고, 아제르바이잔-투르크 민족 사상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배키르 초반자대

● 다국어 표기 Bekir Çobanzade(튀르키예어), Bekir Choponzoda(우즈베크어), Бәкер Чобан-задә(타타르어), Bekir Çoban-zade(크림 타타르어), Bekir Chobanzade(투르크멘어), Бекир Чобан-заде(러시아어), Bəkir Çobanzadə(아제르바이잔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0/06/Photo_of_Bekir_Chobanzade_in_poetry_collection_%22Boran%22.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Babayev Adil, *Bekir Çobanzadə*,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1998.

Çobanzadə Bekir, *Seçilmiş əsərləri*, 5 cildde, I–V cildlər,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2007.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Salamoğlu Təyyar, *Azərbaycan ədəbi tənqid tarixinə dair portret oçerklər*, Bakı: EL nəşriyyatı, 2011.

Sultanlı Vaqif, *Azərbaycan ədəbi tənqidi*,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9.

Qasimov Cəlal, *Bəkir Çobanzadə*, Bakı: DTX nəşriyyatı, 2018.

Д.П.Урсу. Бекир Чобан-заде: Жизнь, судьба, эпоха, Сим ферополь, 2004.

I C057 | 배흐티야르 와합자대

● 시기 A.D. 1800~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Bəhtiyar Vahabzadə

배흐티야르 와합자대(Bəhtiyar Vahabzadə, 1925년~2009년)는 아제르바이잔의 민족시인이며, 극작가이고, 문학교수이다. 가족은 노동자 계층이었으며, 1925년에 쉐키(Şəki)에서 출생했으나 1934년 가족이 모두 바쿠로 이주한 이후 바쿠에서 살았다. 그는 바쿠 국립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했다. 문학평론가이기도 한 와합자대는 1964년에 「사메드 우르군(Samed Vurgun) 아제르바이잔 시인의 삶과 창의력」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50년~1990년대에는 40년간 아제르바이잔 국립대학교 아제르바이잔 어문학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1990년에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1980년에 아제르바이잔 국립 과학아카데미 회원, 1981년에는 소련연방 작가총회에서 소련 연방 작가연맹(USSR Writers Union) 이사로 선출되기도 했다. 1995년과 2000년은 아제르바이잔 국회(Milli Majlis)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1943년에 「어머니와 사진(Ana və şəkil)」이란 시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했다. 이후 바쿠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꾸준히 시집을 출판하면서 작품 활동을 전개했다. 그의 첫 시집인 『나의 친구들(Mənim dostlarım)』은 파시즘에 맞선 싸움에서 승리한 아제르바이잔 민족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했다.

배흐티야르 와합자대는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시와 희곡의 형태로 서정적이며, 철학적으로 표현했다. 『두번째 소리(İkinci səs)』, 『양심(Vicdan)』, 『비 내린 이후(Yağışdan sonra)』, 『길 위에 생긴 흔적(Yollara iz düşür)』, 『통곡(Fəryad)』, 『이 세상은 어디로 가는가(Hara gedir bu dünya)』, 『우리 스스로를 찌르는 검(Özümüzü kəsən qılınc)』, 『처벌없는

범죄(Cəzasız günah)』, 『마른 나무(Dar ağacı)』, 『경쟁(Rəqabət)』 등이 그 작품들이다.

와합자대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민족해방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이다. 그는 문학작품을 통해 자신의 '민족주의와 통일정신'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는 1958년에 발표한 시(詩) 「귤뤼스탄」에서 두 개로 조각난 분단국 아제르바이잔의 현실과 역사적 참사에 대해 언급한다. 이어 러시아와 페르시아 제국의 발밑에서 울부짖는 아제르바이잔인들의 자유와 독립을 향한 열망과 투쟁에 대해 쓰고 있다. 「순국선열(Şəhid)」과 「해방(İstiqlal)」이라는 시에는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그의 역사인식이 담겨 있다.

소비에트 시대는 아제르바이잔인에게 고통과 어둠의 시기였다. 민족 정체성은 사라졌고, 주권을 박탈당한 자민족의 고통을 언급했던 작품들은 삼엄한 검열을 통과할 수 없었다. 와합자대는 소비에트 시대 자신이 느꼈던 고통과 자과감을 소련 붕괴 이후 「상자에 담긴 소리들(Sandıqdan səslər)」이라는 제목의 연작시로 출판했다. 이 연작시에는 고향, 민족, 가족, 자연, 언어, 자유에 대한 열망, 이별 등의 주제가 깊고 강렬한 시어로 표현돼 있다.

시인 와합자대의 시는 시대와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주제 및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다분히 철학적이며 사색적이다. 시 속의 주인공들은 모두 자유와 독립에 대한 열망과 정의와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현대사회를 열어가고자 한다. 더불어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시인은 생명의 측면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문제들과 인간적인 고통을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깊게 분석하고 있다.

와합자대는 독창적인 시적 사고와 다양한 창의성으로 아제르바이잔 문단을 형식, 장르 및 미학적 측면에서 풍요롭게 장식하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아제르바이잔뿐만 아니라, 러시아, 투르크 국가들, 유럽과 미국, 독일, 이란에서도 번역, 출판돼 잘 알려져 있다. 특히, 튀르키예에서는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작품들이 민족 문제를 다양한 범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베흐티야르 와합자대의 묘지와 기념비

아제르바이잔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시인 와합자대에 대해서 많은 학술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와합자대의 작품들이 이토록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시인이 아직 살아 있던 그 당시에도 고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작품들이 민족성과 인간 본성, 독특한 시적 사고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작가 칭기즈 아이트마토프(Ç.Aytmatov)는 와합자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와합자대의 시는 본질적으로 자민족 언어를 기반으로 한다. 자신이 속한 민족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 민족의 살아 움직이는 언어로 멋진 건축물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이유로 와합자대의 시와 미학은 더욱 높게 평가된다. 단지 그의 시가 민족적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으로 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1974년에는 아제르바이잔 명예예술인 그리고 1984년에는 아제르바이잔 국민시인 칭호를 받았다. 2018년 8월 31일 그의 고향 세키에는 <시인의 생가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그는 2009년 사망했고, 바쿠 명예의 전당 현충원에 묻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박티야르 바합자데, 바흐티야르 바합자데
- 다국어 표기 Bəxtiyar Vahabzadə(아제르바이잔어), Bakhtiyar Vahabzadeh(영어)
- 연관 검색어 켈뤼스탄의 시

- 멀티미디어 링크 배흐티야르 와합자대의 시 낭송

https://www.youtube.com/watch?v=KB7cDU9_GGo

- 참고문헌(오프라인) 배흐티야르 와합자대 저, 오은경 옮김, 『켈뤼스탄의 시』, 문학과 지성사, 2019.

Akpınar Yavuz, *Azeri Edebiyatı Araştırmaları*, Dergah Yayınları, İstanbul, 1994.

Gasimov Zaur, “Observing Iran from Baku: Iranian Studies in Soviet and Post-Soviet Azerbaijan”, *Iranian Studies*, 55(1). 2022, p. 49.

Ercilasun Ahmet Bican, “Bir Azeri Şairi: B.Vahabzade”, *Milli Eğitim ve Kültür dergisi*, Sayı. 2, 1979.

Hikmet İsmail, *Azərbaycan Edebiyatı Tarihi*, Akçağ Kitapevi, İstanbul, 2019.

I C058 | 백등산 전투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전투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Battle of Baideng

백등산 전투는 동북아시아에서 유목 제국의 시대를 활짝 열어 유목사의 흐름에서 실로 기념비적인 전기를 마련한 전투이다. 초한쟁패를 승리로 이끈 유방은 중국의 지배자로 군림했으나, 한(韓)왕 신(信)의 반란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노 목돌 선우와의 대결에 끌려왔고 그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다. 이후 흉노는 향후 80여 년간 한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했으며, 한은 권토중래를 꿈꾸며 치욕을 감수해야만 했다.

기원전 200년 현재의 산시성 대동 부근인 평성(平城) 부근의 백등산에서 벌어진 전한(漢)과 흉노(匈奴)의 대전투는, 문헌상 양측의 병력이 도합 72만 명으로 언급되는데, 중국 역사서 특유의 과장을 고려한다고 해도 상당한 전력이 서로 맞붙었는데, 흉노의 완승으로 끝났다. 전투의 발단 자체는 강성해진 흉노의 견제 겸 흉노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한왕 신(韓王 信)을 정벌하려는 유방(劉邦)의 원정이었지만, 여기에 흉노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양측의 전쟁으로 발전했다. 한고조는 목돌 선우의 반격으로 백등산(白登山)에 고립당해 위기에 처한다. 고조는 7일간 버티다가 모사 진평의 계책으로 목돌 선우의 왕비에게 뇌물을 주어 포위가 느슨해진 틈을 타 달아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투는 동북아시아에서 유목 제국의 시대를 활짝 연 대사건이자, 초한대전(楚漢戰爭) 이후 이제 막 유일무이한 전(全) 중국 통일 제국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 전한(西漢)으로서는 개국 초기부터 입게 된 최악의 시련이었다. 이 전투는 이후 수백 수천 년간 이어진 한 제국과 흉노, 중화 제국과 북방 유목 제국이 벌인 대사투의 서막을 열었다. 중국 사서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은 백등지위(白登之圍) 또는 백등피위(白登被圍)이라는 ‘백등산에서의 포위’라는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전투를 일컬을 때 쓰이는 ‘지전(之戰)’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다. 영어로 ‘Battle of Baideng’이라고 하고, 일본어의 경우 白登山の戦い(백등산의 전투)로 표기한다. 하지만 당시의 처절함을 담아 평성지치(平城之恥), 즉 ‘평성의 치욕’으로 쓰기도 한다.

일설에는 백등산 전투가 산서성 중 북부 전투이기에 흉노가 아니라 고조선(동호)과의 전투로

보기도 한다. 이런 시각에서는 백등산 전투가 흉노와 한고조 유방의 전투가 아니라 고조선인 동호와 한고조 유방이 싸운 전투라고 추정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백등산 포위전

● 다국어 표기 白登之圍(중국어), Baideng Muharebesi(튀르키예어), Battle of Baideng(영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14W6wNTORfc>

● 참고문헌(오프라인) *Atlas of World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Xiongnu People”, britannica.com, Encyclopædia Britannica,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1 March 2020.

Hyun Jim Kim, “2 The So-called ‘Two-Hundred year Interlude’”, *The Huns*, Routledge, 2015.

Grousset, Rene, *The Empire of the Steppes*, Rutgers University Press, 1970.

Maenchen-Helfen, Otto, *The World of the Huns* (1 ed.), UC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 August 1973.

I C059 | 백색과 관련된 민속 신앙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색 ● 집필자 양민지 ● 라틴 문자 Folklore and Symbolism of White

백색(악, ak)의 상징적 사용은 투르크 역사에서 그 기원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샤머니즘과 연관이 깊다. 알타이 투르크들은 오랫동안 샤머니즘과 함께했고 그들의 문화 속에 샤머니즘적 요소가 깊게 자리하고 있어, 투르크 문화권의 샤머니즘과 관련된 자료와 기록들은 대부분 알타이 투르크에 관한 것이다. 또한, 샤머니즘과 천신 신앙이 짙게 나타나는 투르크 고대 문학(창세 신화 등)도 알타이 투르크의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튀르키예와 중앙아시아 지역 투르크들 대부분이 이슬람화되면서 샤머니즘적 요소가 현대 문화에서 거의 퇴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옛 튀르키예인과 투르크족이 지닌 백색에 대한 상징은 알타이 샤머니즘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예로부터 알타이 투르크의 캄(Kam 무당/샤먼)은 ‘예르쑤(Yersub 땅과 물의 신)’, ‘에를릭(Erlik 지하의 신)’과 그의 아들들, 천신(天神) ‘율겐(Ülgen)’ 등에게 제사를 지냈다. 알타

이 캄들이 착용하는 제례용 의복과 무구는 적게는 30개에서 많게는 70개 이상인데, 그중에서도 모자와 상의 그리고 북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 보통 캄은 흰 양가죽(암사슴 가죽으로 만드는 곳도 있음)으로 만든 긴 장옷(혹은 모자)을 걸치는데, 이는 캄(캄의 영혼)이 정령 혹은 신이 있는 세계에 출입하거나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천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천상과 지상을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무릎까지 이어지는 3개의 긴 흰 천을 어깨에 걸친다. 알타이 캄이 사용하는 주요 무구(舞具) 중 하나인 북에는 주로 그들이 신을 영접하는 방법이나 캄의 정신세계 등이 상징화되어 있다. 북 위쪽에는 일곱 색의 무지개가 그려져 있고 무지개의 양쪽에는 계단이 그려져 있다. 이 계단을 올라가면 하늘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하늘에는 2개의 흰 자작나무가 있으며, 무지개 아래쪽에는 2개의 원과 별들이 그려져 있다. 계단의 위쪽에는 백색으로 7명의 산(山) 처녀들이 형상화되어 있다. 이 산 처녀 옆에는 2마리의 새가 있는데 이 새는 캄이 하늘에 오를 때 도움을 주는 영물이라고 믿는다. 북에는 이외에도 적색의 말을 탄 기병(전사)이 그려져 있는데, 이 기병은 고인의 영혼을 이끌고 지하의 신 에를릭에게 가는 역할을 한다고 믿으며, 이와 한 쌍을 이루는 반대편의 백색 말을 탄 기병은 하늘 신에게 이른다 믿는다. 북의 가운데에는 3개의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는 각각 하늘과 땅 그리고 지하를 상징하며 이는 알타이 투르크족의 세계관을 나타내는 것이다.

튀르키예인들은 오방색 중 백색을 투르크어 ‘악(ak)’으로 표현한다. 아랍어에서 기원한 ‘베아즈(beyaz)’도 교차 사용하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투르크족은 악(ak)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했다. 악(ak)은 백색뿐만 아니라 동시에 밝음, 깨끗한, 순수한, 맑은, 정직한, 편안한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투르크 창세 신화에서는 신이 세상을 만들 때, ‘아크 아나(Ak Ana 백의 여신/빛의 여신)’가 등장하여 창세의 신에게 조언해 주는 구절이 등장한다. 이를 통해 투르크족이 흰색을 지혜와 밝음 그리고 현명함을 나타내는 색으로 인식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셀주크 제국과 오스만 제국 시기 백색은 특히 현자(賢者)들의 색으로 인식되어 현명함과 지혜를 대변했다. 이는 튀르키예인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알려진 오우즈 부족의 영웅서사시 『현자 코르크트의 서(Dede Korkut Kitabı)』에도 잘 드러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투르크 가운데 대표적으로 ‘아크 코윤라르(Akkoyunlar, 백양 조)’는 백색을 통치자의 순수성, 올바름, 선(善) 그리고 순교자(혹은 열사)의 색으로 여겨 이를 국기에 사용했다. 이처럼 백색은 풍부한 경험과 지혜, 한 국가 혹은 통치자의 위대함, 정의, 권력을 의미했다. 이 밖에 튀르키예인들의 조상 오우즈 투르크

족은 전쟁 시 군복의 색깔로 흰색을 사용했는데, 보통 군대에서 연대와 대대를 이끄는 대령과 중령 사이에 해당하는 계급의 지휘관 군복에 이를 사용했다. 또한, 흰 말(白馬)은 지휘관 중에서도 능력이 뛰어나고 인정받은 몇몇 장수들에게만 허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약 렌크레르 일레 일길리 켈레넥셀 튀르크 이나느쉬라르
- 다국어 표기 Ak renkler ile ilgili geleneksel türk inanışları (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샤머니즘, 에를릭, 캄, 녹색과 관련된 민속신앙, 적색과 관련된 민속신앙, 황색과 관련된 민속신앙, 흑색과 관련된 민속신앙
- 참고문헌(오프라인) Altun, Erman. *Türk Halkbilimi*, Kitapevi yay, İstanbul, 2009.
Günay Ünver. Güngör Harun. *Türklerin Dini Tarihi*. Berikan yay, Kayseri, 2015.
İnan, Abdulkadir. *Tarihte ve Bugün Şamanizm*, Türk Tarih Kurumu, Ankara, 1986.
Ögel, Bahaeddin, *Türk Mitolojisi I~II*, Türk Tarih Kurumu, Ankara, 2010.
Roux, Jean-Paul, *Türklerin ve Moğolların Eski Dini*, (Çev. Aykut Kazancıgil), Kabalcı yay, İstanbul, 2001.

I C060 | 버러 유적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터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Boroo

버러 유적은 몽골의 셸렝게 아이막 만달 슴 지역에 있는 버러강 유역에 위치한다. 작은 하천의 우측변 구릉 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강을 따라 ‘ㄱ’자형으로 길이 300m, 폭 50m~80m가량의 범위에 남북으로 구분되어서 집중 분포하고 있다. 이 유적은 1966년에 발견되었으나, 발굴 조사는 1990년대에 이루어졌다. 몽골-헝가리 공동 조사단이 주거지 1기와 저장용 구덩이들을 발굴 조사했다. 몽골-스위스 공동 조사단은 6기의 수혈 주거지를 포함해서 저장용 구덩이와 불맞은 흔적 등 다수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러시아 자바이칼에 위치한 이볼가 유적과 비슷하다.

주거지는 서벽과 북벽에 판석을 이용해서 만든 ‘ㄱ’자형 쪽구들을 조성했는데, 아궁이는 동쪽 끝에 붙어 있다. 쪽구들은 연해주와 한반도에서 확인되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 버러 유적에



버러 하르키라아강

서는 토기와 동물 뼈가 주로 출토되었는데, 골각기, 석제 장신구, 철기 등도 발견되었다. 특히 105호 집터에서는 호랑이가 새겨진 동물의 견갑골, 석제 허리띠 버클 파편, 양의 견갑골로 만들어진 토기 제작용 또는 가죽 무두질용 도구, 보드 세임용 토제말과 멧돌 그리고 시루 등이 출토되었다.

버러 유적은 흉노 시대의 정착 마을로, 출토 유물로 보아서 수공업 장인들이 모여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 버러 유적에서부터 불쪽 바이칼 호까지의 지역은 셀렝가 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몽골과 러시아 부랴트 지역에서 농경에 적합한 곳이다. 이러한 곳에 버러, 이불가, 도렝, 영허르, 도르망기르타이 등 수공업이나 농경 생활을 영위하던 정착민들이 살았던 흉노 시대의 마을 유적이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흉노가 정책적으로 장인과 농민을 해당 지역에 배치해서 필요한 물품과 농작물을 생산하도록 했음을 보여준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보루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2013. 에릭센, 양시은, 『흉노』,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2017.

I C061 | 버버 데흐컨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화 ● 유형 소분류2 신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Bobo dehqon

버버 데흐컨(Bobo dehqon)은 일반적으로 ‘늙은 농부’, ‘농부 할아버지’, ‘경험 많은 농부’ 등을 의미하나, 우즈베키스탄 민간 신앙에서는 농업을 수호하는 수호신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이슬람화 이전의 신화에 의하면 인간을 위하여 불, 식물, 농기구 따위를 만들거나 가르쳤다고 전해진다. 다른 전승에 의하면 버버 데흐컨은 쟁기와 관계용 수로를 최초로 발명하기도 했다. 이슬람화 이후에는 아담이나 그 외 선지자의 이미지로 조정되기도 했다.

농업의 수호신이기에 때문에 우즈베크인 농부들은 씨를 뿌리거나 직물을 거는 동안 버버 데흐컨에게 기원하거나 부르는 노래를 통해 풍작을 기원한다. 버버 데흐컨의 축복으로 풍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인해 농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우즈베크인들은 나브로즈 축제에서도 버버 데흐컨에게 제물을 바치기도 한다. 나브로즈 축제가 끝날 때쯤 마을의 원로이자 지도자인 나이 많은 남성인 역서컬(oqsoqol)이 셔흐머일라르(shoxmoylar)라는 의식을 행하는 날을 정하고, 이때 버버 데흐컨에게 양을 제물로 바친다. 사람들은 이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역서컬은 나브로즈에서 다양한 의식을 행하는데, 이때 그를 버버 데흐컨과 유사한 모습으로 꾸민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보보 데흐콘
- 다국어 표기 Bobo dehqon(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나브로즈
- 참고문헌(오프라인) “БОБОДЕҲҚОН” ЎЗБЕКИСТОН МИЛЛИЙ ЭНЦИКЛОПЕДИЯСИ Б ҲАРФИ, Tashkent; Давлат илмий нашриёти, 2000, p. 417.
윤시내, 「우즈베키스탄 ‘나브로즈’ 축제의 역사와 상징성」, 『투르크 알타이 경제권 이슈 페이퍼』, May 35, 2021, pp.56~63.

I C062 | 버스피이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Vosify

버스피이(Zayniddin Mahmud ibn Abdujalil Vosify)는 샤이바니 왕조의 대표적 역사학자이다. 그는 1485년 헤라트에서 태어나 1551년(또는 1566년/연대 불분명) 타슈켄트에서 사망했다. 타슈켄트에 위치한 하즈라트 이맘 복합단지(Hazrati Imam Complex) 내부 아부 바크르 카폴리 쇼시(Abu Bakr Qaffoli Shoshi) 영묘 입구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위치한 영묘가 버스피이(Vosify)의 무덤으로 전해진다.

그의 삶에 대하여 알려진 정보는 많지 않다.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마드라사에서 교육을 받은 이후 중앙아시아로 여행을 떠났다. 어릴 적부터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던 버스피이(Vosify)는 16세에 알리쉐르 나비이(Navoiy)와 만났으며, 그의 관심을 받았다. 버스피이는 사마르칸트, 부하라, 타슈켄트 등 다양한 도시에 거주하며 모스크 이맘, 가정교사, 궁정 시인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았다.

그는 1511년까지 후사인 바이카러(Husayn Boyqaro)의 아들 파리둔 호사인(Faridun Husayn)의 비서 및 가정 교사로 일했다. 1518년에는 수운호자현(Suyunxo'jaxon)의 부탁으로 그의 아들 켈디-무함마드현(Keldi-Muhammadxon)의 스승이 되기 위해 샤희루히야로 갔지만, 1525년에 수운호자현(Suyunxo'jaxon)이 사망하자 켈디-무함마드현(Keldi-Muhammadxon)과 함께 타슈켄트로 돌아왔다. 제자 켈디-무함마드현(Keldi-Muhammadxon)이 사망한 후에는 그의 아들 아불-무자파르 하산 술탄(Abul-Muzaffar Xasan sulton)의 스승이 된다.

평생에 걸쳐 버스피이(Vosify)가 집필한 유일한 작품으로 알려진 『바디 울 바코이(Badi ul-Vaqoi)』에는 샤이반 왕조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와 함께 15세기~16세기 중앙아시아의 많은 도시들과 왕조들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사드릿딘 아이니이(Sadriddin Ayniy)에 의해 출판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보스피이, 워스피이



하즈라트 이맘 북합단지(타슈켄트)

- 다국어 표기 Vosify(우즈베크어), Васифи(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사마르칸트, 부하라, 타슈켄트, 알리셰르 나버이, 샤이바니 왕조, 헤라트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iyouz.uz/jahon-sheriyati/fors-tojik-sheriyati/zayniddin-vosify/>
<https://aroblar.uz/uz/people/zajniddin-makhmud-vasifi>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Zohidov V., *O'zbek adabiyoti 4 tom ikkinchi kitob*, Toshkent: O'zSSR davlat badiiy adabiyot nashriyoti, 1960.

I C063 | 버제흐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Vozech

버제흐(Vozeh)는 우즈베크 시인, 문학 평론가, 서예가이며 동시에 지리학자다. 버제흐(Vozeh)는 필명이며, 본명은 커리 라흐마투로 빈 아슈르 무함마드(Qori Rahmatullo Bin Ashur Muhammad)이다. 그의 출생 및 사망연도 관련 정보는 정확하지 않다. 대략 1817년 혹은 1818년 출생했으며, 1893년 혹은 1894년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일부 자료에서는 그가 타지크어로 작품을 썼다는 이유로 타지크인으로 소개되는 경우도 있다. 그는 1844년 부하라 마드라사에서 공부했으며, 1856년에는 카르마나(Karmana) 주지사를 맡았다. 궁전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그는 부하라로 돌아와 남은 여생을 보냈다.

버제흐(Vozeh)는 우즈베크어, 타지크어, 아랍어 등의 언어로 다양한 장르 글을 썼다. 『여성들을 위한 규칙(Anqoid un-niso/Ayollar uchun qoidalar)』, 『도로의 편리함 그리고 나라들 간 거리(Savonih ul - masolik va farosix ul mamolik/Yo'llarning qulayligi va mamlakatlarning masofalari)』 등 그의 작품들은 당시 문학·예술 그리고 사회·정치 환경뿐만 아니라 지리학 및 민족지학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쾌감의 근원과 천혜의 식탁(Koni lazzat va xoni na'mat/Lazzat manbai va ne'mat dasturxon)』이라는 작품은 투르키스탄 전통 빵과 과자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18세기~19세기 전반기 문학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출처로 꼽히는 『담소를 나누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선물(Tuhfat ul ahbob fi tazkirat ul ashob/Suhbatdoshlar tarjimai holidan do'stlarga tuhfa)』에는 코칸드와 부하라 칸국에 거주했던 시인과 정치가 그리고 지식인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문학작품들의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버제흐 작품 필사본은 현재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 도서관(№75)과 동양학연구소(№50/11, 60, 2336/1, 2304/1, 1470, 854/1, 852/1)에 소장돼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보제흐, 보제, 버제, 워제흐, 워제

- 다국어 표기 Voseh(우즈베크어), Bozex(러시아어), Vozekh(영어)
- 연관 검색어 부하라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I C064 | 버키 무함마드 칸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Boqi Muhammadxon

부하라 칸국 샤이바니 조의 피르무함마드 2세(Pirmuhammad II, 재위: 1598년~1599년)를 끝으로 샤이바니 조에는 마땅한 후계자가 없어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당시 아스트라한에서 온 자니드인들이 왕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후에 토후들은 호라산에서 여러 지역을 통치한 경험이 있는 딘 무함마드(Din Muhammad)를 부하라 칸국의 칸으로 추대했다. 그러나 그는 곧 살해당하고 형제인 버키 무함마드(Boqi Muhammad, 재위: 1601년~1605년)가 제위에 오르게 되었고, 이렇게 부하라 칸국 아스트라한 왕조 또는 자니드 왕조가 시작되었다.

제위에 오른 버키 무함마드는 형제 발리무함마드(Valimuhammad, 재위: 1605년~1608년)를 발흐(Balkh)의 총독으로 임명했다. 집권 초기 카자흐인들의 침략으로 국경이 축소되기도 했으나, 1602년 부하라 칸국을 침략하려던 사파비 조의 원정 실패로 버키 무함마드의 명성은 조금이나마 회복되었다. 1603년 발흐와 쿤두즈(Kunduz) 지역을 정복했고 1605년 카자흐인들과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같은 해 버키 무함마드 칸이 사망하여, 그가 원하던 정책은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다. 후계는 그의 형제 발리 무함마드에게 넘어간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키 무함마드 칸, 바키 부함메드
- 다국어 표기 Boqi Muhammadxon(우즈베크어), Baqi Muhammad Khan(영어), Bâkî Muhammed(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부하라 칸국, 압둘라 칸 2세

- 참고문헌(오프라인) Gündoğdu, Abdullah, “Şiban Han Sülalesi ve Özbek Ulusunun Teşekkülü”, *Türkler Cilt8*, Ankara: Yeni Türkiye, 2002, pp.1046~1066.
- Alpargu, Mehmet. “Türkistan Hanlıkları”, *Türkler Cilt8*, Ankara: Yeni Türkiye, 2002, pp.957~1045.
- Mukaminova, .G. “The khanate (emirate) of Bukhara, Part Two: The Janids (Astarkhanids)”,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Volume VI, Towards the contemporary period : from the mid-nineteenth to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Paris : UNESCO, cop., 2005, pp.45~52.

I C065 I 버투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Botu

우즈베크 현대 시인인 버투는 1904년 5월 16일 타슈켄트에서 태어났다. 그의 본명은 마흐무드 허디예브(Mahmud Hodiyev)이다. 1921년 모스크바 포크로브스키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그는 대학에서 발렌티나 바실예바(Valentina Vasilyeva)를 만나 결혼했다. 졸업 후 그들은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왔다.

버투(Botu)는 귀국 직후 사마르칸트 교육아카데미로 돌아와 문학과 연구에 종사하며 우즈베키스탄 교육과 학문 그리고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그의 시, 단편소설, 수필과 같은 문학 작품들은 <지식의 난로(Bilim o'chog'i)>, <혁명(Inqilob)>, <새벽(Tong)>, <불꽃(Alanga)>, <교육과 교사(Maorif va o'qituvchi)> 등의 문예지에 게재되었다.



버투
Source: <http://taqvim.uz/>

1920년대 중반 당과 국정에서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던 그는 1930년 민족주의자라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결국 1938년 5월 9일 법정 판결에 따라 총살됐다. 버투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던 그의 부인 발렌티나 바실예바는 그의 석방을 위해 지역 관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다가 1941년 7월 그녀도 체포되어 10년 형을 받았다(1950년 석방). 안타깝게도 부부가 모두 ‘국

민의 적'으로 낙인찍힌 것 때문에 열다섯 살 아들 에르클리(Erkli)마저도 10년형을 선고받고, 4년간 투옥 생활을 해야 했다.

버투가 사망하고 20여 년이 지난 1958년에 복권(復權)돼 버투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보투, 마흐무드 호디예프 보투, 마흐무드 허디예브
- 다국어 표기 Mahmud Hodiyev- Botu(우즈베크어), Махмуд Максудович Ходиев -Бату(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taqvim.uz/uploads/event/bdbb22d2199fdcf0714cd115f31f704a.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Botu, *Tanlangan asarlar*, Toshkent: Sharq, 2004.
Botu, *Tanlangan asarlar*, Toshkent: Ma'naviyat, 2020.

I C066 | 범이슬람주의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상
- 집필자 이은정, 우덕찬 ● 라틴 문자 Pan-Islam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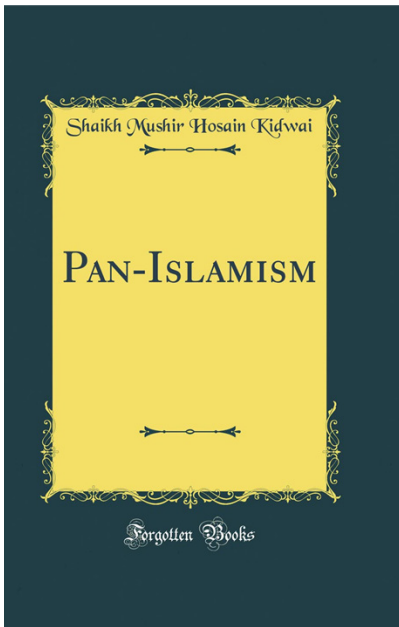
범이슬람주의는 오스만 제국 안팎에서 모든 무슬림의 단결을 주장하는 사상, 운동, 정책이며, 유럽 열강의 오스만 제국에 대한 간섭과 이슬람 세계의 다른 부분들에 대한 식민 지배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론 모든 무슬림이 지역, 종족, 언어의 차이를 넘어 단결해야 한다는 관념은 이슬람의 성립 초기부터 존재한 것이지만, 정치사상으로서의 범이슬람주의는 19세기 후반에 나타났다. 이는 오스만 언론에서 많이 논의된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신오스만인들(Yeni Osmanlılar) 가운데서 활약한 저술가 나묵 케말을 들 수 있다.

범이슬람주의는 유럽의 개입과 식민 통치에 대해 일어난 이슬람 내부의 운동이지만, 범게르만주의, 범슬라브주의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었다. 이 운동은 외세의 침탈과 지배로부터 오스만 제국 내외의 모든 무슬림을 단결시킴으로써 그들을 구원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범이슬

람주의운동은 오스만 국내적으로는 열강에 대한 불만과 분노 및 러시아, 중국, 인도, 수마트라 등 해외 무슬림들의 상황에 대한 국내 여론으로부터 자극을 받았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인도, 동남아시아 등 이슬람권의 여러 지역으로부터 해외 무슬림들이 오스만 제국의 칼리프에게 도움을 요청해 오는 움직임으로부터 크게 고무되었다. 오스만 정부는 해외 무슬림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오스만 제국과 술탄에게 점점 더 범이슬람적 정체성을 부여했다. 이 당시 범이슬람주의에 대한 전 세계 무슬림의 호응은 신문, 잡지 등 근대화된 언론 매체를 통해 더욱 대중적으로 확산됐고, 특히 1875년~1878년 사이의 발칸 위기 당시에 대규모 운동으로 본격화되었으며, 압뮐하미드 2세 치하에서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압뮐하미드 2세 재위 기간 중 범이슬람주의 정책은 국제 정치, 국내 정치, 수니파-시아파 통합운동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먼저 국제 정치 차원에서 범이슬람주의는 오스만 칼리프 휘하에 전 세계 무슬림의 단결을 독려하는 것이었는데, 이슬람권에 식민지를 가진 유럽 열강들에 대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오스만 국가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정도의 의미가 있었을 뿐 오스만 정부에 의해 그다지 적극적, 지속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비록 범이슬람주의의 국제 정치적 차원이 유럽인들에게는 큰 경각심과 상상의 대상이 되어서 많은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만 그다지 큰 실효성이 있지는 않았다. 압뮐하미드의 의도는 하나의 통일된 이슬람 국가 건설이 아니라, 각각 서로 다른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여러 무슬림 민족과 국가들이 서로 연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국제 정치에서 범이슬람주의적 선동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는 매우 드물고, 캅카스와 중앙아시아의 무슬림들에게 오스만-러시아 전쟁 중이었던 1878년 러시아에 대해 봉기하라고 선동한 것 이외에는 찾기 어렵다.

국내 정치에서 범이슬람주의는 국정 운영의 새로운 방향 설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탄지마트(1839년~1876년) 시대에는 국가 시책이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오스만 국민의 평등과 통합을 추진하는 오스만주의(Osmanlılık)였으나, 인구의 약 40%에 달했던 비무슬림 집단들을 오스만 제국의 충성스러운 신민으로 만드는 것은, 열강의 세력이 고조되고 민족주의가 풍미하던 19세기에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탄지마트 시기에 오스만 제국의 부족한 자원들이 일차적으로 발칸 반도에 주어졌던 데 비해, 아나톨리아와 아랍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었다. 1878년 베를린 조약으로 기독교인 밀집 지역들이 대거 제국에서 분리되어 비무슬림 인구는 약 20%까지 비중이 줄어들었고 오스만주의가 기독교인들의 분리 독립 지향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범



『Pan-Islamism』 표지
Source: <https://www.amazon.com/>

이슬람주의가 종족적으로 다양한 오스만 무슬림들의 단결과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압뉘함미드 2세는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종전에 소홀히 다루어진 아나톨리아와 아랍 지역은 비교적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으니, 교육에서 교통에 이르는 전 부문에 걸쳐서 그러했다. 예컨대 정부 발행 연감(살나메)에는 아랍 지역들이 맨 앞에 올라갔으며, 히자즈 철도가 외자 도입 없이 무슬림 성금을 모아 만들어졌다. 이처럼 1878년 이후에는 무슬림 다수가 제국의 남은 영토를 가시적으로 지배했고, 무슬림들의 민원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이 자리잡았다. 압뉘함미드 2세는 무슬림 국가에 무슬림 국민을 담아내고자 했고 그들을 단결하게 만드는 끈끈함을 이슬람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끝으로 수니파-시아파 통합 정책은 19세기에 시아 무슬림의 수가 더 많았던 이라크의 바그다드와 바스라 주에서 시아 무슬림 인구가 늘면서 시작되었다. 오스만 정부의 수니 위주의 사상 통제 및 학교 통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압뉘함미드 2세와 측근들은 이라크 지역의 시아파 증가 문제의 해결책은 수니파-시아파 통합이라 보고, 저명한 범이슬람주의운동가 자말 앳딘 알 아프가니를 대표로 동원해 전 세계 시아파 성직자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조직적으로 보내는 선전 작업을 했다. 그러나 이란의 샤 나시르 앳딘이 강하게 반발하여 오스만-이란 국경 지대의 아르메니아인 혁명 집단을 지지하는 노선을 취하자 압뉘함미드 2세는 수니파-시아파 통합 정책을 폐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스만 정부와 시아 올라마의 연락은 유지되었고 이란에서 반정부적인 일부 올라마는 범이슬람-친오스만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압뉘함미드 2세 정권이 무너진 후에도 범이슬람주의 정책 요소들은 그 뒤를 계승한 연합진보당 정부에 의해 시대적 상황의 필요에 따라 채택되었다. 특히 국내적 범이슬람주의는 발칸 전쟁을 계기로 오스만주의가 희생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은 후 핵심적인 정책 노선이 되었고, 1차 세계 대전 시기에는 오스만 정부를 이란과 이라크의 시아 올라마가 지지함으로써 수니파-시아파 통합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 방면에서는 인도 무슬림들이 오스만

제국의 범이슬람주의 선전에 가장 큰 지지를 보냈으며, 1870년대에서 20세기 초까지 변함없이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영국의 통치에 저항하여 오스만 칼리프 통치를 선택하겠다는 취지의 힐라파트(khilafat)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으나, 오스만 칼리프 제도가 1924년 튀르키예 공화국에 의해 폐지됨으로써 범이슬람주의는 종말을 맞이했다.

사상과 운동으로서의 범이슬람주의는 내용과 조직의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다. 내용 면에서는 이슬람 전통 내부의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어 지식인들의 비판을 받았으며, 여러 나라에서 각각의 맥락에서 나오는 논의들을 질서 있는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내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뮐하미드 2세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슬람권에서 거대한 동질감과 유대감을 만들어 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슬람주의

● 다국어 표기 İttihad-ı İslam(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Gökhan Çetinsaya, “Pan-Islamism,”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453~456.

Azmi Özcan, “İttihad-ı İslam,” *TDV İslam Ansiklopedisi*/Vol. 23, 2001, pp.470~475.

I C067 | 범투란주의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상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Pan-Turanian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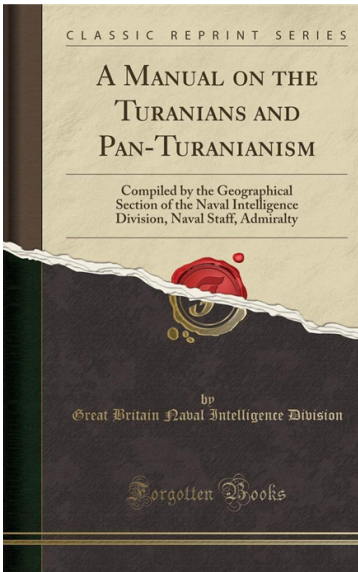
범투란주의는 투르크 민족주의를 지칭한다. 투란(Tūrān)이라는 단어는 인도 유럽어가 아닌 어족의 말을 쓰는 유목 민족의 땅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란의 시인 피르다우시(Firdausī)는 자신의 작품 『샤나메(Shāh-nāmeh, ‘왕서’, 서기 1000년경 완성)』에서 투란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지훈(Jihūn) 강에서 룸(Rūm, 비잔티움)의 국경 지방까지를 포함하고, 거기서부터 중국과 호탄(Khotan)까지 뻗어 있는 땅 전체가 투란 민족의 제국이다. 이 어휘는 조로아스터교의



Turkish Nationalist Movement Party 깃발

『아베스타(Avesta)』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알타이 산맥, 아무다리야(Amu Darya) 강과 시르 다르야(Syr Darya) 강을 포함하는 중앙아시아의 건조한 스텝 지역, 카람 쿨(Karam Kum)과 키질 쿨(Kizil Kum) 사막 등을 비롯하여 투르크 족이 거주하는 모든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범투란주의운동은 19세기에 오스만 제국에서 전개되었는데 당시 무슬림들의 의식이 서구 사상의 영향으로 민족적 동질성에 눈뜨기 시작했



『A Manual on the Turanians and Pan-Turanianism』 표지
Source: <https://www.amazon.com/>

다. 이 운동의 목표는 중동,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의 투르크족들을 잠재적인 정치 블록으로 통합시키려는 것이었는데, 이들 대다수는 무슬림이었다. 나아가 이 운동의 광대한 목표는 친척 관계인 모든 핀란드-헝가리(Finno-Ugric)족과 마자르(Magyar)족을 포용하는 것이었으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하지만, 범투란주의는 크림반도, 아제르바이잔, 중앙아시아 등지의 투르크족 사이에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튀르키예 공화국이 성립되자 범투란주의의 영향력은 쇠퇴했으나, 그 사상은 튀르키예 공화국의 성립 배경인 범투르크주의에 영향을 주었고, 튀르키예 민족주의운동 정당(Turkish Nationalist Movement Party : MHP)의 이념적 기반이 되기도 했다. 또한 범투란주의는 러시아의 지배에 저항하는 체첸 반군의 초기 지

도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으며, 오늘날에도 러시아로부터 이주해와 튀르키예, 독일, 파키스탄 등에 사는 투르크인(人)들로부터 계속 지지를 받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투라니즘
- 다국어 표기 Pan Turanizm(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호탄, 아무다리야, 아제르바이잔
- 멀티미디어 링크 네이버 지식백과 터키사 터키민족주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09747&cid=62103&categoryId=62103>
- 참고문헌(온라인) 네이버 지식백과 이슬람사전 범투란주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51122&cid=62098&categoryId=62098>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범 투란주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00866&cid=40942&categoryId=33433>
- 참고문헌(오프라인) Landau, J.M., *Pan-Turkism: From Irredentism to Cooperation*, London: Hurst., 1995.

I C068 | 베그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호칭 ● 유형 소분류2 관직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Beg

베그는 돌궐 제국 시대부터 투르크인의 수장 혹은 지배자의 의미로 쓰이던 칭호이지만, 키르기스인의 수장인 바르스베그(Barsbay~Barsbeg)가 돌궐의 최고 통치권자 카간에게 베그 호칭을 받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카간보다는 낮은 지배 계급을 표현한다. 베그는 과거에는 유목 집단의 수령을 지칭했지만, 그들이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주 지배층에 대한 칭호로 바뀌었다. 베그 계층 아래에는 바호시와 같은 중간 계층을 칭하는 호칭이 존재했다.

베그 계급에는 주로 지배 가족의 일원인 왕자, 권력 및 권위를 가진 지배 관리들이 속한다. 이 계급은 초기 불가르인, 위구르인 및 하자르인에게서도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투르크인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인 이후, 이 칭호는 거의 동일한 개념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사용되었다. 카라한 칸국의 국가 관리인들도 이 칭호를 갖고 있었다. 셀주크 왕조를 설립한 오구즈인들도 투루굴 베그와 같은 베그의 직함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세기~12세기 오구즈와 카를루크인들도 베그라는 직함을 사용했다. 셀주크 왕조 이후 베그는 여러 투르크 국가에서 아랍어의 ‘에미르, 아미르(Emir)’와 같은 직위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었다.

15세기 티무르 제국 시대에도 위의 칭호는 계속해서 그 전통을 이어나갔다. 인도 대륙의 투

르크-몽골 후손들은 귀족의 이름 끝에 베그를 추가했으며, 통치자의 딸에게도 베그 호칭이 사용되기도 했다.

베그는 셀주크 왕조, 일 칸국, 오스만 제국 및 기타 투르크 왕조에서 오랫동안 그 중요성을 유지했다. 아나톨리아반도에서는 19세기, 오스만 제국의 붕괴 이후 제2 헌법 군주제 당시 군대에서 소령과 대령 사이에서 근무한 장교에게 베이(Bey: 베그의 튀르키예식 발음)라는 호칭이 붙기도 했지만, 공화국 시대에 이르러 1934년 11월 26일 5290번의 헌법에 따라 베이의 칭호 및 기타 칭호들이 폐지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베이, 벡
- 다국어 표기 Bey(튀르키예어), beg(투르크멘어), bek(우즈베크어), бек(카자흐어), bäk(타타르어), beu(알바니아어), beg(보스니아어), بیگ(페르시아어), бе(타직어), بے(아랍어)
- 연관 검색어 돌궐, 티무르 제국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bey>
- 참고문헌(오프라인) 김호동,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사계절, 2016.
Ercilasun A. B., *Divan-ü Lugat-it-Türk*, TDK. 2016.

I C069 | 베다울 루가트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기타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서적 ● 유형 소분류2 사전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BEDÂYIU'İ-LUGAT

베다울 루가트(Bedâyi'ü'l-lugât)는 술탄 휘세인 바이카라의 요청에 따라 알리 셰르 나버이의 작품에 있는 단어들을 설명하기 위해 탈리(Tâli)가 차가타이 투르크어로 작성한,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차가타이 투르크어- 페르시아어 사전이다.

탈리는 페랴그(Ferâgî), 나스르 알리(Nasr Ali) 및 미르자 압뉘셀릴 나스르(Mirza Abdülcelil Nasîrî)와 같이 차가타이 투르크어 사전을 쓴 언어학자 중 한 명이다.

레닌그라드 살티코프시체드린(Saltikov-Şçedrin) 도서관에서 발견된 배다울 루가트가 현존하는 유일한 사본이다. 1705년 필사된 것으로 알려진 이 사본은 총 8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는 이 책이 휘세인 바이카라 집권 당시 집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알리 세르 나버이의 시에 등장하는 차가타이 투르크어 단어는 아랍어 문자 순서에 따라 이름, 형용사, 동사 및 기타 단어 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페르시아어 설명이 뒤따른다. 사전에는 총 863개의 표제어가 있다.

배다울 루가트는 알렉산드르 콘스탄트노비치 보로코프(A. K. Borokov)에 의해서 연구되었는데, 그는 원본 옆에 음역, 해석과 함께 다른 차가타이 투르크어 사전과 비교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배다울 루가트, 배다울 류가트
- 다국어 표기 BEDÂYIU'İ-LUGAT(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bedayiu-lugat>
- 참고문헌(오프라인) Ahmet Caferoğlu, *Türk Dili Tarihi*, İstanbul, 1964, II, 238.
Fazilov E. İ., *Alişer Navâiy Asarlari Tilining İzohli Luğati*, Taşkent, 1983.

I C070 | 베데스텐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종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Bedesten

베데스텐은 오스만 제국 투르크인들의 도시 내 상업 지구에 존재하던 시장 내 상업 용도의 건물로, 어원은 확실하지 않으나 대체로 페르시아어의 ‘천(bez)을 파는 사람들(bezaz)의 지역’이라는 의미의 ‘bezzâz mahalli’에서 시작하여 ‘bezaz-istan’로 변형되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베데스텐에서는 천 이외에도 보석이나 무기 등 여러 물건을 팔던 장소였다. 베데스텐은 때때로 ‘시장(çarşı)’이나 ‘대상 숙소(han)’ 또는 ‘동종 소상공인의 구역(arasta:아라스타)’과 혼용해 사용되기도 한다. 다만, 엄밀하게 따지면 시장은 길을 끼고 양옆에 상점이 늘어선 장소를 의미하



Zirciri Bedesten(Gaziantep, 튀르키예)

고, 아라스타는 워크프가 건설한 모스크 인근의 시장을 의미하며, 대상 숙소는 시외에서 상품을 가져오는 상인들의 숙소 기능이 주요한 건물을 의미한다. 베데스텐은 주로 상업가들과 에스나프(esnaf: 동종 소상공인의 집합체)와 장인들의 물건을 파는 역할을 했으며, 상인의 주요 문서와 물품을 보관하기도 하는 장소였다.

일반적으로 석재로 건설되고 지붕이 있던 베데스텐 주변에는 목재로 된 작은 가게들이 있었는데, 그 가게들 사이에서 우뚝 솟아 상업 지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스만 제국 초기, 튀르크인들의 도시 계획 중심에는 종교 시설과 상업 시설이 있었다. 종교 시설은 건축의 핵심인 대 모스크를 중심으로 마드라사를 비롯한 각종 시설이 건설되면서 마을과 도시가 확장되었던 반면 상업 지구는 상업 시설 건축, 즉 베데스텐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앞서 언급했듯 베데스텐은 목재가 아닌 석재로 건설되었고, 이에 더하여 철재 문과 적은 숫자의 창문 등으로 인해 귀중한 물품과 서류를 보관하는 데 용이했기에 길드와 상인에게는 중요한 공간이었다. 시장은 이 베데스텐의 주변부에서 확장되었다. 따라서 시장의 필수 요소인 ‘길(道)’도 베데스텐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베데스텐은 물품과 서류의 보관뿐만 아니라 상업 본연의 역할 즉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도 있었으며 일부 가게는 베데스텐에 붙어 있기도 했다. 베데스텐은 일반적으로 내부는 벽돌로 된 아치로 구획을 나누었고, 각 구획의 천장은 돔으로 덮여 있었다.

베데스텐은 오스만 제국에서 15세기~16세기에 주로 많이 건설되었고 17세기 이후로는 많이 건설되지는 않았다. 베데스텐은 현대에 와서는 대체로 그 기능을 상실하거나 폐허가 되기도 했으나, 일부 베데스텐은 현재까지도 살아남아 현대화된 모습으로 시장의 기능을 지속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는 이스탄불의 그랜드 바자르(Grand Bazar, 또는 튀르키예어 표기: Kapalı Çarşı, 카팔르 차르시으)로 발전된 ‘제바히르 베데스테니(Cevahir Bedesteni)’와 ‘산달 베데스테니(Sandal Bedesteni)’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베데스텐

● 다국어 표기 Bedesten(튀르키예어), بازارستان(페르시아어)

● 연관 검색어 그랜드 바자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6/62/Edirne_bedesten_DSCF5913.jpg/1024px-Edirne_bedesten_DSCF5913.jpg

제바히르 베데스테니

<https://i4.hurimg.com/i/hurriyet/75/750x0/5d79351645d2a023a0dc6838>

● 참고문헌(오프라인) Kuban, Doğan, *100 Soruda Türkiye Sanatı Tarihi* (3. baskı.), İstanbul: Gerçek yayınevi, 1978.

Şapolyo, Enver Behnan. “Bedestenler”, *Önasya*, III/32, Ankara, 1968, pp.12~13.

Eyice, Semavi, “BEDESTEN”, *TDV İslâm Ansiklopedisi* 5.cilt, İstanbul: TDV, 1992, pp.302~311.

I C071 | 베르가마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터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Bergama

베르가마는 튀르키예 서부의 에게 해 지역(Aegean region) 이즈미르 근교의 베르가마(Bergama)에 남아 있는 고대 도시 페르가몬의 유적 및 그와 관련된 문화 경관을 가리킨다. 이곳은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페르가몬은 소아시아에서 번영을 누린 헬레니즘 제국 중의 하나이다. 에우메네스 2세(재위: B.C. 197년~B.C. 160년) 때 최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로마 제국의 대서리아전 때 협력해서 전공을 세워 소아시아의 서반부를 지배하기에 이르렀으나, 아탈라로스 3세의 유언에 따라 왕국을 로마에 양여했다. 로마는 이를 소아시아라



베르가마의 아크로폴리스

이름하여 그 속주로 삼았는데 수도 페르가몬은 그 후에도 오래 번영을 누렸다. 건축물로는 제우스 신전과 왕궁이 유명하고 청동상인 빈사의 갈리아인은 헬레니즘 미술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출토된 유물들의 대부분은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에 있다. 바로 이곳에 소아시아 7대 교회 중의 하나인 버가모 교회가 있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페르가몬
- 다국어 표기 Pergamon(영어), Bergam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이즈미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hc.unesco.org/uploads/thumbs/site_1457_0010-1000-667-20161018110319.jpg
<https://en.wikipedia.org/wiki/Xanthos>
- 참고문헌(오프라인) 유재원, 『터키, 1만 년의 시간 여행 2』, 책문., 2010.

Ⅰ C072 Ⅰ 베르흐-우이몬

- 시기 B.C.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Verh-Uymon

베르흐-우이몬 유적은 알타이의 중부 지역인 우스티 코크신스키 지구에 위치한다. 이 유적에는 초기 철기 시대 무덤 10기 이상과 함께 투르크 시대 무덤이 발견되었다. 1980년대 코체예프와 키르예프가 처음 무덤 4기를 발굴했고, 그 뒤에 1990년대와 2000년대까지 용역 발굴이 실시되어서, 현재까지 40여기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유적의 무덤 상부 적석은 타원형으로 직경은 4m 가량이다. 여러 기의 무덤이 상부의 덮인 돌로 연결되었다. 무덤 내부에는 목관이나 석관묘가 설치되어 있고, 인골은 신전장으로 두향은 동향이다.

출토된 유물은 활, 철제와 골제 화살촉, 철제 칼, 장신구 등이다. 이 유적은 알타이에서 연구가 적게 이루어진 시기인 기원전 2세기~기원후 5세기의 유적이다. 알타이에서 투르크 시기는 말이 함께 부장되었지만, 이 유적에서는 말이 부장되지 않고, 시신만 석곽묘 혹은 목곽묘에 묻

했다. 대표적으로 말이 부장되면서 마구로 구분되는 코크 파시 단계(3세기~5세기 중반)와 쿠드리게 단계(5세기 중반~7세기)가 있는데, 베르흐 우이몬 유적은 매장 시설이 없고 말이 부장되지 않아서 이와는 구분된다. 그래서 이러한 유적을 통틀어 ‘베르흐 우이몬 문화유적’이라고 명명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베르흐 우이몬
- 다국어 표기 Верх-Уймо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코크 파시, 쿠드리게
- 참고문헌(오프라인) Соенов В.И., Трифанова С.В., Вдовина Т.А., Черепанов М.А. Раскопки погребений гунно-сарматской эпохи на могильнике Верх-Уймон в 2003~2004 гг. // Сохранение и изучение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Алтая. Барнаул: Изд-во Алт. ун-та, 2005. Вып. XIV. С. 169~171.

I C073 | 베른스탐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김재운 ● 라틴 문자 BERNSHTAM, Alexander Natanowich

베른스탐은 소비에트 혁명 이전의 러시아 제국 케르치(지금의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1930년대 민족학 문제에 대한 소비에트 민족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소비에트의 역사 과학 토대를 만들었는데, 이는 당시의 정치적 방향과 일치했다. 막스 엥겔스와 레닌의 이론 입장에서 살펴본 고풍 형성 발달에서의 정형화에 대한 문제, 칼 막스 역사 개념에서 본 정복에 관한 연구 등은 당시 소비에트 역사 과학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

1930년대 초반에 그는 투르크 언어학자인 사모일로비치의 도움을 받아서 돌궐 문자를 읽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고, 6세기~8세기 투르크 부족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다. 1936년부터 세미레치예-텐산(산맥)-파미르-페르가나 탐험대를 이끌고 이 지역의 고고학 조사를 담당했다. 그

이후에는 주로 키르기스스탄의 고대 및 중세 역사를 발굴 조사하고 연구했다. 그는 주로 중앙아시아의 여러 유목민의 계통, 사회 조직, 경제 활동에 대한 연구를 했다. 그의 국가 박사 학위의 연구 주제는 ‘고대부터 몽골 시대까지 키르기스스탄과 키르기스인의 역사’였다.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연구 업적은 150편을 넘는다. 키르기스인의 기원 문제를 밝혔다는 점에서 중앙아시아에서 매우 존경받는 연구자이다. 흉노 연구에 관해서는 탈라스의 켄코이 유적에서 발굴된 무덤이 흉노 무덤이라고 주장했는데,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것은 중앙아시아에서 흉노족과 고대 투르크인이 세운 부족 국가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 이후 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바이칼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일대의 유목민에 대한 고고학 조사는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 구조를 파악한 그의 탁월한 연구는 높이 평가받아 왔다. 그의 이름을 딴 학술 대회가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베른스탐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베른스탐 알렉산더 나타노비치
- 다국어 표기 Бернштам, Александр Натанович(러시아어), BERNSHTAM, Alexander Natanowich(영어)
- 연관 검색어 돌궐문자, 텐산(산맥), 페르가나, 키르기스스탄, 흉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Ol8e>
<https://zrr.kr/5xVJ>
- 참고문헌(오프라인) Бернштам А.Н., Основные этапы истории культуры Семиречья и Тянь-Шаня. // СА. XI. 1949. С. 337~384.
Бернштам А.Н., Очерк истории гуннов. Л.: ЛГУ. 1951, 256 с.
Бернштам А.Н.Историко-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очерки Центрального Тянь-шаня и Памиро-Алая. / МИА №26. М.-Л.: 348 с.+вклейки, 1952.

I C074 | 베를린 조약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조약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Treaty of Berlin

산 스테파노 조약으로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러시아의 세력이 크게 발칸반도로 진출하면서, 이로 인해 오스만 제국은 이스탄불을 제외한 모든 발칸 지역의 영토를 상실하게 되었다. 산 스테파노 조약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대해지자, 이 지역에 이해관계를 가졌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영국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게 되었는데, 독일은 발칸반도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었음에도 새로운 분쟁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 관계 조정에 나서게 되었다. 당시 유럽의 최대 강국이었던 독일은 후일 타국이 독일에 도전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개입을 통해 산 스테파노 조약을 개정하고자 했다. 베를린 회의는 독일 수상 비스마르크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1878년 6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비스마르크의 집무실에서 진행되었다.

회의 결과, 오스만 제국은 동부 루멜리아와 마케도니아를 회복하게 되었고, 러시아는 오스만 제국에 할당받았던 영토 일부를 돌려주게 되었다. 1878년 베를린 회의는 발칸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세력을 완전히 억제하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영국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독일과 멀어지게 되었으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독일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져 1879년에는 양국 사이에 상호 방위를 위한 비밀 군사 동맹이 맺어졌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도 이 조약의 결과로 보스니아-헤르체코비아의 관할권을 받게 되었다. 보스니아-헤르체코비아는 1870년까지 약 4세기동안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1878년 베를린 조약에 의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두 지방에 대한 점령권을 얻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다.

오스트리아는 달마치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아를 묶어서 남부 슬라브 왕국을 건설하고, 프란츠 요제프를 공동 왕으로 추대하는 삼중왕국의 수립을 제안했지만, 마자르(헝가리)의 강한 반대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했다. 1908년 청년 투르크당의 혁명으로 인해 오스트리아는 보스니아를 합병하지만, 이는 그 지역에 거주하던 소수 민족들의 분노와 원성을 사게 되어 이후 1914년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며, 이는 1차 세계

대전의 서곡이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트리티 어브 베를린
- 다국어 표기 *Traité de Berlin*(프랑스어), 1878年 柏林條約(중국어), Берлинский трактат(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청년 투르크당, 이스탄불, 산 스테파노 조약
- 참고문헌(오프라인) 민석홍, 『서양사개론』, 삼영사, 2009.

I C075 | 베벌드 스타일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공예 ● 유형 소분류2 기술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Beveled Style

베벌드 스타일(Beveled Style)은 튀르키예어로 에으리 케심(Eğri kesim)이라고 하며, 목공예 기술 중 하나였으나, 후에 석고와 석재 공예에도 적용됐다. 이 기술은 기본적으로 해당 재료의 표면이 깊게 서로 교차하는 곡선 표면으로 만든다. 그 결과 조각된 재료는 음각인지 양각인지, 전면과 배경이 구분되지 않는 형태가 된다. 이 기술은 본래 중앙아시아의 목공예에 기원을 두고 있다. 투르크인들이 9세기에 이라크 사마라에 정착하면서 사마라의 건축과 공예 작품에 사용했고, 후에 다른 이슬람 국가에 퍼지게 된다. 특히, 이븐 툴룬 시대(868년~905년)의 카이로의 건축물과 유물에서 사마라의 것과 거의 유사하게 베벌드 스타일이 적용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븐 툴룬 모스크(Masjid Ibn Tūlūn)의 아치 장식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란의



베벌드 스타일
Source: <https://collectionapi.metmuseum.org/>

나인 금요 모스크(Masjid-e-Jāmeḥ Nā'in)의 장식에서도 발견된다. 투르크인들이 정착한 아나톨리아반도에서도 말라이티아 대 모스크(malatya ulu camii) 민바르, 앙카라 알랏딘 모스크(Ankara Alaaddin camii) 민바르 등에서도 베벌드 스타일이 사용된 예가 있다. 베벌드 스타일의 확산에서 이슬람 세계에서 투르크 공예 기술이 끼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베벌드 기술
- 다국어 표기 Eğri kesim(튀르키예어), Beveled Style(영어)
- 연관 검색어 사마라 대 모스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collectionapi.metmuseum.org/api/collection/v1/iiif/452060/2010717/main-image>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448170>
https://en.wikipedia.org/wiki/Jameh_Mosque_of_Nain#/media/File:J%C4%81meh_Mosque_of_N%C4%81'%C4%ABn-ornaments-04.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449101>
<https://blog.stephens.edu/arh101glossary/?glossary=beveled-style>
- 참고문헌(오프라인) Bozer, Rüstem. “Eğri Kesim Tekniğine Anadolu’dan Bir Örnek: Konya II. Kılıçarslan Türbesi’nin Ahşap Kapı Kanatları”, 1992, IX. Vakıf Haftası Kitabı (Türk Vakıf Medeniyetinde Hz. Mevlana ve Mevlevihanelerin Yeri ve Vakıf Eserlerde Yer Alan Türk – İslam Sanatları Semineri, Ankara, 2 – 4 Aralık, 1991, pp.227~236.

I C076 | 베식 터이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튀르키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의식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Beshik to'y

베식 터이(Beshik to'y))는 요람 의식을 일컫는 것으로, 투르크 민족이 거주하는 모든 지역에서 수행되는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의식이다. 이 의식은 아이가 태어난지 40일째 되는 날 치러지며, 아이의 가족, 친족 및 이웃들이 참석한다.

우즈베키스탄의 요람 의식에는 대부분 여성들이 참석하며, 일반적으로 첫 자녀를 위해 개최

되기 때문에 화려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거행된다. 일반적으로 베씩 토이(Beshik to'y)라고 불리지만 부하라에서는 '거버라 반던(Govora bandon, 요람에 묶여)', 호라즘 지역에서는 '부악 이으글리쉬(Buvak yig'ilishi)' 라고 불리는 등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요람 의식이 거행되는 날 아이의 어머니는 손님을 맞이하며, 아이의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얼굴에 밀가루를 뿌린다. 집안의 어른이 자장가를 부르고 난 후, 아이를 위한 기도가 진행된다. 일부 지역 요람 의식에서는 밀가루로 반죽하여 만든 국수를 손님에게 대접하기도 하는데, 이는 국수와 같이 아이의 긴 수명을 기원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의식이 끝나고 난 후에는 다 같이 모여 춤을 추고, 손님들은 아이와 가족에게 선물을 주며, 아이의 부모도 특별하게 준비한 선물을 손님들에게 전달한다. 예전에는 다산을 상징하는 옥수수로 만든 특별 요리가 손님에게 제공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과자와 팔로브(기름밥, Palov)로 손님을 접대한다.

호라즘에서는 요람 의식을 위해 할파(Xalfa; 칼파, Khalfa)를 초대한다. 이들은 우즈베크 민속 서사시를 읊으며 청중들에게 다양한 이야기와 전설을 들려준다.

요람 의식이 끝날 무렵이 되면,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자장가(alla)를 불러준다. 우즈베크인들에게 모유와 자장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장가를 배운다.

남부 시베리아 하카스 투르크인인들은 요람 의식을 피식토이(Pizik toy)라고 부른다. 하카스인들이 요람의 의미로 부르는 '피직'(대부분의 투르크인들은 '베씩(Beşik)'으로 사용함)은 아기가 태어난 이후, 초승달이 뜨기 전 아이의 외삼촌이나 외할아버지가 만들어준다. 요람의 주재료는 자작나무이다. 요람 속에 남자아이에게는 칼과 부싯돌을 넣어주고, 여자아이에게는 가위와 부싯돌을 담요에 싸서 넣는다. 그 후에 산파 혹은 아이의 할머니가 요람을 좌우로 3번 흔든다. 3번째 흔들 때는 매우 세차게 흔들어 요람 속 물건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아지나 고양이를 넣고 세차게 흔들어 위험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이후에 조심스럽게 아이를 요람에 눕히며, 아이에게 기도문을 읽어 준다. 요람의 바닥에는 부적의 의미로 남자아이에게는 칼을 놓고, 여자아이에게는 가위를 놓는다.

요람의 사용기간은 대개 3년이다. 만일 어린 나이에 아기가 죽으면 그 요람은 매우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 모든 액세서리들과 함께 산에 버려진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베킷 토이
- 다국어 표기 Beshik to'y(우즈베크어), Pizik toy(하카스어), Prazdnik kolybeli – Праздник колыбели(러시아어), Beşik toy(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하카스인, 베킷
- 참고문헌(온라인) Бешик тўй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Uzbekistan (ich.uz)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I C077 | 베스바르막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식주 ● 유형 소분류2 음식
- 집필자 김홍중, 황영삼 ● 라틴 문자 Beshbarmak

베스바르막은 밀 반죽과 고기를 섞은 전통적인 투르크 민족의 음식이다. 보통 가족 행사나 소중한 손님이 왔을 때 요리하곤 한다. 보통 몇몇 특별한 방식으로 조리된 잘게 썬 고기에 면이나 밀 반죽을 곁들인 음식을 일컫는다. 고기를 잘게 썰는 전통은 고대부터 시작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전통이다. 잘게 썬 고기는 손님에 대한 주인의 존중을, 특히 연장자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고기가 잘게 잘라질수록 더 좋은 것이다. 덩어리가 큰 고기로 조리된 베스바르막은 손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을 의미하거나 음식 솜씨가 없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에서 베스바르막은 카자흐스탄식 고기란 의미로 '에트(et)'로 잘못 불리고 있고,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쿨쵸타이(культчөтөй)라 불린다.

투르크어로 베스(беш)는 다섯, 바르막(бармак)는 손가락을 의미하는데, 베스바르막은 다섯 손가락으로 먹는 음식이란 뜻이며, 식기가 없이 식사하는 유목 민족의 식문화를 잘 나타내는 음식이다.

베스바르막은 바시키르, 카자흐, 카라칼파크, 노가이, 투르크멘, 키르기스, 타타르 등 여러 투르크계 민족들의 중요한 음식인데, 조리법과 풍습, 모양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바시키르에

서 베스바르막은 쿨라마, 할마, 할말
 이트, 아시 등으로도 불린다. 바시키
 르인들은 거위나 송아지 고기도 사
 용하지만, 주로 양고기나 말고기로
 베스바르막을 조리하는데, 꼭 뼈에
 붙은 고기를 사용해야 한다. 보리나
 밀 반죽으로 만든 면을 곁들이며, 말
 내장 등을 추가하기도 한다. 카자흐
 스탄에서는 면 대신 밀 반죽을 수제
 비 형태로 만들어 넣고, 소고기, 말
 고기, 양고기, 낙타고기를 찢어 넣고
 이들 고기로 만든 소시지를 함께 넣기도 한다.



베스바르막

- **다국어 표기** Бешбармак(러시아어), бесбармак, бишбармак, куллама(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바시키르인
-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башкирская-энциклопедия.рф/index.php/2-statya/8918-bishbarmak>.
 «Национальные кухни наших народов», В. В. Похлебкин, 1978, Центрполиграф
- **참고문헌(오프라인)** Кулинар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в 3 т., гл. ред. О.Ивенская, М.: Комсомольская правда, 2015, 4~5.

I C078 | 베쉬다쉬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기예 ● 유형 소분류2 놀이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Beşdaş

베쉬다쉬(Beşdaş)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새해 명절 즈음하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널리 행해지는 전통 민속놀이 중 하나이다. 이 놀이는 때로 ‘개르지매다쉬(Qərcimədaş)’라고도 불린다. ‘베쉬다쉬(Beşdaş)’를 직역하면 ‘돌 다섯 개’라는 뜻이다. 이 놀이는 주로 2명~4명이 참여한다. 한국의 공기놀이와 유사한 놀이이다.

베쉬다쉬의 놀이방식은 다음과 같다. 각각 5개의 작은 돌을 준비한다. 게임을 시작한 사람은 돌 한 개를 먼저 한 손으로 줍는데, 이 돌을 ‘삭가(saqqa)’라고 한다. 이어 삭가를 높이 던진 후 바닥에 놓인 돌들을 주우면서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삭가를 실수 없이 받아 내는 게임이다. 다시 설명하면 다섯 돌을 던져서 흩어 놓고, 그중 돌 하나를 집은 다음 공중으로 올리고, 바닥에 있는 돌 하나를 집는다. 그 다음에 공중으로 날렸던 돌을 다시 받아내야 한다. 같은 방법으로 바닥에 있는 것을 하나씩 차례로 받으면 한 알 집기가 끝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규칙은 첫째, 돌을 집을 때 나머지 돌에 손이 닿거나 흔들리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삭가가 바닥으로 떨어지기 전에 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손으로 집거나 삭가를 손바닥에 간직하면 안 된다.

돌 집기는 한 알, 두 알, 세 알, 네 알 잡기까지 계속된다. 각각 돌 잡기가 끝나면 돌들을 두 손가락 사이로 통과하도록 한다. 손가락 사이를 통과한 돌들을 모두 한꺼번에 집어야 한다. 이 규칙에 따른 놀이가 마무리되면, 이번에는 돌들을 서로 거리를 두어 벌려 놓는다. 삭가를 공중으로 날린 후, 바닥에 있는 돌들을 한꺼번에 집어야 한다. 그리고 삭가를 또 공중으로 날린 다음 돌을 손바닥에 간직한다. 삭가를 위로 올려 손바닥에 있는 돌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있는 나머지 돌 중 하나를 집어야 한다. 이 과정을 ‘유무르틀라마(알 날기, yumurtlamaq)’이라고 한다. 그 다음 손바닥에 있는 돌들을 두 개씩 바닥에 떨어뜨린 후 바닥에 떨어진 돌 중에 하나를 재빨리 집어야 한다. 이를 ‘삭글다마(şaqıldama)’라고 한다. 즉,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손에 쥘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돌 한 개를 ‘잇다쉬(itdaş, 강아지돌)’로 지정하고 나면, 그 돌에는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리고 잇다시를 제외한 나머지 돌들을 손가락 사이 사이에 끼게 해야 한다. 이 모

든 것을 실수 없이 한꺼번에 하는 사람이 이긴다. 돌을 줍지 못하거나, 돌을 손가락 사이사이에 끼우지 못하거나, 삭가를 떨어뜨리거나, 돌을 잡을 때 다른 돌을 건드리는 사람은 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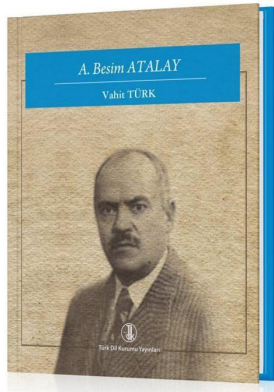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베스다스, 베스다쉬, 베쉬타쉬, 개르지매다쉬
- 다국어 표기 beştaş(튀르키예어), бешташ(우즈베크어), five stones(영어), Beşdaş(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Şifahi xalq adəbiyyatı, Uşaq aqlama, Altun kitab nəşriyyatı, Bakı, 2007, Səh. 64.*

I C079 | 베심 아탈라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Besim Atalay

투르크 언어학자이자 작가인 베심 아탈라이(Besim Atalay)는 1882년 우샤크의 카라아아치 마을에서 태어났다. 고향에서 11년간 마드라사에서 교육을 받은 그는 1905년 이스탄불로 이주하고 차르삼바 쉐흐자데 모스크에서 2년 동안 하즈 아흐메드 에펜디의 수업에 참여했다. 이후 그는 시험을 통해 다투무알리민에 입학했으며 1908년에 졸업했다. 1909년부터 1919년까지 십년 동안 그는 코니아교육학교에서 교사로서 트라브존과 앙카라, 마라쉬, 이첼, 니데에서는 교육 책임자로서 재직했다.

국가 투쟁 기간 동안 정치 활동에도 참여했던 그는 1919년 실리프케에서 권리방어협회(Müdâfaa-i Hukuk: 1919년 오스만 제국에서 설립된 지역 저항 단체, 시바스 의회에서 아나톨리아와 루멜리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협회와 통합됨)를 설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20년에는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쿠타히아(Kütahya)의 무소속 의원으로 튀르키예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악사라이와 쿠타히아 등지에서 총선에 출마해 총 7회 의원직을 맡았다. 그는 1932년 9월 26일 개최된 제1회 튀르키예 언어 학술대회에서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원장으로 임명되었고, 1937년부터 1942년까지 앙카라대학교 역사언어지리학부에서 페르시아어를 가르쳤다.



『베심 아탈라이 평전』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

그는 희귀한 필사본들을 튀르키예 국립도서관에, 튀르키예 민속과 관련된 많은 의복들은 민속학 박물관에 기증했다. 튀르키예어 분야에서 출판되고 번역된 베심 아탈라이의 가장 유명한 저서는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Dîvânü lugâti't Türk)』의 튀르키예어 번역이다. 그는 또한 코란을 튀르키예어로 번역했으며 그 이외에 몇몇 작품들도 번역했다. 베심 아탈라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책을 쓰고, 출판을 했다. 그의 첫 서적은 트라브존에서 근무하던 당시 출판되었는데, 지리와 관련된 교과서였다.

그는 ‘튀르키예가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하는 5가지 문제들’이라는 글에서 첫 번째로 ‘언어’를 제시했다. 1차 세계 대전 이후 콘야에서 근무하던 때 외국어를 제외한 순수 튀르키예어로 1월 신문에 기사를 작성한 적이 있다. 실제로 그는 아랍어와 페르시아어가 튀르키예어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커서, 이 두 언어를 제외하면 한 문장은커녕, 두 단어조차도 말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베심 아탈라이는 모든 학생들에게 튀르키예어 이름을 부여하기 위해 힘썼다. 그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름 예시 목록을 만들어 그것을 학교장에게 보냈으며, 그 목록은 학생들에게 전해졌다. 카야(Kaya), 데미르(demir), 젠기즈(Cengiz), 아틸라(Atillâ), 아르슬란(Arslan)과 같은 순 튀르키예어 이름들이 그 시대부터 유명해지게 된 출발점이 됐다.

평생 튀르키예어를 비롯한 언어 문제에 대한 깊고 열정적인 관심을 가졌던 베심 아탈라이는 1965년 11월 7일 앙카라에서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베심 아탈레이, 베심 아타라이
- 다국어 표기 Besim Atalay(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m.media-amazon.com/images/I/51+MwyFAnYL.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Ülkütaşır M. Ş., “Atalay’ın Yaşam Öyküsü”, *Türk Dilinde Ana Kelimeler veya Türkçe Türetme Sözlüğü*, Ankara, 1967, pp.7~10.
Levend A. S., *Türk Dilinde Gelişme ve Sadeleşme Evreleri*, Ankara, 1972, pp.415~421.

I C080 | 베이코즈 유리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공예 ● 유형 소분류2 유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Beykoz Glassware

베이코즈 유리는 19세기 오스만 제국 베이코즈(Beykoz) 지역에서 생산된 유리 제품을 의미한다. 메블레위 탁발승인 메흐메드 데데(Mehmed Dede)라는 장인이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유백 유리 기술을 배워 셀림 3세(III Selim, 재위: 1789년~1808년) 시대에 이스탄불에 위치한 베이코즈 마을 근처에서 유리 공방을 열었다. 이 유리 공방은 술탄 압둘 메지드(Sultan Abdülmecit, 재위: 1839년~1861년) 시대였던



베이코즈 유리 제품
Source: <https://istanbul.ktb.gov.tr/>

1848년에 부르사의 주지사였던 무스타파 누리 파샤(Mustafa Nuri Paşa, 1798년~1879년)가 구매 후 확장하여 유리 제작 공장을 건립했다. 당시 공장의 위치는 추북루(Çubuklu)의 인치르 쾨위(İncir Köyü)로 술탄 무스타파 와크프(Sultan Mustafa Vakıf)의 소유지였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유리 공예 제품을 ‘베이코즈 스타일(Beykoz İşi)’ 또는 ‘베이코즈 유리(Beykoz cam)’라고 한다. 베이코즈 유리가 생산되기 이전부터 유럽의 보헤미아와 프랑스 등지에서는 오스만 제국을 공략하는 제품들을 많이 생산했다. 베이코즈 공장에서도 유럽인 장인들이 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산 제품은 튀르키예인의 취향에 맞추어져 있었다.

가장 많이 생산된 형태는 귤아브단(gülâbdan: 목이 긴 형태의 물병으로 주로 장미수 따위를 보관함), 주전자, 꽃병, 손잡이가 있는 컵, 설탕 통, 접시와 그릇 등이다. 유리로 만든 테스피



베이코즈 쾰아브단

Source: <https://collectionapi.metmuseum.org/>

(tesbih: 이슬람식 염주)도 제작되었다.

베이코즈 유리 제품 중 가장 이름이 알려진 종류 중에는 체시미빌빌(Çeşm-ibülbül: 나이팅게일의 눈)이 있다. 이 이름이 정확히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알려진 바는 없으나, 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이름이 체시미빌빌이라는 설과 해당 작품의 평행한 선이 나이팅게일의 눈에 있는 물결무늬 선과 비슷한 데서 따왔다는 설이 있다. 체시미빌빌 형 제품의 기원은 오스만 제국은 아니었으나 19세기 이후 다량 생산되었고, 해외에도 그 명성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 외에도 무색 유리 제품인 ‘마이다노즐루(maydanozlu)’ 종류의 제품이 유명하다. 마이나도즈는 파슬리의 일종인데, 이 제품이 미나리 잎사귀와 비슷한 금박 문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물론 마이다노즐루 제품에는 미나리 잎사귀 문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꽃과 식물 문양도 에나멜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유색 유리 제품은 주로 코발트블루, 오랑캐꽃 색, 짙은 푸른색과 같은 색이 주를 이루었고 투명한 형태로 제작했다. 종류에 따라 단순히 도금만 하거나 도금과 에나멜을 함께 이용해 장식하기도 했다. 유백 유리 기술은 이름과 달리 시대에 따라 다른 색상을 쓰기도 했는데, 베이코즈에서도 붉은색의 유리를 생산하기도 했다. 이들 유백 유리 제품도 도금하거나 도금과 에나멜로 장식하기도 했다. 19세기 말 유럽의 저가 제품으로 인해 오스만 제국의 제품 생산은 어려워졌고 일부 공장은 체질 개선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했으나 20세기 많은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다. 베이코즈 유리 공방도 1858년 문을 닫았다. 그 이후 한동안 유리 제품은 대규모로 생산되지 않았다. 1970년대 이르러서야 파샤바흐체(Paşabahçe) 유리 공장이 ‘베이코즈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전통적인 스타일을 재현해 생산하여 일반에게도 판매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베이코즈 잠, 베이코즈 이쉬
- 다국어 표기 Beykoz işi(튀르키예어), Beykoz cam(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collectionapi.metmuseum.org/api/collection/v1/iiif/444815/906793/main-image>

● 참고문헌(오프라인) Bayramoğlu, Fuat. *Turkish Glas Art and Beykoz-Ware*, Istanbul: Publications of the RCD Cultural Institute, 1976.

Bengisu, Murat. Füsün Erdğanlar Bengisu, “Beykoz Glassware and Elements that Shaped It in the Nineteenth Centur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DesignIssues: Volume 29*, Number 1 Winter, 2013, pp.89~92.

Özgümüş, Üzlifat. “cam”,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7*, Istanbul: TDV, 1993, pp.38~41.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I C081 | 베이털말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제도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Beytülmal

베이털말은 아랍어로 ‘돈의 집’, ‘부의 집’이라고 번역되며, 역사적으로 세금을 담당하는 금융 기관이다. 칼리프와 술탄을 위한 왕실 재무로 활동하며 개인 재정과 정부 지출을 관리했다. 또한 공공사업에 대한 자카(의무자금, zakat) 수익 분배를 관리했다.

베이털말은 예언자 오메르(Hz. Ömer) 시절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 기원은 이슬람 국가들의 최초 건국 연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메카 시대에 예언자는 자신에게 모인 기부금이나 다른 무슬림들이 모은 현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실질적으로 이 시기에는 이슬람 국가가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특정 금융 기관이 없었으며, 메디나 시대에 접어들어서야 금융 기관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었고, 이에 따라 점차 재정 구조가 형성되었다.

예언자들은 수입의 일부를 코란에 명시된 지출할 곳에 사용했고, 그 나머지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했는데 그 대부분이 전쟁 비용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었다.

압바스 왕조 기간에는 세금을 관리하기 위해 특별 집사가 등장하게 된다. 바이톨리 핫사(baytul-i hâssa; beytu'l-mâli'l-hâssa)라는 용어는 바이탈 말리 암메(bayt al-mâl-i âmme(baytü'l-mâli'l-âmme))와 같이 국가에 귀속되는 물건(세금) 및 기타 물품에 대한 것으로서, 압바스(Abbasid) 시대에 등장했으며 베이털말(beytülmal)이라는 용어도 이 시대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맘루크 왕조의 경우 술탄의 개인 재산은 디바니 하스(Divan-ı Has)라는 곳에서 별도로 관리되었으며, 그 곳의 책임자는 나지리 하스라고 불렸다. 유사하게 오스만 제국에서도 국고를 외무재무부(Treasury-i Âmire)로, 술탄의 금고는 내무재무부 혹은 엔데룬 금고(Enderun Hazinesi)라고 불리기도 했다.

베이털말은 오스만 제국에서 ‘국고’를 의미하는 데 주로 사용되다가, 이후에 재무부라는 용어를 대체하는 데 사용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베이트 알 말, 베이털말
- 다국어 표기 Bayt al-mal/بيت المال(아랍어), Beytülmal(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oxfordreference.com/view/10.1093/oi/authority.20110803095452894?rskey=AhKXqU&result=5>
<https://islamansiklopedisi.org.tr/beytulmal>
- 참고문헌(오프라인) Reuben Levy, *The Social Structure of Islam*, Cambridge 1979.

I C082 | 베제클리크 38굴 마니교 벽화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회화 ● 유형 소분류2 벽화
- 집필자 조성금 ● 라틴 문자 Manichaean Wall Paintings from Bezeklik Cave 38

9세기 중엽 위구르가 막북(漠北) 초원에서 남하해 각각 북정(北庭)과 투르판을 여름철과 겨울철의 왕국으로 삼아서 천산 위구르 왕국을 건립했던 시기부터 베제클리크 석굴은 천산 위구르 왕국의 왕실 사원이었다.

위구르는 비귀카간(牟羽可汗)이 당(唐) 왕조의 요청으로 안록산의 난(安祿山の 난, 755년)을 진압하기 위해 낙양에 온 762년 처음으로 마니교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후 마니교는 위구르의 국교가 되어 위구르인들의 정치·생활·문화의 전판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 위구르 왕국은 초원에



베제클리크 38굴 마니교 벽화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서 투르판으로 이동한 후에도 여전히 마니교를 국교로 신봉하며, 이전 시기에 조영된 베제클리크 석굴의 불화 위에 마니교 회화를 장엄하여 마니교 사원으로 변화시켰다. 베제클리크 석굴의 마니교 사원화는 위구르인들이 국교를 불교로 개종하는 9세기 말 혹은 10세기 초까지 계속되었다.

현재 베제클리크 석굴에서 마니교 회화 혹은 마니교 명문이 발견된 마니교굴은 2굴, 4굴, 8굴~10굴, 15굴~17굴, 22굴~25굴, 38굴~39굴로 대략 14개의 굴에 이른다. 이들 마니교 회화 혹은 마니교 명문이 발견된 굴들 중에서 38굴은 마니교 회화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굴이다. 현재 38굴의 정면 벽에는 생명수(生命樹), 수호령(守護靈), 여러 속신(俗信), 공작새, 마니교 명문 등이 그리고 서벽에는 마니보주(摩尼寶珠),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 연주문과 당초문, 마니교 사원도가 남아 있다.

38굴 벽화 중에서 마니교의 세계관과 위구르 공양자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정면 벽의 벽화를 보면, 벽 전체가 흰색으로 칠해져 있어 불교석굴과 확연히 구분이 된다. 현재 정면 벽 벽화는 벽화의 박락과 훼손이 심하지만, 화면 중앙의 세 줄기 나무를 중심으로 좌우에 각 여섯 명

의 인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아킨(J. Hakins)의 책, 『Recherches archéologique en Asie Centrale(1936)』에 자코벨프(A. Jacovleff)가 그린 드로잉에 의하면 화면 좌우에 무릎을 꿇고 있는 총 8명의 인물과 그 뒤에 합장을 하고 서 있는 4명의 인물, 세 줄기 나무에서 자란 탐스런 포도송이 등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마니교 경전과 비교하면 커다란 꽃과 포도송이가 달린 세 줄기의 나무는 생명수인데, 이와 동일한 나무를 ‘마니교 초사승(摩尼教 抄寫僧, 高昌α遺址, 10세기, 112.4×25.2cm, 종이에 채색, MIK III 4979)’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생명수 아래 표현된 두 마리의 공작은 빛의 왕국에서 노니는 공작새를 뜻하는 것이다.

한편 앞줄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 뾰족한 투구를 쓴 인물, 코끼리 머리의 가네샤, 두상을 확인할 수 없으나 카네샤와 같은 복식을 착용한 인물, 갑옷을 입고 조관(鳥冠)을 쓴 남자와 여자, 커다란 날개가 달린 남자, 흰색의 높은 모자를 쓴 남자, 복숭아형 관을 쓴 여자가 있다. 그 뒤로 4명의 인물이 더 있는데, 이들은 모리야스의 명문 해석을 통해서 조관을 쓴 위구르 공양자를 보호하는 열 명의 수호령으로 밝혀졌다.

38굴의 정벽 벽화를 통해서 마니교를 신봉하던 위구르인들의 복식과 마니교가 다양한 종교에서 차용한 신들을 마니교의 신으로 활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베제클리크 38굴 마니교 벽화
- 다국어 표기 摩尼教(중국어)
- 연관 검색어 마니교, 마니교 베마 축일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e/e3/Uyghur_Manichaeen_Wall-Painting_at_Bezekliik_Caves.jpg/800px-Uyghur_Manichaeen_Wall-Painting_at_Bezekliik_Caves.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Hackin, *Joseph, Recherches Archéologiques en Asie Centrale*, 1931.
김남윤, 「베제클리크 38굴 벽화 연구-마니교 벽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I C083 | 베제클리크 석굴 형태와 벽화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벽화
- 집필자 조성금 ● 라틴 문자 Bezeklik

베제클리크 석굴은 투르판 최대의 석굴 사원으로서, 화염산과 무르툽(木頭溝, Murtuk) 계곡이 만나는 초승달 모양의 절벽에 조성되어 있다. 베제클리크 석굴은 위구르어로 ‘아름답게 장식한 집’이라는 의미로, 『서주도경』(西州圖經)의 기록을 통해 唐代(당대)에는 ‘영웅사’(寧戎寺)로 불리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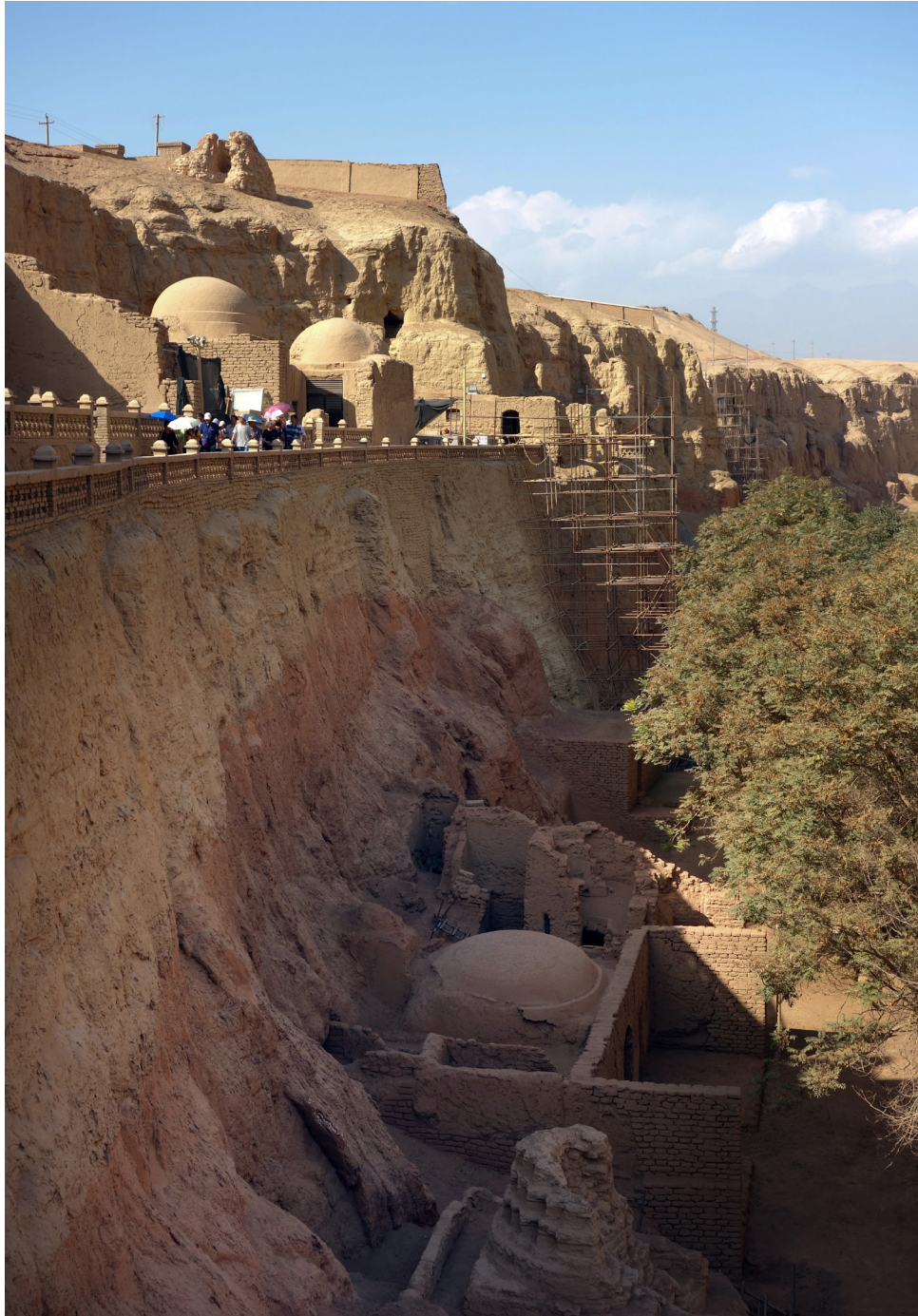
베제클리크 석굴은 6세기 국씨고창국(麴氏高昌國) 시기에 개착하기 시작해서 7세기 당(唐) 지배 시기인 서주(西州) 시대를 거쳐 13세기 원대(元代)까지 지속되었으며, 전성기는 10세기에서 11세기를 전후한 천산 위구르 왕국 시기였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벽화는 위구르 왕국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9세기 말 이후 천산 위구르 왕가의 왕실 사원이 되었고, 13세기 말에는 점차 쇠락하여 민간 사원으로 전락하다가 15세기 중엽 완전히 폐사되었다.

현존하는 83개의 석굴 중 벽화가 일부라도 남아 있는 굴은 40여 개 정도이며, 그중 대부분이 위구르 왕국 시기의 작품이다.

베제클리크 석굴은 형태와 도해된 주제에 따라 대략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벽화의 배치는 석굴의 형태 및 구조와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다.

첫째는 평면이 방형에 가까운 중심주굴(中心柱窟)로 9굴, 18굴, 45굴이 이에 해당된다. 석굴 내부의 중앙에 위치한 중심주에는 감실이 있으며 그 안에 소조 불상이 안치되어 있다. 중심주의 윗부분에는 화염 광배와 천불이 그려져 있으며, 그 좌우에 법륜, 삼보, 녹야원설법도가 묘사되어 있다.

둘째는 평면이 정방형인 중심전당굴(中心殿堂窟)로 15굴과 20굴이 여기에 해당되며, 이러한 형태는 호단(和闐, 于闐) 사원지의 형태와 비슷한 ‘回’자형 모양이다. 중심전당굴은 중심주 안에 또 하나의 방형의 공간을 두는 형태로서, 천장은 궁륭형(穹窿形)으로 네 모서리가 둥근 형상을 이루고 있다. 베제클리크 석굴은 원래 개착 당시에는 중심주식(中心柱式)과 장방형종권정식(長方形縱券頂式)뿐이었으나,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초 위구르인들에 의해서 중심주식굴과 위



베제클리크 석굴

구르 전통의 궁려정건축물(穹廬頂建築物)의 특징을 합친 중심전당굴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즉 위구르인들은 중심주 안에 또 하나의 전당(=中堂)을 두는 특이한 구조의 석굴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형태의 석굴은 위구르 불교 예술의 독자적인 석굴로서 좌우 통로와 전당의 벽면에 위구르 불교 회화의 독자성을 지닌 ‘비나야약사변상도’를 도해했다. 그리고 천장에는 여래와 보살이, 천장 네 모서리의 둥글게 처리한 부분에는 사천왕이, 전실 문 양쪽에는 공양인이 그려져 있다.

셋째는 평면이 정방형이고 천장의 네 모서리가 둥근 형상을 이루고 있는 궁륭정굴(穹隆頂窟)이다. 이 굴은 중심전당형굴의 형태와 서로 비슷하나 중앙에 전당은 없으며, 5굴, 14굴, 62굴이 이 유형에 속한다.

넷째는 천장이 긴 원통형의 종권정굴(縱券頂窟)로 이러한 형태의 굴이 60여 개가 남아 있으며, 굴 바닥면의 형태에 따라 장방형(長方形)과 방형(方形)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베제클리크 석굴 형태와 벽화
- 다국어 표기 克柏孜克里克(중국어), Bëzeklik(독일어), بېزېلىق مىڭ ئۆيى(위구르어), Bezeklik Mağaraları(튀르키예어), Bëzeklik mağaraları(아제르바이잔어), Безеклик(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베제클리크 석굴
- 참고문헌(오프라인) 吐魯番地區文物保管所編, 『吐魯番克柏孜克里克石窟壁畫藝術』, 新疆人民出版社, 1990. 조성금, 「天山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2013.

Ⅰ C084 Ⅰ 베클라르베크

- 시기 A.D. 1500년~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칭호 ● 유형 소분류2 관직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Beklyarbek

베클라르베크는 중세와 근대 동방의 몇몇 국가들에서 사용한 고위 관료의 직책명이다. 베크는 아랍어의 에미르(эмир)와 비슷한 의미이다. 베크(공작에 상응하는 중앙아시아의 계급) 중의 베크라는 의미의 베클라르베크는 울루스의 중요한 두 개의 행정 직책 중 하나로써 오늘날의 총

리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했다. 베클라르베크는 베일레르베이(Бейлербей)라고도 표기한다. 베일레르베이란 직책명은 셀주크 왕조, 코니스 술탄국, 오스만 제국 등에서 사용되었다.

베클라르베크 직책을 맡은 인물은 자주 국가 운영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려 했으며, 때로는 꼭두각시 칸을 제위에 앉히기도 했다. 대부분의 칸이 필수 지식이 부족했던 탓에 그들은 업무에 깊숙이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베클라르베크는 대외적, 대내적 행정, 군사, 경제, 정치를 담당했다. 킵차크 칸국에서 베클라르베크는 칸 다음가는 정치인으로 군대의 수장이자, 대외 정치를 이끌었으며, 최고 재판소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킵차크 칸국의 유명한 베클라르베크의 집권기는 다음과 같다.

- 노가이(Ногай): 주치의 증손자, 1256년~1267년
- 이크사르(Иксар): 토흐타의 아들, 1299년~1300년
- 쿠틀룩-티무르(Кутлуг-Тимур): 1310년~1322년
- 마마이(Мамай): 1357년~1380년
- 예디게이(Едигей): 1395년~1419년
- 만수르-비(Мансур-бий): 예디게이의 아들, 1419년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베클라르벡, 베이라르베크

● 다국어 표기 Bəylərbəyi(아제르바이잔어), Беклярбек(러시아어), Beylerbey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킵차크 칸국, 베이

● 참고문헌(오프라인) Селезнёв Ю. В. Элита Золотой Орды. — Казань: Издательство «Фэн» АН РТ, 2009. — С. 9, 88. — 232 с.

I C085 | 베흐제틸 하다이으크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서적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Behcetü'l-hadayik fi mevizeti'l-hakayik

베흐제틸 하다이으크의 원명은 베흐제틸 하다이으크 피 메브제틸 할라이으크이다. 작품이 쓰인 정확한 연대는 전해지지 않는다. 현재까지 두 개의 사본이 전해지는데, 그중 하나는 부르사 오르한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 사본은 1303년(이슬람력 703년)에 필사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스탄불 쉴레이마니예 파티흐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1480년(이슬람력 880년)에 필사되었다. 베흐제틸 하다이으크의 원본은 7세기 혹은 8세기 말 아나톨리아에서 집필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작품은 종교적, 도덕적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서,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를 모르는 튀르크인 이맘들의 요구로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로 쓰여진 다양한 설교책들을 활용하여 편찬되었으며, 책 본문에는 실제로 참고문헌과 관련된 구절들이 나타난다. 베흐제틸 하다이으크는 ‘meclis’로 불리는 41개의 섹션으로 나뉘며, 모든 제목은 아랍어로 작성되어 있다. 서론은 작품을 쓰게 된 이유, 책의 성격, 이름을 설명하며, 그 다음 코란, 이슬람 학자들, 신의 은혜, 죽음, 인내, 예배 등과 같은 주제, 각 달(month)의 의미, 라마단(희생절의 의미), 예언자 무함마드, 야쿠브, 유수프, 이브라힘, 무사 등과 같은 예언자들의 이야기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구절과 하디스의 의미를 강조한다.

웅변 스타일의 문체이지만, 때로는 농담과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오고, 산문이지만 주제와 관련된 시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시들은 종교적 성격을 가질 뿐 예술적 가치는 별로 내포하지 않는다. 특히 아흐메드 야사위의 수피야네(Sufiyane)를 연상시킨다.



『베흐제틸 하다이으크 연구서』 표지
Source: <https://tdk.gov.tr/>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베흐제틸 하다이크
- 다국어 표기 بهجة الحدائق (아랍어), Behcetü'l-hadayık fi mevizeti'l-hakayık(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emagaza-tdk.ayk.gov.tr/assets/img/1355.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behcetul-hadaik>
- 참고문헌(오프라인) Nâsirüddin b., Muhammed A. b., *Behcetü'l-hakāyık fi mevâizi'l-halâyık*, Süleymaniye Ktp., İbrâhim Efendi, nr. 354. Behcetü'l-hadâik (nşr. İsmail Hikmet Ertaylan), İstanbul 1960.
Sohrweide Hanna, *Türkische Handschriften*, Wiesbaden 1974.

I C086 | 베흐체트 네자티길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Behçet Necatigil

베흐체트 네자티길(Behçet Necatigil)은 튀르키예 20세기 현대문학을 이끌어간 시인이며, 작가이고, 연구자이다. 본명은 메흐메트 베흐체트 괴닐(Mehmet Behçet Gönül)이며, 베흐체트 네자티길은 필명이다. 그는 1916년 이스탄불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집안 분위기와 자신의 건강 문제로 그의 삶은 평탄하지 못했다.

그는 1923년 이스탄불 베척타쉬 지역에 있는 제브리 우스타 초등학교(Cevri Usta İlkokulu)에 입학해 4학년까지 다니다가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카스타모누 남자 사범학교(Kastamonu Erkek Muallim Tatbikat Mektebi)로 전학을 갔다. 중학교는 카스타모누에서 진학했으나 건강 문제로 2학년 때 휴학했다. 당시 튀르키예어 교사였던 시인 제키 외메르 데프네(Zeki Ömer Defne)는 베흐체트 네자티길의 문학적 소질을 알아보고 그를 가까이에서 지도했다. 그러나 네자티길은 건강문제 때문에 이스탄불로 다시 돌아가야 했다. 이스탄불에서 명문 고등학교로 손꼽히는 카바타쉬 남자 고등학교에 다녔던 그는 1931년 문과 수석으로 졸업하고, 1936년에 이스탄불대학교 문과대 튀르키예어문학과에 입학했다. 여기서 튀르키예 문학에서 중요한 인물인 자히트 쿨레비(Cahit Külebi)와 오우즈 탄셀(Oğuz Tansel)을 만나 함께 공부했다. 네자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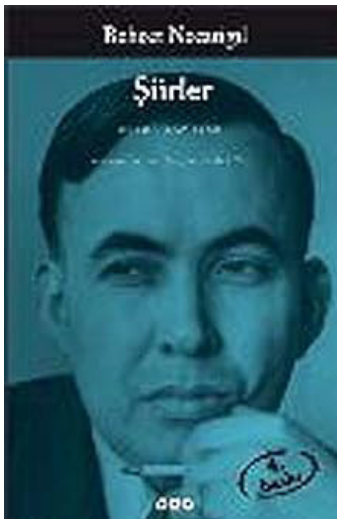
길은 사범학교 시절 베를린대학교 여학당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 독일에 4개월간 머문 적이 있었다. 이스탄불대학교에서도 2년 동안 독일어를 공부했다. 성실한 학생이었던 네자티길은 단과대 수석으로 졸업했고, 카르스(Kars) 고등학교에 문학교사로 발령받았다. 그러나 카르스 지역의 겨울 추위는 매서웠고 네자티길의 건강 상태로는 거기서 도저히 계속 근무할 수가 없었다. 수습 기간이 끝나고 종굴다크(Zonguldak) 첼리켈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스탄불 페르테브니알 고등학교로 전근했다. 베를린대학교와 이스탄불대학교에서 독일언어학을 공부하면서 익힌 독일어 실력으로 그는 많은 작품을 독일어에서 튀르키예어로 번역했다.

종굴다크(Zonguldak)에서 교직 생활을 하면서 그는 나중에 유명한 시인이 된 뤼쉬튀 오누르(Rüştü Onur)와 무자페르타 아이프 우슬루(Muzaffer Tayyip Uslu)를 제자로 만났다.

그는 첫 시를 베흐체트 네자티(Behçet Necati)라는 필명으로 게재했는데, 이 필명은 1935년부터 1943년까지 사용했다. 그는 1927년 9월 17일부터 '손 재주(El Marifet) 인쇄소'라고 이름을 내건 소규모 영세 출판사에서 '에세리제디드(esser-i cedit)'라고 하는 전통 종이에 손글씨로 내용을 채워 『어린 작가(Küçük Muharrir)』라는 잡지를 만들었고, 매주 한 권씩 출간했다. 1권은 14호까지 발행됐고, 1932년 6월 20일 이후부터는 2권을 출간하기 시작했는데, 2권도 12호까지 발행됐다.



베흐체트 네자티길 동상(이스탄불, 튀르키예)



『베흐체트 네자티길 시 선집』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

네자티길은 같은 해 신문 「저녁(Akşam)」의 매주 ‘어린이 세상 (Çocuk Dünyası)’이라는 코너에 ‘어린 작가(Küçük Muharrir)’라는 필명으로 시와 단편을 연재했다. 이때 썼던 작품을 엮어 『어린 작가(Küçük Muharrir)』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냈다.

네자티길은 베드리 테즈기트(Bedri Tezgit), 이제트 게이베(İzzet Geyve)라는 필명도 사용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쓴 「밤과 애수(Gece ve Yas)」라는 시는 당시 저명한 문예지였던 「와르륵 (Varlık)」에 게재됐다. 그는 첫 시집 『풍차(Yel Değirmenleri)』를 1942년에 출간한 후, 이어 1945년에는 『그랜드바자르(Kapalı Çarşı)』, 1951년에는 『주변(Çevre)』, 1953년에는 『집들(Evler)』을 출판했다. 네자티길은 단 한 번도 문학운동이나 시운동에 가담하지 않았고, 단편소설 장르의 사이트 파이크(Sait Faik) 작가처럼 자

신의 세계에서 삶을 개척하고 지속해 나가는 사람들을 보살폈다.

네자티길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의 개인적 삶은 물론 사회생활 중심에도 언제나 ‘가족’이 있었다. 가족은 그에게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원인과 원동력이었다. 동시에 사회적이고,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이기도 했다. 시인은 대도시에서 사는 중산층들이 사회에서 겪는 모든 문제, 예를 들면 사랑, 선망, 기대, 철학, 시사적 이슈 등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다. 네자티길은 이스탄불에 거주하는 많은 시인처럼 이스탄불의 역사나 위치가 가진 장점보다는 거대한 도시가 치르게 하는 전쟁 같은 가난과 서민들의 생활고를 잘 이해하는 시인이었다.

네자티길의 시(詩)에서는 가정과 사회, 도시와 농촌, 현대화와 전통의 차이와 갈등이 잘 나타난다. 시대를 이해하고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 시인이었던 네자티길은 가족과 관련해 많은 은유를 사용한다. 이는 그의 모더니즘을 평가하는 열쇠가 된다. 베흐체트 네자티길은 여운을 남기며 시를 마무리 짓는다. 독자들은 그가 남긴 여운을 이어가며 시를 읽는다. 이것은 독자에게 일종의 책임감을 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독자들은 그의 시 안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는 튀르키예 문단에서 시(詩)로 주목받았던 야흐야 케말(Yahya Kemal), 아흐메트 하심(Ahmet Haşim), 나즈姆 히크메트(Nazım Hikmet)와 같은 시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문학과 문화에서 ‘역사의 연속성’을 추구해 온 네자티길은 시, 수필, 번역 분야에서 풍부한 튀르키예어를 구사해 온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1941년 오토 스파이스(Otto Spies)의 「튀르키예 민속(Türk Halk Kitapları)」이라는 작품을 번역한 네자티길은 요제프 폰 아이헨도르프(Joseph von Eichendorff), 라이너 마리아 릴케(Rainer Maria Rilke), 미겔 데 우나무노(Miguel De Unamuno), 크누트 함순(Knut Hamsun), 아우구스트 스트리드베리(August Strindberg), 토마스 만(Thomas Mann), 슈터판 츠바이크(Stefan Zweig), 알브레히트 고에츠(Albecht Goes), 안톤 체호프(Anton Çehov),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Erich Maria Remarque), 하인리히 뵐(Heinrch Böll), 사데크 헤다야트(Sadık Hidayet) 등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튀르키예어로 번역했다.

시인이면서 연구 활동을 하며 튀르키예 문학 분야에서 명성을 얻은 네자티길은 각 분야 최고 인재를 집대성한 『튀르키예 문학 인명사전(Türk Edebiyatında İsimler Sözlüğü, 1960)』과 『문학 인명사전(Türk Edebiyatında İsimler Sözlüğü, 1971)』을 편찬했다. 이 외에도 네자티길은 라디오 극본 분야를 개척한 사람 중 한 명으로, 1960년대에 특히 명성을 얻었다.

그는 암 진단을 받고 입원했던 이스탄불 제라흐파샤 병원에서 1979년 12월 13일 세상을 떠났다. 네자티길은 이스탄불에 묻혀있다. 1980년부터 지금까지 유족들이 중심이 되어 네자티길 작품상을 수여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베흐첿 네자티길

● 다국어 표기 BEHÇET NECATİGİL(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m.media-amazon.com/images/I/61pBa1H+c+L._SY342_.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bacı Tahir, *Türk Müziğinde Bestelenmiş Şiirler*, İkaros Yayınları, İstanbul, 2013.

Necatigil Behçet, *Türk Hikmet Sami, Şair ve Öğretmen Kimliğiyle*, Akçağ Yayınları, Ankara, 2006.

Nurullah Çetin, Necatigil Behçet, *Hayatı ve Eserleri*, Akçağ Yayınları, Ankara, 2013.

Şişmanoğlu Şennaz, *Behçet Necatigil ve Şiirin Ev Hali*, Bilkent Üniversitesi Ekonomi ve Sosyal Bilimler Enstitüsü, Master Tezi, Ankara, 2003.

I C087 | 벡-불라트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북아시아, 중앙아시아 ● 나라 러시아, 카자흐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통치자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Bek-Bulat

벡-불라트는 러시아 왕국의 왕 이반 4세(이반 뇌제로 유명하다)를 위해 일했던 아스트라한의 공작으로, 아흐마트한(Ахмат-хан)의 아들이다. 아흐마트한은 바하두르한(Бахадурхан)의 손자이자, 칭기즈 칸의 후예이며, 대 오르다(Большая Орда)의 통치자였다. 태어난 시기는 알려지지 않지만 사망연도는 1566년이다. 그는 노가이 칸국의 술탄이었지만 1550년대 노가이 칸국은 기근과 전염병이 돌아 쇠락기였고, 정치적으로도 분열기였다. 1558년 이반 4세는 노가이 칸국에서 벡-불라트를 불러 러시아의 귀족으로 삼았고, 이후 그는 이반 4세의 장군으로 1563년 스몰렌스크 원정에 참여했다.

그의 아들은 시몬 베크블라토비치(Симон Бекбулатович)인데, 그는 러시아의 대공이며, 지금의 러시아 공화국랴잔주에 위치한 카시모프의 칸(카심 칸국)이다. 베크블라토비치는 1570년대 초 이반 4세를 위해 스웨덴, 리투아니아 원정에 참여했다. 하지만 1573년 원정은 스웨덴군에 완전히 패배했다. 1575년 이반 4세는 그에게 ‘전 러시아 대공’의 칭호를 수여했다. 1576년부터 베크블라토비치는 트베리 대공(Великий князь Тверской)이 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벡 불랏, 베크 불라트
- 다국어 표기 Бек-Булат(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노가이
- 참고문헌(오프라인) Разрядная книга 1475~1598 гг. / Подгот. текста, ввод. ст. и ред. В. И. Буганова ; Отв. ред. М. Н. Тихомиров. — М. : Наука, 1966. — С. 193~200. — 616 с.

I C088 I 벡타시 종단

- 시기 A.D. 10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종단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Bektashiyya

벡타시 종단은 13세기 칼렌데리 수피들 사이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15세기 말~16세기 초 하지 벡타쉬 계보를 중심으로 아나톨리아와 발칸에서 등장한 수피 종단이다. 종단의 창시자로 되어 있는 13세기의 하지 벡타쉬에 대해 알려진 것은, 그가 후라산 출신이며 셀주크 정부에 반기를 들고 바바이 반란을 일으킨 바바이스하크의 제자였다는 것 정도이다.

16세기에 쓰여진 그의 전기 '일라예트 나메'의 내용은 대개 사실이라기보다는 신화에 가깝다. 벡타시 종단의 정치적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종단을 실질적으로 만들고 정비한 사람은 종단의 중시조라 할 수 있는 16세기 초의 발름술탄이다. 벡타시 종단의 특징은 대중적 신비주의와 이슬람 의례를 잘 지키지 않는 관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신앙과 의례는 매우 절충적이었고, 이슬람 이전의 여러 종교들의 요소를 유지했다. 예

세비(Yasevi)를 통해 이어받은 튀르크 전통의 샤머니즘, 불교와 페르시아 전통 종교, 유대교 및 기독교적 요소, 백안시되던 칼렌데리와 후루피 등 반사회적 수피 신앙, 시아 이슬람 신앙 등이



벡타시 종단 세계 본부(Tirana, 알바니아)

혼재해 있었다. 이는 벡타시 수피 성인전의 기적담들에 나타나는 모티프들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종교 의례에 베일을 쓰지 않은 여성이 함께 참여하고, 술과 빵과 치즈를 함께 나누며, 일부 독신으로 수행하는 수도자들이 있고, 영혼의 환생을 믿는 등 일반적인 이슬람의 관습과 교리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 이와 같이 수니 이슬람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벡타시 종단은 반정부적인 종단은 아니었다.

16세기 초 이란의 사파비 왕조가 종말론적 버전의 시아 신앙을 가지고 아나톨리아의 투르크멘 유목민들에게 엄청난 호소력을 발휘했을 때 반정부적인 집단들은 대거 사파비로 넘어갔고 주변화되었지만, 반정부적이지 않은 집단들은 벡타시의 우산 밑으로 숨어들어갔다. 그러한 가운데 특히 아나톨리아 유목 부족들 가운데 흔했던 시아 집단이 벡타시 안으로 많이 침투하여 알레위와 벡타시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벡타시 종단이 정치적으로 중요성을 갖게 된 이유는 이들이 예니체리 군단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벡타시 종단은 16세기 이후로 예니체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국가와 고위 관료들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았다. 이들의 텍케(tekke: 수피 예배당)들은 중앙집권적으로 위계화되어서 여러 지역의 텍케들은 와크프 토지로부터 얻은 수익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 나서는 하지 벡타시 종단 본부로 보냈다. 벡타시 종단은 1826년 예니체리가 폐지되면서 함께 해체되었으나 중앙집권화된 경제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19세기 후반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 그러나 1925년 모든 수피 종단을 폐쇄한 케말 초대 대통령 아타튀르크에 의해 다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벡타쉬, 벡타쉬파

● 다국어 표기 Bektaşilik(튀르키예어), Bektaşilik(아제르바이잔어) Bektoshiya(우즈베크어), Бекташия(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수피, 칼렌데리

● 참고문헌(오프라인) Ahmet Yaşar Ocak, “Bektaşilik,” *Türkiye Diyanet Vakfı İslam Ansiklopedisi*.

Bruce Masters, “Bektashi Order,”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88~89.

I C089 | 벨티르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Beltir

벨티르는 하카스인인 샤가이 부족의 하위 민족 개념이다. 하카스어에서는 필티르(Piltir)로 알려져 있다. 19세기까지 벨티르인은 예니세이 키르기스의 알트르 베일릭 영토(Altir Beyliği)에서 키르기스, 알타이, 투바, 쇼르, 중가리아에서 온 이민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1635년 러시아 자료에 의하면 벨티르인들의 거주지는 초기 키르기스인들의 땅, 벨티르스키 아 이막(Beltyrskiy Aymag)인데, 18세기 벨티르인은 아바칸 강 오른쪽 기슭에 있는 아르바틀라(Arbatlar) 마을에서 타바트(Tabat) 마을에 이르는 지역에서 거주했다.

‘벨티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L. P. Potapov와 M. İ. Borgoyakov’에 따르면 필티르(piltir)는 ‘강 합류점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N. Kozmin과 V. Butanayev’에 의하면 하카스어 필티르(piltir)는 ‘잡종’, ‘혼합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하카스 구비문학 작품에서 하카스인 일부는 몽골에 거주하고, 몽골인들과 섞여 하카스 땅으로 돌아갔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벨트르
- 다국어 표기 Beltir/Beltyr- Белтир/Белтыр(러시아어), Piltir-Пилтир(하카스어).
- 연관 검색어 샤가이
- 참고문헌(오프라인) Бутанаев, В. Я., Торбостаев, К. М. “Белтыр”. Энциклопедия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 Т. I. Абакан: Поликор. С: 75~76.

I C090 | 베숙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 인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식주 ● 유형 소분류2 출생
- 집필자 추영민 ● 라틴 문자 Besik



베식

베숙은 아이를 분리시켜 놓기 위한 나무 요람이다. 주로 중앙아시아, 캅카스, 인도, 중국 등지에 사는 민족들이 사용했다. 유목을 주 생활 방식으로 삼았던 투르크 민족은 오래 전부터 나무 요람을 사용해왔다고 전해진다. 카자흐어로는 ‘베숙’, 튀르키예어로는 ‘베식’, 우즈베크어로도 ‘베식’이라고 한다. 베숙과 관계된 의례나 풍습은 대체로 투르크 민족들이 비슷하다.

카자흐 민족의 요람은 주로 소나무, 자작나무, 버드나무 등의 목재로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목재들을 사용하면 요람이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좋으며 이동하기에도 편리했기 때문이다.

요람 아래에는 요강과 같은 ‘투벡(Түбек)’과 배설물이 아래로 잘 이동하도록 하는 관 모양의 ‘슈멕(Шүмек)’이 놓여 있었는데, 이것은 아이에게 배설물이 묻지 않도록 하여 위생상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아이를 요람에 눕힌 후에는 아이의 다리와 가슴 부위를 요람에 묶는데, 이것은 아이의 혈액 순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카자흐인들은 아이를 요람에서 자주 꺼내어 손과 발을 움직여 주었다.

카자흐인들은 가정 교육이 요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했으며, 이 때문에 요람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귀한 물건으로 여겼다. 요람은 아이의 어머니와 가까운 사람이 준비하여 선물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일부 서부와 북부 지역에서는 아버지 측 지인이 선물하기도 한다.

카자흐인들은 아이가 태어나고 40일이 지난 후 가족, 지인들을 초대하여 아이를 요람에 눕히는(Бесікке салу) 잔치를 여는데, 이를 ‘베숙 토이(Бесік той)’라고 한다. 잔치에 초대받은 손

님들은 아이의 앞날에 축복을 빌어 주기 위해 선물이나 단 것을 준비하여 축하를 나누고,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공유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베식, 베식, 베쉬
- 다국어 표기 Бесік(카자흐어), Бесик(러시아어), Besik(영어), Beşik(튀르키예어), Beshik(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베쉬터이
- 참고문헌(오프라인) Бүркітбай Аяған(Бас Ред.), Қазақстан Ұлттық Энциклопедия (5 том), Алматы, 2003.

I C091 | 베이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칭호 ● 유형 소분류2 직무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Bei

‘베이’는 근대 카자흐 국가의 고위직 신분으로서 최고 지도자인 ‘칸’ 혹은 ‘술탄’ 바로 아래의 직위이다. 이 직위를 가진 사람은 판관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칸을 보좌하는 동시에 다른 부족의 ‘베이’들과 중요 사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는 역할을 한다 ‘베이’들은 근대 카자흐인들의 대쥬즈, 중쥬즈, 소쥬즈 등에서 이들의 견해를 조정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예블만수르 칸(УәлиҰллаһ ӘбілмансҰр хан), 또는 아블라이 칸(Ablai Khan:1711년~1781년) 시대의 툴레-베이(대쥬즈), 카즈백-베이(중쥬즈), 아이테케-베이(소쥬즈) 등이 18세기 중엽에 모여 의견을 모은 끝에 중가르의 침입을 막아내는 외교적 노력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은 중가르와 청국의 카자흐인들의 영토에 대한 침입에 대비해서 제정 러시아의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치명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다. ‘베이’들이 모여 재판소를 구성했는데 이른바 ‘베이 재판소’이다.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규 즉, 초지의 분배와 가축 문제 등에 대해 분규가 생기면 이를 해소하는 기관이 바로 ‘베이 재판소’이다. 따라서 ‘베이’의 역할은 최고 지도자인 칸 아래에서 판결을 담당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베이’의 타이틀을 가진 자는 당대 해당 공동체에서 매우 높은 권한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성원들의 추대로 결정되기도 했

다. 이러한 ‘베이’의 권한과 판관 제도는 제정러시아가 1864년에 추진한 사법 개혁에서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미 이때 카자흐인들의 영토가 러시아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제도가 카자흐인들에게 적용되었다.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판관으로서의 ‘베이’의 권한은 폐지되었다. 하지만 전통 카자흐 공동체에서 ‘베이’들의 권한과 직위는 매우 높은 것으로서 평가된다. ‘베이’는 오스만 투르크 왕조에서는 ‘베이(Bey)’로 알려진 신분이며, 해당 국가에서 매우 높고 중요한 역할을 한 고위직 인사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비, 비이, 베이
- 다국어 표기 бей(카자흐어), би(러시아어), bey(튀르키예어), bek(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베클라르베크, 베그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nur.kz/family/school/1772533-velikie-kazahskie-bii-i-ih-rol-v-zizni-kazahov/>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5, Алматы, 2006.

I C092 | 베타샤르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의식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Betashar

베타샤르는 카자흐스탄 전통 혼례에서 신부의 얼굴을 가린 천을 벗기는 의식이다. 베타샤르의 어원적 의미는 ‘베트(bet: 얼굴)’와 ‘아슈(ashu: 열다)’로서 카자흐인들의 전통 혼례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의식이다. 현재는 사라진 관습이며, 카자흐스탄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의식이 끝난 후 새 식구가 된 신부는 시댁 친척들 모두에게 차를 대접하는 것으로 신고식을 한다. 이러한 의식은 카자흐인들의 전통혼례에서 수 세기 동안 이어져 내려왔다. 베타샤르는 새 신부에게 결혼 후 시아버지를 비롯한 시댁 어른과 친척에 대해 가져야 하는 마음을 되새기게 하는 절차이다. 베일을 벗는 일은 새 가정과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을 시작한다는 상징성을



베타샤르, 얼굴 공개
Source: <https://ich.unesco.org>

갖고 있다. 이후 신부는 새 가정의 일원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시댁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 의식은 평판이 좋고 대중에게 큰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베타샤르시: 실제로 신부의 얼굴을 공개하는 사람)이 진행하며, 대개 말을 잘 하는 사람이 맡는다. 동시에 지라우와 같은 소리꾼이 등장하여 연희를 통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렇게 진행된 베타샤르 의식은 매우 진지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새 신부에게도 새 가정에서 살림을 잘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베타샤르
- 다국어 표기 бeтaшaр(카자흐어), бeтaчaр(키르기스어), betochar(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인의 전통 혼례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ich.unesco.org/img/photo/thumb/14972-HUG.jpg>
<https://www.youtube.com/watch?v=OPmiya7e4ho>
- 참고문헌(온라인) <http://oaji.net/articles/2017/5480-1513251517.pdf> <https://www.unesco-ichcap.org/eng/contents>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5, Алматы, 2006.

I C093 | 보동구 유적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baodonggou

보동구 유적은 내몽골 자치구에 위치한 어얼뒤쓰시(오르도스)에 위치한다. 황하 강의 상류 지역으로 1980년에 무덤 9기가 발굴되었다. 장방형의 수혈 토광묘인데, 그중에서 1곳은 남녀가 합장된 채 발견되었고 나머지는 단인장이다. 양와직지장이고 두향은 북쪽을 향하고 있다. 무덤 내에는 말, 소, 양의 두개골이 출토되었다. 2호 무덤에서는 규단경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말 발굽 형태의 다리가 달린 청동술이 발견되었다. 규단경으로 보아서 유적은 서한 말에서 동한 초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중국에서 발견되는 흉노의 무덤은 이른 시기인 동한 대에는 주로 황하 상류인 오르도스 지역에서 발견되고, 점차 영하 감숙지역, 하북성 북부까지 확장된다. 남흉노 문화

라고 하는데, 동한 때에는 철제 유물이 많이 발견되고, 서한 때에는 동물 장식이 줄어들며 중원화된 유물이 많이 발견된다. 보동구 유적은 남녀를 함께 합장하고, 동물 뼈를 함께 묻으며, 청동 솥 등이 발견되어 아직 흉노 문화의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중국에서 발견되는 흉노 문화의 유적 가운데 오르도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혈 토광묘가 발견되는 유적은 남흉노로서 중국 한대의 유목 민족 문화권, 자바이칼과 몽골의 흉노 문화는 북흉노 문화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각 지역의 문화상은 역사의 기록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기록에서는 북흉노는 이동성이 강하고, 호전적이지만, 고고학적으로는 자바이칼 유역의 유적이 훨씬 많이 남아 있으며 정주성, 취락지 등이 발견된다. 반면에 오르도스 지역에서는 무덤을 중심으로 한 유적이 있어 상대적으로 자바이칼 지역보다 훨씬 유적의 빈도수가 드물다. 이러한 경향을 남흉노는 한(漢)의 서포트를 받았고 북흉노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성지를 만들 수 밖에 없었다는 중국 중심적인 해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남아 있는 유적의 수나 출토된 유물이나 규모 등은 자바이칼 지역이 월등하기 때문에 한과의 관련성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바오동구 유적

● 다국어 표기 補洞溝(한자)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伊克昭盟文物工作站, 「東勝縣補洞溝匈奴墓清理簡報」, 『內蒙古文物與考古』, 創刊號, 1981. 烏恩, 「試論漢代匈奴與鮮卑遺蹟的區別」, 『中國考古學會 第16次年會論文集』, 1987.

| C094 | 보드룸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Bodrum

보드룸은 튀르키예 에게해 연안에 있는 도시이며, 현재는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보드룸은 1920년대까지만 해도 조그만 어촌이었다. 하지만 1923년 그리스와 신생 튀르키예 공



보드룸 전경

화국 간에 맺어진 로잔조약에 의해 크레타에 살던 튀르키예인들이 이곳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도시로 발달옴했다. 오늘날 보드룸은 인구 3만여 명의 조그만 도시지만 휴양지와 관광명소로 이름이 높다. 특히 시인이자 작가, 화가와 같은 튀르키예의 지식인들은 이곳에 별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유명 인사들이 몰려든 덕분에 보드룸은 크기에 비해 큰 명성과 번영을 누리고 있다.

보드룸은 전체적으로 고대 원형극장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기원전 1세기에 활동한 로마의 유명한 건축학자 비투르비우스의 기록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즉,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항구와 아고라는 배우들이 공연 하는 무대에 해당하고, 도시를 이루는 언덕 중앙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원형극장의 객석을 가로지르는 길과 마찬가지로이다. 바로 이 길 한가운데에 마우솔로스 왕의 영묘인 마우솔레이온이 위치하고 있었다. 마우솔레이온은 마우솔로스의 이름을 딴 명칭으로 원래는 ‘마우솔로스의 기념비’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왕의 무덤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영어의 ‘mausoleum’처럼 왕이나 지배자와 같은 큰 인물의 무덤을 뜻하는 영

묘나 능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가 되었다. 보드룸의 명소로는 성 요한 병원 기사단이 쌓은 성 페트로 성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보드루므
- 다국어 표기 Halicarnassus(그리스어), Bodrum(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로잔조약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4/4a/Sunset_over_Bodrum_1.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유재원, 『터키, 1만년의 시간여행 1』, 책문, 2010.
Fatma Mansur, *Bodrum*. Brill Publishers, 1972.

I C095 | 보로보예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Borovoe

보로보예 유적은 현재 카자흐스탄 영토에 있다. 1928년 보로보예 호수에서 인접한 지역에서 건설 작업 중에 우연히 발견되었다. 베른쉬탐에 의해서 조사되었는데, 여성의 무덤으로 알려졌다. 석관은 길이 4.5m, 너비 1.5m, 높이 0.7m인데 그 곳에서 청동솥, 버클, 철로된 창, 7개의 화살촉, 보석으로 된 구슬, 유리, 누금기법으로 장식된 황금보검 등이 출토되었다. 유적에서 발견된 화살은 훈-사르마트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베른스탐은 가넷이 박힌 누금기법으로 장식된 유물이 황금관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보존처리 과정에서 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유물은 함께 발견된 다른 유물과 달리 동유럽(흑해 및 코카서스 북쪽)지역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장식의 유형과 물건을 만드는 기술은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되는 사카문화(혹은 시대)의 동물 장식에서 발견되어 재지의 유물로 생각되기도 한다. 보로보예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과 비슷한 기법으로 제작된 유물이 탈라스강 상류의 베르크카린스키 무덤(Берккаринский, Berkkarinsky)에서 발견된 바 있다. 훈-사르마트



보로보예 지역 Burabay 국립공원의 돌 유적

시대 귀걸이로 금제 나뭇잎 장식과 홍옥으로 장식된 것이다. 이를 근거로 보로보예 유적은 기원후 1세기~2세기로 알려졌다. 보로보예 황금보검은 현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보로보예 황금보검은 우리나라의 신라 계림로 유물의 형식이나 제작 기법이 매우 유사해서 고대 카자흐스탄 지역과 신라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유물로 알려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보로보예
- 다국어 표기 Боровое(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훈족, 카자흐스탄, 사카
- 참고문헌(오프라인) Бернштам А. Н. Находки у оз. Борового в Казахстане// СМАЭ. Т. XIII. М-Л: 1951, С. 216~229.
Kazakhstan National encyclopedia(ru)- Vol 1 of 5, 2004.

I C096 I 보로탈 1 유적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운 ● 라틴 문자 Borotal I

보르탈 I 유적은 러시아의 초기 투르크 무덤이다. 알타이 해발 2,000m 추야 강의 중류 지역에 위치한다. 유적은 보로탈 I 유적과 보르탈 II 유적으로 두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보로탈 I 유적에는 다양한 시기의 무덤이 100기 이상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3기의 투르크 시대 무덤을 발굴했다. 보로탈 II 유적에서는 무덤 3기가 확인되었고 2호 무덤을 발굴했다. 보로탈 I 유적에서 무덤 가운데 가장 큰 것은 50호로 직경이 10.5m이고 높이는 0.3m~0.5m이다. 무덤 구덩이 안의 서쪽에는 목관이 설치되었고 동쪽에는 말 3마리가 매장되었다. 목관은 길이 240cm, 너비 92cm~96cm이다. 목관은 두께 8cm~10cm가량의 낙엽 나무로 제작되었으며, 안쪽은 다듬은 것이다. 인골은 무덤의 관 방향으로 누워 있지 않고, 관에서 벗어난 채 관의 방향과 수직으로 직교했다. 동쪽에 위치한 말 3마리는 등은 땅으로, 다리를 굽힌 채로 하늘을 향해 굽힌 채로 매장되었다. 두향은 남쪽 방향을 향하고 있다. 두 마리는 나란히 누웠고, 다른 한 마리는 남쪽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출토된 유물은 등자, 재갈, 벨트 장식 등이 출토되었다. 보로탈 II 유적의 무덤은 무덤 상부를 둥글게 적석했고, 하부에는 무덤 관과 같은 별다른 시설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무덤 구덩이는 장방형에 가깝고 얇다(21m×22m, 깊이 0.4cm). 내부에는 큰 돌이 발견되었다. 무덤에서는 직지장의 인간이 매장되었고 두개골 위에서 토기가 1점 발견되었다. 알타이 지역에서 흉노가 멸망하고 투르크 제국(7세기)이 들어서기 전 3세기~7세기의 유적이 존재한다. 등자의 유무를 통해 2단계로 구분되는데, 이 유적은 말의 등자가 사용된 쿠디리게 단계로 5세기 중반~7세기에 해당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보르탈1 유적

● 다국어 표기 Боротал(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Кубарев Г.В. Культура древних тюрков Алта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огребальных памятников), Новосибирск: Изд-во ИАЭТ СО РАН, 2005. 400 с.

I C097 | 보르볼라그 유적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Borbulag

보르볼라그 유적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동북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헨티 아이막 빈 데르 솜에 위치한 흉노 유적이다. 바양 강변의 넓은 경사지에 형성된 무덤 유적이다. 일찍부터 고대 유적이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991년 몽골-일본 연합 학술 프로젝트로 간단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유적 분포도가 작성되었고 흉노시대 무덤 141기, 돌궐의 제사 유적, 몽골 시대 적석묘뿐만 아니라 연대 미상의 무덤까지 매우 대규모 유적으로 알려졌다. 흉노시대의 무덤은 출입구가 있는 방형과 원형, 별도의 출입 시설이 없는 방형, 원형 등 네 가지가 있다. 가장 큰 무덤은 출입구가 있는 방형무덤으로 출입구 길이는 20m이고, 무덤 시설이 있는 방형의 평면 부분은 29.2m×27.2m인 무덤과 출입구 길이 32m, 방형 평면의 한 변의 길이는 31m인 무덤도 존재한다. 무덤의 입구는 남쪽에 위치한다. 대형 고분 주변에서는 원형 고리유구가 발견되는데, 이는 흉노의 대표적인 유적인 노용-올 유적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돌궐시대의 제사 유적은 흉노 무덤과 별도로 북서쪽에 위치한다. 한변 5m~7m의 장방형으로 큰 돌을 세워 가장자리를 두르고, 그 내부에도 돌을 세워 삼등분했고 안쪽에는 작은 돌을 채웠다. 돌궐 제사 유적은 몽골의 중부 지역과 서부 지역에 분포하는데, 본 유적은 동부 지역에서 발견된 드문 예이다. 보르볼라그 유적은 노용-올 유적과 같이 거대한 고분이 집적된 몽골 제국의 대규모 제사 유적이면서, 돌궐 시대의 제사 유적이 함께 발견되어서 이 장소가 오랫동안 제사 유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보르볼락, 보르블락, 보르볼라그

● 다국어 표기 Borbulag(몽골어)

● 연관 검색어 흉노, 노용-올, 돌궐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C.B. 2013.

Ⅰ C098 Ⅰ 보르테-치노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상징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Borte Chino

보르테-치노는 몽골인들의 신화적 시조이며 칭기즈 칸의 선조이기도 하다. 보르테-치노는 ‘회색 늑대’란 의미이다. 『원조비사』에 따르면 그는 하늘의 뜻으로 태어나 아내 고아-마랄과 함께 텡기스 해(海)를 건너 오는 강 수원지 근처 부르한-할둔 산에 자리잡고 유목을 했다고 한다. 키차노바(Е.Н. Кычанова)는 이 사건이 8세기 중엽에 일어났다고 보고 있으며 가탈포프(А.С. Гатапов)는 6세기~7세기 사이로 보고 있다. 보르테-치노의 이름에는 늑대와 사슴 숭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중앙아시아 몽골 부족의 고대 토템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늑대는 몽골족과 투르크 민족이 숭배했는데, 투르크 민족의 늑대 숭배는 오르콘 투르크, 오구즈, 위구르 부족 등에게서도 발견된다.

17세기 몽골의 연대기 『알탄 토포치(Алтан Тобчи)』에 따르면 보르테-치노는 티베트 왕의 후예인 달라이 수빈 알탄 산달리투-하간의 셋째 아들이었다고 한다. 이는 몽골의 불교 신앙의 영향으로 보인다.

14세기 라시드 알딘의 『집사』에서 보르테-치노는 에르구네쿰(Эргунекун) 지역 출신의 몽골 에미르 중 하나였다고 기술된다. 17세기 연대기 저자 루브산 단드잔은 보르테-치노가 이주한 이유가 형제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보르테 치노
- 다국어 표기 Борет-чино(러시아어), Бөртэ Чино(몽골어)
- 연관 검색어 집사, 칭기즈 칸, 선비, 오르콘, 오구즈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под ред. Токарева С.А.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87. - т.1, 671.

I C099 | 보르한 툴고이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Burkhan Tolgoi

보르한 툴고이 유적은 불간 아이막 호탁 운두르 슴 에깡강 하안 지역인 호지르 녹가 계곡 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유적은 에깡강 동쪽의 높고 편평한 테라스에 입지하며, 무덤의 동남쪽 언덕을 보르한 툴고이라고 부르는데, 유적명은 언덕명을 따랐다. 107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1991년에 몽골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에서 조사하기 시작해서, 프랑스, 미국 등과 공동 조사했다. 33호는 유적 내 남쪽 무덤군 중앙에 있는 묘도 없는 방형무덤이다. 3단의 적석층이 확인되었으며, 1.67m 깊이의 적석 사이에서 소뼈와 목탄 등이 확인되었다. 깊이 2m에서 목관(1.78×0.5m)이 확인되었다. 목관은 이미 도굴된 상태였다. 인골의 하체만 원래의 자리에 있었다. 인골 오른쪽 대퇴골에서 허리띠 버클 2점, 구슬 1점, 골제 화살촉이 수습되었다. 원위치에 있던 양쪽 비골과 경골 사이에서 화살촉 2점이 출토되었다. 토광의 동단 벽에는 순장 공간에서 큰 동물 뼈가 출토되었으며, 목관과 순장 공간 사이에 한쪽 끝을 삼각형으로 잘라낸 자작나무 껍질로 제작된 유물이 4조각으로 나뉘져서 출토되었다. 피장자는 40세~45세의 남성으로 추정된다. 무덤의 묘광 북쪽 벽에는 여성 인골이 안치된 목관(33a호)이 확인되었다. 목관의 크기는 1.9×0.5m이고, 남성 인골과 두향이 비슷하게 동쪽이다. 두개골 밑에서 골제 비녀가 확인되었고, 오른쪽 어깨 옆에서 옷과 명문이 있는 한경이 확인되었다. 한경은 소명경(昭明鏡)으로 유적의 편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 기원전 1세기 중반~후반 사이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부르칸 툴고이

● 다국어 표기 Бурхан толгой(러시아어), Burkhan Tolgoi(몽골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국립중앙박물관·몽골국립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몽골 도르릭 나르스 흥노무덤(1)』, 2011.

G. Eregzen, 『몽골 흥노 무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2013.

I C100 | 보마 유적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운 ● 라틴 문자 Boma Cemetery

보마유적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성의 일리카자흐자치주(伊犁哈萨克自治州) 자오수현(昭蘇縣)에서 남서쪽으로 100km 떨어진 산의 비탈진 곳에 위치한다. 유적에서는 49기의 무덤이 동서 2.5km, 남북 1.3km 내에서 발견되었고, 이 중에서 금과 은제 유물이 대량으로 출토된 1호 무덤군의 43호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유적이 정식으로 발굴된 것은 1999년이고, 2001년에도 발굴 조사되었다. 무덤의 양식은 대형의 토돈묘(土墩墓)로 흙으로 봉분을 만들고 그곳에 매장주체부를 만드는 형식의 무덤이다.

보마유적은 도로 공사 중 발견되었고, 금제 유물이 대량으로 출토되면서 많은 유물이 도굴당했다. 가장 잘 알려진 유물은 금제 가면으로 붉은색 보석으로 상감된 것이다. 이 외에도 뚜껑이 있는 금제 발, 금제 칼집, 호랑이가 손잡이에 달린 금제 홍마노감장호병잔(紅瑪嵌裝虎柄金杯) 등이 출토되었다.

가면은 높이 17cm, 너비 16.5cm가 남아 있는데, 이마는 잘려 있고 눈썹부터 턱까지 표현된 것이다. 무덤의 주인공 얼굴을 덮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남성의 얼굴로 묘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완만한 사각형이고 눈썹, 코, 콧수염 등이 매우 강하게 표현되었다. 눈에 붉은색 보석이 감입되었다. 유사한 유물은 티베트, 네팔,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출토된 바 있다.

금제 향아리에 보석이 상감된 금제홍마노감장호병배와 유개홍보석호에도 붉은색 보석이 상감되어 있다. 손잡이에는 호랑이 문양이 부착되어 있다. 몸체가 가늘고 긴 형태이고, 갈기와 얼룩무늬를 표현했다. 입과 앞발, 뒷발은 용접되어서 상세하게 표현되었다. 가면과 향아리에 감입된 붉은색 보석류는 홍마노와 석류석이 함께 사용된 것이다.

유적에서는 은제 병도 발견되었다. 은병은 둥글고 긴 몸체에 구연부가 외반된 형태이고, 하단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받침은 편평하다.

유적이 발견된 자오수현의 보마 지역은 6세기 전후 서돌궐의 거주지이자, 정치적 중심 지역이다. 그래서 유적을 발굴한 연구자들은 보마 유적을 돌궐의 유적으로 추정한다. 돌궐 외에도

오손, 열반, 에프탈, 유연 등 다른 민족과의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보마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은 제작 방법, 장식된 문양, 사용된 재료는 인접한 지역의 자료와 비교할 수 있어서 당시의 광대한 교역망을 알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보마무덤
- 다국어 표기 波馬(중국어), Boma Cemetery(영어)
- 연관 검색어 돌궐, 유연, 신장 위구르 자치구
- 참고문헌(오프라인) 新疆維吾爾自治區文物局 編, 『伊犁哈薩克自治州博物館』, 文物出版社, 2013.
鄧麗·畢德廣, 「新疆波馬墓葬年代族屬再探討」, 『文物春秋』1期, 文物春秋雜誌社, 2011.
陸錫興, 「覆面和面具之研究」, 『南方文物』1期, 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 2016.

I C101 | 버버 데흐콘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신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Bobo Dekhkon

버버 데흐콘은 우즈베크 민족신화에 나오는 농업 수호신이다. 투르크멘(바바 다이한 Баба-дайхан), 키르기스(바바 디이칸 Баба-дыйкан), 카자흐(디칸 바바 Дикан-баба, 디칸 아타 Дикан-ата), 카라칼파크(다이한 바바 Дийхан-баба), 타지크(보보 이 데흐콘 Бобо-идехкон) 등에도 같은 신이지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버버(Бобо)는 우즈베크어로 ‘할아버지’란 의미이고, 데흐콘은 ‘농사’, ‘농민’을 뜻한다. 이슬람 이전에 생겨난 신앙으로 처음에는 지방신이였다. 보통 건장한 노인의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키르기스에서는 새의 형상을 한다. 버버 데흐콘이 처음으로 쟁기를 만들었다는 신화는 그의 문화 영웅으로서의 특성을 보여 준다(특히 악마가 쟁기의 특징을 알려 준다). 투르크멘 신화에 따르면 악마가 몰래 알려줘서 버버 데흐콘이 처음으로 관개 수로를 만들었지만 그가 판 관개수로(아르크, арык)에서는 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래서 버버 데흐콘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

려고 축제용 옷을 입고서 빵 조각을 들고 기뻐하면서 악마 옆을 지나갔다. 버버 데흐콘의 진의를 눈치채지 못한 악마는 "버버 데흐콘이 수로를 곧바로 파는 것이 아니라 강처럼 구불구불하게 파야 한다는 것을 알아냈구나!"라고 말했고, 버버 데흐콘은 관개 수로를 고쳐 물이 흐르게 할 수 있었다. 우즈베크와 타지크 농민들도 버버 데흐콘이 쟁기와 씨레를 처음 발명했다고 믿는다. 그래서 버버 데흐콘은 여러 농업 관련 의례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 19세기 말에 버버 데흐콘은 아담과 동일시되곤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버버 데프콘, 바바 데흐콘, 보보 데흐콘
- 다국어 표기 Бобо-дехкон(러시아어), Баба-дайхан(투르크멘어), Баба-дыйкан(키르기스어), Дикан-баба(카자흐어), Дикан-ата(카자흐어), Дийхан-баба(카라칼파크어), Бобо-и-дехкон(타지크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окарев, С.А.,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I, 1991, p.176.

I C102 | 보브린스키 물통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남아시아 ● 나라 아프가니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공예
- 유형 소분류2 금속공예
- 집필자 이수정 ● 라틴 문자 Bobrinski Bucket

보브린스키 물통은 청동으로 제작된 양동이다. 1163년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헤라트(Herat) 지역에서 상인이 사용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양동의 전 소유자인 보브린스키 백작의 이름을 따서 보브린스키 양동으로 불린다. 현재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에미르타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청동 위에 구리와 은으로 상감하여 장식했고, 나스크 서체와 쿠파 서체를 사용하여 명문을 조각했다. 상감 장식이란 장식을 하려는 물체 표면을 문양에 따라 파내고, 파진 홈에 장식의 원래 재료와 다른 재료를 채워 장식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양동이는 청동으로 제작되었고, 그 위의 장식 요소에 따라 구리와 은이 덧대어져 있다. 양동이에는 아랍어로 쓰인 명문과 그림이 번갈아 가며 장식되어 있다. 아랍어로 쓰인 명문은 기원적 성격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



보브린스키 물동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식이 되어 있는 구획의 크기는 동일하다. 나스크 서체로 쓰여진 글자 일부가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는데, 페르시아 문화권 내 의인화된 서예 장식의 초기 유형 중 하나로 꼽힌다. 플로 경기를 하거나 사냥을 하는 남성들에 대한 묘사가 있고, 토끼, 영양, 개가 줄지어 달리는 모습도 묘사되어 있다.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액체류를 끓이는 용도로 사용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보브린스키 양동이, 보브린스키 버킷
- 다국어 표기 Bobrinski Bucket(영어)

● 연관 검색어 헤라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sites.lsa.umich.edu/khamseen/short-form-videos/2020/the-bobrinski-bucket/>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0/00/Bobrinsky_Bronzekessel.jpg/800px-Bobrinsky_Bronzekessel.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gallica.bnf.fr/ark:/12148/bpt6k9768125t/f209.item>

● 참고문헌(오프라인) Ettinghausen, Richard, "The Bobrinski "Kettle": Patron and Style of an Islamic Bronze". *Gazette des Beaux-Arts* 6 (24), 1943, pp.193~208.

I C103 | 보브켄트 미너렛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미너렛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Vobkent minaret

보브켄트 미너렛은 카라한 칸국의 건축물이다. 보브켄트 미너렛의 비문에 따르면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압달 아지즈 2세(II. Abd al-Aziz)의 의뢰로 1197/1198년 건설되었다. 높이는 38.70m가량이지만 지면 아래(약 2.3m)에 묻힌 지지대까지 포함하면 실제 높이는 40.40m가량이다. 원통형 몸체의 지름은 6.19m, 최상단부의 지름은 2.81m이다. 미너렛의 오지 아치형 문은 약 5.30m(또는 4m) 높이에 있으며, 여기서부터 발코니로 올라가는 계단이 내부에 존재한다. 현재 미너렛만 남아 있지만, 입구와 계단의 높이로 볼 때 과거에는 모스크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발코니의 바로 아래는 무카르나스로 구성되어 있고, 발코니에는 오지 아치로 이루어진 갤러리가 있다. 이 공간 바로 위에 다시 무카르나스가 있고 최상단부에는 원뿔형의 꼭대기가 있다.

몸체는 18개의 장식 띠로 이루어져 있는데 벽돌을 교차로 쌓았고, 기하학 문양, 식물 문양 및 쿠픽 서체와 디와니 서체로 장식되어 있다. 최하단의 장식 띠는 쿠픽 서체로 이루어진 비문이 있으며, 미너렛의 건축 연도와 의뢰인이 적혀 있다. 비문에는 또한 앞서 언급했던 압달 아지즈 2세가 당시 사마르칸트에 수도를 두고 있던 카라한 칸국의 통치자 이브라힘 아슬란 칸(Ibrahim Arslan Khan, 재위: 1178년~1204년)에게 기쁘게 봉사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적혀



보브켄트 미너렛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있다. 압달 아지즈 2세는 부하라에 금요 모스크와 보브켄트에 몇 개의 건축물을 지었다.

비문은 최상단의 장식 띠를 터키색 유약을 발라 양각화된 식물 문양으로 장식했다. 이 비문에는 미너렛이 1198/1999년도에 완성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알라께서 건설을 명한 자를 받아들이시고 축복해 주시길 기원한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다.

다른 장식 띠 중 하나는 알 물크(코란의 67번째 장)를 반복적으로 적고 있다. 나머지 띠는 각각 벽돌을 교차로 쌓아 올려 문양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바람개비, 지그재그, 삼각형, 원형, 팔각 별, 마름모, 팔각형 문양 등이 있다. 이외에도 빛을 받을 수 있는 창 두 개가 있다.

전체적으로 칼라얀 미너렛과 유사한 형태이다. 비문에 명확한 건설 연도가 남아 있어 당대의 미너렛 형태의 발전을 알아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버브켄트 미나렛, 보브켄트 미나렛, 바브켄트 미나레트
- 다국어 표기 Vobkent minorasi(우즈베크어), Vabkent minares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카라한 칸국, 칼란 미너렛, 사마르칸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f/fc/Vobkent_minaret2.JPG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3/3c/Vobkent_minaret_14-33.JPG/800px-Vobkent_

minaret_14-33.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Cezar, Mustafa, *Anadolu öncesi: Türklerde şehir ve mimarlık*, İstanbul : Türkiye İş Bankası, 1977.
- Çeşmeli, İbrahim. *Antik çağdan 13. yüzyıla kadar Orta Asya ve Karahanlı dönemi mimarisi*, İstanbul : Arkeoloji ve Sanat yayınları, 2007.
-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 O’Kane, Bernard, “The Minaret of Vabkent.” *In The Art of the Saljuqs in Iran and Anatolia* (ed:Robert Hillenbrand), Costa Mesa:Mazda Publishers, 1994, pp.46~54.

I C104 | 보스포러스 해협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지형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Bosphorus Strait

보스포러스 해협(Bosphorus Strait)은 흑해와 마르마라 해를 잇고, 아시아와 유럽을 나누는 튀르키예의 해협이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보스포러스 해협은 제우스에 의해 암소(bos)로 변한 그리스 신화 속 인물 이오(Io)가 건넌 개울(poros)이다. 즉, 보스포러스(Bosphorus 또는 Bosporos)란 고대 그리스어로 ‘소(bos, Βόσ)가 건넌 개울(poros, πορος)’이라는 의미이다.

길이는 30km이며, 폭은 가장 좁은 곳이 750m이다. 깊이는 36m~120m 사이이다. 이 해협에 입지한 이스탄불은 바닷길과 육로가 맞물리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고대부터 중요한 도시였고, 결국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오스만 제국까지 수천 년간 수도로 기능하게 되어 오랫동안 군사적인 요충지 역할을 해 왔다.

특히 18세기 이후에는 다르다넬스 해협과 함께 해협의 항행권(航行權)을 둘러싼 ‘해협 문제’로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즉, 지중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마르마라해의 다르다넬스와 보스포러스 양 해협의 항행권 획득을 둘러싼 국제적 분쟁이 있었다. 해협은 선박·항공기의 통항권, 어업권, 연안의 방비권, 그밖의 법적 관할권을 놓고 중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특수한 국제적 제도에 의한 이해관계 제국(諸國)의 참여가 필요하게 된다. 특히 군함과 군용기 통



보스포루스 해협

항 및 전시 통항 등에 관한 규정이 중심 문제가 된다. 연안국의 정치적 향배가 자원 루트나 전력의 국제적 균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전시에 있어서는 전략적인 중요성을 더하게 되며, 연안국의 주권 문제의 범위를 넘어서 국제적인 규제와 감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이스탄불은 해협 서쪽으로는 구시가지, 동쪽으로는 주거지로 이루어졌다. 해협을 잇는 다리가 3개 있다. 1973년 개통한 보스포루스 제1대교(Boğaziçi Köprüsü), 1988년 개통한 두 번째 다리인 파티흐 술탄 메흐메트 대교(Fatih Sultan Mehmet Köprüsü)가 시내에 있으며 보스포루스 해협 최북단에는 2016년 한국 현대건설이 시공한 제3대교인 야부즈 술탄 셀림 대교(Yavuz Sultan Selim Köprüsü)가 있다. 남쪽엔 SK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2016년 12월 20일 완공한 유라시아 해저터널(Avrasya Tüneli)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보스포루스 해협, 보스파루스 해협, 보스퍼루스 해협
- 다국어 표기 Boğaziçi(튀르키예어), Βόσπορος(그리스어), 伊斯坦布尔海峡(중국어)
-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 참고문헌(온라인)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보스포루스 해협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2628&cid=40942&categoryId=33144>
- 참고문헌(오프라인) Christos L. Rozakis, *The Turkish Strait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7.

Özhan Öztürk, *PONTUS: Antikçağ'dan Günümüze Karadeniz'in Etnik ve Siyasi Tarihi*. Archived at the Wayback Machine, 2011.

I C105 I 보자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기타 ● 나라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식주 ● 유형 소분류2 음식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Boza

보자는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알바니아, 코소보,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아제르바이잔, 캅카스, 우즈베키스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등 중앙아시아, 캅카스, 발칸 지역에서 즐겨 마시는 발효 음료이다. 밀, 옥수수, 수수 등의 곡물로 만들며, 달콤한 맥주와 맛이 유사하다. 몽골 제국이 서진하는 13세기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오스만 제국 때부터 광범위하게 응용되기 시작했다.



보자

보자의 어원은 튀르키예어와 페르시아어에서 기원하는데, 튀르키예어로 보자는 발효주나 마유를 의미하고 페르시아어로는 수수를 의미한다. 러시아에서는 홉이 첨가되지 않은 맥주를 부자(буза)로 불렀다.

보자는 4%~6%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으며 디저트 음료이다. 타타르인들에게 보자는 손님에 대한 특별한 환대를 의미한다. 타타르어로 보자는 ‘추문’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소란스러운 무질서 상태가 알코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며, ‘소동을 일으키다’라는 러시아어 동사 ‘бузить’의 기원이다. 레르몬토프의 『우리 시대의 영웅』에서는 캅카스의 산악 민족들이 보자를 많이 마시면 무질서해진다는 묘사가 있다.

보자는 오스만 제국 시기에 가장 널리 퍼졌다. 16세기 중반부터는 오스만 제국에서 알콜과 마약 성분 때문에 금지되기도 했지만, 그 인기 때문에 꾸준히 응용되었다. 2009년 1월에는 미국에 보자 생산시설이 들어서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부자, 보자아

● 다국어 표기 Boza(아제르바이잔어, 튀르키예어), боза(카자흐어), буза(러시아어), بوظة(아랍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타타르인, 타타르어

● 참고문헌(온라인) 보자의 어원

<https://ru.wikisource.org/wiki/%D0%A2%D0%A1%D0%942/%D0%91%D1%83%D0%B7%D0%B0>

보자 제조법

<https://smak.ua/recept/napitki/74376-buza>

보자

<http://www.башкирская-энциклопедия.рф/2--statya/9276-buza.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Кулинар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в 3 т., гл. ред. О.Ивенская, М.: Комсомольская правда, 2015, 77.

I C106 | 보즈네센스크 성당(젠코프 성당)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러시아정교회
- 유형 소분류2 성당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The Ascension Cathedral in Almaty

보즈네센스크 성당(젠코프 성당)은 1907년 알마티 판필로프 공원에 건립된 러시아정교회 건물로서 당시 그곳에 다수 거주하고 있던 러시아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건립되었다. 건축가는 당대 유명한 젠코프(A.P. Zenkov: 1863년~1936년)였는데, 그 결과 일명 젠코프 성당이라고도 한다. 제정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남동부 전진 기지로 건설된 알마티는 러시아인들의 이주가 많았고 나중에 국가의 중심지로 변화했다. 그 과정에서 카자흐인들 중 러시아정교회 신자로 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다민족 국가의 면모가 나타나기도 했다. 성당 이름의 뜻은 ‘그리스도의 승천’이며 이는 러시아정교회의 축일 중의 하나로 되어 있다. 현지인과 외부 일반인들에게는 젠코프 성당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성당은 못을 이용하지 않고 건축되었다는 점이 유명하며, 1911년 알마티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부가 파손되기는 했지만 어느 곳도 무너지지 않았다. 소련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종교탄압 정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건물도 정부 당국에 몰수



보즈네센스크 성당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되어 교회 종루는 방송 중계탑으로 이용되었다. 이 성당은 카자흐스탄이 독립한 후인 1995년에 다시 종교 기능으로 복구되었으며, 그 소속도 국가에서 러시아정교회로 이전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보수와 채색작업으로 현재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성당은 이슬람 종교가 주된 신앙인 카자흐인들 사회에서도 지속성을 보이고 있고, 특히 현지 러시아인들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타문화를 존중하는 카자흐인들의 심성을 이해할 수 있다. 판필로프 공원에 위치하여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것이 큰 장점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보즈네센스키 성당
- 다국어 표기 Вознесенск кафедралы шіркеуі(카자흐어), Вознесенский собор(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판필로프 공원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vBQW>
<https://www.youtube.com/watch?v=iJwQo2gPVvc>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centralasia-travel.com/ru/countries/kazakhstan/sights/voznensensky-sobor>
- 참고문헌(오프라인) Алматы. Путеводитель, С-Петербург: Маматов, 2016.

I C107 | 복합단지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예술
- 유형 소분류2 건축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Complex

복합단지를 의미하는 튀르키예어 쿨리이에(küllüye)는 아랍어 쿨리(küllü)에서 왔으며 이슬람 세계에서 모스크를 중심으로 여러 기능의 건물이 모여 있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말이다. 영어로는 complex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슬람 사원의 건축양식인 복합단지는 오스만 제국 시기에 특히 많이 지어졌다.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담당하던 모스크는 이슬람 초기의 우미야드 조와 압바스 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예언자의 모스크(Al-Masjid an-Nabawi, 622년 건설 추정)도 넓은 의미에서 복합단지로 볼 수 있다.



예언자의 모스크(사우디아라비아)

투르크 건축에서 복합단지가 나타난 것은 10세기경으로 추정된다. 부하라와 사마르칸트 등지에서 도시 내에 궁전을 중심으로 하여 모스크, 행정 기관, 시장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복합단지가 건설되었다. 카라한 조와 가스나 조, 셀주크 조에서 존재하던 리바트(ribât)도 군사적 요새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나 대상 숙소로서도 이용된 만큼 넓은 의미에서의 복합단지이다. 장기 토 후 국, 아이유브 국, 맘루크 조에서도 마드라사, 모스크와 영묘가 합쳐진 건물이 있었는데, 이것도 복합단지로 볼 수 있다. 아나톨리아반도에서는 아르투크(Artuklu) 공국 초기에 복합단지 예시가 관찰된다. 12세기 멘귀직(Mengüçük) 공국에서도 병원과 영묘가 모스크와 함께 존재하는 복합단지 형태의 건물이 존재했다. 셀주크 시대에도 마드라사 주변에 여러 건물이 결합된 형태로 복합단지가 존재했다. 점점 건물의 종류가 다양화되어 모스크, 영묘, 신비주의 수도승의 모임 장소인 한카흐(hankah), 공공 분수, 목욕탕이 존재하던 코니아 사히브 아타 쿨리이예시(Sâhib Ata Külliyesi, 1283년) 같은 대규모 복합단지가 등장하기도 했다. 공국 시대(Beylikler devri)에서도 복합단지 건설이 지속되었다.

복합단지 건설이 아나톨리아에서 절정에 달한 것은 오스만 시대였다. 후원자들이 구성한 부

유한 와크프 덕에 복합단지는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지속되었으며, 국가의 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곳에서 복합단지가 건설되었다. 특히 복합단지 내 건물의 종류가 늘어나 기존의 모스크나 마드라사, 영묘뿐만 아니라 초급학교, 무료 급식소, 식당, 병원, 대상 숙소, 시장, 가게, 목욕탕, 공공 분수, 수조, 시간 계산소 등등 복합단지의 규모에 따라 다양한 용도의 건물이 건설되었다. 이러한 복합단지는 도시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다. 16세기 오스만 제국의 복합단지 건설은 절정에 달하지만 17세기 이후부터는 차츰 복합단지 건설이 축소된다. 복합단지 건설은 술탄을 비롯하여 그의 가족들이나 국가 고위 관리들 또는 부자들이 선행을 위하여 기부한 자금을 기반으로 조성되었으며, 와크프에 의해 운영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켈리에, 쿨리에
- 다국어 표기 Külliye(튀르키예어), kompleks(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와크프
- 참고문헌(오프라인) Cantay, Gönül, *Osmanlı Külliyelerinin Kuruluşu*, Ankara: Atatürk Kültür Merkezi Başkanlığı Yayınları, 2002.
Çobanoğlu, Ahemt Vefa. "külliye", *TDV İslam Ansiklopedisi Cilt 26*, Ankara: TDV, 2002, pp.542~544.

I C108 | 봄보고르 비문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비문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Bombogorskaya nadpis(Bombogor Inscription)

봄보고르 비문(몽골어로 Moğolca Şiveetin çuluun koşoo)은 몽골의 바얀홍고르 아이막(Байан хонгор Аймаг) 봄보고르 소문(Бомбогор сомон)의 북서쪽 쉬베느 헤렘(Шивээний хэрэм)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고분 단지는 무덤, 비석 및 석재 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재 담장의 길이는 22m~29m이다. 비석의 상부에는 4개의 짧은 행 측면에는 세로로 길게 한 행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높이는 1.33m, 길이는 0.20m~0.47m, 폭 0.16m~0.20m이다. 비문은 몽골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자들에 의해 고비-알타이 그리고 바얀흥고르 야막에서 발견되었다. 비문 텍스트의 사진과 초안은 발견 직후 널리 알려졌으며, 텍스트는 몽골 학자 Ts. 바툴가(Ts. Battulga)에 의해, 두 번째로는 일본인 학자 S. 케세투(Kesetu)에 의해서 출판되었다.

비문에는 많은 탐가(Tamga: 유목 문화에서 사용되는 부족, 씨족을 상징하는 인장의 한 형태)가 발견되는데, 이 탐가는 카간의 하위 부족들 및 가족들을 상징한다. 봄보고르 비문에서 칼루크 및 바스밀 이름에 대한 언급은, 이 탐가들이 이들 부족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비문은 칼루크 부족에서 신부로 차출된 투르크계 공주를 위해 세워졌기 때문에 투르크 학계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봄보고르 비문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비문에는 ‘kutlug kunçuyuñ il bilge kunçuyuñ tontunı (복덕이 있는 투르크 공주의 무덤)’이라는 표현이 있다. 여기서 일 빌게(il bilge)는 투르크 카간의 여성(카간의 배우자)를 지칭하는 칭호로 알려져 있다. 비문을 중요하게 만드는 또다른 점은 고대 투르크 시대의 샤머니즘의 존재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이 비문에는 “Yukarıda göğe(Gök Tanrısına), aşağıda toprağa(Yer Tanrısına) tapınmışlığım var idi”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직역하면 “나는 하늘(하늘의 신)과 아래 땅(땅의 신)을 숭배했다”이다. 이 비문을 통해 고대 투르크인들이 여성을 위해서도 비문을 세웠다는 것은 여성의 권위가 상당히 높게 평가받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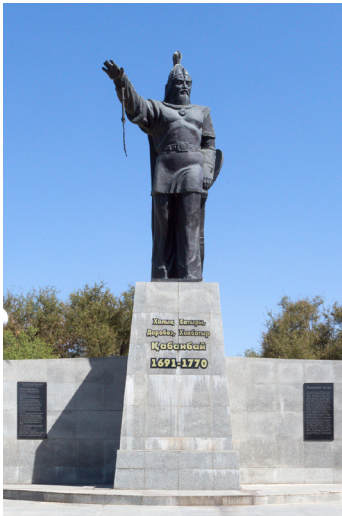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봄보고르스키야 비문, 뽀뽀괴르 비문
- 다국어 표기 Бомбогорская надпись(러시아어), Bömbögör Yazıtı(튀르키예어), Bombogor Inscription(영어)
- 연관 검색어 탐가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c/c5/Bombogor_inscription.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User Ş. H., “Bömbögör Yazıtı: Bir Türk Kunçuyunun Mezar Taşı.”, *Dil Araştırmaları*, 7, 2010, pp.62~73.

I C109 | 뵈겐바이 바트르

● 시기 A.D. 15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장군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Bogenbay batyr



뵈겐바이 바트르 동상(타슈켄트, 카자흐스탄)

뵈겐바이 바트르는 18세기에 칼묵(준가르) 군대의 침입을 무찔렀던 카자흐인의 민족 영웅이다. 카자흐어로 ‘바트르’는 ‘장군’ 혹은 ‘영웅’이라는 뜻이다. 그는 1690년에 시르다리아 강 중류 부군(Bugun) 강변의 아르근(Argyn)에서 출생하여 1775년에 투르가이 주에서 사망했다. 그의 유해는 투르케스탄의 아흐멧 야사비 영묘에 안치되어 있다.

뵈겐바이 장군은 18세기에 칼묵족의 침입으로부터 카자흐인들을 수호한 실제 인물로서 카자흐인들의 전설적인 영웅이다. 그는 뛰어난 전략을 가진 지략가형 장군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많은 전투에서 카자흐인들의 군대에 승리를 안겨주었다. 1725년~1727년 뵈겐바이 장군은 당시 카자흐 칸국의 수도인 투르케스탄 방어를 위해 아블라이 칸(Ablai khan)과 함께 칼묵 군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 1729년~1730년에는 준가르족(칼묵족)과의 대전투가 벌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안라하이(Anrakhai) 대회전이다. 안라하이는 알마티 주와 잠블 주 경계에 위치하는 지역인데, 여기서 펼쳐진 대회전에 대한 카자흐인들의 기록 문서는 부재하여 구전으로 전해오는 바람에 정확한 실상은 파악할 수 없지만, 1905년에 이 부분에 대한 채록이 카자흐인 민속학자 디바예프(A. A. Divaev)에 의해 이루어졌다.

수도 누르술탄(아스타나)과 알마티 시에는 그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다. 뵈겐바이 장군의 활약에 대한 칭송은 후대에 영웅 서사시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3년에 뵈겐바이 바트르의 영웅담을 국가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보겐바이 바트르
- 다국어 표기 Бөгенбай батыр(카자흐어), Богенбай Батыр(러시아어), Bogenbay Batyr(영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 민족 영웅, 카자흐 역사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elim.kz/article/178/>
<http://www.tarih-begalinka.kz/ru/history/medieval/figures/bogenbai/>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1, Алматы, 2004.

I C110 | 부구트 비문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불교 ● 유형 소분류2 유적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Bugut inscription

부구트 비문은 1956년 몽골 아르항게이(Arkhantai)주에서 발굴되었다. 비문의 원래 위치는 바얀트사가안(Bayantsagaan)강 서쪽 기슭이었다. 이 비문은 584년에 세워졌으며 돌궐의 타스파르 카간(Taspar Qaghan, 재위: 572년~581년)에게 헌정된 것이다. 높이 45cm의 거북이 모양의 밑받침 위에 높이 198cm, 너비 72cmx20cm의 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문의 앞면과 왼쪽과 오른쪽은 소그드 문자로 적혀 있으며, 뒷면은 브라흐미 문자로 적혀 있다. 그러나 브라흐미 문자는 어떤 언어를 표기한 것인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일부 학자들은 루안루안어의 브라흐미 문자 표기라고 주장한다. 비문의 상단 부분의 부조는 대부분 훼손되어 있어 정확하게 무엇을 묘사한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비문의 내용은 타스파르 카간과 그의 아들 움나 카간(Umna Qaghan, 재위: 581년)의 정당성과 타스파르 카간의 장례식에 대한 것이며, 572년~580년에 돌궐에서 발생한 사건 등도 담고 있



부구트 비문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 외에도 이 비문에 적힌 문구들은 당시 투르크인의 종교적 정신적 세계관을 보여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예를 들어 “신들이 심문하는 의례에 부민 카간의 영혼이 부름”을 받고 “왕은 새로운 승가(僧迦/saṃgha)를 만들기로 한 명령”이나, “투르크인들이 그에게 주었던 친절 등”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와 함께 십이간지나 십이간지를 떠받치는 거북이 조각과 같이 중국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나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단어들이 있다. 특히 ‘승가’에 대한 언급은 당시 돌궐에서 불교가 널리 퍼져 있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 단어를 승가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부구트 비문
- 다국어 표기 Bugut Yazıtı(튀르키예어), Buqut abidəsi(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타파르 칸, 돌궐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4/4f/Bugut2.jpg/800px-Bugut2.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Yılmaz, Anıl, “Bilge Kağan’a Atfedilen Taç ve (Doğu) Gök Türklerin Budizm’e Yaklaşımı”, *Art-Sanat*, Ocak 2019, pp.393~414.
- Alyılmaz, Cengiz, “Bugut Yazıtı ve Anıt Mezar Külliyesi Üzerine”, *Selçuk Üniversitesi Türkiyat Araştırmaları Dergisi*, 2003, (13): pp.11~21.
- Roux, Jean-Paul, *Türklerin ve Moğolların eski dini* (Aykut Kazancıgil), İstanbul: Kabalcı, 2002.

I C111 | 부라나 탑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키르기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미너렛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Burana Tower

부라나 탑으로 알려진 이 미너렛은 현 키르기스스탄 북부 발라사군 추이 지역, 토크마크 근처 부라나 지역에 건설되었다. 카라한 칸국의 중심 도시 중 하나였던 발라사군의 유적 중 하나이다. 부라나는 사방을 두꺼운 성벽으로 둘러싼 도시로 이 미너렛은 도시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인근에 궁전 모스크나 금요 모스크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미너렛의 건축 기술이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볼 때 11세기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라나 미너렛은 3.85m 높이의 팔각형 밑받침 위에 건설되었다. 원통형으로 상단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의 본 미너렛의 높이는 밑받침 제외 17.82m이다. 과거에는 40m 가량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너렛의 본체는 13부분의 띠로 나누어져 장식되어 있다. 하단부 장식 띠의 높이는 9.3m, 최상단부 장식 부분은 5.85m, 5.20m이다.

하단 밑받침은 벽돌로 되어 있다. 팔각의 각 면은 첨두아치형의 벽감으로 장식되어 있고 이



부라나 탑



부라나 탑 상단부 디테일

벽감은 깊지 않다. 본체도 벽돌을 교차로 배치하여 기하학 장식을 만들어 냈다. 13개의 띠 각 부분이 다른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부라나 미너렛의 문은 지면에서부터 5.3m 높이에 위치해 있으며 미너렛의 내부에 존재하는 계단은 나선형으로 되어 있다.

카라한 조와 셀주크 조의 전형적 양식으로 지어진 이 미너렛은 카라한 조 초기 건축물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부라나 미나레트, 부라나 미나렛, 부라나 미나라
- 다국어 표기 Burana Tower(영어), Burana Kulesi(튀르키예어), Burana qülləsi(아제르바이잔어), Бұрана мұнарасы(카자흐어), Бурана мунара(키르기스어)
- 연관 검색어 발라사군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d/d6/Burana_tower_2009.jpg/800px-Burana_tower_2009.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Cezar, Mustafa, *Anadolu Öncesi Türklerde Şehir ve mimarlık*, Ankara: İş Bankası, 1977.
Çeşmeli, İbrahim, *Antik çağdan 13. yüzyıla kadar Orta Asya ve Karahanlı dönemi mimarisi*, İstanbul : Arkeoloji ve Sanat yayınları, 2007.

I C112 I 부르사

● 시기 A.D. 10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Bursa

부르사는 오늘날 튀르키예의 서북부에 위치한 도시이다. 이 도시가 처음 건설된 것은 기원전 200년 경 비티니아의 왕 프루시아스 1세에 의해서였다. 비잔티움 제국 치하에서 규모와 중요성이 커졌던 이 도시는 한동안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다. 현재의 인구 규모로는 튀르키예의 5대 도시 중 하나이다. 발칸과 아나톨리아를 잇는 교통로상에 있는 위치와 비옥한 배후지로 인해 이 도시는 오랜 시간에 걸쳐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번영을 구가해 왔다.

비잔티움 외에도 셀주크와 십자군 정권의 통치를 받기도 했던 이 도시는 1326년 6년간의 포위 끝에 오스만 왕조의 제2대 술탄 오르한 시대에 의해 점령되었다. 오스만 무슬림들은 처음에는 성채 안에만 살다가 모스크와 와크프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성채 바깥에도 거주하게 되었다.

오르한은 부르사를 점령한 후 이곳을 수도로 삼고 그의 궁전과 모스크와 공중 목욕탕과 시장 등을 건설했고 은화를 발행했다. 그 뒤를 이은 술탄들, 왕실의 여성들, 고위 관료들도 많은 시설을 와크프로 건립했고 이 도시의 번영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1402년 앙카라 전투에서 바이에지드 1세가 티무르에게 패배한 후 티무르군의 공격과 약탈로 큰 타격을 입었다. 왕자들 사이의 내전이 끝난 후 15세기 초 메흐메드 1세와 무라드 2세는 도시를 재건하고 다시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고위 관료들도 와크프를 건립하여 도시의 복지에 이바지했다.

풍부한 수자원과 비옥한 토지 외에도, 시리아, 이집트와 이어지는 무역로상에서의 위치가 부르사의 경제적 번영을 결정지었다. 시리아-부르사 사이의 육상 카라반 루트, 부르사에서 안탈



부르사 전경과 부르사 대모스크

리아와 알렉산드리아로 연결되는 수로는 모두 이스탄불과 발칸 및 북방 국가들로 이어지는 향료 무역이 부르사를 거쳐가도록 만들었다. 이란과의 비단 무역은 이 도시의 상업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켰다. 16세기 초부터 알레포와 이즈미르가 비단 무역에서 부르사를 대체하는 주요 무역 거점이 되었지만 부르사는 지역 내에서 비단 생산을 지속했으며 19세기에는 증기 기관을 비단 생산에 동원하기도 했다.

메흐메드 2세 시대에는 비단과 향료 무역을 통해 부르사의 경제가 활성화되었고, 이스탄불이 수도가 되었지만 부르사는 동방 원정의 출발지로 입지를 굳혔다. 16세기에 부르사는 휘다웬디야르 산작의 30개 사법 구역(kaza) 중의 하나였고, 오스만 제국 말기까지 행정적으로 거의 비슷한 위치를 유지했다. 19세기에 극장, 시청, 산업 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도시의 외형이 바뀌기 시작했다. 튀르키예 독립 전쟁 당시에는 1920년부터 1922년까지 그리스에 의해 점령을 당하기도 했지만, 튀르키예 공화국 시기에는 무역, 농업, 산업, 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했다. 타흐리르(호구 조사) 장부에 의하면 16세기 초에는 152개였던 마할레(거주 구역)가 16세기 말에는 168개가 되었는데, 이는 인구가 빠르게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18세기와 19세기에도 인구가 증가했는



부르사 시내 중심가

데, 특히 19세기 후반에는 동 아나톨리아로부터의 아르메니아인 이주민과 1877년~1878년 사이의 러시아-오스만 전쟁으로 도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해서 약 8만에 이르렀고, 거주 구역들이 새롭게 조성되었다.

- 다국어 표기 Bursa(튀르키예어), Prousa(그리스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Yunus Uğur, "Bursa,"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105~106.
- Halil İnalçık, "Bursa," *TDV İslam Ansiklopedisi*, Vol. 6, 1992, pp.445~449.

I C113 | 부르사 대 모스크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Bursa Great Mosque

부르사 대 모스크는 모스크 내의 설교단에 적힌 기록에 따르면 1399/1400년에 완성되었다. 모스크와 함께 부르사 복합단지(Külliye)는 바이에지드 1세(I. Bayezid, 재위: 1389년~1402년)의 명으로 만들어졌으며 건축가는 알리 네자르(Ali Neccâr) 또는 하즈 이바즈 파샤(Hacı İvaz Paşa)로 추정되고 있다.

처음 모스크 건설을 계획했을 때는 모스크, 마드라사, 목욕탕, 베데스탄(Bedesten)과 가게, 모스크 직원용 숙소로 이루어진 복합단지 형태로 설계되었다. 이후에 모스크 주변에 샤페



부르사 대 모스크



부르사 대 모스크 내부

드르반(şadırvan), 기도 시간 측정실(muvakkithâne), 교사의 방(muallimhâne) 무에진의 방(müezzin odası) 기도 시간 측정인의 방(muvakkit odası) 등의 건물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후에 이 추가된 건물은 사라졌고 목욕탕도 그 기능을 잃게 되었다. 모스크와 베데스텐, 마드라사 주변의 가게들은 의무적으로 운영되었다. 18세기까지 여러 번 수리된 부르사 대 모스크는 1855년 지진 이후 대대적인 수리를 거쳐 1862년 다시 공개되었다.

모스크의 크기는 55mx69m 크기로, 20개의 돔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쪽의 대문 이외에도 동면과 서쪽 면에 각각 문이 있으며 큰 몰당이 달린 전면의 밑 부분에는 20개, 윗부분에는 32개의 창문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내부에는 십이각형의 대리석 분수가 위치한 곳 천장에 돔이 있는데, 이곳은 일부분 열려 있어 모스크의 공기 순환이 이루어지고, 빛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했다. 건물을 덮은 돔은 12개의 기둥으로 받쳐져 있다. 이 지지대의 모든 면이 슬루스 서체와 쿠팍 서체의 글로 장식되어 있다.

모스크의 내부의 벽면과 기둥은 캘리그래피 장식되어 있다. 이 캘리그래피는 압뿔펫타흐에

펜디(Abdülfettah Efendi), 카자스케르 무스타파 이즈제트 에펜디(Kazasker Mustafa İzzet Efendi), 사미 에펜디(Sâmi Efendi) 메흐메드 셰픽 베이(Mehmed Şefik Bey) 등 당대의 유명한 하타트(Hatat: 캘리그래피 예술가)의 작품이다.

부르사 대 모스크는 호두나무를 쿤데카리(kündekârî: 기하학 문양으로 자른 나무 조각을 큰 표면에 자리 잡게 하는 기술) 기법으로 만든 설교단이 유명하다.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엘-하즈 무함메드 빈 압뉘이지즈 이브누 다키(el-Hâc Muhammed b. Abdülazîz İbnü'd-Dakkî)이다. 특히 이 설교단은 코란의 행 숫자인 6,666개의 나무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함께 미흐랍을 보고 있는 동쪽 면은 태양계를 묘사하고 있으며, 서쪽 면은 은하계를 묘사하고 있다.

미흐랍의 장식은 1862년 부르사로 유배당한 테브픽 파샤(Tevfik Paşa, 1845년~1936년)에 의해 이루어졌다. 미흐랍 주변의 4개의 테두리 중 하나는 쿠픽 서체로, 다른 하나는 양식화된 문양으로, 다른 두 개는 식물 문양으로 꾸며져 있다. 미흐랍의 벽감 양쪽 모서리에는 대리석 형태로 색을 칠한 작은 기둥 모양의 부분과 모서리는 두터운 루미와 팔메트 문양으로 채워져 있고 이 장식 사이에는 루미로 이루어진 칸딜(Kandil) 문양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위에진이 올라서는 위에진 마흐필(Müezzin mahfili)의 계단 밑의 공간에 시인 라흐미(Rahîmî)의 시가 탈리크 서체로 쓰여 있다.

두 개의 미너렛 중 서쪽에 있는 것을 바이예지드 1세의 명으로 만들어졌다. 동쪽 미너렛은 처음부터 계획하여 만들었음에도 반만 완성되었고, 한동안 이 상태로 사용하며 ‘불완전한 미너렛’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리고 이후 메흐메드 1세(I. Mehmed, 재위: 1413년~1421년) 또는 셀림 1세(I. Selim, 재위: 1512년~1520년) 시대에 완성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미너렛의 지지대는 대리석으로, 몸체는 벽돌로 만들어졌다. 미너렛의 발코니는 무카르나스 위에 있고, 최상부의 꼭대기는 목재와 납으로 만들어졌으나 화재로 인해 후에 돌로 다시 만들었다.

모스크의 서쪽에는 마드라사가 자리하고 있으며, 북쪽에 연결된 베데스텐은 아직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북서쪽에는 쉐켈 하맘(Şengül Hamamı)이 있었는데, 오늘날 귀금속 상가로 사용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부르사 울루 자미, 부르사 자미, 부르사 모스크

● 다국어 표기 Bursa Ulu cami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복합단지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v=1NfP9LkZ4Qg
<http://www.bursa.gov.tr/ulucami>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Aslanapa, Oktay, *Osmanlı devri mimarisi*, Istanbul: İnkılâp Kitabevi, 2004.

Yavaş, Doğan, "Ulucamii, Bursa",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42, Istanbul, 2012, pp.88~89.

I C114 | 부르칸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동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중국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불교 ● 유형 소분류2 상징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Burkhan

부르칸(буркан)은 부르한(бурхан), 부르간(бурган), 푸르칸(пуркан), 푸르간(пурган)으로도 불리며 ‘부처’(붓다, будда)의 투르크-몽골식 변형이거나 붓다-칸(будда-хан)의 변형 형태이다. 쇼르, 하카스, 투바, 키르기스, 위구르 등의 투르크 민족들과 몽골 신화에서 부처를 의미하거나 일반적인 신의 명칭, 또는 신의 형상이나 우상을 의미한다.

나나이인들은 부르칸을 굿을 할 때 샤만(무당)을 돕는 정령으로 생각한다. 몽골 신화(샤먼 신화)에서 부르칸이란 단어는 텡그리 신과 섞이지 않는 인도-티벳 라마 신앙으로 간주되는데, 17세기 이후에서야 샤먼 신들의 신전에 포함되었다. 의례 목록에서 부르칸은 보통 우주 기원 신화나 인류 탄생 신화에서 주요 등장인물로 먼저 언급되기도 한다. 여기 등장하는 존재들은 석가모니, 부르칸-바흐쉬(Бурхан-бакши, 설법자 부처), 미륵(майдар, майтрея, maitreya), 관세음보살(Авалокитешвара, Арья-Бало), 문수보살(Манджушри, Mañjuśrī) 등인데, 금강수보살, 다길니천 같은 보살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몇몇 몽골 신화에서 ‘푸르간’의 개념은 텡그리 신과 대립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때는 유일신인 텡그리와 다신, 정령으로 ‘푸르간’의 대립을 의미한다. 이렇듯 몽골 신화에서(특히 부랴트 민족의) 부르칸은 악령을 의미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부르한
- 다국어 표기 Бурхан(러시아어), Burhan(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под ред, Токарева С. А. —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2, г. — т.1. 196.

I C115 | 부르쿠트 아타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화 ● 유형 소분류2 정령
- 집필자 김홍중, 최선아 ● 라틴 문자 Burkut Ata

부르쿠트(Burkut)는 중앙아시아에서 거대한 독수리를 이르는 말로, 부르쿠트 아타(Burkut Ata)는 투르크멘, 타타르, 바시키르, 우즈베크, 카자흐를 중심으로 퍼진 비의 정령과 관련된 신앙이다. 투르크멘어로는 부르쿠트 바바(Burkut baba), 우즈베크어로는 부르쿠트 디바나(Burkut Divana), 카자흐어로는 디바나이 부르흐(Divana-i Burh), 타지크어로는 디바나이 보르흐(Divana-i Borh), 타타르어는 뵈레크 아타(Börek Ata)라고 칭하기도 한다.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타타르인은 뵈레케트케 칸(Börketke Ka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하 부르쿠트 아타로 표기한다.

부르쿠트 아타에 대한 구전은 민족마다 약간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비와 관련이 있다. 부르쿠트 아타의 형상에는 고대 농경 민족 신앙과 샤머니즘 신앙의 특징들이 혼재되어 있어, 이슬람 전파 이전에 발생된 존재이다. 다수의 신화에서 부르쿠트 아타는 채찍으로 구름을 몰아 비와 뇌우, 천둥을 만들어 낸다. 사람들은 언덕에 굽주려 울고 있는 염소를 매어 두고 부르쿠트 아타에게 비가 필요하다고 알리는 경우가 있다.

타타르인과 바시키르인의 경우 부르쿠트 아타는 천계에 살며 구름 앞에서 채찍을 흔들며 원하는 곳에 구름을 보내고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 바시키르인들은 비가 필요할 때 부르쿠트 아타에게 바란다.

우즈베크인과 카자흐인에게는 비와 번개를 관장하는 존재가 다르다. 우즈베크의 경우에는

머마 쿨더라크(Moma Kuldurak)라는 여성이 비를 내리게 하고, 부르쿠트 아타는 번개를 관장한다. 카자흐인들에게 비를 담당하는 것은 마쿨(Makul)과 막카이(Makkay)로, 부르쿠트 아타는 마쿨과 막카이에 비를 내리게 한다. 카자흐인에게 부르쿠트 아타는 비를 직접 관장하지는 않지만,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중요한 신으로 취급한다. 또한, 일부 카자흐인과 우즈베크인들은 부르쿠트 아타가 번개와 비 말고도 죽음과 생명에도 관여한다고 믿었다. 비는 생명을, 번개는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라 믿었던 데서 기인한 듯하다. 몇몇 신화에서 부르쿠트 아타는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후손을 선물한다. 한번은 부르쿠트 아타는 과부의 죽어가는 독자를 살려달라고 알라에게 부탁했지만, 알라가 이를 거부하자 죽음의 천사 이스라엘을 따라 천상으로 올라가 망자의 영혼이 담긴 병을 깨뜨렸다. 구름을 물거나 채찍으로 번개를 만들어 내는 천사에 대한 개념은 다른 투르크 민족에게도 등장하지만, 그에 대한 신화 자체는 남아 있지 않다. 다른 민족에서는 부르쿠트 아타가 생명과 죽음에 관여한다는 구전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투르크멘에게도 부르쿠트 아타는 비를 관장하는 신으로, 이들에게는 부르쿠트 아타의 기원에 대한 구전이 있다. 어느 매우 건조한 날 부르쿠트 아타가 신(알라)에게 비를 바랐고 신은 비를 대가로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부르쿠트 아타는 40일 동안 한 발로서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 후 그 소원은 받아들여져 비가 내렸고, 그 후 투르크멘은 부르쿠트 아타가 비를 관장하는 존재라고 믿게 되었다. 다른 구전에서는 부르쿠트 아타가 40일 동안 한 발로서는 것을 성공하고 지옥을 없애 달라고 부탁한다. 알라가 지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르쿠트 아타에게 증명하자 부르쿠트 아타는 이에 동의하거나 지옥의 일부만 없애 달라고 한다. 어떤 신화에서는 부르쿠트 아타는 미래를 예언하고 알라와 논쟁을 하는 존재이며, 일부 신화에서는 부르쿠트 바바는 불손하게 알라와 싸우고 힘을 자랑하기도 한다. 또 다른 투르크멘 전설에 의하면 한 목동이 어느 날 비를 바랐기에 부르쿠트 아타는 비를 내렸다. 그러나 다른 목동은 이 비에 불만을 표하자 그때부터 부르쿠트 아타는 사람의 바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할 때 비를 내리기로 했다고 한다. 부르쿠트 아타는 건조한 기후 지대에 살고 있던 투르크멘과 같은 투르크족에게는 특별히 중요한 신앙의 대상으로 자리잡았다.

부르쿠트 바바를 모르는 다게스탄 지역의 쿠미크, 아바르, 레즈긴 민족에게도 유사한 의례가 존재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부루쿱 아타, 뷔르퀴트 아타, 부르쿠트 바바, 부르콧 바바
- 다국어 표기 Bürküt Ata(아제르바이잔어), Burkut Ata(튀르키예어), Буркут-баба(러시아어), Burkut Divana(우즈베크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иф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Гл.ред, Е.М. Мелетинский – М.:‘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0, г.– 672 с.
Ögel, Bahaeddin *Türk Mitolojisi* cilt I, 5.baksı, Ankara: Türk Tarih Kurumu Yayınları, 2010; Bayat, Füzuli, *Türk mitolojik sistemi I*, Istanbul: Ötüken, Bayat, Füzuli. *Türk mitolojik sistemi II*, Istanbul: Ötüken, 2007.
Gökçimen. Ahmet, “Türkmenistan’da Bir Yağmur İyesi “Burkut Ata”, *Bilig* Kış, 2010, Sayı 52: pp.69~78.

I C116 | 부르콧-살루

- 시기 B.C. ~A.D. 10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기예 ● 유형 소분류2 놀이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Burkut-salu

부르콧(검독수리)과 살루(만들기)의 뜻을 가진 부르콧-살루는 카자흐인들이 전통적으로 행하던 ‘매 사냥’이다. 초원의 유목 생활을 하던 카자흐인들은 항상 들판의 야생 동물의 위협 속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검독수리나 매 등을 잘 훈련시켜서 사냥하는 기술을 익혔다. 카자흐인들은 말을 탄 채로 매를 훈련시킨 다음 사냥을 하게 하여 동물을 잡아서 마을 사람들의 생계를 해결했던 것이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20여개 국의 문화로 등록된 유네스코 공동 문화유산인 매 사냥의 기원은 B.C. 3000년~B.C. 2000년 중앙아시아 및 몽골 지대의 초원에서 비롯되어 인접한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몽골 칭기즈 칸 시대에 매 사냥이 크게 발전되었고 그 결과 몽골-투르크인의 후예인 카자흐인들의 전통 사냥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전승되었다. 모스크바에도 매 사냥터가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문화는 유목민들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인들은 기존에 내려오던 전통적인 사냥 방식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이러한 사냥은 드넓은 초원과 함께 생활하던 카자흐인들에게 매우 적합했다.

소련 시기에 주춤하면서 거의 소멸되던 부르콧-살루 사냥꾼은 소련 시기 말기에는 10여 명 정도만 남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독립 이후 현재는 전통문화의 부흥으로 매 사냥꾼이 100여 명



매 사냥을 하는 몽골의 카자흐인

이상으로 증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 사냥 경기는 매우 인기 있는 경기 종목이 되었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는데, 그 내용에는 매 훈련과 사냥 실습 등 힘든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매 사냥을 살부우룬(Salbuurun)이라고 부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부르킷-살루, 부르쿠트 살루
- 다국어 표기 Буркит-салы(카자흐어), Буркут-салы(러시아어), Кыс-салы(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인 전통놀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6TRjmBtOEul>
-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rusnauka.com/43_WSN_2016/Sport/1_219111.doc.htm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a Jeteyeva and Yerkebulan Dzhelbuldin, *Traditions and Customs of Kazakhs*, Author House, 2014.

I C117 | 부르하니즘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불교 ● 유형 소분류2 민족종교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Burkhanism

부르하니즘은 20세기 초 고르니 알타이에서 발생한 알타이인들의 민족 종교이다. 부르한(бурхан)은 부처를 뜻한다. 부르하니즘은 알타이 민족 전통과 티벳 몽골 불교인 라마교 요소가 결합한 종교이다. 이를 따르는 알타이인들은 부르하니즘을 아크 양(ак ян)이나 수이트 양(сүт ян), 즉 ‘흰’, ‘우유의’ 믿음으로 부르는데, ‘검고’, ‘붉은’ 샤머니즘과는 상반된 의미를 가진다.

부르하니즘 신도들은 오이로트 칸(중가르 왕국) 시대를 알타이인들의 황금시대로 간주하고 그 세계 질서 회복을 기대한다. 부르하니즘은 19세기~20세기 초 러시아인들의 본격적인 시베리아 이주와 러시아정교회 선교사들에 의한 전통 샤머니즘의 위기, 그리고 중가르 왕국의 과거 영토에 마지막 통치자 아무르사나가 되돌아올 것이라는 소문 등을 배경으로 생겨났다. 부르하니즘 신자들은 오이로트 칸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고 신성한 유일신 유치-코르부스탄에게 집단적으로 기도를 올렸다. 이들은 동물을 제물로 바치지 않고 우유를 붓는 것으로 대신하고, 암흑 신 에르리크(Эрлик)의 대리인인 고양이를 쫓아내는 동시에 샤머니즘을 엄격히 금지했다. 이 종교는 폭넓은 대중성을 얻기도 전에 1917년 혁명 이후 반종교 정책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1990년대 알타이 공화국에서 부르하니즘은 알타이인들의 민족 종교로 부활했다. 20세기 부르하니즘은 티벳-몽골 불교와 부랴트, 일본 라마교의 영향을 받았다. 오늘날 부르하니즘은 민족 종교에 그치지 않고 오이로트 자치주 창설을 목표로 하는 알타이 민족의 민족정치운동이기도 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부르카니즘
- 다국어 표기 Бурханизм(알타이어), бурхан ян(러시아어), Burhancılık(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알타이인
- 참고문헌(온라인) <http://bsk.nios.ru/enciklodediya/burhanizm>
- 참고문헌(오프라인) Шерстова Л.И., Бурханизм в Горном Алтае //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е обозрение, 2005. № 4.

I C118 | 부르HING 두르불진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성지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Burkhiin Dorvoljin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150km 떨어진 헤를렌강 우측에는 흉노 시대의 성터 5기가 분포한다. 북에서 남으로 테렐진 두르불진, 부리HING 두르불진, 후레트 도브, 운두르 도브, 고아 도브 성터가 차례로 위치하는데, 20km~30km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 이들은 발굴 전에는 의례 공간으로 추측되었으나, 발굴 이후에 흉노 시대의 성지(城址)로 밝혀졌다. 부르HING 두르불진은 테렐진 두르불진 유적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크기는 180m×180m인데, 남쪽은 강물로 인해서 성벽이 일부 허물어졌다.

발굴 결과 고아도브, 테렐진 두르불진 유적에서 출토되는 거의 유사한 막새기와 등이 출토되어서 같은 시기의 유적으로 판명되었다. 고아도브는 여름 궁전지, 테렐진 두르불진은 겨울 궁전지로 생각되고, 부리HING 두르불진은 봄의 궁전지일 가능성이 있다. 헤를렌 강변에서 확인된 5개의 유적지 중에서 테렐진 두르불진, 고아 도브, 후레트 도브, 부르HING 두르불진에서만 기와가 출토되었는데, 흉노의 선우정에 해당될 수도 있다. 역사가들은 흉노의 선우정을 HING이 산맥 주변으로 추정하기도 했으나, 그곳에서는 흉노 시기의 유적이 확인된 바 없다. 헤를렌 강변에서 발굴된 유적에서는 기와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오히려 최상위 귀족이 살았던 선우정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부르HING 두르불진
- 다국어 표기 Burkhiin Dorvoljin(몽골어)
- 연관 검색어 흉노, 고아 도브, 테렐진 두르불진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2013.
에릭젠, 양시은, 『흉노』,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2017.

I C119 | 부타시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정령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Vutash

부타시는 추바시 신화에 등장하는 여성 형상을 한 물귀신이다. 부타시는 핀-우그리아어파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된다. 부타시는 저수지나 강, 호수 같은 물속에 살면서 사람처럼 두 발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처럼 살고 있다고 한다. 부타시는 가족도 있으며, 구성원으로 노인이나 아이도 있다. 정오에 부타시가 수영하는 시간에는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다. 태양이 빛나는 맑은 날에 부타시는 황금빛을 꽃은 긴 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는 부타시를 보면 안 되는데, 부타시가 그를 유혹해 익사시키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반한 남자에게 부타시가 돈을 가져다 준다는 전설도 있다.

새벽에 부타시가 강가에 쉬러 나오면 늑대들이 부타시를 잡아 먹기도 한다. 부타시가 강가에 누워 있을 때 십자가를 가슴에 얹으면 부타시는 다시 물속으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다른 신화에서 물레방아를 만드는 곳에서 부타시는 인간 제물을 요구하기도 한다. 부타시는 추바시 신화의 ‘시브 아마셰’(шыв амаше), ‘시브 아셰’(шыв ашше) 귀신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이는 물의 어머니, 물의 아버지란 뜻이며, 그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인간 제물을 요구하기도 한다. 타타르 신화에서는 동일한 귀신으로 수 아나시(су анасы)가 등장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부다쉬
- 다국어 표기 Вудаш(추바시어), Вугаш(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под ред. Токарева С. А. —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2, г. — т.1, 254.

I C120 | 부파르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악령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Vupar

부파르는 추바시 신화에 등장하는 악한 정령이다. 보파르(вопар)라고 부르기도 한다. 신화에 따르면 집에 사는 악마(이이에)의 도움으로 마녀 노파가 변하여 부파르가 된다고 한다. 부파르는 가축의 형상이나, 불을 내뿜는 뱀이나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여 잠자고 있는 사람을 짓눌러 숨을 막히게 하거나 악몽을 꾸게 하고 병을 전파하기도 한다. 이때 부파르는 인간의 정기를 빼앗아 자신의 원기를 회복한다. 이때 인간은 꼼짝도 할 수 없고, 어떤 말도 할 수도 없다. 부파르가 전파하는 병을 ‘부파르의 불행(вупарля хаяр)’이라고 부른다. 부파르는 태양이나 달을 덮쳐 암흑을 불러오기도 한다.

부파르에게 해를 입은 사람이나 가축에게는 유마시(юмась)의 주문이 도움이 된다. 또 부파르가 누군가를 짓누르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라고 소리치면 부파르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 기독교 세례를 받은 추바시인들은 부파르를 피하기 위해 이마에 작은 십자가를 두기도 한다. 잠들기 전에 손가락 사이의 땀 냄새를 맡는 것도 부파르를 피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부파르의 형상은 타타르 신화나 바시키르 신화의 우비르(убыр)와 유사하며 동슬라브 민족의 우피르(упырь)나 토볼 타타르의 마츠카이(мяцкай)와도 유사하다. 서유럽의 흡혈귀인 뱀파이어와 같은 기원을 가진다. 하지만 이들 흡혈귀들은 생김새나 행동 양식 등에서 서로 구별된다. 부파르는 우리의 ‘가위눌림’과도 비슷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뽀파르

● 다국어 표기 вупар(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우비르, 이이에, 추바시인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иф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Гл.ред. Е.М., Мелетинский –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0, г. – 135.

I C121 I 부하라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Bukhara

부하라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도시로 부하라 주의 주도이며, 자르파샤강(江) 하류 대 오사이스 인근에 위치해 있다. 해발 200m인 이 도시는 대륙성 기후이며, 인구는 2017년 기준 약 279,200명이다.

부하라의 어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으나 ‘운이 좋은 곳’을 의미하는 소그드어 ‘βuxārak’에서 파생되었다는 설과 부하라에 위치했던 불교 수도원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vihāra’에서 파생되었다는 설이 있다.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사마르 자르파샤 강 근처에 사마르칸트 이외의 도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곳이 부하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당나라 시기 중국의 기록에서는 부해(捕喝)라고 기록하고 있다. 무슬림이 부하라에 처음 도착했을 때도, 지역 통치자를 ‘부하라의 주인(Buhar-hudât)’이라고 표시했다.

부하라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이슬람의 도래 이후였다. 674년 이슬람 세력이 부하라를 정복하기 이전까지 통치자는 비둔(Bidun)이라는 여성이었으며, 투르크 칸의 부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당시 비둔과 이슬람 세력 간의 조약을 맺어 병사와 세금을 보내는 조건으로 자치 방식으로 통치를 했으나, 다시 정복을 당하거나 다시 독립하는 등의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된 끝에 706년~709년 우마이야 왕조의 호라산 총독이 이 지역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

우마이야 시대와 압바스 조 초기에는 부하라는 메르브에 위치하던 호라산 총독에 의해 임명된 아미르와 지역 통치자에 의해 운영되었다. 874년 부하라 지역민들과 올레마는 사만 조에 도시를 바쳤고, 999년 사만 조가 멸망할 때까지 부하라를 통치했다. 사만 조 시대에 부하라는 급격하게 발전했으나, 카라한 조가 992년 부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고 사만 조가 멸망하자 부하



부하라 '실크와 향신료 축제' 모습

라의 중요성은 떨어지게 되었다. 1141년 카트완 전투 이후 부하라는 서요가 통치하게 됐으나, 1207년 부하라는 호라즘 샤의 통치하에 들어갔다. 1220년 2월 10일 칭기즈 칸이 부하라를 정복했고, 당시 일어났던 화재로 인하여 도시의 대부분이 불탔다. 이후 부하라는 일 칸국과 차가타이 칸국에 의해 재건과 파괴를 반복했다.

이 시기에 부하라는 수피 종단의 중심지, 그중 특히 낙쉬반드 종단의 창건자인 바하 알 딘 낙쉬반드(Baha' al-Din Naqshband, 1318년~1389년)의 탄생과 활동, 낙쉬반디 종단 추종자들의 활동으로 부하라의 정치적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다.

1500년 이후, 우즈베크 왕조, 즉 부하라 칸국의 샤이버니이 칸(우즈베크어 표기: Muhammad Shayboniy, 영어 표기: Shaybani Khan)이 부하라를 정복해, 1583년 부하라를 부하라 칸국의 수도로 만들면서 이 도시는 전성기를 맞이했다. 부하라 토후국 시대까지 수도로 기능했던 부하라는 19세기 러시아로부터 침략을 당하기 시작했고, 1920년 10월 6일 소비에트에 의해 정복당했다. 1924년 부하라는 우즈베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한 도시가 되었다. 1991년

우즈베키스탄의 독립으로 부하라는 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 포함되어 있다. 1993년 부하라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부허라
- 다국어 표기 Buxoro(우즈베크어), Buhara(튀르키예어), Бухара(카자흐어), Buxara(아제르바이잔어), Buhara(투르크멘어)
- 연관 검색어 샤이버니이 칸, 부하라 칸국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bukhara-index>
- 참고문헌(오프라인) Şeşen, Ramazan, "Buhara",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6, Istanbul: TDV, 1992, pp.363~367.

I C122 | 부하라 칸국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hanate of Bukhara

우즈베크 유목 민족 통치자인 무하마드 샤바흐트 샤이버니이(Muhammad Shayboniy, 영문 표기: Muhammad Shaybani, 샤이바니, 1451년~1510년)는 16세기 초 티무르 조의 영역이었던 트란스옥시아나 지방을 공격했고, 1500년~1501년 부하라와 사마르칸트, 1504년 페르가나와 히소르 지역, 1505년 우르겐치, 1506년~1507년 호라산 수도인 발흐, 메르브, 아스트로보드 및 니샤푸르, 타슈켄트, 페르가나, 시르다리야, 호라즘 지역과 아프가니스탄의 칸다하르 및 자민도부르 지역을 점령했고, 트란스옥시아나와 호라산을 통합하여 샤이바니 왕조를 세웠다. 샤이버니이 칸은 사파비 조의 이스마일 1세(Ismail I, 재위: 1501년~1524년)와의 전쟁에서 1510년 사망하고 오촌 조카인 코츠클치 칸(Ko'chkhunchi-xon, 재위: 1531년~1534년)이 제위에 오른다.

우바이아둘라 칸(Ubaydulla I, 재위: 1534년~1539년) 시기에 부하라 칸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전성기를 맞이했다. 1557년~1561년 제위에 있던 피르 무함마드(Pirmuhammad, 재위:

1511년~1561년)와 1561년~1583년 제위에 있던 이스칸다르 술탄(Iskandar-Sulton, 재위: 1561년~1583년)이 최고 통치자였지만, 실질적 통치는 이스칸다르의 아들이었던 압둘라 칸 2세 (Abdulla xon II, 재위: 1583년~1598년)에 의해 이루어졌다. 압둘라 칸 2세는 부하라 칸국 내의 정치적 위기를 전쟁으로 타개한다. 그는 긴 전쟁을 통해 헤라트와 호라즘을 정복하고, 통합하여 부하라 칸국을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만든다. 이 시기에 부하라 칸국은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및 외교를 비롯해 건축과 예술, 교육 등 다방면에서 높은 수준을 이룩한다. 그러나 아들 압둘모민 칸(Abdulmo'min xon, 재위: 1598년)과의 갈등으로 왕위 분쟁이 일어났다. 압둘라 2세의 사망 후 이어 제위에 올랐던 압둘모민 6개월 후 사망한다. 샤이바니 왕조의 마지막 왕 피르무하마드 2세(Pirmuhammad II, 재위: 1598년~1601년)는 1601년 버키무함마드(Boqimuhammad, 재위: 1598년~1605년)와의 전쟁에서 사망하면서 샤이바니 조의 남자 후계자가 없었기에 잔 왕조가 시작되었다.

잔 조는 아스트라한 조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스트라한 조 시기에는 지방 아미르 및 베이들과 중앙 정부 관리 간의 갈등과 충돌이 반복되기도 했으나 이맘쿨리 칸(Imomquli, 재위: 1589년~1660년)시대에는 번영기를 누린다. 18세기 중반 아프샤르 제국의 나디르 샤(Naidr Shah, 재위: 1736년~1747년)의 침공을 받고 항복하기도 했다.

그 후 망기트 가문의 발흥으로 셰르거지 칸(Shergozi, 재위: 1754년~1757년)이 폐위되고 망기트 가문에서 무함마드 라힘(Muhammad Rahim, 재위: 1753년~1758년)이 제위에 오른다. 망기트 가는 ‘칸’이 아닌 ‘아미르’의 칭호를 선택했고, 부하라 칸국은 부하라 아미르국(토후국)으로 변모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부하라 한국
- 다국어 표기 Buxoro Xonligi(우즈베크어), Buhara Hanlığı(튀르키예어), Buxara xanlığı(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부하라 아미르국, 부하라
- 참고문헌(오프라인) Tekin. Feridun, “Hive Hanlığı”, *Türkler*Cilt 8, Ankara:Yeni Türkiye Yayınları, Ankara, 2002, pp.1102~1114.
- Alpargu, Mehmet, “Türkistan Hanlıkları”, *Türkler*Cilt 8, Ankara:Yeni Türkiye Yayınları, Ankara, 2002, pp.957~1045.
- QUsmonov,Q., M.Sodiqov; S.Burxonovam, *O'ZBEKISTON TARIXI*, Tashkent, 2006.

I C123 | 북위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Pei Wei

중국 남북조(南北朝) 시대의 북조(北朝) 최초의 왕조가 북위(386년~534년)이다. 원위(元魏), 후위(後魏)라고도 한다. 선비족(鮮卑族)의 탁발부(拓跋部)가 중국 화북 지역에 세웠다고 알려져 있지만, 투르크권 학계에서는 탁발부는 투르크계 타브가치(Tabgach)라는 설이 유력하다. 중국사에서 침투 왕조의 효시이다. 3세기 중엽 탁발부는 내몽골의 바엔타라[巴彥塔拉] 지방에서 세력을 넓혔으나, 4세기 초 이들의 세력을 이용하여 북변의 보위(保衛)를 도모하려는 서진(西晉)으로부터 산시성(山西省) 북부의 땅을 얻음으로써, 그곳에서 세력을 신장했다.

315년 군장(君長)인 탁발 의로(拓跋猗廬)는 서진의 관작을 받고 대왕(代王)으로 봉해졌다. 탁발 십익견(拓跋什翼犍) 때 전진(前秦)의 부견(苻堅)과의 싸움에 패하여 정권이 와해되었지만, 부견이 비수(淝水) 전투에서 패한 기회를 이용하여 탁발 규(拓跋珪:후의 道武帝)는 나라를 재건하고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국호를 위(魏)라고 했다(386년). 이어 내몽골 여러 부족을 평정하고 후연(後燕)을 격파, 화베이[華北] 평야에 진출하여 국도를 평성(平城), 즉 지금의 산시성(山西省) 다통(大同)에 정했다(398년). 태무제(太武帝) 때 하(夏), 북연(北燕), 북량(北凉)을 멸망시킴으로써 5호 16국(五胡十六國)의 난을 종식시켜, 439년 마침내 북위는 강북 지역 통일을 완성했다. 그뒤 선비족의 한화(漢化)가 촉진되었는데, 특히 효문제(孝文帝)가 즉위하자 국도를 뤼양(洛陽)으로 옮겨(494년), 호복(胡服), 호어(胡語)를 금하고 호성(胡姓)을 한인(漢人)처럼 단성(單姓)으로 고치게 했으며, 황족인 탁발씨도 원씨(元氏)로 개성(改姓)했다. 효문제는 한화정책과 함께 봉록제(俸祿制), 삼장제(三長制), 균전법(均田法) 등을 창시하여 북위의 국력과 문화가 크게 발전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방 민족 고유의 소박상무(素朴尙武)의 기풍이 쇠퇴하고, 사치스럽고 문약(文弱)한 경향이 대두되었다. 534년 우문태는 고환의 전횡(專橫)을 증오하여 우문태에게 의지한 효무제(孝武帝)를 살해하고, 이듬해 문제(文帝)를 옹립하여 즉위하게 했다. 이를 계기로 북위는 서위(西魏)와 동위(東魏)로 분열되었는데, 동위는 550년 고환의 아들 양(洋)에게 빼앗겨 북제(北齊)가 되었으며, 서위는 556년 우문태의 아들 우문각(宇文覺)에게 빼앗겨 북주(北周)가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복위 왕조

● 다국어 표기 北魏, 拓跋魏, 後魏(중국어), Northern Wei(영어)

● 연관 검색어 선비

●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Jenner, W. J. F., *Memories of Loyang: Yang Hsuan-chih and the lost capital, (493~534)*. Oxford: Clarendon Press, 1981.

I C124 I 북정 서대사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사원
● 집필자 조성금 ● 라틴 문자 Besh-baliq

북정 서대사는 투르판(Turfan, 吐魯番, 高昌)을 중심으로 번영한 천산 위구르 왕국 시기의 여름철 수도였던 천산이북(天山以北)의 북정(北庭) 서쪽에 위치한 위구르 왕실의 불교 사원 유적지로서, 성의 서쪽에 위치하는 큰 절이라는 뜻으로 서대사라 불리는데, 건립 당시의 명칭은 알 수 없다.

북정은 투르크어로 베쉬발릭(Besh-baliq), 한자로 별실팔리(別失八里, 중국어 병음(bieshibali), 별석팔리(別石八里) 등으로 기록되며, 투르크어로 ‘오성(五城)’이란 뜻이다. 북정은 알타이산맥의 남쪽 그리고 투르판의 북쪽에 위치하며, 옛 성터는 지금의 행정 구역상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지무사르(吉木薩爾)현에 해당한다. ‘五城’과 ‘Besh-baliq’이란 명칭은 구당서(舊唐書)와 비가가한비(毗伽可汗碑)에 등장한다. 640년 당이 이곳에 정부금만현(庭州金滿縣)을 설치했고, 후에 북정 도호부(北庭都護府)로 바꾸어 관리했다. 700년경 토번(吐蕃)과 위구르가 이 지역을 두고 다툰 쟁탈전을 벌였으나, 9세기 초 천산 위구르 왕국의 영토가 되었다. 이후 840년 몽골 초원의 위구르 칸국이 멸망한 후, 한 지류의 위구르가 천산 동쪽의 고창(高昌, 투르판)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여 이곳 북정을 여름철 수도로 삼았다.

서대사는 ‘북정서사(北庭西寺)’, ‘북정불사(北庭佛寺)’, ‘북정 고창회골 불사(北庭高昌回鶻佛

寺) 등으로 불리고 있지만, 사원의 명칭에 관해서 문헌적인 근거는 없다.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1차(1979년 7월~10월)와 2차(1980년 7월~9월)에 걸쳐 발굴 조사했으며, 2009년에 3차 발굴을 마치고 서대사 전시관을 개관했다.

서대사는 남북 70.5m, 동서 43.8m 크기의 장방형 건축물로 남아 있는 잔존부의 높이가 14.5m이며, 구운 벽돌을 쌓아서 만든 상하 이층 구조의 인공 석굴 사원이다. 건물의 북쪽에 중심 정전(正殿)이 위치하며 동·북·서 방향으로 이층의 감실을 두었다. 각 감실의 크기는 대략 좌우 폭이 1.1m, 깊이가 2.3m로, 하층에는 세 방향으로 각 8개씩의 감실을 조성했으며, 상층에는 각 7개씩의 감실을 두어 모두 45개의 감실을 갖추고 있다. 훼손이 심하여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각 감실 내부에는 문을 제외한 세 벽면에 벽화가 그려져 있으며, 문을 마주한 벽 쪽에 한구의 불상을 조성했다. 두 차례에 걸친 발굴 및 복원 작업에 의해서 어느 정도 원래의 모습을 추측할 수는 있지만, 벽화 및 소조상의 훼손 정도가 매우 심하다.

서대사의 유기물을 채집하여 방사성탄소연대측정(C14)을 한 결과 상한 연대가 960년~1090년, 하한 연대가 1100년~1270년으로, 서대사의 건립부터 폐사되기까지의 최대 기간은 대략 960년~1270년이 된다. 즉 위의 측정 결과에 근거해서 서대사를 10세기 중반에서 13세기 후반인 송 초기부터 원 초기까지 건립 유지된 천산 위구르 왕국 왕실 관련 사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대사에 도해되어 있는 벽화의 종류는 위구르 왕과 왕비의 행렬도, 미륵상생경변상도, 법화경변상도, 천수관음도, 석가설법도, 불전도, 본생도, 나한도, 관음도 등 매우 다양한 도상이 도해되어 있다. 소조상의 경우 교각좌를 취한 미륵보살상, 사천왕상, 십육나한상, 열반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베쉬 발릭, 베쉬 발릭, 별실팔리

● 다국어 표기 北庭 西大寺(중국어), 别失八里(중국어), Beşbalık(튀르키예어), Beshbaliq(우즈베크어), Бешбалық(카자흐어), Bişbaliq(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薛宗正, 『北庭春秋』,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200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北庭高昌回鶻佛寺壁畫』, 瀋陽: 遼寧美術出版社, 1990.

조성금, 『실크로드의 대제국 천산 위구르왕국의 불교회화』, 진인진, 2019.

I C125 | 블라익크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기독교 ● 유형 소분류2 유적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Bulayïq

블라익크는 위구르어인 빌라유크(Bilayuq)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 유적은 중국 신장(Xinjiang)성 투르판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1905년 르 꼬끄(A. von Le Coq, 1860년~1930년)가 이끄는 탐사대의 2차 원정에 의해 발굴되었다. 이곳에서 발굴된 문서의 대부분은 9세기~10세기 작품이며, 기독교와 관련된 텍스트들이다. 이곳에서 발굴된 문서 중에 금욕주의와 신앙생활에 관한 텍스트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유적지는 과거 네스토리우스 교파 기독교 수도원이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원의 설립일과 폐쇄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으나, 적어도 13세기까지 운영되고 14세기 경에 폐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수도원은 당시 소그드인과 위구르인 지역 사회에 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수도원에는 동방교회의 중심 역할을 한 듯 상당량의 유적을 보유하고 있다. 발굴된 문서는 모두 소그드어, 고대 시리아어와 투르크어로 작성되었으며 시리아 문자와 소그드어 필기체 또는 위구르어 필기체를 사용했다. 또한, 팔라비 문자로 표기된 중세 페르시아어와 시리아 문자로 표기된 신 페르시아어로 된 시편 조각이 발견되기도 했다. 소그드어로 번역된 시편은 그리스어로 첫 줄이 적혀 있다.

중세 페르시아어와 시리아어가 함께 사용된 전례에 대한 문서를 통해 당시 네스토리우스 선교 활동의 중심지였던 메르브로부터 전도가 이루어졌고, 소그드어 텍스트가 상당량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선교 활동은 활발히 전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위구르어로 된 문서는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고 있다. 기도서와 동방 박사에 관한 이야기, 예언서, 성 조지 성인전, 결혼 축복과 경제와 관련된 문서 등이 있다. 성 조지 성인전은 기존의 고대 시리아어로는 그다지 선호되지 않은 장르이나, 이곳에서는 시리아어 소그드어, 위구르어로 작성된 것을 모두 볼 수 있다. 그러나 세 언어로 작성된 성인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다르다. 고대 시리아어로 된 전례에 관한 텍스트가 위구르 문자로 작성된 것은 이 인근 지역에서 고대 시리아어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불라이크 유적과 발굴 유물은 당시 위구르인과 소그드인이 갖고 있던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불라이크, 빌라유크, 불라이크
- 다국어 표기 Bīlayuq(위구르어), 葡萄沟(중국어)
- 연관 검색어 기독교, 위구르, 위구르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bulayq-town-in-eastern-turkestan>
- 참고문헌(오프라인) Hunter, Erica C D, “Syriac, Sogdian and Old Uyghur Manuscripts from Bulayīq.”, *The History behind the Languages. Essays of the Turfan Forum on Old Languages of the Silk Road* [語言背後的歷史—西域古典語言學高峰論壇論文集]. Shanghai: Shanghai guji chubanshe 上海古籍出版社, 2012, pp.79~93.

I C126 | 불란 토이름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Bulan-Toirom

몽골의 초기 투르크 무덤 유적인 불란 토이름 유적은 우므누거비(Өмнөговь) 아이막에 위치해 있다. 불란 토이름 유적에 있는 목관묘 유적은 찰레이노루나 완공(完工)에서 발견된 무덤과 유사한데, 머리가 넓고 발족이 좁은 형태이다. 유적에서 발견된 토기는 심발형 토기와 호형 토기로, 그간 선비족의 토기로 알려진 것과 유사하다. 유적의 고분에서 나온 목재를 탄소 연대측정한 결과는 1805±49B.P.이고, 대략 2세기~4세기대의 유적으로 추정된다. 불란 토이름 유적은 현재까지 발견된 몽골 유적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선비 문화를 보여준다. 흉노에 이어서 등장하는 선비는 1세기~5세기대에 역사에 등장하는데, 흉노와 선비가 함께 공존한 흉노-선비 시기는 1세기~3세기이고, 선비와 유연이 함께 공존한 선비-유연 시기는 4세기~5세기이다. 그런데 흉노의 주요 활동 공간인 몽골에서는 2세기~5세기 무렵의 유적이 발견되지 않아 몽골에서 선비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불란 토이름 유적의 발굴로 선비의 활동 영역에 몽골이 포함

되었음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불란 토이름
- 다국어 표기 Булан тойромын(몽골어)
- 연관 검색어 선비, 흉노, 유연
- 참고문헌(오프라인) Амартувшин Ч. Батзорит О., 2015), Булан тойромын булш, Археологийн судлал, XXXV, Улаанбаатар. 2015.
강인욱, 「유라시아 동부 초원지역 선비·유연 시기 고고학적 문화와 그 의의」, 『동북아역사논총』, 57권, 2017.

I C127 | 불란코바 문화

- 시기 B.C.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문화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Bulan-Koba culture

알타이에서 확인되는 초기 철기 시대 문화인 파지리크 문화와 흉노 문화가 전환되는 시기를 대체로 기원전 3세기~2세기로 본다. 이 시기는 투르크 문화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시기이다. 그중에서 불란코바 문화는 기원전 2세기~기원후 1세기에 해당되는데, 우스티 에디간(Усть-Эдиган, Ust-Edigan) 유적, 사리-벨(Сары-Бел, Sary-Bel) 유적, 첸덱(Чендек, Chandek) 유적, 알로만-II(Яломан-II, Yaloman-II) 유적 등이 대표적인 유적이다.

불란코바 문화의 유적들에서 무덤은 열상으로 배치되고, 무덤 구덩이 안에 석판으로 만들어진 석관묘가 무덤 구조물이다. 그러나 드물게 나무와 석제가 혼합된 것도 나타난다. 사자(死者)는 다리를 구부린 굴신장(屈身葬)으로 두향은 서쪽과 동쪽이 대부분이다. 말도 함께 매장되는데 사람과 말의 방향은 같다. 출토되는 유물 가운데 무기는 활과 화살, 검, 전투용 도끼, 갑옷 등이다. 활은 나무, 화살촉, 검, 전투용 도끼, 찰갑 등은 철제로 제작된 것이다. 갑옷은 비늘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알로만-II 유적의 두 곳에서 확인되었다. 무기류 이외에 벨트 장식 및 의복과 관련된 장신구도 많이 출토된다. 일상생활용품은 액체를 보관하는 토제품과 금속제 솥, 목

제 쟁반, 목제 빗 등은 파지리크 문화에서 보이던 유물과 거의 비슷하다. 이뿐만 아니라 파지리크 문화의 거울 및 중국 한경도 우스티 에디간 유적에서 확인된다. 파지리크 문화의 거울은 한 쪽에 손잡이가 달린 것이다. 알타이에서 확인된 불란코바 문화는 우스티 에디간 단계로서, 스키타이 문화의 전통이 이 시기까지 남아 있으며 흉노 문화의 물질 문화도 반영된다.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사르마티아 문화 영향도 받는다. 이러한 물질 문화의 변화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를 대변하는 것이다. 기원전 3세기 말(기원전 209년)에 흉노는 강력한 제국으로 등장하게 된다. 기원전 201년에 모둔 선우는 몽골 북부와 자바이칼 및 프리바이칼과 시베리아 남부를 포함해서 영역을 확장했다. 그 기간은 기원전 2세기 중반까지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이 우스티 에디간 단계에서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불란코브 문화

● 다국어 표기 Буланкобинская культур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스키타이

● 참고문헌(오프라인) Горбунов В.В., Тишкин А.А. Комплекс вооружения кочевников Горного Алтая хуннуской эпохи // Археология, этнография и антропология Евразии, 2006, № 4. С. 94~102, (авт. вклад — 0,4 п.л.).

Тишкин А.А., Горбунов В.В. Горный Алтай в хуннуское время: культурно-хронологический анализ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материалов // Россий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2006, № 3. С. 31~40, (авт. вклад — 0,7 п.л.).

I C128 | 불 신앙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자연물
● 집필자 양민지 ● 라틴 문자 Fire cult

많은 고대 문명에서 불이 숭배의 대상이었듯 투르크인들도 불을 신성시했다. 투르크인들은 불 그 자체를 신으로 여기지는 않았으나 천신이 내린 빛으로 여겨 이에 대해 외경심을 가졌다. 투르크인들의 조상은 오랫동안 철을 다루는 직업에 종사했으므로 철을 다루는 데 있어 불은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었다. 또한, 불을 다루는 기술을 이용해 철제 무기를 생산할 수 있었기



바쿠 인근에 있는 ‘불의 신전’(Surakhani, 아제르바이잔)

때문에 당시 유목 전사 사회에서 불을 다루는 기술이나 지식은 전투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대장장이는 신성한 불을 다루고, 그 결과물(철 혹은 무기)은 부족의 운명과 관련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신성한 직업으로 인식되었다. 즉, 불은 난방, 조리를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전쟁과 같은 부족의 생존과 관련되었으며 천신의 빛을 상징했으므로 신성한 존재였다.

투르크인들은 불을 신 그 자체를 숭배하지는 않았으나, 각 가정이나 난로(아궁이, 화덕)에 개별의 신령(수호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불을 관장하는 이 신령을 불 어머니(오트/오드 에네씨, ot/od enesi)라고 불렀고 여신으로 간주했으나, 성격은 불명하며, 집과 가정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고 믿었다. 난로(오작, ocak)는 요리를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보호하는 불 어머니가 깃들어 있는 대상물 중 하나였으므로 오작도 신성하게 여겼다. 따라서 투르크 문화권에서 집(에브, ev)이나 천막(오바/oba, 차드르/çadır, 유르트/yurt)이란 단어 대신 난로라는 단어(오작, ocak)는 가정을 대신하여 사용되기도 했다. 또한, 난로는 천막 가운데 놓았기 때문에 중심,

주권, 국가를 의미하기도 했다. 투르크는 불을 통해 신계와 인간계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샤먼(감 kam, 바흐쉬 bahsi, 오잔 ozan, 오윤 oyun, 우다간 udagan 등)들이 제의에 사용하기도 했다.

투르크 문화권에서 불은 불운, 악귀, 그릇된 것, 오염된 것 등을 정화할 힘과 치유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이슬람화 이전 투르크 부족 통치자들은 타 부족이나 외국에서 사절이 오면 두 개의 불 위를 뛰어넘고 나서 알현을 허락했다. 야쿠트 투르크·바쉬 쿠르트·카자흐 투르크 샤먼이 간질, 실신, 정신병 등을 병자 몸에 악령이 깃든 것으로 여겨 병자를 불을 통과시켜 치료하고자 한 것, 신년 명절인 네브루즈(예니쿰)에 불 위를 뛰어넘는 행위, 신부가 결혼 후 시댁에 들어올 때 불 위를 뛰어넘고 들어오는 것, 신부가 시댁에 들어와 난로(아궁이)에 음식을 헌사하는 것 등도 이와 같은 믿음에서 기인한 민속 행위들이라고 볼 수 있다.

투르크 문화권에서 불은 활활 타는 불꽃의 모양을 보고 부와 번성 의미하기도 했다. 투르크는 천신, 조상령 등과 소통하기 위해 통과 의례에서 뿐만이 아니라 즉위식, 전쟁 등과 같은 국가 행사를 앞두고 축복을 비는 제의를 드리며 불을 피우기도 했으며, 민족 명절에 밤낮으로 큰 불을 피워 놓고 이를 축하하기도 했다. 바하엠티 외겔(Bahaeddin Ögel)에 의하면, 알타이 투르크는 일반적으로 음식을 하거나 난방을 위해 피우는 불 이외에 희생 제의를 위한 고기를 요리하는 불이나 국가적 제의, 일반 의례 등과 같이 신성한 성격이 강한 불은 동쪽에 피웠다고 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투르크인들이 해가 뜨는 동쪽을 신성시 여겼고 동쪽이 모든 근본의 시작이자 천신을 모시기 위한 적합한 방향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대 투르크 신앙 가운데 하나인 불 신앙은 샤머니즘과 결합되어 알레비 벡타쉬(Alevi-Bektaşî), 요뤽(아나톨리아 유목민, Yörük), 투르크멘 부족에게 유지되어 이와 관련된 민속 행위가 이어져 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테쉬 쿨튀

● 다국어 표기 Ateş kültü(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bdülkadir İnan, *Tarihte ve Bugün Şamanizm Materyaller ve Araştırmalar*, TTK, 2006.

Bahaeddin Ögel, *Türk Mitolojisi II*, TTK, 2002.

Jean-Paul Roux, *Eski Türk Mitolojisi*, Bilgesu yay, 2011.

Ünver Günay, Harun Güngör, *Başlangıçtan Günümüze Türklerin Dini Tarihi*, Rağbet yay, 2007.

I C129 | 불의 며느리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희곡 ● 유형 소분류2 작품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Bride of Fire

「불의 며느리」는 20세기 저명한 아제르바이잔의 극작가인 재패르 잡바를르(Cəfər Cabbarlı)가 쓴 비극이다. 이 작품은 아제르바이잔 투르크 민족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작가는 이 작품을 1924년에 처음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 작품은 9세기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배경으로 아랍 침략자들에 대한 바베크 장군의 투쟁을 기린다. 이 작품은 1925년 중반에 완성됐지만, 작가는 3년 정도 보완과 수정작업을 거친 뒤 1928년에 극장에 올렸다. 출판했던 버전은 38장으로 구성됐으나 공연 버전은 18장으로 축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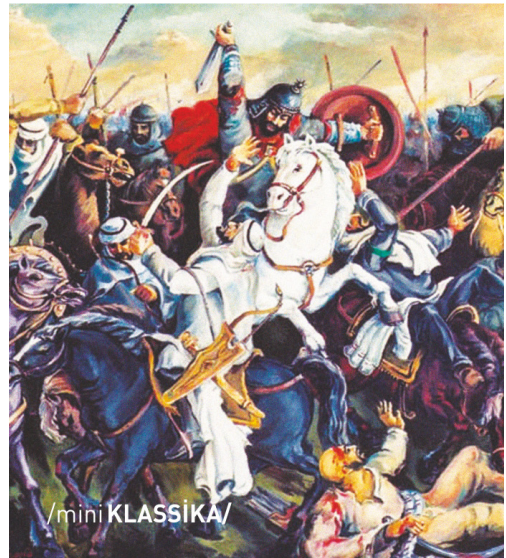
매함매드 애민 래술자대(Məhəmməd Əmin Rəsulzadə)는 『현대 아제르바이잔 문학(Çağdaş Azərbaycan ədəbiyyatı)』에서 다음과 같이 이 작품을 해석했다: “재패르 잡바를르는 이 작품을 체카(Çeka) 감옥에서 풀려난 후 썼다. 그는 국내외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무사바트(müsavatçılar) 멤버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 작품에서 그는 불을 숭배하는 아제르바이잔인들이 이슬람-아랍의 침략에 대항하는 투쟁에 대해 묘사한다. 이슬람-아랍은 아제르바이잔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석유를 국가 재산으로 선언해 모두 아랍으로 실어 갔으며 아제르바이잔인들에게 이슬람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다. 여기에 명백한 상징성이 있다. ‘아랍’과 ‘이슬람’ 대신에 ‘러시아’와 ‘공산주의’라는 말을 대입하면 모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Cəfər Cabbarlı

Dramaturq, şair, əməkdar incəsənət xadimi

Od gəlini

/ 21 şəkildə pyes /



「불의 며느리」 표지

Source: <https://static.insales-cdn.com/>

이 작품은 1928년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상연됐는데 당시 감독은 투가노브(A.A. Tuqanov)였다. 그 후에도 아제르바이잔의 여러 극장에서 상연됐다. 아제르바이잔 시인이자 극작가인 배흐티야르 와합자데(Bəxtiyar Vahabzadə)는 재패르 잡바를르(Cəfər Cabbarlı)의 「불의 며느리」에서 영감을 받아 희곡 작품인 「교수대(Dar ağacı)」를 저술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드 겔리니

● 다국어 표기 Od gelini(튀르키예어), Olovli kelin(우즈베크어), Невеста огня(러시아어), Bride of Fire(영어), Оттың қалыңдығы(카자흐어), Od gəlini(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재패르 잡바를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static.insales-cdn.com/images/products/1/5365/326022389/Cabbarli_Od_Gelini_qapaq_ESAS.png

● 참고문헌(오프라인) Cabbarlı Cəfər, *Od gəlini*, Bakı: Gənclik nəşriyyatı, 1971.

Cabbarlı Cəfər, *Seçilmiş əsərləri*, Bakı: Çəşioğlu nəşriyyatı, 2004, s. 270~327.

Rüstəmli Asif, Cabbarlı Cəfər, *Hayatı, sənəti və mücadelesi*, Ankara, Sistem yayınları, 2011.

I C130 | 뷔렌트 에제비트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정치인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Bülent Ecevit

뷔렌트 에제비트(1925년~2006년)은 튀르키예의 정치인, 시인, 작가, 학자 그리고 저널리스트였다. 그는 1974년부터 2002년까지 네 번에 걸쳐 수상에 재임했는데 1974년, 1977년, 1978년~1979년 그리고 1999년~2002년이였다. 그는 1972년부터 1980년까지 튀르키예의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창당한 공화인민당의 대표를 지냈고, 1989년에는 민주좌익당의 대표가 되었다. 1972년 이스메트 이뇌뉘에 이어 공화인민당의 대표가 된 그는 네즈메틴 에르바칸이 이끄는 민족구제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하여 수상이 되었다. 특히 그는 1974년 7월 키프로스 침공과 성공적인 작전 수행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키프로스의 정복자’라는 별명을 얻

기도 했다. 1980년 발생한 군부 쿠데타로 그는 정치적으로 구금되었고 1987년 해금과 더불어 정치 활동을 재개하여 민주좌익당의 대표가 되었다. 이후 그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모국당, 민족행동당과 구성한 연립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수상으로 재임했다.



뵐렌트 에제비트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뵐렌트 에제비트
- 다국어 표기 Bülent Ecevit(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fff/B%C3%BClent_Ecevit-Davos_2000_cropped.jpg
- https://en.wikipedia.org/wiki/B%C3%BClent_Ecevit
- 참고문헌(오프라인) Kinzer, Stephen, “Bülent Ecevit, a Political Survivor Who Turned Turkey Toward the West, Is Dead at 81”, The New York Times, p.2, Retrieved 6 November 2006.

I C131 | 브랑코비치 가문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세르비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가문
- 집필자 이영희 ● 라틴 문자 Branković family

브랑코비치 가문은 14세기 세르비아의 명문 귀족 가문이다. 브랑코비치 가문은 14세기 후반 부크 브랑코비치(Vuk Branković) 시기 세르비아 귀족의 대표가 되면서 가문이 성장한다. 하지만 1389년 코소보 전투에서 기독교 동맹국을 배신하고 오스만 제국에 항복했다는 불명예



브랑코비치 가문의 왕실 문양

를 얻게 되지만 1392년까지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 저항한다. 브랑코비치 가문은 오스만 제국의 가신이 되었으며, 부크 브랑코비치의 아들 주라지 브랑코비치(Djuradj)는 1402년 앙카라 전투에 참여하기도 한다.

오스만 제국은 세르비아를 속국으로 삼으면서 주라지 브랑코비치에게 세르비아 통치를 위임한다. 오스만 제국은 가신 관계를 유지하고자 주라지의 딸 마라(Mara, 오스만 제국 데스피네 하툰Despine Hatun)는 1435년 술탄 무라드 2세(Murad II, 재위: 1421년~1444년, 1446년~1451년)와 혼인했고, 주라지의 아

들 스테판(Stefan)은 오스만 제국의 볼모로 보낸다. 주라지가 1441년 오스만-헝가리 전쟁에서 헝가리를 지원하자 분노한 오스만 제국은 주라지의 아들 스테판과 구루그르(Grgur)의 눈을 지져 장님으로 만든다. 이후 주라지가 사망하자 아들 라자르(Lazar, 재위: 1456년~1458년), 스테판(Stefan, 재위: 1458년~1459년)이 세르비아 전제공이 된다. 이후 가문은 요반 브란코비치(1496년~1502년) 시기 대가 끊어지게 되었고 부랑코비치 가문은 모계로 계승된다.

가문의 일원으로 구루그르의 사생아인 부크 그루구레비치(Vuk Grgurević)는 1464년 헝가리 왕 마티아(Matthias)를 섬겼고 헝가리 남부의 영지와 칭호를 부여받기도 했다. 이들은 오스만-헝가리의 국경 분쟁에서 활약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브랑코비치 일가
- 다국어 표기 Branković ailes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코소보 전투, 무라드 1세
- 참고문헌(오프라인) Aleksandar Fotić, “Branković family”,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NewYork: Facts On File, 2009, pp.93~94.

I C132 | 비나야약사변상도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회화 ● 유형 소분류2 벽화
● 집필자 조성금 ● 라틴 문자 Vinayavastu

투르판의 베제클릭 석굴 벽화에는 위구르인들의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한 사례가 다수 있다. 그중에서 위구르인들의 신앙적 특징이 뚜렷이 표현된 주제가 있는데, ‘서원화(誓願畫)’ 혹은 ‘서원도(誓願圖)’라 불리는 도상의 그림이다.

19세기 말 중앙아시아 독일 탐험대의 르코크(Le Coq)와 그뤼네델(Grünwedel, Albert)이 이러한 도상을 보고 그리스도교에서 신자가 신에게 서원하는 모습(Pranidhi-Szene)과 유사하다고, ‘서원화’라고 부르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이 이 명칭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도상은 『비나야약사』(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藥事를 약칭하여 毘奈耶藥事라고 칭한다)를 도상학으로 하여 도해되었으므로, 『비나야약사변상도』라고 칭하는 것이 도상과 도상학의 관계에서 볼 때 맞는 명칭이다. 『비나야약사변상도』는 베제클릭 석굴 사원에서 위구르 시기인 9세기 말에서 13세기에 가장 유행했던 도상으로서, 각 굴의 크기와 그림을 도해할 수 있는 면적에 따라서 4장면~15장면으로 그려졌다.

화면의 구성은 직사각형의 화면 가장 윗부분에 그림의 내용에 해당하는 『비나야약사』의 계송(偈頌) 구절이 산스크리트어로 적혀 있다. 그리고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공간과 여러 보살들이 가장 자리에 그려져 있다. 화면의 가운데에 미래에 부처가 되고자 하는 주인공이 무릎을 꿇고 과거불(過去佛)을 향해 보시와 공양물을 올리며 다음 생에 부처로 태어나게 해달라는 서원(誓願)을 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과거불은 서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의미로 서원자에게 손을 내밀어 수기(授記)를 내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베제클릭 석굴 20굴에는 총 15개의 장면이 도해되어 있었으나, 제2차 세계 대전 중 베를린이 폭격을 당하면서 현재는 독일 탐험대의 보고서를 통해서 13개의 장면만이 확인 가능하다. 수기를 하는 그림의 주인공이 위구르 왕, 위구르 승려, 바라문, 소그드 상인, 수행자 등 다양하지만 주제는 동일하게 다음 생에 부처로 태어나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성불’(成佛)이다.

『비나야약사변상도』의 도해 목적이 ‘성불’이라는 점 이외에도 불화 속에 묘사된 공양자들의

사실적인 표현은 이미 현재의 생에서부터 부처의 세계에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베제클릭 석굴 20굴의 6번째 장면의 상단에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방제를 해석하면 “...상인이었던 나는 여섯 번째 과거불(六世佛)을 숭배하기 위하여 코끼리, 말, 황금, 보석, 여인, 진주 그리고 화원(花園)을 공양했다...”이며 이와 동일한 내용을 『비나야약사』의 계송 중에서 “...其寺供七佛 奉施珍寶具 及以奴婢等 莊宅花園林...”라는 구절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베제클릭 석굴 20굴의 6번째 장면뿐만 아니라 그림과 방제가 확인 가능한 총 13개의 장면과 방제도 『비나야약사』에서 찾을 수 있어, 미래의 부처가 과거불에게 서원을 하고 수기를 받는 장면을 도해한 이 장면들의 도상학적 근거는 『비나야약사』가 분명하다.

위구르인들만의 주제였던 『비나야약사변상도』는 투르판을 중심으로 한 천산 위구르 왕국 뿐만 아니라, 감숙 위구르 왕국의 영역이었던 둔황 막고굴에서도 현존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비나야약사변상도』는 위구르 불교 회화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도상이며, 위구르인들의 강한 상불(成佛) 의지를 표현한 작품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비나야약사 변상도

● 다국어 표기 Vinayavastu(산스크리트어),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藥事 變相圖(중국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lbert. von Le coq, Chotscho, Facsimile-Wiedergarden der wichtigeren Funde der Ersten Köglich Preussischen Expedition nach Turfan in Ost-Tutkistan, Berlin, 1913.

村上眞完, 『西域の佛教』, 第三文明社.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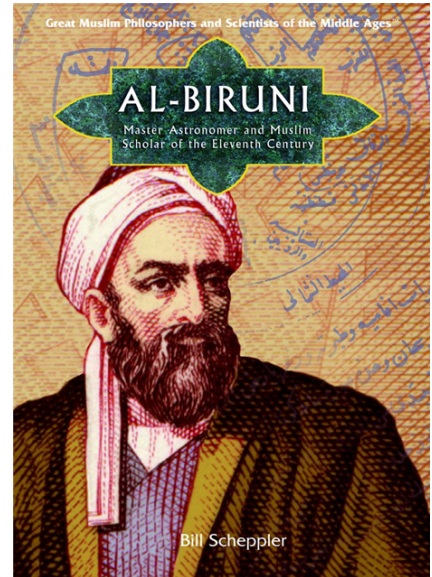
조성금, 『실�크로드의 대제국 천산 위구르왕국의 불교회화』, 진인진, 2019.

I C133 | 비루니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Al-Biruni

아부 라이한 알 비루니(Abū al-Rayhān Muḥammad ibn Aḥmad al-Bīrūnī: 973년~1048년)은 아랍의 과학자이며 역사가이다. 페르시아계의 아랍인으로 철학·물리학·수학·천문학·의학·역사학 등 여러 학문에서 이름을 떨쳤다. 그는 중세 이슬람 시대의 가장 위대한 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수학, 천문학, 물리학, 자연과학에 능통했고, 그 자신을 역사학자, 연대학자, 언어학자로 구별하기도 했다. 그는 973년 호라즘의 수도였던 카스(Kath)의 변두리 지역에서 태어났다. 25세의 나이까지 고향에 머무르며 이슬람 법학·신학·문법·수학·천문학·약학 공부에 심취했다. 997년에는 부하라에 살던 이븐 시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에 대해 서신을 주고 받은 기록이 전해진다. 약 1000년경에 『고대 제민족의 연대기』를 썼으며 마문 왕조의 고문을 지냈다.

1017년 가즈나 조의 술탄 마흐무드가 내침했을 때 왕조의 수도 가즈나에 포로로 잡혀왔다. 이후 궁정 천문학자로 활동했으며, 같은 해 마흐무드의 인도 원정길을 동행했다. 그곳에서 비루니는 지역 주민들에게 그리스어를 가르쳤으며 그 대가로 산스크리트어와 아랍어를 배웠다. 그는 12년 동안 힌두교의 철학 체계와 현지 풍습 및 종교 생활을 관찰한 후 『인도의 책(1030)』을 집필했다. 1018년 지금의 이슬라마바드 근처 난다나(Nandana) 요새에서 지구의 반지름과 원주를 측정하는 공로를 세워 ‘측지학의 아버지’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또한, 지구가 둥글다는 하나의 증거로 월식 동안 달에 비친 지구의 둥근 그림자를 예로 들었다. 그는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파탄잘리 요가(Patanjali Yoga)』를 아랍어로 번역했다.



『비루니 평전』 표지
Source: <https://www.amazon.com/>

그는 지질학과 더불어 지구과학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는 옛날 여러 민족의 달력과 연대를 연구한 『먼 옛날로부터 남아 있는 것의 뒤(ani'lgurūá I-Khāliya)』를 썼으며, 가즈나 조 때에는 점성관(占星官)으로 일했다. 그는 인도의 원정군에 들어가 인도 말을 연구하고 『인도연대기(印度年代記/Ta'rikhu'l Hind)』를 지었는데 이 책은 인도 문화 전체를 연구한 책으로 그 가치가 높다. 그는 지구의 경도와 위도를 재는 법도 발표했다.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는 그의 이름을 딴 알 비루니 동양학연구소(Abu Rayhan al-Biruni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가 있는데 이곳에는 필사본과 문헌 컬렉션이 소장되어 있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 컬렉션은 9세기에 제작된 쿠팍체 코란부터 20세기 초의 문헌까지 무려 1천 년이 넘는 기간의 문헌과 기록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울러 그 문헌들은 아랍어, 페르시아어, 우즈베크어, 위구르어 등 다양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다루는 주제도 역사, 문학, 철학, 종교, 법학, 수학, 천문학, 물리학, 화학, 의학, 약리학, 지리학, 음악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알 비루니 동양학연구소에는 그가 쓴 천문학에 관한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라이한 알 비루니, 베루니
- 다국어 표기 البيروني(페르시아어), البيروني(아랍어), Al-Biruni(영어)
- 연관 검색어 부하라, 가즈나 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우즈베크어, 위구르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muslimheritage.com/wp-content/uploads/2018/08/albiruni08-768x541.jpg>
<https://www.youtube.com/watch?v=-9EP1mAhcnA>
- 참고문헌(오프라인) Abulfadl naba'i, *Calendar-making in the History*, Astan Ghods Razavi Publishing Co. 1986.
Ataman, Kemal, *Understanding Other Religions: Al-Biruni's and Gadamer's "fusion of Horizons"*, The Council for Research in Values and Philosophy, 2008.
Glick, Thomas F.; Livesey, Steven John; Wallis, Faith, *Medieval 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 An Encyclopedia*, Routledge. 2005.
Rashed, Roshdi; Morelon, Régis, *Encyclopedia of the History of Arabic Science*, 1 & 3, Routledge, 1996.

I C134 | 비마리스탄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종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Bimaristan

환자라는 의미의 페르시아어 ‘비마르(Bimar)’와 장소를 의미하는 페르시아어 접미사 ‘이스탄(-istan)’이 결합한 단어인 비마리스탄은 간단히 말해 병원을 의미한다.

이슬람권에서 비마리스탄은 무함마드 시대의 의사 하리스 이븐 칼라다(Al-Harith ibn Kalada, ?~634년)가 의학을 연구했던 페르시아의 군데샤푸르(Gundeshapur)의 병원을 ‘비마리스탄’이라고 부르며 시작되었다. 이후 이슬람 세계에서는 비마리스탄이 꾸준히 건설되었다.

중앙아시아의 무슬림들은 비마리스탄 대신에 다뤘메르자(dârülmerza: 아픈 자들의 집)라고 불렀으며, 셀주크인들은 다뤘라피예(dârülâfiye: 건강의 집) 혹은 다뤘쉬파(dârüşşifâ: 치료의 집)라고 불렀고, 오스만 조에서는 다뤘스하(dârüssıhha: 건강의 집), 쉬파하네(şifâhâne: 치료의 집), 비마르하네(bîmârhâne: 환자의 집), 트마르하네(tmarhane: 치료의 집)라고 불렀다.

카라한 칸국의 통치자였던 탐가츠 부오라 한(Tamgaç Buğra Han, 재위: 1052년~1068년)이 1065년 사마르칸트에 비마리스탄을 건설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가즈나 조에서도 비마리스탄은 건설되었다. 이븐 툴룬 조의 이집트에서도 이븐 툴룬(Ahmad ibn Tulun, 재위: 868년~884년)의 이름으로 비마리스탄이 건설되었다. 심지어 이븐 툴룬의 경우 매주 금요일마다 비마리스탄을 방문하여 의사와 환자 및 시설 등을 살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시대의 비마리스탄은 현재까지 남아 있지 않고 기록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셀주크 시대의 첫 비마리스탄은 알프 아르슬란(Alp Arslan, 재위: 1063년~1072년)의 재상이었던 니잠 알 물크(Nizam al-Mulk, 1018년~1092년)에 의해 니샤푸르에 건설되었다. 그러나 니샤푸르의 비마리스탄도 기록으로만 남아 있다.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는 셀주크 시대의 비마리스탄으로는 다마스쿠스의 누르 알 딘 비마리스탄(Nur al-Din Bimaristan, 1154년 건설), 카이세리(Kayseri)의 게브헤르 네시베 다뤘쉬파(Gevher Nesibe Dârüşşifâ), 디브리(Divriği)의 투란 멜리크(Turan Melik, 1228년 건설), 토카트(Tokat)의 페르반네 베이 다뤘쉬파스(Pervâne Bey Dârüşşifâsı., 1275년 건설) 등이 있다.



Al-muayyad 비마리스탄 외관(카이로, 이집트)

셀주크 시대의 비마리스탄 건축은 일반적으로 네 개의 이완이 있는 형태를 기본으로 십자가 형태를 취하며, 천장은 돔으로 덮여 있다. 장식으로는 12종류의 동물이 있는 달력에서 따온 동물 문양과 해와 달 문양 등을 주로 사용하여 중앙아시아의 영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십자가 형태의 건물 배치는 중앙아시아 가옥 건축에서 흔히 발견되는 형태로 그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셀주크 시대의 비마리스탄은 크게 네 종류로 나뉜다. 첫 번째는 일종의 이동식 병원으로 탈 짐승에 의료인과 의료기구 및 환자를 실어 나르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대상 숙소에 있는 비마리스탄, 세 번째는 궁전 내에 있는 비마리스탄, 마지막으로 일반인을 치료하는 동시에 의과 교육을 병행하는 병원이다.

티무르 조에서도 지속적으로 비마리스탄을 건설했으며 특히 사마르칸트에서는 궁전과 함께 건설했다. 백양 조에서도 우준 하산(Uzun Hasan, 재위: 1453년~1471년)의 뒤를 이었던 야쿱

(Yâkub, 재위: 1478년~1490년)은 궁전 옆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비마리스탄을 건설했다. 사피비 조에서는 마드라사와 함께 비마리스탄이 건설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기록 이외에는 전해져 내려오는 건축물은 없다. 인도 델리 조에서도 대형 비마리스탄이 건설되었으나 보존된 것은 없다.

오스만 제국에서 비마리스탄은 독립적이기보다는 대체로 여러 기능의 건물이 모여 있는 복합단지인 쿨리이에(külliye) 내에 건설되었다. 오스만 제국 이스탄불 최초의 비마리스탄은 술탄 메흐메드 2세(II. Mehmed, 재위: 1444년~1446년, 1451년~1481년)에 의해 1470년 파티히 쿨리이에시(Fatih külliyesi) 내에 설치되었다. 오스만 조의 건축가 미마르 시난(Mimar Sinan, 1488/1490년~1588년)도 여러 비마리스탄을 건설했다. 쿨리이에 내에 있는 비마리스탄은 과거 셸주크 조의 이완이 있는 건축 형태에서 벗어나 돔으로 덮인 중앙 중정형으로, 중정을 둘러싼 방이 병실로 사용되었던 형태였다. 특히 위험한 환자의 격리와 환기 및 음악 치료실 등이 배려된 디자인이 특징적이다. 고전적인 오스만 비마리스탄 양식은 17세기 부다페스트나 크림리아 반도와 셸라낙과 같은 유럽 지역에까지 퍼지게 되었다. 19세기 오스만 제국에서는 서구식 병원과 교육 기관이 건설되기 시작되면서 비마리스탄 대신 서구식 병원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유럽 르네상스 의학과 병원 발전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던 비마리스탄은 이슬람 세계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개념이나, 특히 투르크계 왕조에서 건설된 비마리스탄은 아직까지 보존되어 전해져 내려와 의학사 발전 연구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비마르스탄, 시파하네

● 다국어 표기 şifahane(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Terzioğlu, Arslan, “Bîmâristan”,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6, İstanbul: TDV, 1992, pp.163~178.

Terzioğlu, Arslan, “Ortaçağ İslâm-Türk Hastaneleri ve Avrupa’ya Tesirleri”, *TTK Bülteni*, XXXIV/133, Ankara, 1970, pp.121~170.

I C135 | 비비-무시킬쿠쇼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타지키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신화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Bibi-mushkilkusho

비비-무시킬쿠쇼는 타지크와 우즈베크 신화에서 불행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여신이다. 비비(bibi)는 고대 페르시아어로 ‘아주머니’, ‘부인’을 의미하며, ‘무시킬mushkil’은 힌두-우르두어로 ‘어려움’을 의미한다. 비비-무시킬쿠쇼는 ‘고난을 해결하는 여신’이라는 의미이다. 비비-무시킬쿠쇼는 비비-세산비(Биби-сешанби) 전설과 매우 유사해서 그 기원이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어떤 가난한 노인이 땀감을 모으다가 낮을 잃어버렸고 그것을 찾는 과정에서 비비-무시킬쿠쇼가 사는 동굴에 들어가게 된다. 비비-무시쿨쿠쇼는 만일 수요일마다 자신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면, 노인이 낮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심지어 그 낮으로는 보통 낮보다 더 많은 땀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어느 날 수요일 제사를 한 번 잊어버리자 노인은 다시 가난해졌고, 다시 제사를 지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이슬람화가 된 후에 비비-무시킬쿠쇼는 유명한 부하라의 수피 사제 바하 알딘 낙쉬반드(Baha' al-Din Naqshband)의 친척 아주머니로 여겨졌다.

비비-무시킬쿠쇼와 유사한 비비-세산비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신이자 물레와 직조의 수호신이다. 세산비는 고대 페르시아 방언으로 ‘화요일’이란 의미이다. 그래서 비비-세산비는 ‘화요일의 부인’이란 뜻이며 화요일에 제사를 지냈음을 암시한다. 서유럽의 신데렐라 이야기와 비슷한 자애로운 노파(비비-세산비)가 가난한 소녀를 도와준다는 전설이 있다. 비비-세산비 전설은 여성만 참여하는 모임에서, 특히 결혼식 직후의 모임에서 낭송되곤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비비-무쉬킬쿠소
- 다국어 표기 Биби-мушкилькушо(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부하라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окарев, С.А.,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I, 1991, 171.

I C136 | 비비 주드무러트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Bibi Zudmurod

부하라 북부에 위치한 비비 주드무러트(Bibi Zudmurod)라는 여성의 영묘는 12세기경 모스크 부지였다. 이 모스크 내에는 유약을 바른 청록색 타일이 있는 벽돌로 된 미흐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에 이 모스크가 폐허가 되었으나 14세기~15세기에 재건되었고, 16세기~17세기에 이르러 다시 폐허가 된 후 영묘만 남았다.

비비 주드무러트 영묘에는 오직 여성만이 입장할 수 있다.

여성 참배객은 불임과 질병이 치유되고,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길 기원한다. 이와 함께 죄를 짓지 않았는데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보호받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신혼부부의 경우에 신부는 이 영묘에 방문하여 마당을 쓸고, 초를 켜고, 곡식을 뿌리는 등의 신행을 한다. 이것은 알라를 기쁘게 하며, 이에 의해 성인의 가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요일과 목요일에는 과자를 가져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기도 한다. 이 영묘를 일곱 번 방문하면 기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이슬람 이전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일부 수피즘의 영향을 받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비비 주드무러드 영묘

● 다국어 표기 Bibi Zudmurod(우즈베크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rr.kr/ev3K>

● 참고문헌(오프라인) Malikov, Azim, "Islam: Saints and Sacred Geographies-Central Asia", *Encyclopedia of women & Islamic cultures VOLUME V*(ed. Suad Joseph), Leiden: Brill, 2007, pp.223~224.

I C137 | 비비 허눔 모스크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Bibi-Xonum Mosque

비비-허눔 모스크는 티무르(Timur, 1370년~1405년) 치세 말년, 그가 건설에 흥미를 느끼며 사마르칸트에 다수의 대형 건축물 축조를 명령하는 과정에서 건설된 모스크이다. 비비-허눔 모스크의 이름은 티무르의 아내 사라이 물크 허눔(Saray Mulk Khanum, 1370년~1405년)을 백성들 사이에서 불리던 별명에서 따오게 된다. 사라이 물크 허눔은 차가타이 칸국의 카잔 칸 이븐 야사우르(Qazan Khan ibn Yasaur, 재위: 1343년~1346년)의 딸이다. 이 모스크의 건설은 1399년에 시작하여 1404년에 대부분 완료했으나, 티무르의 사망(1405년) 이후 건설이 중단되었다. 건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훼손되기 시작한 본 모스크는 지진과 다른 자연 조건으로 인하



비비 허눔 모스크 전경

여 파손되었으나 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물은 복원되지 못한 채 대부분이 훼손되었으나 거대한 건물의 아치나 돔, 이완, 장식과 같은 건축적 요소는 그대로 남았다. 1974년 대대적인 수리를 거쳤으나 원형의 모습을 대부분 상실했다.

본래 비비-허눔 모스크는 복합단지로 설계되었는데, 건설의 목적은 티무르의 인도 원정(1398년~1399년)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기록에 의하면 1399년 5월 티무르는 건설할 장소를 지정하며 건설을 명했고, 1400년~1404년 오스만과 맘루크와의 전쟁 기간에는 아내인 사라이 멜리크 허눔이 감독했다고 한다. 1404년 원정에서 돌아온 티무르는 아내가 감독했던 건설 작업을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 입구를 비롯하여 일부분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건설했다고 한다. 새로 건설한 입구는 이전보다 더 넓고 높았다고 전해진다.

외부의 크기는 167mx109m이며 네 개의 이완과 아케이드로 둘러싸인 내원의 크기는 87mx63m이다. 중정의 남쪽과 북쪽 이완 측면에 배치된 3층의 리왁이 있다. 건물 각 모서리에 배치된 미너렛은 망루 형태이다.

입구가 있는 전면은 두 개의 첨탑이 돌출된 피슈타크(Pishtaq)로 되어 있다. 중정을 가로질러 기도실이 있는 이완은 30m 높이의 피슈타크로 장식되어 있고, 이것도 두 개의 첨탑이 측면에서 돌출되어 있다. 돔이 덮인 기도실은 정사각형이고 각 벽은 아치형 벽감으로 장식되어 있다. 북쪽과 남쪽 면은 리왁으로 이어지고 서쪽 면에 미흐랍이 있다. 북쪽과 남쪽의 돔이 있는 방도 동일한 형태의 피슈타크로 되어 있으나 전면부와 기도실의 피슈타크보다 작다. 주재료는 벽돌



비비 허눔 모스크 측면



비비 허눔 모스크의 모자이크 문양

이나 건물 옆 홀 기둥의 경우 석재를 사용했다. 장식은 벽돌을 배치한 후 타일을 모자이크 기법을 이용하여 구현했다.

비비 허눔 모스크는 사마르칸트에 남은 대형 모스크 중의 하나인데, 14세기 무렵 당대의 가장 큰 모스크였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비비 허눔 모스크, 비비 허눔 모스크, 비비 허눔 마치티
- 다국어 표기 Bibi-Khanum machiti(우즈베크어), Bibi Hanım Camii(튀르키예어), Bibixanım məscidi(아제르바이잔어), Биби Ханым мешіті(카자흐어)
- 멀티미디어 링크 비비 허눔 모스크_정면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a/ab/SamarkandBibiKhanym.jpg/800px-SamarkandBibiKhanym.jpg>
 비비 허눔 모스크_복구 이전

<https://zrr.kr/q3ri>

● 참고문헌(온라인) <http://archnet.org/sites/2464>

● 참고문헌(오프라인) Beksaç, Engin, “Bibi Hanım Camii”, *TDV İslâm Ansiklopedisi* 6.Cilt, İstanbul: TDV, pp.125~126.

I C138 | 비비헤이벳 모스크

● 시기 A.D.10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Bibiheybət Mosque

비비헤이벳 모스크(Bibiheybət məscidi)는 압바스 칼리프의 박해를 피해 바쿠로 도망친 시아파 7대 이맘 무사 알 카짐(Musa al-Kazim, 745년~799년)의 딸 우케이마 하눔(Ukeyma Khanum)의 무덤 위에 13세기에 건설되었다. 사파비 조가 이 모스크에 꾸준한 관심을 가졌던 기록으로 보아, 수피 종단의 중요한 장소 중 하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모스크는 1936년 볼셰비키의 종교 탄압 정책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었다. 현재의 비비헤이벳 모스크는 1980년 복원을 시작하여 1997년에 완성한 것이다. 복원은 19세기 말~20세기 초의 기록문, 여행기, 사진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비비헤이벳 모스크는 13세기에 건설되었으나, 20세기 파괴 직전까지 6번의 증축이 있었다. 재건 이전의 가장 오래된 부분은 무덤의 남쪽에 있는 입방체의 건물이었다. 이 건물의 건축가는 마흐무트 이븐 새트(Mahmud ibn Səd)이다. 이 건물에는 남쪽 입구를 향하는 회랑이 있었고, 서쪽으로 약 20m 높이의 미너렛이 있었다. 미너렛의 윗부분은 무카르나스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골이 파인 돔으로 최상단부를 마무리했다. 모스크 남쪽 벽에 있던 입구는 회랑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모스크의 벽면에는 구바 칸국의 칸 구발르 패탈리 칸(Qubalı Fətəli xan, 재위 1758년~1789년)의 이름이 새겨진 두 개의 벽감이 있었다. 20세기 초에 무덤 북쪽에 건물이 증축되었으며, 무덤과 구건물도 재건되었다. 새 건물과 영묘는 정육면체였으며, 회랑 정면에는 4개의 아치가 있다. 갤러리 측면의 문을 통해 건물로 들어갈 수 있다. 영묘 천장은 네 개의 궁륭(穹窿)으로 되어 있다. 우케이마 하눔의 무덤은 서쪽 궁륭 아래에 있었다. 궁륭은 파란색 타일



비비헤이벳 모스크

Source: <https://commons.wikimedia.org/>

로 장식되어 있었다. 내부에는 이맘 리자(Imam Riza)가 쉬던 호라산의 대 모스크를 묘사한 그림이 걸려 있었다. 돔 중앙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있었다. 무덤 내부 전체가 스테인드글라스 창이 있었다. 모스크 맞은 편에는 세정의례를 위한 수조가 있었다. 무덤방에서 새 모스크까지 5개의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새로운 재건된 모스크는 고전적인 쉬르반샤 건축 양식을 토대로 건설했다. 남성용 예배당은 남쪽, 여성용 예배당은 북쪽에 건설했고, 그 사이에 영묘를 배치했다. 석회암 종류의 현지 재료가 주로 사용되었다. 전면부에는 오지 아치형의 창문으로 장식되었다. 서체 장식에서는 술루스 서체, 쿠픽 서체, 디반 서체 등 다양한 서체가 사용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비비헤이벳 매스지드, 비비 헤이베트 모스크, 비비 헤이벳 모스크

- **다국어 표기** Bibiheybat məscidi(아제르바이잔어), Bibiheybet Camii(튀르키예어), Bibihaybat masjidi(우즈베크어), Bibi Heybet Mosque(영어)
- **멀티미디어 링크** 비비헤이벳 모스크(과거)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1/1b/Bibi_Eybat_Mosque.jpg/1024px-Bibi_Eybat_Mosque.jpg
 비비헤이벳 모스크(현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5/5a/Bibi_Heybat_Baku2.jpg/1024px-Bibi_Heybat_Baku2.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archnet.org/sites/7037>
- **참고문헌(오프라인)** Mehdiyev, Azim. “The Ancient Mosques of Baku”, *Journal of the Modern Islamic Studies: scientific journal*, Vol. 1 No. 1, 2019, 11~18.
 НУРУЗАДЕ, Шахла, “Биби-Эйбат. Здесь возносятся молитвы, здесь обретают исцеление”, *IRS No.6(30)*, 2007, 33~36.

Ⅰ C139 Ⅰ 비수라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악령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Bisura

비수라는 ‘원숭이’를 뜻하는 고대 투르크어의 비친(bičin)에서 유래한 단어로 바시키르, 카잔-타타르 신화에서 키가 작고 넓은 모자를 쓰고 붉은 옷을 입은 여성의 형상을 한 나쁜 정령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키키모라와 비슷하다. 비수라가 집에서 머무는 곳은 난로의 앞 부분인 켈덱세(кәлдәксә)이다.

미신에 따르면 비수라는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기술들을 주기도 하는데, 여인이 바느질이나 베틀 작업에서 뛰어날 기술을 선보이면 ‘비수라의 영혼이 깃들었다’라고 표현한다.

타타르 민담에서는 비수라를 비추라(бичура)라고 부른다. 타타르 민담에서 비추라는 붉은 옷을 입은 인간 형상인데, 러시아의 도모보이와 유사하다. 타타르 민담에서 비추라는 마루나 목욕탕 지하에 거주하는데 모든 집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집에서는 비추라를 위한 방을 마련하고 음식 접시와 숟가락 몇 개를 준비해 두는데 이는 비추라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를 기원하는 행위이다. 물건이 없어지면 비추라가 가져갔다고 의심하는 타타르 미신도 있다. 비추라는 연통을 막거나 물건을 감추고, 소란을 피우거나 잠자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등 집에서 장난을 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돈을 가져다주거나 부를 쌓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타타르 민족의 일부는 비추라를 노란 머리 정령과 동일시하거나 잔치에서의 나쁜 정령으로 보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비추라

● 다국어 표기 бисура(바시키르어), бичура(타타르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ОКАРЕВ(ред.)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2008.

I C140 | 비슈케크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키르기스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Bishkek

비슈케크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이다. 비슈케크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다섯’을 의미하는 ‘bish’와 도시를 의미하는 ‘kek’의 합성어로 ‘다섯 도시’라는 뜻이다. 15세기부터 19세기 처음에 키르기스인이 당시 피슈페크(러시아어 : Пишпек)로 불리고 있던 이 땅에 진출했다.

1825년 코칸드 칸국(汗國)이 비슈케크에 요새를 건설했다. 1845년부터 러시아 제국의 침공이 시작되었고, 1860년에는 러시아 제국이 잠시 피슈페크를 점령했지만, 부대 철수 뒤에는 코칸드 칸국이 탈환했다. 1862년에 러시아 제국이 피슈페크를 다시 점령했고, 다음 해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 제국에 편입되었다. 1878년 피슈페크는 시로 승격되었다. 소비에트연방은 군인 겸 혁명가인 미하일 프룬제를 기념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의 이름을 프룬제(러시아어 : Фрунзе, 영어 : Frunze)로 바꾸었다. 1991년에 소련으로부터 키르기스스탄이 독립하면서 비슈케크(Bishkek)로 개명되었다.



Erkindik 동상과 비슈케크 전경

피슈페크의 인구는 2019년 기준 1,012,500명이다. 키르기스 산맥의 북쪽 기슭, 추강(江)의 넓은 골짜기 위에 위치한다. 시의 기원은 19세기 전반 코칸드 칸국의 군대가 건설한 성채에서 비롯한다. 처음에는 한촌(寒村)에 불과했으나 1892년 러시아군이 점령, 교역이 활발한 지방 도시가 되었다. 그 후 1924년 철도가 부설되면서 급속히 발전했다. 1926년 키르기스스탄 자치공화국이 창립되자 그 수도가 되었다. 현재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생산되는 공업 생산품의 대부분을 피슈페크에서 생산하며, 농업 기계, 건설 자재, 직물, 의복 이외에 식육콤비나트 및 양조공장이 있다. 종합대학, 기술, 농업, 교육 등의 문화 시설이 있다. 시가지는 중세 이슬람풍(風)의 구시가와 러시아 식민지 시대의 신시가로 나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비쉬케크
- 다국어 표기 Bishkek(영어), Бишкék(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코칸드 칸국, 키르기스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en.wikipedia.org/wiki/Bishkek>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9577&cid=40942&categoryId=34066>

●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최한우, 『중앙아시아학 입문』, 도서출판 펴내기, 1997.

The Spektator (archive), society, culture, and travel articles on Kyrgyzstan and Bishkek city guide.

I C141 | 비시렐틴 암 유적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Bishreliin am

비시렐틴 암 유적은 울란바토르 날라이흐 구와 투브 아이막 에르데네솜의 경계에 있는 비시렐틴 고개의 동북쪽 작은 언덕 남사면에 위치한다. 주민들은 이 지역을 비시렐틴 암이라고 부른다. 이곳의 지형은 북과 서쪽에 나지막한 언덕이 이어지고, 동남쪽에는 계곡의 입구가 있는데, 양지이고, 동남쪽으로 작은 개울이 흐른다. 이러한 지형은 산의 남사면에 들어간 분지, 하늘이 잘 보이는 곳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에 사망한 사람을 매장하는 몽골인의 특징과도 유사하다. 비시렐틴 암 유적은 고리모양의 적석이 있는 무덤 29기가 발견되었는데, 지점에 따라서 4구역으로 나뉘어져서 분포되어 있다. 제1구역은 2기, 제2구역은 15기, 제3구역은 6기, 제4구역은 6기가 각각 분포되어 있다.

무덤의 내부에는 목판으로 목관을 만들었으며, 구덩이는 흙과 돌로 채우고 그 상부에는 고리모양으로 돌을 둘러쳤다. 비시렐틴 암 유적은 높은 산의 동쪽에 있는 작은 언덕 남쪽 사면에 위치하는 흉노 무덤의 입지와 일치한다. 현재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둥근 고리 모양의 외형을 한 무덤은 대부분 모두 산의 남쪽면에 위치한다는 규칙과 일치한다. 그런데 무덤의 수가 많은 유적은 편평한 고지대 혹은 언덕 위에 위치하는데, 이러한 유적은 호드긴 툭고이, 타미린 울란 호쇼, 솔비 올, 보르한 툭고이, 누흐틴 암 유적이 대표적이다. 유적이 위치한 툭 골 분지는 고르반

골 유역의 분지이고, 물과 초지 상태가 좋은 곳이다. 이곳에는 흉노 유적 4곳이 알려졌고 일부만 조사되었다. 톨 골 분지에서 일반 계급의 무덤 조사가 실시되면서 흉노 무덤의 입지 연구가 좀 더 분명해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비시렐티인 암
- 다국어 표기 Bishreltiin am(몽골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Ч.Ванчигдаш нар,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 орчмын нутаг дахь археологийн дурсгалын хайгуулын ажлын тайлан. // ШУТИС-ийн БУХС-ийн археологийн лаборатори. - УБ., 2013.
국립문화재연구소, 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흉노, 제국의 미술』, 2020.

Ⅰ C142 | 비즈리 무덤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Bizili Tomb

비즈리 유적은 호탄 지구(和田地區) 뤼포현(洛浦縣) 산푸라향(山普拉鄉) 비즈리촌(比孜里村) 남동쪽에 위치하는 대규모 무덤이다. 대지의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남북 방향으로 길게 늘어져서 분포하고 있고, 길이는 6km, 너비는 약 1km이다. 이곳은 동남쪽이 높고 서북쪽은 낮다. 지리 환경을 보면 자갈과 모래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식생 환경이 열악하다. 그래서인지 대다수의 무덤은 지표상에 어떤 표식도 남아 있지 않은데, 이 시기의 다른 유적과는 차이가 있다. 원래는 봉토가 있던 무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도굴된 채 발굴되었다.

무덤은 수혈토광묘이고 유무에 따라서 토광묘와 목관묘로 나뉜다. 무덤 구덩이를 도전(刀錢) 형태와 장방형 형태로 굴착한 것으로 구분된다. 장방형으로 판 것은 목관의 형태가 상자식인지 단독식인지에 따라서 그 형태가 구분된다. 가장 많은 것은 단독 목관묘이다. 무덤에 따라서 출토된 유물에 차이가 있고, 무덤의 연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예를 들면 도형 토광묘의 무덤

내부에서는 홍도와 흑의도 등이 다량 출토되었는데, 주변에서 출토된 유물과 비교해 볼 때 기원전 2세기~기원후 1세기 유물로 추정된다. 상자식 목곽묘는 민평현 니야 무덤 뤼포현 산푸라 유적에서도 발견되었다. 이곳에서는 평저관, 원저관, 쌍이관, 단이관 등 윤제토기(輪製土器)가 다량 부장되었다. 이들 유물은 2세기 말~3세기 초로 추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유적은 한대 호탄 지역에서 실크로드가 조성될 때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비즈리묘지
- 다국어 표기 比孜里墓地(중국어)
- 연관 검색어 호탄, 실크로드
- 참고문헌(오프라인) 胡興軍·阿里甫, 「新疆洛浦縣比孜里墓地考古新收獲」, 『西域研究』1期, 新疆社會科學院, 2017.

I C143 | 비직티그 카야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산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Bizhiktig Khaya

투바어로 암각화 및 암각 글씨라는 뜻을 가진 ‘비직티크 가야’는 투바인들에게 매우 신성시되는 지역이다. 투바인들은 이 지역의 정령들이 사람들에게 암각에 글을 써서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고 믿었다. 비직티그 카야는 투바의 서쪽 지역 산맥과 험치(Khemcik)강 유역에 비직티그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 주변에 위치한다. 서에서 동으로 뻗어 있는 비직티그 카야 산맥의 남쪽과 남서쪽 표면에는 다양한 암각화가 그려져 있다. 비직티그 카야는 수백 년간 샤머니즘과 기타 다른 종교 의식이 행해졌던 종교적 사원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이 지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비직티그 청동기 그리고 철기 스키타이 시대와 관련된 많은 묘사들이 그려져 있다. 다양한 동물들, 새, 그리고 천상계, 지하계, 그리고 지상계 등 삼층 세계가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지역 토착 사회와 고대 샤머니즘의 풍부하고도 복잡한 신화적 요소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실제로 14세기 투바인들에게 불교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교 사원

이 건립되었으며 이 불교 사원의 벽에서는 티베트어, 중국어, 위구르어, 몽골어로 쓰인 텍스트들이 발견되었다. 이 텍스트 중 일부는 1953년 중국학자이자 민족지학자인 잇츠(R. F. Itz)에 의해 해독되었으며, 나머지는 이후 일본인 연구자 마츠모토 테츠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비직틱 카야

● 다국어 표기 Bizhiktig Khaya / Бижиктиг-Хая(투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илуновская, М., “Бижиктиг-хая – языческое святилище и буддийская кумирня”. Сокровища культуры Тувы. Москва: Научно-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издательский центр. С:92-94. 2006.

I C144 | 비추린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강인욱 ● 라틴 문자 Bichurin

러시아의 동방학을 개창한 투르크 계통의 추바시인이다. 안키프 비추린(1777년~1853년)의 본명은 니키타 야코블레비치 비추린으로 타타르 공화국의 일원인 투르크 계통의 추바시인이었다. 특히 1807년~1821년에 북경교회사절단으로 가서 19세기 중국학을 개창하고, 나아가서 러시아의 동방학을 열었다. 아울러 중국 기록에 남겨진 다양한 투르크 계통의 역사를 번역함으로써 러시아의 투르크사 연구에 기반을 만들었다.

어원 기원, 연대기 등 비추린의 역사 연구는 중국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티베트, 몽골, 극동, 만주, 시베리아를 그 지역적인 범위로 하고, 연대적으로 정사가 기록되는 가장 이른 고대(즉, 한나라)에서부터 중세에 이르는 시기였다. 그는 자신의 고대 중앙아시아 연구의 목적을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가는 교류의 역사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제공해서 향후 러시아에서 중국을 이해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자 했다. 그에 따라 중국 북방에 있는 다양한 투르크계의 민족들에 대한 역사들도 번역되었다. 1851년에 간행된 『중앙아시아 역사 사료집』이



비추린의 초상화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중국 북방의 여러 지역 역사를 담아낸 것은 바로 이러한 그의 노력을 잘 보여준다.

얀키프 비추린은 주로 한문 사적이 기록된 중국 주변의 이 민족들에 대한 자료를 번역했다. 그의 번역은 지금도 학계의 소중한 자료로 쓰인다. 또한, 비추린은 당시 청나라의 연구를 위하여 다양한 문헌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양성해서 북경 사절단을 중국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중심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의 영향은 현재의 연구자뿐 아니라 당시 그의 뒤를 잇는 다른 동방학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비추린도 먼저 중국의 역사, 지리적인 지명을 공부해서 지역에 대한 기반을 다지고 그 다음에 법률, 의학, 경제, 화폐학, 종교학 등으로 그의 관심을 넓혔다. 물론, 이러한 모든 작업의 기반이 되는 것은 사전이니, 중국어와 만주어의 사전을 계속

정리했다. 한편, 중국, 티베트, 몽골의 주요 도시와 지명에 지도 작업을 병행했다. 비추린의 관심은 중국이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였다. 티베트, 몽골, 한국 등 그가 관심을 기울인 지역은 바로 러시아에서 중국에 이르는 모든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비추린의 저서는 정치적인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러시아에 동방 지역은 결코 먼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이웃이며 청나라의 쇠퇴와 함께 그 공백을 메꾸려 하는 정책의 기본적인 텍스트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정 러시아는 이미 18세기 초반에 중국을 포함한 유라시아 일대의 기본적인 역사지리적인 정보를 얻었다. 동방 진출에 앞서서 그가 체계화시킨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은 궁극적으로 제정 러시아가 극동 지역과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비추른
- 다국어 표기 Я.Бичури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추바시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AUtA>

● 참고문헌(오프라인) Бичурин Я., Описание Чжунгарии и Восточного Туркестана в древнем и нынешнем состоянии. Переведено с китайского монахом Иакинфом. Ч. I—II. — СПб, 1829.

Бичурин Я., Историческое обозрение ойратов или калмыков с XV столетия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 СПб, 1834.

I C145 I 비케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Bike I, III

비케 유적은 알타이 공화국 카툰(Катунь, Katun) 강변에 위치한다. 알타이 동부 지역으로 1988년~1991년에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연구소가 발굴했다. 카툰강의 강변을 따라서 같은 등고선 높이에서 남북 방향으로 무덤이 3열로 분포한다. 강과 무덤은 직교되도록 배치되었다. 비케 3유적은 무덤 14기, 비케 II유적은 무덤 3기가 열을 이루고 있다. 비케 1유적은 무덤 4기가 1열을 이루고 있고 그 외에 작은 무덤은 주변에서 산재하고 있는 형태로 배치되었다. 유적에서는 동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아파나시예보 문화 무덤 7기, 초기 철기 시대인 초기 스키타이 시기(기원전 8세기~기원전 7세기) 무덤 1기와 스키타이 시대 마지막 단계(기원전 4세기~기원전 3세기)의 무덤 17기, 흉노-사르마트 시기의 무덤 20기, 투르크 시대 무덤 2기가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투르크 시대 무덤은 2기로 9호묘와 12호 무덤이다. 9호묘는 무덤의 상부가 검은 화산돌로 덮여 있는데 직경 7m, 높이는 0.2m이다. 그 아래에 타원형의 무덤 구덩이(직경 360cm×280cm, 깊이 75cm)안에 북쪽은 무덤의 주인공과 남쪽에는 말 1필이 함께 매장되었다. 주인공의 머리는 동향이고 말은 서향으로 하고 있다. 주인공의 왼쪽 팔 주변에는 활과 화살, 허리띠, 화살통의 부속품 등이 출토되었다. 말은 재갈과 재갈멈치, 등자를 착용했고, 복부 부근에서는 철부도 함께 나왔다. 12호묘는 9호묘와 무덤 구조와 크기가 거의 같다. 무덤 구덩이의 남쪽에는 말이 매장되었으나, 죽은 사자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말은 다른 유물 없이 철제 도끼만 확인되었다. 알타이 지역에서 흉노가 멸망하고 투르크 제국(7세기)이 들어서기 전의 유적이 존재한다. 이 시기의 유적은 말의 등자가 아직 사용되지 않은 코크파쉬 단계와 개마와 금속

제 등자가 사용되는 쿠디리게 단계로 구분된다. 전자는 3세기~5세기 중반, 후자는 5세기 중반~7세기이다. 비케 유적은 금속제 등자가 사용되면서 알타이에서 투르크 제국이 들어서기 전 쿠디리게 단계(5세기 중반~7세기)의 유적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비케 1, 비케 3

● 다국어 표기 Бике I, III(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쿠디리게, 비케

● 참고문헌(오프라인) Кубарев В. Д. Бике I, III: погребальные памятники скифской эпохи Средней Катуня // Древности Алтая: ИЛА, № 7, 2001, pp.120~145.

Кубарев Г.В. Культура древних тюрок Алтая(по материалам погребальных памятников). Новосибирск: Изд-во ИАЭТ СО РАН, 2005, 400 с.

I C146 | 빅토르 쇼그자포비치 콧-올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공연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Viktor Shogzhapovich Kok-ool

빅토르 쇼그자포비치 콧-올은 샤먼 집안 출신 어머니와 하카스 전통 가옥 생산업과 관련된 일을 하던 아버지 사이에서 1906년 3월 1일 투바 외뵤르(Övür) 지역의 토르가릭(Torgğalığ) 마을에서 태어나, 1980년 2월 20일 투바 공화국 수도 키질에서 사망했다. 콧-올은 18세까지 목동으로 일을 하다 이후 투바 인민공화국 인민혁명군에 소집되었다. 1928년 8월 그는 동방 노동자 공산주의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유학길에 올랐다. 그는 이 학교에서 국가 행정 직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연극에 관심을 갖게 되어 대학을 졸업한 이후 모스크바에 있던 국립 루나차르스키 공연예술대학교(A. V. Lunacharskiy Devlet Tiyatro Sanatı Enstitüsü)에 입학했으며, 1933년 고국 투바로 돌아온 빅토르 콧-올은 첫 희곡을 쓰고 출판했다. 평소 투바인들의 샤머니즘에 관심이 많았던 콧-올은 많은 민속 전설, 이야기, 신화를 극작품으로 집필했는

데, 그의 대표작 ‘하이르안 봇(Hayiraan bot)은 오늘날에도 투바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다. 빅토르 콕-올은 무당(샤먼)의 내면과 외면 세계를 희극어로 전달하고자 했다. 콕-올은 투바 라디오 극장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작가, 시인, 작가, 및 연극 배우로 알려져 있다.

콕-올은 전통 민속 문화를 희극을 통해 새로운 전문 예술로 전환시키는 일종의 가교 역할을 했으며 전통 샤머니즘의 모습과 더불어 자연에 대한 동경을 그의 작품을 통해 반영하고자 했다. 그의 작품들은 현재까지도 투바 희극장에서 계속해서 상영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빅토르 쇼그자포비치 콕 올
- **다국어 표기** Viktor Shogzhapovich Kok-ool / Виктор Шогжапович Кок-оол(러시아) Viktor Shogzhapovich Kök-ool / Виктор Шогжапович Кёк-оол(투바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ZIAiv80DR34>
- **참고문헌(오프라인)** “Актёр и драматург – сын шаманки Виктор Шогжапович Кок-оол.”, Сокровища культуры Тувы. Москва: Научно-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издательский центр. С:284-285. 2006.

I C147 I 빌게 카간 비문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물 ● 유형 소분류2 비문
- 집필자 이양희 ● 라틴 문자 Bilge Khagan Inscription

빌게 카간 비문은 오르콘/오르혼 비문(Orkhon inscriptions)으로 알려진 튀르키예에서 가장 오래된 비문 가운데 하나이다. 오르콘 비문이라는 이름은 이 비문들이 몽골 지역 오르콘 강 유역 일대에서 발견되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오르콘 비문의 주요 비문들은 유역 인접 지역에 존재하는 쿨 티킨(Kültikin, 732년) 비문과 빌게 카간(Bilge Kağan, 735년) 비문, 그리고 톤유쿱(Tonyukuk, 716년) 비문이다. 이 비문들은 튀르키예의 최초 기록 유물로서 곱투르크, 즉 돌궐 시대(682년~744년)에 남겨진 것이다.

빌게 카간 비문은 군주 빌게 카간(Bilge Kağan)이 734년 사망하고, 이후 그의 아들 텡그



빌게 카간 비문
 빌게 카간 비문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리 카간(Tengri kağan)에 의해서 735년에 세워졌다. 높이 3.8m의 비석에는 동쪽면에 41줄, 남쪽과 북쪽면에 15줄의 비문이 돌궐 문자(튀르키예어)로 새겨져 있으며, 서쪽면은 중국어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훼손되었다. 쿨 티킨 비문과는 약 1km 떨어진 거리에 있으며, 빌게 카간 비문의 북쪽면 첫 8줄은 쿨 티킨 비문의 남쪽면 첫 11줄의 글귀를 인용했다. 이러한 인용구와 더불어 쿨 티킨의 죽음 이후의 사건에 관해서도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이 비석은 다른 비석들에 비해 훼손도가 높아 비문의 중간중간이 비어 있다. 비문은 빌게 카간과 그의 조카인 율룩 티킨(Yollug Tigin)이 남긴 어록들을 수록하고 있다. 돌궐 시대 18년간 나라를 통치한 군주 빌게 카간은 재상 톤유쿱과 그의 형제인 쿨 티킨과 함께 국가를 통치하며 얻은 모든 경험을 이 비문에 담았다. 오르콘 비문으로는 총 6개의 비문이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문으로 앞서 언급한 톤유쿱, 쿨 티킨, 빌게 카간 비문이 많이 거론된다.

투르크사의 최초의 기록물인 이 비문들을 통하여 돌궐 문자를 연구할 수 있으며, 추바시어와 사하어(야쿠트어)를 제외한 오늘날 사용되는 투르크어의 대부분의 언어가 돌궐어에 기반하기 때문에 언어학적 연구의 측면에서 그 중요도가 상당히 크다. 뿐만 아니라 위 세 비문은 나라를 이끄는 재상과(톤유쿱) 군주를(쿨 티킨, 빌게 카간) 찬양하고, 새로운 세대들에게 남기는 교훈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정치적 성향의 텍스트로서 내용적 측면에서도 많은 연구가들에 의해 분석되고 있다. 빌게 카간 군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빌게 카간 비문에서도 나라를 이끄는 통치자,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담고 있는 내용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통치자로서 그 의무를 계

승하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통치 권력을 바탕으로 백성을 다스리며 어떠한 의무와 책임을 지니는지, 그리고 흠어진 부족을 통합하고 백성들을 통솔하며 권위를 지켜야 하는 모습 등이 묘사되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빌게 카안 비문
- 다국어 표기 Bilge Kağan Yazıtı(튀르키예어), Bilge Kagan Inscription(영어)
- 연관 검색어 오르콘 비문, 돌궐 문자, 추바시어, 야쿠트어, 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2/29/Bilge_Khagan_monument_Mongolia.JPG/800px-Bilge_Khagan_monument_Mongolia.JPG
비문 사진 및 원문의 튀르키예어 번역본
<http://www.orhunyazitlari.com/bilge-kagan.html>
돌궐 문자, 라틴어본, 해독본
<https://www.turkbitig.com/bilgekagan.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Akar, A., *Türk dili tarihi*. İstanbul: Ötüken Neşriyat, 2005.

I C148 | 빌리 방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기타 ● 나라 독일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Willy Bang Kaup

빌리 방 카우프(Willy Bang kaup, 이하 방:Bang)는 1869년 1월 9일 독일 베젤에서 많은 신학자를 배출한 유서 깊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학창 시절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았던 방(Bang)은 당시 유명한 동양 학자였던 플레이셔(Fleischer)의 권유로 벨기에 루벵 가톨릭대학교의 동양어 교수 샤를 드 갈레즈(Charles de Garlez)에게서 페르시아어와 아베스타어를 배웠다. 방(Bang)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방(Bang)은 1880년 게자 쿤(Geza Kuun) 백작이 라틴어로 출판한 ‘쿠만의 서’에 매료되어 언어적 측면에서 쿠만의 서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후 출판, 원문 설명을 곁들여 재출판을 한



THE ENTERLUDE OF YOUTH
NEBST FRAGMENTEN DES PLAYE
OF LUCRES UND VON NATURE

HENRY MEDWALL, WILLY BANG, WILLY BANG-KAUP

『The Enterlude of Youth Nebst Fragmenten Des Playe of Lucres Und Von Nature (English and German Edition)』 표지
Source: <https://www.amazon.com/>

다. 1893년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빌헬름 톰슨의 오르콘 비문 해독은 언어에 관심이 많았던 방(Bang)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고, 실제로 이는 방(Bang)이 자신의 연구 주제를 투르크학으로 전향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방(Bang)은 베를린에서 프레드리히 빌헬름 칼 뮐러(Friedrich Wilhelm Karl Müller), 알버트 아우구스트 폰 르콕(Albert August von Le Coq)과 함께 중앙아시아에서 고고학 발굴을 통해 발견된 고대 위구르 문자로 씌여진 투르크어 문서들을 연구했다. 그 결과 뮐러의 Uigurica, 르콕의 Manichaica, 방의 Turkische Turfantexte(1권~5권: 안네마리 폰 가바인과 함께 집필; 6권: 안네마리 폰 가바인과 레쉬트 라흐메티 아라트 집필)이 출판되었고, 이 책들은 고대 위구르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필수 기본서로 자리잡았다. 방은 이전까지 이슬람학에 의존하던 오리엔탈리즘의 틀 안에서 아랍어-페르시아어-투르크어를 분류했다. 위구르어 연구의 창시자라고 불렸던 방은 1934년 10월 8일 65세를 일기로 베를린에서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윌리 방, 윌리 방 카우프, 빌리 방 카우프
- 연관 검색어 고대 위구르 문자, 안네마리 폰 가바인, 쿠만의 서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bang-kaup-willy>
- 참고문헌(오프라인) Vahit Türk, “Willy Bang Kaup”, *Bizimkülliye*, 18, 2017, pp.5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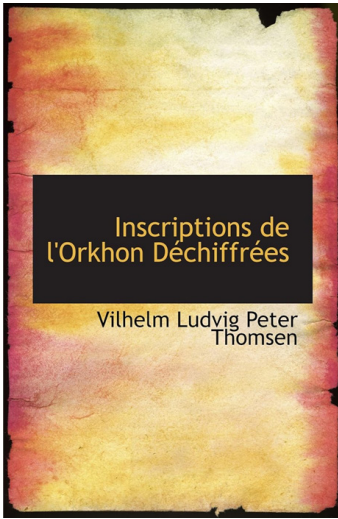
I C149 | 빌헬름 루드위그 피터 톰슨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기타 ● 나라 덴마크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Vilhelm Ludwig Peter Thomsen

빌헬름 톰슨은 1842년 1월 25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태어났다. 빌헬름 톰슨이 5살이 되던 해, 그의 아버지가 란데르스(Randers)로 전근을 가게 되면서 빌헬름 톰슨도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 1859년 17세가 되던 해, 그는 부친의 권유로 1859년 코펜하겐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철학에 관심을 두고 있던 빌헬름 톰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철학과로 전과를 했다. 어려서부터 외국어 학습에 뛰어난 재능과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던 빌헬름 톰슨은 유럽 언어뿐만 아니라 그는 산스크리트어, 아랍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등 16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빌헬름 톰슨은 이러한 언어적 지식을 바탕으로 비교 언어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고전 언어와 북유럽 언어 철학까지 공부하기 시작했다. 빌헬름 톰슨은 1867년부터 1893년까지 주로 비교 언어학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출판을 했는데, 특히 박사 과정 당시 핀란드에 잠시 머물며 핀란드어에 대한 비교 연구를 한 것이 언어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1871년 그는 코펜하겐대학교에서 언어학 부교수, 1875년에는 정교수가 되었고, 1876년 덴마크과학아카데미의 회원이 되었다.



빌헬름 루드위그 피터 톰슨 흉상(코펜하겐 대학교)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Inscriptions de L'Orkhon Déchiffrées
(오르콘 비문 해독)』 표지
Source: <https://www.amazon.com/>

빌헬름 톰슨은 덴마크의 비교 언어학 창시자로 꼽히며, 그가 평생 전념했던 연구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수십 개의 언어에 정통했던 언어학자 빌헬름 톰슨은 당시 자신과 같이 위대한 학자로 평가받던 프레드리히 빌헬름 라들로프와 함께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발견된 비문 해독을 (본의 아니게) 경쟁하게 되고, 1893년 12월 15일 덴마크왕립아카데미 회의에서 최초 발견 이후 171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했던 정체불명의 룬 문자가 고대 투르크인들의 언어, 돌궐어였다는 점을 밝혀낸다.

빌헬름 톰슨은 비문 해독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때문에 그의 오르콘 비문과 관련된 연구 성과 정리는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그사이 라들로프는 1894년과 1895년에 걸쳐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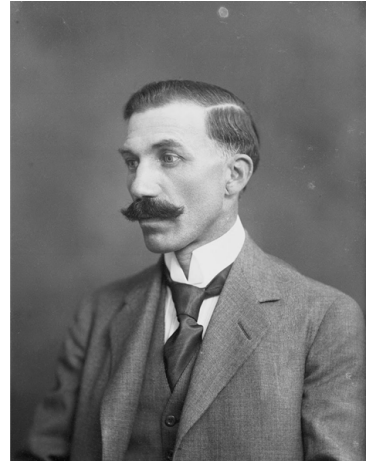
연구 결과들을 보완하고 발표한다. 1896년 다시 건강을 회복한 빌헬름 톰슨은 라들로프의 연구에서 발견된 오류와 결함들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오르콘 비문의 완벽한 해독을 완성한다. 1896년, 빌헬름 톰슨의 오르콘 비문 해독은 또다시 전 세계 투르크 학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빌헬름 톰슨은 1927년 5월 12일 코펜하겐에서 사망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빌헬름 톰센, 빌헬름 톰슨, 빌헬름 피터 톰슨, 빌헬름 피터 톰센, 루드위그 톰센, 루드워 톰센, 루드워 피터 톰슨
- 다국어 표기 Томсен, Вильгельм(러시아어), イルヘルム・トムセン(일본어), فيلهلم تومسن(아랍어)
- 연관 검색어 오르콘, 프레드리히 빌헬름 라들로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1/1f/Vilhelm-Thomsen_01.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Veysel Karaca, “Vilhelm ludwig Peter Thomsen”, *Bizimkülliye*, Sayı.72, 2017, pp.107~108.

I C150 | 빌헬름 피터 그린베크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기타 ● 나라 덴마크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Vilhelm Peter Grønbech

빌헬름 피터 그린베크는 1873년 6월 14일 덴마크 동쪽에 위치한 보른홀름섬에서 태어났다. 그는 1890년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문헌학을 전공했으며, 왕립도서관에서 근무하며 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린베크는 1902년 '투르크 역사 음성학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08년 코펜하겐 대학교 영문학과 부교수로 임용되었다. 이후 그는 종교사 강의를 하며, 함께 『원시종교(Primitive Religion, 1915)』, 『북유럽 신화와 전설(Nordiske Myter og Sagn, 1929)』, 『헬레니즘(Hellenismen: I-II, 1939)』, 『석가모니(Buddha, 1952)』 등의 작품을 집필했다.



빌헬름 피터 그린베크
Source: <https://kalliope.org/>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빌헬름 그론베치
- 연관 검색어 추바시어, 야쿠트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islamansiklopedisi.org.tr/gronbech-vilhelm-peter>
- 참고문헌(오프라인) A. A. Kononov, *Očerk istorii izučenija tureckogo jazyka*, Leningrad 1976, p.48.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연구용역 개요

사업명

토대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명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과제번호

NRF-과제번호 2018SIA5B4060291

연구기간

2018.7.1. ~ 2023.6.30.

연구수행기관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책임자 & 대표집필자

오은경 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소장

집필자

강덕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 명예교수

강인욱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근식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명예교수

김재윤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홍중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연구교수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대우교수

송경근 전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교수
 양민지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교수
 우덕찬 부산외국어대학교 터키·중앙아시아학과 교수
 이수정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특임강의교수
 이영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특임강의교수
 이은정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이주연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장주영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
 조성금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최선아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
 추영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 HK연구교수
 황영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Guzal Mihrayeva(구잘 미흐라예바)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문학과 박사수료

집필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배드리한 애흐메들리) Baku Slavic University(Azerbaijan) 교수
 Əli Şamil(엘리 샤밀) National Academy of Science(Azerbaijan) 교수
 Nükhet Okutan Davletov(누크헤트 오쿠탄 다블레토브) Cappadocia University(Turkey) 교수
 Metin Turan(메틴 투란) KIBATEK(Cyprus-Balkans-Eurasia Turkish Literature Institute) 회장
 Vaqif Sultanlı(와기프 술탄르) Baku National University (Azerbaijan) 교수

멀티미디어 자문위원

Jabbor Eshonqulov(잡보르 에손쿨로프)
 Literature Museum named after Alisher Navoiy(Uzbekistan) 관장

표기법 자문위원

손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과 교수
 연규석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명예교수
 윤시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 연구소 초빙 연구원

Aziza Bekmatova(아지자 벡마토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 전임교수

Қайрат Жадыра(카이라트 자디라) L.N. Gumilyov Eurasian National University(Kazakhstan) 교수

감수

김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박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객원교수

손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교수

연상흠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강사

자료 번역

최정안 Erciyes University(Turkey) 박사수료

Leyla Masimli(레이라 마심리) 인하대학교 교육학 박사

DB 전문가 자문 및 실무 작업

전정훈 동덕여자대학교 정보과학대학 교수

김현정 서울대학교 언어학 박사

이성지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행정 담당 조교

유경혜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홍한해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이연정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집필진 및 자문위원 소개

<대표 집필자 & 편집위원장>



오은경

한국의국어대학교 터키어과를 졸업하고 튀르키예 하제테페 대학교에서 비교문학과 튀르키예 문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한국학중앙연구원 초빙연구원으로 연구하면서 박사 후 과정(Post-doc)을 마쳤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구비문학 연구로 인문학 국가박사학위(Doctor of Science)를 취득했다. 튀르키예 국립 앙카라대학교와 우즈베키스탄 니자미 사범대학교에서 한국학을 강의했다. 현재는 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이며,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 소장이다. 주요 저서는 『이슬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베일 속의 여성 그리고 이슬람』, 『튀르키예 한국전쟁문학론(튀르키예어)』, 『20세기 튀르키예와 한국 소설 속의 여성(영어, 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한국과 우즈베크 영웅서사시·신화, 주몽과 알퍼므쉬 비교(러시아어, 우즈베크어)』 등이다.

<집필진>



강덕수

한국의국어대학교 노어과를 졸업하고, 위스콘신 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의국어대학교 서양어 대학 노어과 명예교수이자 러시아 북동연방대학교 교수이며, 한국사학 친선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는 『예벤어의 형태와 구조 (한국의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8.1)』, 『The Sakha (Yakut) language: An Analytic Grammar (with G. Torotoev). H Press. 2023』 등이다.



강인욱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졸업하고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분소 고고민족학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및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소장이자이다. 유라시아와 고조선의 고고학이 그의 전공이다. 『우리의 기원: 단일하든 다채롭든』, 『옥저와 읍루』, 『북방고고학개론』, 『강인욱의 고고학 여행』, 『테라 인코그니타』, 『유라시아 역사 기행』 등의 저서와 100여 편의 논문이 있다.



김근식

한국의국어대학교 노어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교수와 한국노어노문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주요 논문으로 『아이트마토프 작품의 주제발전 연구(박사학위 논문)』, 『전환기 러시아 문학출판 연구』, 『90년대 러시아 문학의 개성화 연구』, 『러시아 문학 이데올로기의 향방 연구』, 『러시아 정교회와 반체제 및 민족주의』 등이 있으며, 저서로 『이동 동사를 활용한 러시아어 작문』(1999), 역서로 『하얀 배』(1983, 아이트마토프), 『공산주의의 종언』(1992, 야코블레프, 공역), 『아버지 金』(1994, 아나톨리 김) 등이 있으며, 러시아어로 번역한 『천둥소리』(1999, 김주영)가 있다.



김재윤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졸업 후 러시아과학아카데미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부교수이다. 주요저서는 『접경의 아이덴티티: 동해와 신석기문화』, 『교과서 밖의 역사: 유라시아 초원 스키타이 문화의 미래와 여신상』, 『환동해 문화권 북부지역의 선사문화: 연해주선사고고학개론』 등이 있다. 역서는 『러시아연해주와 극동의 선사시대』(2018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수상), 『러시아 연해주의 성(城)유적과 고대 교통로』가 있다.



김흥중

중앙대학교 노어과를 졸업하고, 게르첸 러시아 국립사범대학 러시아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러시아 CIS 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은 「러시아 모더니즘 문학과 몽타주」, 「러시아 각색영화의 특수성과 문화적 의미」, 「자마찐의 '예술 산문 기술 강의: 연상의 시학과 세계 인식」, 「러시아-소비에트 튀르크 문학 연구의 성과와 의미」, 「일본 태양의 근원과 소비에트 오리엔탈리즘」 등이 있다. 2004년부터 러시아 문학, 지역학, 예술 이론 관련 연구 및 강의하고 있다.



박현도

서강대(종교학, 학사), 캐나다 맥길대(이슬람학 석사, 박사수료), 이란 테헤란대(이슬람학, 박사)에서 공부했다. 현재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대우교수로 재직 중이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국가개항정보 자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예방교육 전문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술로 Studies in Islamic Historiography(공저, Brill, 2019), 『이슬람의 모든 것: 이슬람에 관한 122개의 질문과 대답』(공역, 바오, 2020) 등이 있다.



송경근

한국의국어대학교 아랍어과를 졸업했고, 이집트 알 아즈하르 대학교 역사와 문명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이슬람학회 회장, 조선대학교 외국어대학 아랍어과 학과장, 동 대학 부학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중동지역 연구』(조선대학교 출판부, 2000), 『케임브리지 이슬람사』(공동번역, 시공사, 2002), 『고등학교 아랍 문화』(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 2003),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의 성장, 투쟁, 사회적 역할 및 제도권 진입에 관한 연구」, 「오만의 이슬람과 그 전망」, 「몽골의 동부 이슬람 세계의 침입」, 「한국의 이슬람사」, 「중국의 이슬람」, 「기독교와 이슬람의 역사적 관계」 외 다수가 있다.



양민지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 졸업 후 동 대학교에서 터키문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터키 국립 에르지예스대학교 터키어문학과에서 투르크민속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중해 지역원 산하 인문학 센터장을 맡고 있다. 지중해 지역 문명교류 및 투르크 민속에 대해 연구 중이다. 『터키를 가다(공저, 2018)』, 『투르크 지역 연구(공저, 2018)』, 『지중해문명교류사전(공저, 2020)』, 『7인의 전문가가 본 시칠리아의 문명 교류(공저, 2021)』, 『동지중해 결혼 문화와 전통(공저, 2022)』, 『아시아 카펫문화 연구(공저, 2022)』 등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우덕찬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튀르키예 하제테페 대학교에서 역사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튀르키예어(터키어)전공 교수 및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중앙아시아사 개설』, 『지역연구와 세계 단위론』, 『지역연구의 방법』, 『터키어 표준교재 A2』, 『터키어 표준 교재 B2』, 『튀르키예어 속어사전(TÜRKÇE DEYİMLER SÖZLÜĞÜ)』 등 10여 편의 저역서와 60편의 논문이 있다.



이수정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같은 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동·아프리카학 박사를 취득했다. 육군3사관학교에 강의전담 교수로 근무했고, 현재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의 무슬림 역사와 이주 무슬림을 주로 연구한다. 대표 저서로는 『타인을 기록하는 마음』이 있고, 대표 논문으로는 「악셀 호네트 '인정투쟁' 관점으로 본 한국 내 이주 무슬림의 생존 전쟁」, 「난민의 식탁(Refugee Cuisine): 안보를 넘어 공존의 범주로」가 있다.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 졸업 후 동 대학에서 터키언어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튀르키예 앙카라 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특임강의교수로 터키어를 가르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인지의미론, 대조언어학, 외국어로서 튀르키예어 교육이며, 『Kavramsal Metafor Ve Metonimi Üzerine Uygulamalar (2023)』의 집필진으로 참여하였다. 저서로는 『처음 배우는 튀르키예(터키)어 (한국외대, 2023)』가 있다.



이영희

동의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튀르키예 앙카라대학교 역사학과에서 오스만 제국 데브쉬르메 제도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에서 특임강의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주된 연구는 오스만 제국 데브쉬르메 제도, 베지리아잠(Vezir-i a'zam) 관련이며, 현재 일 칸 붕괴 이후 중동지역의 국제정치적 변화 과정 및 오스만 제국-사파비 제국 관계사를 연구하고 있다.



이은정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오스만 제국사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이며 아시아언어문명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Guild Dynamics in Seventeenth-Century Istanbul: Fluidity and Leverage (Leiden: Brill, 2004)』,『오스만 제국 시대의 무슬림-기독교인 관계(민음사, 2018)』, 역서로는『마셜 호지슨의 세계사론: 유럽, 이슬람, 세계사 다시보기(사계절, 2006)』,『메흐메드 알리: 오스만 제국의 지방 총독에서 이집트의 통치자로(일조각, 2016)』가 있다.



이주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의 동양사학과에서 석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전공은 중앙아시아사이며, 그중에서도 페르시아어로 된 사료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박사과정 중에 이란 테헤란 대학교 부설 어학기관인 데흐호더에서 어학 과정과 문학 과정을 수료했으며, 박사논문으로 14세기 후반에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점령했던 아미르 티무르의 역사서, 『승전기』를 역주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장주영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튀르키예 국립 하제테페대학교에서 튀르키예어-한국어 비교언어학으로 석사, 동 대학 투르크학 연구소에서 언어학(고대 투르크어)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에서 전임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우송대학교에 출강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고대 투르크어, 튀르키예어, 언어학이다. 저서로는『나 혼자 간다! 여행 터키어(문예림, 2016)』,『평등한 언어 세상을 위한 시작 터키어 첫걸음(언어평등, 2020)』,『단단한 언어 성장 튀르키예어(터키어) 초중급(언어평등, 2023)』이 있다.



조성금

중아시아 불교회화 및 불교 도상의 기원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성신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를 마친 후(2003),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천산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 연구'로 박사(2013)를 마쳤다. 현재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미술학과 등에서 불교회화 및 동서 미술 교섭사를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실크로드의 대제국 천산 위구르왕국의 불교회화(진인진, 2019)』가 있다.



최선아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를 졸업하고, 튀르키예 국립 앙카라대학교에서 미술사로 석사와 박사를 받았다. 동덕여대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했다.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에 출강하고 있다. 주로 건축사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문명 교류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저서로는 『투르크-알타이: 터키 중아시아 몽골의 사회와 문화(공저)』, 『투르크-중앙아시아: 투르크민족의 문화 이야기(공저)』 등이 있다.



추영민

카자흐스탄의 L.N 구밀료프 유라시아 국립대학교에서 지역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과 특임강의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The Model of Interethnic Communication of Kazakhstan-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APK)』, 『South Korea and Kazakhstan: Particularities of Cultural and Humanitarian Cooperation』, 『소련 붕괴 이후 KVN 변천 및 확대 과정을 통해 본 21세기 중앙아시아 방송 대중문화 현상의 특징과 변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이 있다.



황영삼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국제관계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획득했다. 러시아학술원 산하 러시아역사연구원(모스크바) 객원연구원(1996), 알파라비 카자흐 국립대학교 한국학과(알마티) 초빙교수(2005년~2006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책임연구원(1999년~2005년)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이다. 주요 저서로 『지신허에서 모스크바까지 -고려인 동포 쉽게 이해하기 (ebook, 유페이퍼, 2023)』, 『1인치의 장벽을 넘어서- 독립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사회 (공저, 2020)』 등이 있다. 현재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역사와 고려인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Mihrayeva Guzal
Nuralievna

구잘 미흐라예바 누르알리에브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니자미 사범대학교 한국어학과 졸업했다.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201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2019), 현재는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

배드리한 애흐메들리. 바쿠 슬라브 대학교 아제르바이잔 문학 교수이며, 아제르바이잔 국립아카데미 니자미 갠재비 문학연구소 아제르바이잔-아시아 센터장이다. 『사비트 레흐만의 풍자성 연구(Sabit Rehmanın satirası)』, 『아제르바이잔 풍자문학 발전의 과제들(Azərbaycan satirasının inkişaf problemləri)』, 『20세기 아제르바이잔 문학사(XX əsr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아제르바이잔 디아스포라 문학의 구조와 문제점 그리고 성격(Azərbaycan mühacirət ədəbiyyatı. Təşəkkülü, problemləri, şəxsiyyətləri)』의 문학이론과 아제르바이잔 문학에 관한 다수의 저술과 논문이 있다.



Əli Şamil

엘리 샤밀. 1973년 아제르바이잔 국립대학교 저널리즘 학부를 졸업했다. 1998년부터 아제르바이잔 국립 과학 아카데미 민족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2007년부터 대외관계부서장을 맡고 있다. 『북사이프러스(Quzey Kıbrıs, 2001)』, 『위구르, 가가우즈, 북사이프러스 투르크인들의 민족과 문학(Uyğur, qaqauz, Quzey Qafqaz türklərinin folkloru və ədəbiyyatı, 2011)』, 『카쉬가이 민족과 민족(Qaşqaylar və onların folkloru, 2020)』외에도 전 세계 20여개 국에서 20편의 저서, 100편이 넘는 학술 논문 그리고 200여 편의 칼럼을 집필했다.



Nükhət Okutan
Davletov

누크헤트 오쿠탄 다블레토프. 하제테페 대학교 투르크학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카파도키아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샤머니즘, 고대 투르크 비문, 이슬람 이전 투르크 문화, 투르크 및 그리스 신화에 대한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권 사르으 한: 하카스 여성 서사시 번역(Kün Sarıǵ Han: Bir Hakas Kadınının Destanı adlı destan çevirisi, 공저, 2021)』, 『하카스 투르크 족의 샤머니즘과 죽음(Hakas Türklerinde Şamanizm ve Ölüm, 2021)』 등이 있다.



Metin Turan

메틴 투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키예프 국립대학교에서 투르크 문학을 강의했으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튀르키예 이을드즈(Yıldız) 공과 대학교 예술과학부에서 민속문학을 가르쳤다. 현재는 KIBATEK(사이프러스·발칸·유라시아·튀르키예 문학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아시옥 웨이셀의 삶과 예술(Aşık Veysel-Yaşamı ve Sanatı, 1992)』, 『민속 문화(Halk Kültürü, 2005)』, 『코르오울루의 삶과 시(Koroğlu Hayatı-Şiirleri, 2017)』, 『카르스 민속문화와 문학(Kars Halk Kültürü ve Edebiyatı, 2019)』 등이 있다.



Vaqif Sultanlı

와기프 술탄르. 아제르바이잔 바쿠 국립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 문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바쿠 국립대학교에서 아제르바이잔 문학사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표 저서로는 『메메트 에민 레슬자데의 문학세계(Mehmet Emin Resulzade'nin edebi dünyası, 1993)』, 『어려운 길을 걷는 자(Ağır yolun yolçusu, 1996)』, 『자유의 지평선(Azadlığın ufukları, 1997)』, 『아제르바이잔 디아스포라 문학(Azərbaycan mühaceret edebiyatı, 1998)』, 『문학이론 단면(Edebi nazari illüstrasiyalar, 2000)』, 『아제르바이잔 문학비평(Azərbaycan edebi tenkidi, 2012)』 등이 있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III

Encyclopedia of Turkic Humanities III

1쇄 인쇄 2023년 12월 11일

1쇄 발행 2023년 12월 11일

저자

오은경, 강덕수, 강인욱, 김근식, 김재윤, 김홍중, 박현도, 송경근, 양민지, 우덕찬, 이수정, 이양희, 이영희, 이은정, 이주연, 장주영, 조성금, 최선아, 추영민, 황영삼, Guzal Mihrayeva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 Əli Şamil, Nükhet Okutan Davletov, Metin Turan, Vaqif Sultanlı

편집위원

오은경(위원장), 류수, 장주영, 최선아

편집·교정·교열

류수(총괄), 심명석, 하윤정, 박세화, 유현우, 이주희, 전기준

표지 & 북 디자인

이재성

발행처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디자인·인쇄

위애드컴

출판등록

제 2017-000010호

전자책 ISBN

발권 979-11-985841-4-4 (05030)

세트 979-11-961536-3-2 (05030)

©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2023

-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사진의 재사용은 엄격히 제한합니다.
-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인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2018.7.1~ 2023.6.30, NRF-과제번호 2018SIA5B4060291)의 결과물이며, 그 연구비로 제작되었습니다.
- 잘못된 내용 수정이나 보완 요청 등 이 책에 관한 모든 문의는 이메일 eurturc@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매품

9 791198 584144 05030
ISBN 979-11-985841-4-4 (PDF)
ISBN 979-11-961536-3-2 (세트)

©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2023